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연구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혜 진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혜 진

김혜진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한 주요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조사연속구성체는 많은 한국어 학습자가 오류를 나타내고 사용의 다양성도 높지 않은 언어 항목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자 오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원리나 의미에 대한 설명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문장 안에서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의 자료로 모어 화자 말뭉치는 '21세기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였고 학습자 말뭉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사용하였으며 텍스트의 유형은 설명문으로 한정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는 약 108개의 조사연속구성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과 결합 순서를 살펴본 결과, 결합의 순서는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보조사2' 혹은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구조격조사'를 따르는 규칙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의미격조사와 보조사1은 '의미격조사+의미격조사', '보조사1+보조사1'과 같이 동일한 조사 부류 내에서 상호 중첩이 가능했다. 그리고 위의 조사 결합 순서에 따라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 사이의 상호 결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주로 이 두 조사 부류의 작용역이 모두 확장적인 특성에 따라 작용역의 충돌을 피하고자 격조사가 생략되는 현상에 기인했다.

아울러 조사연속구성체는 후행 조사가 ‘선행 명사+조사’ 및 문장 이상으로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이 항목에 중점을 두고 후행 조사의 부류에 따라 전체 항목을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구조격조사, 의미격조사, 보조사1, 보조사2’ 후행 유형으로 전체 조사연속구성체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대상으로 각 조사연속구성체의 의미 구조와 관용적 사용 양상 및 맥락적 특성을 ‘형식, 의미, 사용’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비추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을 비교한 결과 미사용한 항목이 많다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외에도 ‘형식, 의미, 사용’의 측면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오류를 나타냈다. 첫째, ‘형식’ 측면에서는 ‘조사의 형태 오류, 선택 오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간의 대치 오류, 넓은 작용역과 관련된 조사의 생략/과잉 사용의 오류,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를 나타냈다. 둘째, ‘의미’와 관련해서는 ‘비교·대조’ 의미의 언어 항목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고, ‘관용적 표현’에 대한 오류와 미사용이 많았다. 셋째, ‘사용’에 관해서는 문어성, 격식성과 관련된 오류나 강조 표현의 미사용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류의 개선과 언어 표현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분석한 조사연속구성체의 ‘형식, 의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중간 언어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학습자 오류의 양상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의 교육 내용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교수법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법 항목에 대한 지식을 의사소통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명시적인 문법 설명이 함께 제시되는 의식고양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급 한국어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기 위한 원리를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은 말뭉치와 같은 실제성 있는 자료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연속구성체의 전체를 다룬 것은 아니므로 분석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항목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주요어 : 한국어, 조사연속구성체, 말뭉치, 사용 빈도, 작용역, 조사 결합의 원리, 의식고양과제

학 번 : 2013-31087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 4
2.1.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원리에 대한 연구 ····· 4
2.2.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연구 ····· 10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2
3.1. 연구 자료 ····· 13
(1) 모어 화자 말뭉치 ····· 13
(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 15
3.2. 자료 분석 방법 ····· 20
(1) 빈도 산출의 절차와 방법 ····· 20
(2)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분석 방법 ····· 21
3.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2

Ⅱ. 예비적 고찰 ····· 24
1. 조사연속구성체의 개념과 분류 및 의미 요소 ····· 24
1.1. 조사연속구성체와 합성조사의 개념 ····· 24
1.2. 조사의 분류 ····· 29
(1) 조사 분류의 체계 ····· 29
(2) 조사연속구성의 특징을 고려한 분류 ····· 31
1.3. 각 조사의 의미 ····· 37
(1)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 접속조사 부류의 의미 ····· 37
(2) 보조사1과 보조사2 부류의 의미 ····· 41
2. 조사연속구성체 결합의 원리 ····· 44
2.1. 조사의 부류와 연속 구성의 순서 ····· 44
(1) 어순에 반영되는 후치사적 특성 ····· 46
(2) 각 조사의 작용역 ····· 48

2.2. 조사연속구성의 실현 양상 ····· 49
(1) 의미격조사의 조사연속구성 ····· 50
(2)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의 조사연속구성 ····· 51
(3) 예외적 결합을 나타내는 '까지, 만'의 의미·기능 ····· 55
2.3. 정리 ····· 60

Ⅲ.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62

1. 조사연속구성체의 분포 ····· 63
1.1. 모어 화자 말뭉치의 자료적 특성 ····· 63
(1) 설명문과 문어 통합 말뭉치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 63
(2) 설명문과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 ····· 66
1.2.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분포 ····· 68
(1)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 68
(2)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 ····· 70
(3) 단일 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 ····· 71
1.3.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다양성 비교 ····· 73
(1)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과 미사용한 구성 ····· 73
(2) 학습자가 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개수와 빈도 ····· 76
2. 모어 화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79
2.1. 구조격조사의 강조 표현 및 통사·의미·기능 부가 ····· 80
(1) 주격조사 '이/가[1]' 후행 ····· 80
(2) '을/를' 후행 ····· 83
(3) 보격조사 '이/가[2]' 후행 ····· 86
(4) '의' 후행 ····· 88
2.2. 의미격조사의 통사·의미·기능 부가 ····· 94
(1) '으로/로' 후행 ····· 94
(2) '처럼, 과/와, 보다, 만큼[1]' 후행 ····· 95

2.3. 보조사1의 어휘적 의미·기능 부가 ····· 99
(1) ‘까지’ 후행 ····· 99
(2) ‘만’ 후행 ····· 100
(3)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 ····· 105
2.4. 보조사2의 확장된 의미·기능 부가 ····· 107
(1) ‘도’ 후행 ····· 107
(2) ‘은/는’ 후행 ····· 118
(3) ‘이나/나, 이야/야’ 후행 ····· 130
2.5. 정리 ····· 135
3.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139
3.1. 구조격조사의 강조 표현 및 통사·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과 오류 ····· 139
(1) 주격조사 ‘이/가[1]’ 후행 ····· 140
(2) ‘을/를’ 후행 ····· 142
(3) 보격조사 ‘이/가[2]’ 후행 ····· 142
(4) ‘의’ 후행 ····· 144
3.2. 의미격조사의 통사·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 ····· 149
(1) ‘으로/로’ 후행 ····· 149
(2) ‘처럼, 과/와, 보다, 만큼[1]’ 후행 ····· 151
3.3. 보조사1의 어휘적 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 과잉 사용과 오류 ····· 151
(1) ‘까지’ 후행 ····· 151
(2) ‘만’ 후행 ····· 151
(3)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 ····· 155
3.4. 보조사2의 확장된 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과 오류 ··· 156
(1) ‘도’ 후행 ····· 157
(2) ‘은/는’ 후행 ····· 166
(3) ‘이나/나, 이야/야’ 후행 ····· 176
3.5. 모어 화자는 사용하지 않은 조사연속구성 ····· 179
(1) 조사 선택의 오류 ····· 179

(2)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 182
(3) 적절한 구성 원리가 적용된 항목 ····· 188
3.6. 정리 ····· 191
4. 모어 화자와 학습자 사용 양상의 비교 ····· 194
4.1.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사용과 오류율 비교 ····· 194
(1) 구조격조사 후행 ····· 194
(2) 의미격조사 후행 ····· 199
(3) 보조사1 후행 ····· 201
(4) 보조사2 후행 ····· 203
4.2. 학습자의 사용에 나타난 오류와 미사용의 유형 ····· 209
(1) '형식'에 관한 오류 ····· 209
(2) '의미'와 관련된 오류와 미사용 ····· 212
(3) '사용'과 관련된 오류와 미사용 ····· 213

Ⅳ.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의 구성과 방안 ····· 217
1. 조사연속구성체와 관련된 기존의 교육 내용 검토 ····· 217
1.1. 한국어 교재 분석 ····· 217
(1) 분석 대상 교재의 목록 ····· 217
(2) 조사연속구성체가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양상 ····· 219
(3)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별 분포 ····· 223
1.2. 문법서 및 학습자 사전의 내용 분석 ····· 232
(1) 한국어 문법서 검토 ····· 232
(2) 학습자용 사전 검토 ····· 234
2.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 236
2.1. '형식, 의미, 사용' 요소의 통합적 제시 ····· 238
2.2. 학습자 언어의 반영 ····· 240
2.3.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고려한 교수법의 적용 ····· 245
(1) 과제 기반 교수 - 의식고양과제 ····· 245
(2) 조사연속구성체 교육의 실제 ····· 248

Ⅴ. 결론 및 제언 ····· 254

참고문헌 ····· 257

[부록] ····· 269

1.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정규 빈도 ····· 269
2.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 ····· 272
3. 문어 통합 말뭉치와 설명문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 ····· 275

Abstract ····· 277

표 목 차

[표 Ⅰ-1] 모어 화자 말뭉치 목록 ····· 13
[표 Ⅰ-2] 문어 통합 말뭉치의 구성 ····· 14
[표 Ⅰ-3]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분석 대상 텍스트 ····· 17
[표 Ⅰ-4]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분석 대상 텍스트 ····· 17
[표 Ⅰ-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언어권별 구성 ····· 19
[표 Ⅰ-6] 오류 분석을 위한 코딩의 예 ····· 21
[표 Ⅰ-7]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2
[표 Ⅱ-1] 구조격조사 부류의 의미 ····· 38
[표 Ⅱ-2] '에'와 '에서'의 의미(국립국어원 2005:562-563) ····· 39
[표 Ⅱ-3] 의미격조사와 접속조사 부류의 의미 ····· 41
[표 Ⅱ-4] 보조사1 부류의 의미 ····· 42
[표 Ⅱ-5] 보조사2 부류의 의미 ····· 43
[표 Ⅱ-6] 각 조사의 결합 위치 ····· 45
[표 Ⅱ-7] '만'의 작용역과 의미 ····· 56
[표 Ⅱ-8] 후치사적 속성, 작용역에 따른 조사연속구성의 순서 ····· 61
[표 Ⅲ-1]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63
[표 Ⅲ-2]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 구성된 비율 ····· 67
[표 Ⅲ-3]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 ····· 69
[표 Ⅲ-4]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가 연속 구성된 비율 ····· 70
[표 Ⅲ-5] 학습자: 단일 조사의 오류율과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 ····· 71
[표 Ⅲ-6]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개수 ····· 73
[표 Ⅲ-7] 학습자: 사용/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격조사 후행) ··· 74
[표 Ⅲ-8] 학습자: 사용/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보조사 후행) ··· 75
[표 Ⅲ-9] 학습자: 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개수와 빈도 ····· 76
[표 Ⅲ-10] 모어 화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80
[표 Ⅲ-11] 모어 화자: '을/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83

[표 Ⅲ-12] 모어 화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86
[표 Ⅲ-13] 모어 화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88
[표 Ⅲ-14] 모어 화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94
[표 Ⅲ-15] 모어 화자: ‘처럼, 과/와[1], 보다, 만큼[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96
[표 Ⅲ-16] 모어 화자: ‘까지’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99
[표 Ⅲ-17] 모어 화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100
[표 Ⅲ-18] 모어 화자: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105
[표 Ⅲ-19] 모어 화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107
[표 Ⅲ-20] 모어 화자: ‘에도’가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 108
[표 Ⅲ-21] 모어 화자: ‘에서도’가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 112
[표 Ⅲ-22] 모어 화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118
[표 Ⅲ-23] 모어 화자: ‘에는’이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 119
[표 Ⅲ-24] 모어 화자: ‘에서는’이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 121
[표 Ⅲ-25] 모어 화자: ‘으로는’이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 123
[표 Ⅲ-26] 모어 화자: ‘이나/나, 이야/야’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 130
[표 Ⅲ-27] 작용역의 범주별로 적용된 조사의 의미 ····· 137
[표 Ⅲ-28]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140
[표 Ⅲ-29]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40
[표 Ⅲ-30]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41
[표 Ⅲ-31]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142
[표 Ⅲ-32]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42
[표 Ⅲ-33]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44
[표 Ⅲ-34]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144
[표 Ⅲ-35]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44
[표 Ⅲ-36]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49
[표 Ⅲ-37] 모어 화자와 학습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150

[표 Ⅲ-38] 학습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50
[표 Ⅲ-39] 학습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150
[표 Ⅲ-40]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151
[표 Ⅲ-41]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51
[표 Ⅲ-42]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55
[표 Ⅲ-43] 모어 화자와 학습자: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155
[표 Ⅲ-44] 학습자: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56
[표 Ⅲ-45] 학습자: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56
[표 Ⅲ-46] 모어 화자와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157
[표 Ⅲ-47]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57
[표 Ⅲ-48]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65
[표 Ⅲ-49]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166
[표 Ⅲ-50]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66
[표 Ⅲ-51]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75
[표 Ⅲ-52]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176
[표 Ⅲ-53]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 177
[표 Ⅲ-54]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 179
[표 Ⅲ-55] 학습자: ‘조사 선택의 오류’ 유형에서 항목별 빈도 ····· 180
[표 Ⅲ-56] 학습자: ‘조사 선택의 오류’ 유형에서 오류의 양상 ····· 180
[표 Ⅲ-57] 학습자: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유형에서 항목별 빈도 ··· 182
[표 Ⅲ-58] 학습자: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유형에서 오류의 양상 ··· 183
[표 Ⅲ-59] 학습자: ‘적절한 구성 원리가 적용된 항목’의 빈도 ····· 188
[표 Ⅲ-60] 학습자: ‘적절한 구성 원리가 적용되 항목’에서 오류의 양상 ····· 188
[표 Ⅳ-1]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의 목록 ····· 217
[표 Ⅳ-2] 한국어 교재의 문법 표제항에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219

[표 Ⅳ-3] 문법 표제항에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의 상세 항목 ····· 219
[표 Ⅳ-4]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구조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223
[표 Ⅳ-5]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225
[표 Ⅳ-6] 한국어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 227
[표 Ⅳ-7]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1) ····· 229
[표 Ⅳ-8]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2) ····· 230

그 림 목 차

[그림 Ⅰ-1] 문법 교육의 요소(Larsen-Freeman 2013:38) ····· 2
[그림 Ⅰ-2]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의 빈도 분석 절차 ····· 20
[그림 Ⅱ-1]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순서 ····· 44
[그림 Ⅲ-1]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유형별) ····· 64
[그림 Ⅲ-2]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유형별) ····· 67
[그림 Ⅲ-3]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유형별) ····· 71
[그림 Ⅲ-4] 학습자: 단일 조사의 오류율과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급별 총합) ····· 72
[그림 Ⅲ-5] 모어 화자: 조사연속구성체에서 '도'의 의미 ····· 117
[그림 Ⅲ-6] 모어 화자: 조사연속구성체에서 '은/는'의 의미 ····· 130
[그림 Ⅲ-7] 모어 화자: 조사연속구성체에서 '이나/나'의 의미 ····· 134
[그림 Ⅲ-8]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194
[그림 Ⅲ-9]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을/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196
[그림 Ⅲ-10]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197
[그림 Ⅲ-11]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198
[그림 Ⅲ-12] 모어 화자와 학습자: '으로/로, 처럼, 과/와[1], 보다, 만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200
[그림 Ⅲ-13] 모어 화자와 학습자: '까지'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201
[그림 Ⅲ-14]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202

[그림 Ⅲ-15]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203
[그림 Ⅲ-16] 모어 화자와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1) ····· 204
[그림 Ⅲ-17] 모어 화자와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2) ····· 205
[그림 Ⅲ-18]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1) ····· 206
[그림 Ⅲ-19]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2) ····· 207
[그림 Ⅲ-20]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 208
[그림 Ⅳ-1]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구조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 224
[그림 Ⅳ-2]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 226
[그림 Ⅳ-3] 한국어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 228
[그림 Ⅳ-4]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 231
[그림 Ⅳ-5] 조사연속구성체의 ‘형식, 의미, 사용’ 요소 ····· 240
[그림 Ⅳ-6] 조사연속구성체의 ‘형식, 의미, 사용’ 요소 -학습자 언어 특성 통합 ····· 242
[그림 Ⅳ-7] 의식고양과제를 활용한 교수 절차 ····· 249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55 : 7-8	보조사1은 의미격조사에 선행한다.	보조사1은 의미격조사에 후행한다.
p. 69 : 3-6	이 중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 연속구성체 사용은 카이제곱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모어 화자의 사용이 더 많았으며, 반면에 보조사1과 보조사2에서의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로 학습자가 더 높았다.	문장 전체 삭제
p. 114 : 18-22	예문 68) 아래 출처 없음.	(홍사만 2002:210)
p. 237 : 13	형태+의미+사용	형식+의미+사용
p. 239 : 18	형태	형식
p. 239 부록	표 안의 '-' 표시	0

Ⅰ.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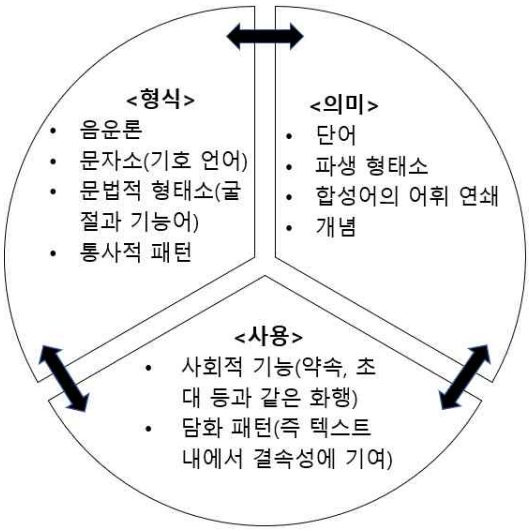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특성을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그 구성상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개별 조사의 학습은 중급 이후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나, 이때 조사의 연속 구성에 대한 원리나 제약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학습자 글쓰기의 오류율은 중·고급에서 꾸준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사연속구성체는 두 개 이상의 조사가 연이어 결합해 사용된 것이므로(고영근·구본관 2018:162) 이 같은 구성에는 각 조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이 모두 반영된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많은 경우 조사의 결합과 관련된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각 조사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오류를 많이 나타낸다(김호정 2012, 이승연 2019, 2021 등). 즉, 예를 들면 '으로도'의 경우 의미격조사인 '으로/로'가 선행하고 보조사인 '도'가 후행해야 하며, 이 반대의 순서로는 결합하지 않는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 결합이 가능한 조사의 범주 또한 제약되는 경우가 많아, 예컨대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도'의 결합인 '이도'와 같은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자 문장에서는 조사 간 결합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조사연속구성체를 적절히 결합했다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조사 중 의미 특징과 관련되는 하나의 조사 형태에만 집중하여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른 형태에서는 오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조사의 특성을 설명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언어 항목의 사용은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설명문으로 맥락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모어 화자와 학습자 자료의 속성을 유사하게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은 라슨 프리만(Larsen-Freeman 2003)의 논의와 같이 다음의 세 측면에서 요목화하

고자 한다[1].



[그림 Ⅰ-1] 문법 교육의 요소(Larsen-Freeman 2013:38)

위 '문법 교육의 요소'를 살펴보면, 하나의 문법 항목 안에 형식과 의미, 그리고 사용에 관한 정보가 상호 관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 이를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수에 대입해 보면, '형식'은 조사 결합의 원리와 관련되고 '의미'는 각 조사 항목에 내포된 의미들의 결합 양상과 의미 구조

1) 본 연구는 조사연속구성체에 대한 교육 내용을 문법 교수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조사는 크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와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분류된다(고영근·구본관 2018:147). 따라서 문법과 어휘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법'을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 혹은 원리로 정의하고(고영근·구본관 2018:3) 이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체화해 보면, 조사는 문법 항목에 더 가까운 편이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예외적인 관점에서 닫힌 체계에 있어야 한다. (예: 긍정형과 부정형, 단수와 복수 등), 2) 일반적 부류의 특성과 관련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가산성, 동사, 형용사 등), 3) 문법 항목은 전체 체계 안에서 비례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예: 긍정형과 부정형의 대응)(Halliday 2004:46-47). 조사는 1)과 관련해 격조사와 보조사의 선택, 그리고 조사의 이형태 사이의 선택 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2)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내재된 의미가 문장의 주체, 대상, 처소, 소재, 강조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어휘적 의미에 비해 상위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사는 문법 항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예컨대 'there'에 관해 교수한다고 하였을 때 '형식'은 'there은 주어 자리에 위치한다.'와 같은 특성과 관련되며, '의미'는 'there은 존재, 위치 등을 의미한다.'와 같은 특성을 말하고, '사용'은 'there은 신정보 소개의 기능을 한다.'와 같다(Larsen-Freeman 2013:38).

및 관용적 사용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통합 관계와 관련되며, '사용'은 설명문의 다양한 강조 표현 및 문어체적 특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법 항목의 '형식'으로부터 '사용'에 관한 요소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문법 교육 내용의 구안을 목표로,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 구안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 같은 항목을 교수하기 위한 학습자 수준은 중·고급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조사연속구성체라는 언어 항목의 특성상 개별 조사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연속 구성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별 조사의 학습이 대부분 중·고급 시기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교육과정과 관련해 김중섭 외(2017)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각 급별로 교수해야 할 문법 평정의 목록으로 조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개수는 초급 29개, 중급 23개, 고급 8개이다. 대부분의 조사가 중급에서 이미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김중섭 외 2017:453-46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한 교육 내용은 한국어 교재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에 관한 오류율은 중·고급 이상이 되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예컨대 황종배 외(2007)에서는 초급과 고급의 중국어, 일본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구조격조사와 부사격조사가 결합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김호정(2012)에서는 중급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과잉, 대치, 생략의 각 오류 유형별로 약 14-48%의 오류율을 나타냈다고 하였다(김호정 2012:394). 이외에 동양효(2012), 왕단단(2020), 이승연(2019, 2021) 등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조사연속구성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며,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연속구성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언어 항목인 합성조사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조사연속구성체를 구성하는 각 개별 조사의 부류와 의미, 그리고 조사 간 결합에 관여되는 원리를 알아본다. **셋째**, 모어 화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사용 특성을 분석한 후 이에 적용되는 조사 결합의 원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조사의 통사·의미·기능적 특성을 정리한다. **넷째**, 학습자 말뭉치에 사용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및 이에 관련된 오류를 분석하여 모어 화자의 조사 사용 양상과 비교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교육의 내용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적용이 가능한 주요 원리를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조사의 결합 원리를 살펴본 연구와 이를 교육에 응용하기 위해 수행한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1.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원리에 대한 연구

조사연속구성의 원리에 대해 고찰한 선행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조사 전체나 특정 조사를 중심으로 통사·의미적 특징과 조사의 분류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둘째, 조사의 통사나 의미 중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연속구성의 원리를 살펴본 연구이다.

우선 조사의 통사·의미적 특징이나 분류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로 김재욱(2001)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에서 조사 간 상호 결합에 대한 규칙을 제시해야 할 필요에 따라 조사 결합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선행하는 조사는 주로 격 기능을 나타내고 후행하는 조사는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격조사 '이/가'와 같이 격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가 후행하는 것은 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조사들이 강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된 조사의 상호 결합 규칙은 '부사격조

사+보조사+주격,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부사격조사', '보조사+부사격조사', '보조사+주격, 목적격조사'이다.

다음으로 황화상(2003, 2012)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결합하는 데에는 각 조사의 작용역이 관여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조사 간 결합의 원리 및 순서를 설명하였다. 작용역(scope)은 조사의 의미나 기능이 문장의 어느 성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범주로, 두 조사의 작용역이 서로 같고, 문법적 기능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는 조사가 상호 중첩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두 조사의 작용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적절하기만 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결합하며 작용역이 좁은 조사가 넓은 조사에 선행한다(황화상 2003:120). 이 같은 작용역의 개념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조사연속구성의 원리로서 언급되어 왔으나 황화상(2003, 2012)은 이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임동훈(2004)은 한국어의 조사를 문법격조사, 의미격조사, 후치사, 첨사로 구분하고[3] 이 부류들이 상호 중첩될 때의 순서와 이유를 밝혔다. 즉 후치사는 기원적으로 보어를 취하는 명사나 동사가 문법화한 경우가 많아 보어와 유사한 통합상의 특징을 나타내어 선행 명사에 가까이 위치하고, 한편 첨사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전제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을 표상하므로 그 작용역이 선행 명사를 넘어 관련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후행한다고 하였다(임동훈 2004:127-130).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각 조사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고려해 조사 간 결합의 순서와 이유를 밝혔다. 결합 순서는 대체로 '의미격조사+후치사+문법격조사' 혹은 '의미격조사+후치사+첨사'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 조사의 전반을 연속구성의 원리와 관련해 체계화한 연구로서 통사 의미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유하라(2005)는 한국어 문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목록을 추출하여 가능한 조사 간의 결합과 가능하지 않은 결합 및 원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생략이 가능한 조사가 사용된 경우는 유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고, 이외 일반적인 조사 간 결합의

3) 이때 후치사 부류는 이후 살펴볼 이남순(1996)의 특수조사 부류와 거의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후치사와 첨사는 보조사1, 보조사2 부류에 해당한다.

순서에는 의미적 상관성이 관여한다고 하였다. 즉, 선행 명사구와 의미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항목이 선행하고, 관련성이 적은 격조사와 같은 항목은 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말뭉치 자료로 다양한 조사들 사이의 연속 구성 양상과 제약의 실제 예를 추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각 개별 조사의 관점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김광해(1981)는 관형격조사 '의'의 분포를 토대로 다양한 의미와 통사적 환경에서의 실현 양상을 검토하며, 다른 조사에 '의'가 후행하는 현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가 다른 조사에 후행할 때 생략이 불가능한 이유는 생략될 경우 그 구성 자체가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로 해석되어, 전체 문장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이 같은 조사 복합 구성에서 '의'가 나타내는 효과는 통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예: 자유로부터의 도피), 또한 문체적으로 문어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광해 1981:48-50). 따라서 '의'의 사용 환경과 통사적 역할을 체계화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언어 사용상의 의의까지를 밝혀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정한(2012) 또한 조사 '의'에 초점을 맞추어 '의'의 의미와 통사 기능에 관해 고찰해 보았으며, 이 중 조사연속구성체를 다룬 부분을 살펴보면 '의'는 선행 언어 항목이 특정성(specificity)을 공유할 때 필수적으로 결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특정성은 작용역이 선행 명사구 이내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한정한 2012:48)[4] 작용역이 한정적인 보조사1이나 의미격조사류에는 '의'가 자주 결합하고, 한편 작용역이 확장되는 보조사2 부류에 속하는 조사들과는 상호 결합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조사연속구성체와 관련해 보조사1에 '의'가 잘 생략되지 않는 현상을 '의'의 특정성 의미와 작용역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목정수(2007)는 관형격조사 '의'를 '소유/연결'의 한정 조사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부분이 조사연속구성과 관련된다. 즉, '의'는 '이/

4) 특정성은 명사구의 지시체가 특정되어 있을 때 명사구가 갖게 되는 특성으로, 화자나 청자가 그 명사구에 지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청자가 그 지시체를 식별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한정성(definiteness)이 항상 포함되지는 않는다(한정한 2012:45).

가, 을/를, 도, 은/는'과 같은 조사들과 결합하지 못하며, 다른 조사와의 결합에서 이 조사들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므로, 이 조사들과 같이 보조사적, 비격조사적 용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어학으로의 초대'와 같이 후행하는 '명사'와 공기하는 현상은 형용사형어미(=관형사형어미) '(으)ㄴ, (으)ㄹ' 등이 후행 핵어 명사(head noun)를 요구하는 현상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들과 같이 '의'를 소유 연결의 한정 조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목정수 2007:444). 본 연구는 '의'를 격조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의'의 의미·기능과 분포적 속성은 언어적 실현 양상의 하나로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조사연속구성체와 관련된 통사나 의미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통사나 의미의 한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사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남순(1996)은 한국어의 조사를 격조사, 특수조사, 첨사로 분류하고 이 조사들이 상호 결합할 때 '격조사+특수조사+첨사'의 순으로 결합하는 원리를 제시한 후 그 통사적 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5]. 그 결과 조사 결합의 순서는 주로 언어 항목의 해석 순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즉 통사적으로 어간 명사만이 격 배당을 받아 [어간 명사+격조사]가 우선적으로 해석되는가, 혹은 어간 명사와 특수조사가 연결된 통합체가 격 배당을 받아 [[어간 명사+특수조사]+격조사]로 해석되는가에 따라 결합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격 배당과 무관하게 사용된 보조사들의 경우, 특수조사는 동격절, 첨사는 문장을 끌어들여 축소된 표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각 조사 부류의 통사적 효과를 설명하였다[6].

---

5) 격조사는 체언의 격을 표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들로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특수조사와 첨사는 주로 보조사 범주에 속한 조사를 결합 순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선행하는 것이 특수조사이고, 후행하는 것이 첨사이다.

6) 특수조사는 동격절, 첨사는 문장을 끌어들이는 역할의 예는 다음과 같다.

ㄱ. (석이가 나를 무시하고, 준이가 나를 무시하고 …) 순이<u>조차</u> 나를 무시한다.
ㄴ. 그 아이는 발<u>도</u> 작다. (그 아이는 손도 작다.)
(이남순 1996:222, 224)

위 문장에서 'ㄱ'의 '조차'는 괄호 안에 제시된 '석이가 나를 무시하고, 준이가 나를

김진형(2000)은 조사연속구성체에서 격조사가 통사적인 핵의 위치에 있다는 가정하에 [[명사구+조사]+조사]의 구성은 선행한 '명사구+조사'의 통합체가 구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할 때 나타나는 구조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예외적 결합을 나타내는 '만' 또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서술어와 명사구 사이의 통사적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김진형 2000:68). 이 논의에서 조사연속구성을 선행 '명사구+조사'의 통합체가 구로 해석될 때 나타나는 구조로 파악한 것은 앞서 이남순(1996)에서 격 배당으로 포괄할 수 있는 성분이 우선적으로 결합한다는 주장과 같이 해석의 순서를 조사 결합 순서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편 김진형(2000)은 보조사와 보조사 간의 결합, 의미격조사와 의미격조사 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명시화하지 않고 조사연속통합이 불가능한 원리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김진형 2000:67).

이정훈(2008)은 조사의 통사구조를 문장의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조사가 핵(head)의 기능을 한다는 전제하에(이정훈 2008:450), 선행 명사구는 명사구 자질인 [N] 자질뿐만 아니라 문법 기능과 관련되는 격 자질[uCase][7]이 필요하게 되어 의미격조사가 선행 명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보조사는 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가하는 일종의 수식(modificatoin)으로, 명사구와 격조사와의 관계에 부가되는 성분이므로, 의미격조사에 후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보조사류는 명사구와 의미격조사 단위에 후행해야 하며, 이 관계를 방해할 경우 명사구와 의미격 사이의 관계를 분절시켜 언어 구성을 방해하므로 '책만과 신문'과 같은 구성은 불가

무시하고…'와 같은 '동격절'을 떠올리고 예상하게 한다. 그리고 'ㄴ'에서 '도'는 괄호 안의 '그 아이는 손도 작다'와 같은 '문장'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두 문장의 '조차'와 '도'는 이러한 절이나 문장을 예상하게 하면서도 문장에 직접적으로 모두 표현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축소'의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7) [uCase]의 u는 미명세(underspecification)를 나타낸다. 따라서 '명사구는 [N]자질과 [uCase]자질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곧 '명사구는 문법 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이정훈 2012:452). 따라서 '나는 학교 갔다.'와 같은 사용은 비문법적이 되며(문어에서), '나는 학교에 갔다'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고, 이때 명사 '학교'는 '에'와 같은 문법 기능, 즉 격 자질[uCase] 자질을 지녀야 한다.

능하게 된다. 즉, 명사구에는 격 자질이 우선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만’과 같은 보조사에 의해 차단되지 않아야 하므로 의미격조사가 보조사류에 선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이정훈 2008:466). 이는 한국어 조사 결합의 양상을 선행 명사구와 서술어와의 통사적 관계에 바탕해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로 조사의 의미·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홍사만(1983, 2002)은 본 연구의 보조사1과 보조사2를 특수조사 범주로 묶고 이 범주의 조사들에 관해 명칭과 범주, 전제와 함축, 단정과 기대 등의 의미 의존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중 조사의 연속 구성에 관해서는 어기(base)에 가까운 위치에 올수록 자립성이 강해지며, 의미적으로는 구체적인 의미 특성을 가질수록 선행 명사구에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의미격조사가 선행하는 이유는 명사어의 격표지화는 다른 요소에 우선시되는 통사적 장치이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홍사만 2002:36).

홍기선(2017)은 ‘이/가’와 ‘을/를’을 통제자와 관련된 상황 의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8]. 예컨대 주격조사 ‘이/가’는 ‘상황에서 타자의 통제를 받지 않음’을 의미하고 목적격조사 ‘을/를’은 ‘통제자의 행동, 생각, 감정이 목표하거나 의도되어 도달점 등의 변화가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낸다(홍기선 2017:965-969). 이는 행위자와 구분되는 통제자의 개념을 한국어에 맞게 적용시켰고 이로써 조사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임동훈(2017)은 한국어의 다양한 장소 표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며 ‘을/를’과 장소 표시의 조사가 결합하는 현상에 상(相, aspect)적 의미가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처소를 나타내는 여러 격조사들의 의미를 ‘확장되지 않은 공간의 지점(point)’과 ‘면적이 있는 공간인 지역(area)’으로 구분하고, 본래 ‘을/를’은 ‘지역’ 개념을 표시하는 조사와는 잘 결합하지 않으나 ‘에+를’과 같은 결합이 허용되는 이유는 ‘지역’ 개념을

8) 통제자(controller)는 상황을 시작하거나 끝낼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문장의 행위자보다는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동주(causer)에 가깝다(홍기선 2017:965-966).

나타내는 '에'가 '지점'으로 재개념화된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임동훈 2017:120-107, 117). 이는 격조사의 장소 의미를 상적 의미에 바탕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을/를'과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조사연속구성에 관해 의미와 통사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구, 그리고 통사나 의미 중 한 요소에 더 초점을 두고 그에 관한 조사연속구성의 원리를 살펴본 연구들을 알아보았으며, 이로써 조사의 다양한 속성과 언어적 실현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육에서 이 같은 원리를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자의 언어 특성에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2.2.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연구

교육적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해 살펴본 연구들은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을 살펴본 연구와 이 같은 사용 양상을 토대로 교육 내용의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해 특정 언어권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초점을 둔 연구로 황종배 외(2007)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국인과 일본인, 초급과 고급으로 분류하여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조사연속구성체의 정오를 판단하는 시간은 더 길었으나 정확성은 더 높은 경향성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에서는 두 집단이 모두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어와 같은 비알타이어계 학습자뿐 아니라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언어권의 일본어권 학습자 또한 조사연속구성에 관한 이해를 확대하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윤정(2010)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어와 구어 말뭉치 및 한국어 교재,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시험과 실험 과제를 분석

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의미격조사+첨사', '후치사+첨사'류의 습득이 가장 빠르며 문법격조사에 관한 습득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김호정(2012)에서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자유 서답형 작문 자료 및 제한된 서답형의 글쓰기 과제, 문장 재구성 과제의 자료를 수집해 말뭉치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원인에는 조사 중첩의 편향 및 과잉 양상, 입력의 부재 및 비체계적 특성이 나타난 점을 밝혔으며,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력 강화 방식을 통한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수가 효과적일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승연(2019)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발화 말뭉치를 구축하여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관찰하였으며 이어서 이승연(2021)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에 나타난 조사연속구성을 살펴보고 앞선 이승연(2019)의 결과를 활용하여 각 등급별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과 오류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을 '의미격조사가 선행한 경우, 문법격조사가 선행한 경우, 후치사가 선행한 경우'로 구분해 학습자의 등급별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특정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거나 혹은 그와 같은 분석에서 오류의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교육 내용의 구성에 보다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동양효(2012)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사 결합의 규칙과 의미, 사용 맥락 및 형태·통사적 특성, 그리고 의미·화용적 특성을 고루 살펴보았다. 그 후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목록화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어와 한국어 표현을 비교해 조사연속구성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번역은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 정확히 대응되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조적으로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교육의 내용은 조사 결합의 규칙과 의미 요소에 더 초

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왕단단(2020)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 대상 목록을 등급별로 선정한 후 그에 대한 교육 내용을 예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고,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한 말뭉치의 분석 결과와 교사 인터뷰의 난이도 평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등급별 조사연속구성체를 위계화하였다. 현재 단일 조사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한 위계화 연구는 많으나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해서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원리 및 교육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순서와 제약의 원리를 적용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관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교육 내용화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모어 화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의 원리가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는 이러한 원리를 어느 정도로 응용하는지를 함께 알아보아 교육 내용의 구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상 특성을 구체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은 양적 분석을 포함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의 절차를 주로 따르고 있다.

기술적 연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행 연구 데이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연 발생적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질적 연구와 유사하나, 미리 가설을 세워 연구의 범위를 좁히기도 하며, 그 현상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이끌어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실험 연구의 특성 또한 갖추고 있는 방식이다(Herbert et al., 김지영 옮김 2002:179)[9]. 따라서

9) 특히 언어학 분야에서는 기술적 연구가 종종 빈도를 계측하여 특정 통사 구조의 사용

본고에서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빈도와 특성을 살펴본 방식은 이 같은 유형의 연구에 속하게 된다. 구체적인 말뭉치의 자료 구성 및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연구 자료로 모어 화자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모어 화자 말뭉치로는 조사연속구성체의 의미 구조와 결합 원리의 적용 양상을 분석하였고, 학습자 말뭉치는 모어 화자 말뭉치로 분석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학습자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목적에서 사용한 각 자료의 목록과 구성상의 특징은 주로 '말뭉치의 출처와 목록', 그리고 '말뭉치의 크기'와 관련해서 밝혔으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이에 추가하여 학습자 말뭉치의 '언어권별 비중'을 보였다.

(1) 모어 화자 말뭉치

ㄱ. 말뭉치의 출처와 목록

한국어 모어 화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명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로 이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하여 배포한 자료이다. 여기서 설명문으로 선택한 것은 주로 설명적 산문에 속하는 도서류이며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모어 화자 말뭉치 목록

주석 파일명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어절 수
BTHO0382	한국의 여성환경 운동: 그 역사, 주체, 그리고 운동 유형들	문수홍	아르케	2001	25,959
BTHO0387	한국건축사	주남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69,222
BTHO0396	한국 식품학 입문	이철호, 권태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80,080
BTHO0399	한국어 의미론	박영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42,957
BTHO0405	이재규 교수의	이재규	21세기북스	1999	42,293

양상을 알아보는 등의 귀납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Herbert et al., 김지영 옮김 2002:179).

	재미있는 기업이야기				
전체					260,511

위 자료는 설명문으로 분류한 말뭉치 목록이며 총 어절 수는 대략 260,511 어절이고, 출판 연도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조사는 다른 성분에 결합해 의미나 기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법 항목에 가까우며, 이는 어휘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위 시기의 자료로도 조사연속구성체의 언어 특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료의 선택은 말뭉치로 구성된 자료 중 비교적 최근의 자료로서 설명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부분을 선택하였으며, 세부 주제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학습자 자료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설명문이라는 텍스트의 유형이므로, 글의 내용적 특성이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설명문 말뭉치는 문어 전체 대비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어 통합 말뭉치를 구축하여 자료적 속성을 비교해 보았다. 문어 통합 말뭉치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설명문 및 '서사-역사, 기행, 수필, 소설, 기사-일반, 기사-사설과 오피니언'을 포함하며,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Ⅰ-2] 문어 통합 말뭉치의 구성

텍스트 유형	어절 수
서사	275,296
설명	260,511
수필	263,857
소설	249,838
기사-일반	273,769
신문-사설, 오피니언	258,692
전체	1,581,963

문어 통합 말뭉치는 각 텍스트 유형별로 약 25만-27만 어절 정도이며 전체 말뭉치의 어절 수는 약 158만 개이다. 이를 토대로 '문어 전체'와 '설명문'의 언어 항목별 빈도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설명문 말뭉치의 자료 특성을 알아보았다.

각 조사연속구성체 빈도의 정규화는 전체 형태소 수 대비 분석 대상 항목의 빈도를 1만으로 하였으며, 설명문의 언어 항목 빈도와 문어 통합 말뭉치의 언어 항목의 비교에서는 빈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chi-squared analysis)을 하였다. 이는 표본에서 변수의 범주값에 따라 기대빈도와 관측빈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적합성 검정이다(박성현 외 2004:423).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같은 명목형 변수들 간의 빈도 차이가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보여 줄 수 있으며,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ㄴ. 말뭉치의 크기

분석 대상으로 사용한 자료는 언어 항목의 품사가 태그되어 있는 형태분석 말뭉치이며[10] 말뭉치의 총 형태소 수는 모두 557,363개이다[11]. 이 중 조사에 속한 항목은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 인용격조사, 주격조사, 호격조사, 보조사이다. 한편 설명문 말뭉치의 자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축한 문어 통합 말뭉치의 총 형태소 수는 3,464,666개로 추출되었다.

(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ㄱ.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출처와 목록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s://kcorpus.korean.go.kr/)에서 제공한 '학습자 형태분석 말뭉치'이

10)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 형태 분석은 정확도가 높지만, 이러한 형태소 부착 과정에서는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연구자가 몇몇 항목을 수정하였다. 예컨대 동사와 어미의 결합형 '내게'가 대명사 '나'에 부사격조사 '에게'가 결합한 '나/NP+에게/JKB'로 분석된 경우가 있어, 이를 다시 '내/VV+게/EC'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총 형태소 수는 원 자료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1) 말뭉치의 분석에서 추출된 형태소 중 어휘적이거나 문법적 기능이 없는 형식들은 일정한 기준하에 연구의 편의를 위해 제외시킬 수 있다(Biber & Conrad 2019:64). 본 연구는 전체 항목 중 '명사추정범주 NF, 용언추정범주 NV, 분석불능범주 NA, 줄임표 SE, 붙임표(물결, 숨김, 빠짐) SO, 기타 기호(논리 수학기호, 화폐기호 등) SW, 마침표/물음표/느낌표 SF, 쉼표/가운뎃점/콜론/빗금 SP, 따옴표/괄호표/줄표 SS'를 어휘적이거나 문법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다. 이 자료는 학습자의 국적, 모국어, 한국어 급수, 장르 유형 등을 밝히고 있어 중·고급에 해당하는 3급-6급으로 자료를 선택하였다.

한편 설명문으로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자료에 포함된 장르 유형 정보를 참고하였으며, 2차로 연구자가 글을 읽어 보고 설명문의 특성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글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설명문의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명문의 정의는 어떤 현상을 '시간적, 그리고/혹은 인과적으로 관련짓는 절차'에 따라 문장을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Knapp & Watkins 2005:27)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제보 기능을 목적으로 구조화된 텍스트로 보았다(Brinker, 이성만 역 1994:123-126). 이러한 설명문의 세부 유형은 나겔(Nagel 1961)을 참조한 김수진(2015:675-677)에 따르면 연역적 설명, 확률적 설명, 기능적/목적론적 설명, 발생적 설명의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역적 설명은 인과 법칙에 기반한 자연 과학이나 역사 분야의 기술 방식이며, 확률적 설명은 논리성보다는 확률이나 통계적인 특성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적/목적론적 설명은 주로 '-을/를 위해/하려고' 등의 표현으로 미래의 상태나 사건에 대한 것까지를 언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발생적 설명이란 역사나 특정 집단의 발생에 관해 어떤 주요한 사건을 계기로 그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같은 세부 분류를 참조하여 본고는 글의 목적이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자연 과학이나 역사 분야에 대한 글, 주요한 인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설명한 글을 설명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글의 목적이 설명문에 부합하면서 연역적이나 귀납적으로 확률과 통계 결과를 인용한 글도 설명문으로 포함하였다. 그 결과 중급과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각 120편씩을 수집하게 되었으며, 각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Ⅰ-3]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분석 대상 텍스트

제목(중급)	편 수
자기 나라의 기념일	13
지금 살고 있는 집	9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빌리는 방법, 말레이시아의 전통	6
한국과 고향 문화 비교	5
부산의 축제	4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된 이유, 명절 풍습, 위인, 중국의 기념일	3
고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공공시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국제결혼, 기념일, 꿈풀이나 미신, 나의 방, 도서관에서 책 대여하기, 말레이시아의 미신, 문화, 예절, 자국의 명절 풍습, 태국의 길몽과 흉몽, 태국의 미신, 현대사회와 미신	2
결혼 풍습, 고향 명절, 고향 명절 소개, 고향의 기후, 고향의 음식 소개, 기후,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대만의 미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는 방법, 말레이시아 화교들의 미신, 문화 차이, 베트남의 가족, 베트남의 교육제도, 생활비를 절약하는 법, 서양 크리스마스, 세대 차이, 연령별 바라는 공공시설, 우리나라의 기념일, 이탈리아 관광 명소, 인터넷 정보 검색의 장단점, 자기 나라의 건강식, 주거 방법의 분류, 주거 형태, 중요한 명절, 태국의 전통, 한국 사람의 특징, 한국 주거 문화와 캄보디아 주거 문화의 비교, 한국과 고향의 계절과 날짜 비교, 한국과 고향의 문화 차이, 한국과 고향의 주거 문화 비교, 한국과 자국의 주거 문화 비교, 한국과 자기 나라 비교, 한국의 1인 가구 증가 경향, 한국의 주거 문화와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비교, 할로윈, 현대사회	1

[표 Ⅰ-4]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분석 대상 텍스트

제목(고급)	편 수
사회적 사건	17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와 그 원인, 자국의 역사적 사건	5
남녀 세대에 따른 가치관, 문화유산 소개	4
결혼 풍습, 자국의 풍습, 자기 나라의 역사적 사건, 한국의 난방법	3
님비 현상의 분석, 문화 차이, 성공한 인물, 에너지 보존 법칙,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의 증가가 사회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한국과 자기 나라의 결혼 풍습, 현대의 변화하는 가족, 기회비용	2
1인 가구, 9.11 테러, 가족 형태, 가치관, 고향 소개, 기후변화, 눈을 쳐다보는 것, 님비 현상의 피해와 영향, 다른 나라와 한국 문화, 다양한 형태의 화폐, 대체 에너지 개발, 두 나라 문화의 차이, 문화재 전시회, 문화재 전시회 홍보, 미국의 다양한 사투리, 미국인들의 특이한 딱소리, 베트남 8월 혁명, 베트남 역사적 사건, 보스턴 차 사건, 비 냄새, 샌디에이고의 주거 형태, 생활 속 신기한 현상, 세팍타크로, 소리글자와 뜻글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숟가락과 젓가락, 스위스 마지막 전쟁,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오라는 뜻의 몸짓 언어,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하나, 우즈베키스탄 사투리의 특징, 웰빙, 유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 음주 문화, 이란의 금기 문화, 인간의 가치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터넷 용어, 자국의 표준어와 사투리 비교, 자국의 환경 문제, 존경하는 사람, 지역 이기주의의 예와 극복 방법, 직업관, 체르노빌 원전, 태국 대학교, 태국 동성애 발전,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태국어 남북부의 사투리, 태국의 북쪽 사투리 '카무응', 태국의 사회적 변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한국과 자기 나라의 문화 차이, 한국에서 주의해야 하는 몸짓 언어와 그 이유, 한국의 주거 문화와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비교,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1

ㄴ.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크기

학습자의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추출한 총 형태소의 수는 중급과 고급에서 각기 27,291, 35,349개, 모두 62,640개이다[12]. 조사 항목의 구분은 접속조사, 부사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 인용격조사, 주격조사, 호격조사, 보조사로 모어 화자 말뭉치와 일치한다.

ㄷ.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언어권별 비중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는 조사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이다. 본고는 여러 언어권 중 한국어와 체계가 유사하다고 알려진 알타이 언어권 학습자의 자료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 조사의 사용에서 오류의 빈도가 더 낮아져 일반적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을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13]. 이외의 언어권은 제한하지 않았으며 한 언어권의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미만으로 조정하여 특정 언어권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언어권, 즉 어족의 판단 기준은 『표준』[14]의 해설에 따랐으며, 세부

---

12) 학습자 말뭉치 역시 태깅 오류의 수정 작업을 미리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 자료의 총 형태소 수와 분석 대상 말뭉치의 총 형태소 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수정 내용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대~30대의 남성 보다 여성들이'에서 '보다'는 텍스트를 읽어 보면 동사 '보다'가 아닌, 조사 '보다'를 띄어 쓴 오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말뭉치에는 이 항목이 동사 '보다'와 연결어미 '다'의 결합형인 '보/VV+다/EC'로 분석되어 있어 이를 부사격조사인 '보다/JKB'로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

13) 알타이 어족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이 포함되며 서로 문법 체계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문법 항목의 사용에서 특히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조은숙(2015)의 연구에 따르면 SOV형 언어권인 터키인 학습자와 SVO 언어권인 중국인 학습자 중 한국어와 어순이 다른 중국어권 학습자가 관형사나 부사어 등이 삽입된 문장의 어순에서 더욱 높은 오류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조은숙 2015:103-105). 또한 한송화(2016)에 따르면 일본어권 학습자가 중국어권이나 영어권 학습자보다 조사 '은/는'의 빈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성취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정현(2021)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권 학습자와 달리 일본어권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율이 빈도가 낮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유의미하게 낮은 빈도가 산출되었다고 하였다(이정현 2021:214). 따라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알타이 언어권 학습자의 자료만을 제외하였고 이외의 언어권은 다양하게 자료로 포함하여 가장 일반적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4) 『표준』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언어권별 구성

어족	중급				고급			
	언어	3급	4급	총계	언어	5급	6급	총계
말레이·폴리네시아 어족	말레이어	3	6	9 (7.5%)	타갈로그어	1	-	1 (0.8%)
몬·크메르 어족	베트남어	8	11	19 (15.8%)	베트남어	7	1	8 (6.7%)
셈 어족	아랍어	2	-	2 (1.7%)	아랍어	2	1	3 (2.5%)
함·셈 어족	히브리어	1	-	1 (0.8%)	히브리어	1	-	1 (0.8%)
슬라브어족	-	-	-	-	슬로바키아어	1	-	1 (0.8%)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인도네시아어	2	-	2 (1.7%)	인도네시아어	3	-	3 (2.5%)
인도·유럽 어족	네팔어	1	-	44 (36.7%)	네덜란드어	-	1	46 (38.3%)
	노르웨이어	1	-		독일어	3	-	
	독일어	2	1		러시아어	7	1	
	러시아어	5	7		스페인어	4	-	
	벨라루스어	1	-		영어	17	11	
	벵골어	1	-		페르시아어	2	-	
	스페인어	4	-		-	-	-	
	영어	6	5					
	우르두어	1	-					
	이탈리아어	2	1					
	프랑스어	6	-					
중국·티베트 어족	광둥어	-	2	29 (24.2%)	광둥어	2	7	45 (37.5%)
	중국어	15	12		중국어	17	19	
타이·카다이 어족	타이어	6	2	8 (6.7%)	타이어	11	1	12 (10%)
반투 어족	르완다어	1	-	1 (0.8%)	-		-	-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크메르어	4	-	4 (3.3%)	-	-	-	-
우랄 어족	핀란드어	1	-	1 (0.8%)	-	-	-	-
전체	-	73	47	120 (100%)	-	78	42	1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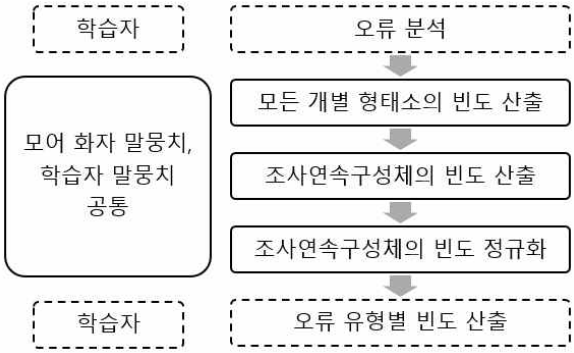
위에서 언어권별 구성은 인도·유럽 어족이 중·고급 평균 약 37%이며, 중국·티베트 어족은 중급이 약 24%, 고급이 약 37%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외에는 10개 어족이 약 1%-15%로 자료에 포함되었다. 등급별 개수는 각기 중급에서는 3급 73개, 4급 47개, 그리고 고급에서는 5급 78개, 6급 42개로, 급별로 120편씩으로 구성되었다.

3.2. 자료 분석 방법

위 자료를 토대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를 산출하고 학습자 오류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빈도 산출의 절차와 방법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는 우선 각 개별 조사의 빈도를 추출한 후 이 중 연속적으로 구성된 항목을 찾는 순서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Ⅰ-2]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의 빈도 분석 절차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산출 과정은 모어 화자 말뭉치의 경우 '모든 개별 형태소의 빈도 → 개별 조사의 빈도 →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정규화' 순으로 하였다. 즉 말뭉치에 나타난 모든 형태소의 빈도를 추출하고, 이 중 각 조사별로 빈도를 정리한 후 다음으로 이 조사 중 조사연속구성체로 사용된 항목의 빈도를 산출하고 정규화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분석은 이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되 전체 절차의 시작과 끝에서 추가적으로 오류 분석과 각 오류의 유형별 빈도 산출을 하였다.

한편 이같이 모어 화자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의 빈도를 모두 정규화하여 비교한 이유는, 영역 간 비교에서는 전체 형태소에서 각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빈도 정규화의 방식은 '목표 언어 항목 빈도/전체 형태소 수×정규화하고자 하는 수'이다(Biber &

Conrad 2019:63). 정규화의 기준은 모어 화자 말뭉치에 비해 빈도가 더 적은 학습자 말뭉치의 형태소 수가 약 3만인 것을 고려하여 1만으로 정하였다.

(2)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분석 방법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분석은 코더(Corder 1976), 고석주(2002) 김호정(2012) 등에서 오류를 분석한 방식을 따라 '대치, 과잉, 생략, 순서'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철자와 관련된 오류인 형태 오류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오류의 유형은 (수정한 조사가 아닌)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를 기준으로, 각 개별 조사별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 '의'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학습자가 '에는'을 사용한 경우 '에'는 대치 오류로 분석하고, '은/는'은 과잉 사용의 오류로 분석하여 '대치·과잉'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오류 유형은 '대치, 과잉, 생략, 형태, 순서' 및 각 유형이 중복된 '대치·생략, 대치·과잉, 형태·과잉, 형태·생략'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은 조사 결합 원리에 부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오류 유형 중 순서의 오류는 자연히 조사의 결합 원리에 부합한 항목들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합하지 않은 것에서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엑셀 파일에 코딩하여 정리하였다.

[표 Ⅰ-6] 오류 분석을 위한 코딩의 예

표본 번호	원 문장	수정한 문장	원 어절	1 조사		2 조사	
6052	미국에는 다양한 사투리	미국의 다양한 사투리	미국에는	에	대치	는	과잉

위 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를 수정하여 코딩한 예이다. '표본 번호'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제공한 표본 번호를 그대로 표시한 것이며, '원 문장'과 '수정한 문장'은 본래 학습자가 작성한 원 문장 옆에 연구자가 수정한 문장을 기록한 것이다. '1 조사, 2 조사'는 작용역이 좁은 선행 조사에서 오류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작용역이 넓은

후행 조사에서 오류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분류한 것이다[15].

이러한 수정의 절차는 먼저 학습자 말뭉치 전문을 인쇄하여 읽어 보며 수기로 2회 수정하였고, 다음으로 이 내용을 엑셀 파일에 입력하며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빈도와 오류율을 산출하였다.

3.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Ⅰ-7]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순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
Ⅱ	기존의 교육 내용 검토	• 자료 분석		• 문헌 자료
Ⅲ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분포 비교	• 빈도 추출	• 자료 분석 • 통계 분석	• 문어 통합 말뭉치 • 모어 화자 말뭉치 • 학습자 말뭉치
	모어 화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분석	• 조사연속구성체의 의미 구조 검토 • 조사연속구성체의 관용성 검토	• 문장 분석	• 빈도 분석 자료 • 모어 화자 말뭉치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분석	• 오류 분석 •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	• 문장 분석	• 빈도 분석 자료 • 학습자 말뭉치
Ⅳ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의 원리 추출	• 문헌 연구 • 자료 분석		• 한국어 교재 • 한국어 문법서와 사전 • Ⅲ의 분석 결과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며 조사연속구성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각 개별 조사의 범주와 의미 요소를 정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언어 항목에 적용되

15) 오류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오류의 유형뿐 아니라 문법과 어휘 혹은 시제나 상 등 언어 체계 중 어느 단계에서 나타난 것인지가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Coder, 신승용 외 옮김 2011:67).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체의 경우 작용역이 좁은 조사와 넓은 조사에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과 빈도 차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이 구분하였다.

는 원리를 후치사적 어순 및 작용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원리가 각 조사의 범주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우선 모어 화자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분포 특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모어 화자 말뭉치의 자료 특성을 문어 통합 말뭉치와 비교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모어 화자 말뭉치의 빈도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사용 빈도 및 미사용(未使用)한 항목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빈도 자료를 바탕으로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을 문장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분석의 중점은 각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별로 의미 구조와 관용적 사용 특징을 알아보는 데에 두었다[16].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는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 양상을 선행 조사와 후행 조사의 작용역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후 급별 향상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교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교재와 문법서, 사전을 살펴보고 이로써 강화해야 할 교육 내용의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 원리는 주로 '형식, 의미, 사용' 정보의 통합적 제시, 학습자 언어의 반영, 적절한 교수법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 의미 구조는 예컨대 '에는'의 경우 [[NP+처소]+지정]과 같은 의미 요소 간의 통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Ⅱ. 예비적 고찰

조사연속구성체는 통사적 구성으로서 여러 개의 조사가 연이어 사용된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결합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합성조사는 조사의 중첩 형태가 이미 어휘화한 항목이므로 조사연속구성체와는 구별되는 형태, 통사, 의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두 항목을 비교해 살펴보며 조사연속구성체 교수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언어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조사연속구성체로 추출된 조사를 대상으로 그 범주와 의미 요소를 살펴보아 이로써 다음 장에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세운다.

1. 조사연속구성체의 개념과 분류 및 의미 요소

조사연속구성체의 개념을 이와 유사한 개념인 합성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조사연속구성체를 구성한 개별 조사를 대상으로 조사의 부류와 의미 요소를 정한다.

1.1. 조사연속구성체와 합성조사의 개념

조사연속구성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적으로 각각의 조사로 볼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조사가 결합해 사용된 것이다(고영근·구본관 2018:162). 한편, 합성조사는 두 조사가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 따라 하나의 언어 항목으로 굳어진 것을 말하여 조사연속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합성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17].

1) … 오랜 옛적부터 한국인들이 김치를 채소가 부족한 겨울철의 저장

17) 조사연속구성체와 유사한 용어는 이외에도 '조사 중첩', '복합조사'가 있다. 김호정(2012)에서 조사 중첩은 합성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도 이같이 두 개 이상의 조사가 중복된 형태를 가리키며 그것이 조사연속구성체인지 합성조사인지 특별히 구분하지 않을 때 조사 중첩의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복합조사는 조사와 조사와의 결합형 뿐만이 아닌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해 구성된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계 활용형인 '이라는, 이거나'와 동사의 활용형인 '보고, 말고' 등의 단일 조사 항목들도 포함된다.

음식으로 사용하여 이로부터 비타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BTHO0396)[18]

위 1)에서 밑줄 친 '로부터'는 출발점을 의미하며 '으로부터'에서 '으로'나 '부터'를 제외하면 '으로부터'의 출발점 의미가 제거된다[19]. 따라서 '으로부터' 전체는 하나의 의미 단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개념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최현배(1935)는 조사연속구성체와 합성조사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두 개의 조사가 통합되어 쓰이는 현상을 포괄하여 '벌린 겹씨의 토씨는 다 토씨와 토씨가 어울려서 된 것'으로 제시하였다(최현배 1935:702-703). 여기서 '겹씨(複詞)'란 둘 이상의 낱말이 서로 겹하여 사용된 한 덩어리이며, 이 중 벌린 겹씨(並列複詞)는 두 씨가 각각의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만 서로 겹쳐서 쓰인 것을 말한다(최현배 1935:687-689). 이 범주 안에는 '까지가, 만이, 으로는'과 같은 조사연속구성체뿐 아니라 '으로부터'와 같은 합성조사도 포함되어 있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성조사는 이규호(2007), 유경화(2015), 한용운(2004) 등에 따르면 '형태, 통사, 의미'의 측면에서 모두 조사연속구성체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20]. 특히 합성조사는 두 항목이 합쳐져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서 기능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합성조사의 조건>

ㄱ. 형태

---

18) 괄호 안의 기호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모어 화자 말뭉치의 출처로 형태분석 말뭉치의 파일명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19) 조사의 표기는 받침의 유무에 따라 단독조사의 경우 '으로부터/로부터'와 같이 이형태를 함께 표시했으며,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은 받침이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으로부터'와 같이 표기하였다.

20) 이규호(2007), 유경화(2015)는 복합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를 구분하였으며 한용운(2004)은 조사연속구성체와 합성조사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조사연속구성체를 통사적 구성으로 논의하며 이를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기능하는 합성조사나 복합조사와 구분한 것이다.

① 합성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는 공시적으로 각 개별 조사의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

② 합성조사는 다른 조사가 개입되는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

ㄴ. 통사

① 합성조사에 후행하는 서술어는 각 개별 조사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② 합성조사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에서 조사와 조사 간의 결합이 먼저 고려된다.

ㄷ. 의미: 합성조사의 의미는 각 개별 조사 의미의 합이 아닌, 제삼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서 제시되는 '형태, 통사, 의미'의 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형태 ①, 합성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는 공시적으로 각 개별 조사의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는 합성조사의 조건 중 유일하게 조사연속구성체도 공유하는 내용이다. 즉, 두 항목 모두 두 개 이상의 개별 조사로 분석이 가능해야 하는데, 예컨대 합성조사인 '으로부터' 및 조사연속구성체인 '에는'은 모두 공시적으로 '으로#부터', '에#는'의 분석이 가능하다[21].

한편 'ㄱ. 형태 ①'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께'는 통시적으로 'ㅅ#긔>ㅅ긔>ㅅ게>께'로 발전되어 왔다. 즉, 이전에는 속격조사 'ㅅ'과 의존명사 '긔'가 연이어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이후에는 이것이 점점 문법화 과정을 겪으며 '께'로 형성되었기에 공시적으로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유경화 2015:57, 76). 따라서 이 '께'는 단일 조사이며 조사연속구성체나 합성조사가 아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조사연속구성체의 속성으로 공시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ㄱ. 형태 ②'의 '합성조사는 다른 조사가 개입되는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의 예는 다음과 같다.

2) 합성조사: … 한국인들이 김치를 채소가 부족한 겨울철의 저장음식으

21) '#'는 단어 간의 경계를 표기한다.

로 사용하여 이로부터/*로만부터… 비타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BTHO0396)

3) 조사연속구성체: 여름과 가을에는/가을에만은 비교적 영양 공급원이 고르게 풍부하지만 …. (BTHO0396)

2)에서 합성조사 '으로부터'는 '으로'와 '부터' 사이에 다른 조사가 개입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로만부터'와 같은 내적 확장이 되지 않는다. 이는 '으로부터' 전체가 하나의 어휘 단위로 인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3)의 '에는'은 조사연속구성체로, '에'와 '은/는' 사이에 '만'이 삽입되는 내적 확장이 가능하다. 이는 '에는'이 확장과 변형이 가능한 통사적 구성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ㄴ. 통사 ①'의 '합성조사에 후행하는 서술어는 각 개별 조사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의 예는 다음과 같다.

4) 합성조사

ㄱ. 한국인들은 김치로부터 비타민을 공급받았다.

ㄴ. 한국인들은 김치?로/*부터 비타민을 공급받았다.

5) 조사연속구성체

ㄱ. 가을에는 겨울에 비해 영양 공급원이 비교적 풍부했다.

ㄴ. 가을에/은 … 영양 공급원이 비교적 풍부했다.

합성조사는 4)의 'ㄴ'과 같이 두 조사를 분리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김치로 … 공급받았다'는 의미적으로 원문장의 '출발점'과는 관계가 없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르게 해석되며, '김치부터 … 공급받았다'는 의미뿐 아니라 통사적으로도 어색한 문장이 된다[22].

그러나 조사연속구성체는 5)와 같이 두 조사를 분리해도 문장의 구성이 크게 어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에는'은 5)의 'ㄴ'과 같이 '에', '은/는' 모두와 호응이 가능하여 '가을에 …영양 공급원이 … 풍부했다.'

22) '으로/로'가 단독으로 쓰일 때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ㄷ. 의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와 '가을은 … 영양 공급원이 … 풍부했다.'가 모두 가능하다[23]. 이렇게 조사연속구성체는 각 개별 조사의 통사 특성이 문장의 서술어와 모두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에'와 '은/는' 둘 중 하나의 조사를 삭제했을 때에도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으며, 다만 삭제된 조사의 의미나 기능만이 제거된다.

'ㄴ. 통사 ②'에서 '합성조사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에서 조사와 조사 간의 결합이 먼저 고려된다.'의 예는 다음과 같다.

6) 합성조사: [김치+[로+부터]]
7) 조사연속구성체: [[가을+에]+는]

합성조사인 6)의 '김치로부터'는 '으로/로'와 '부터'가 '김치'와의 결합에 앞서 먼저 통합된 항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7)의 조사연속구성체는 '가을에'가 먼저 해석된 후 그 전체가 '은/는'과 관련된다. 합성조사는 두 조사가 합쳐진 하나의 어휘 단위로 인식되므로 이 같은 해석 순서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ㄷ. 의미'에서 '합성조사의 의미는 각 개별 조사 의미의 합이 아닌, 제삼의 의미를 나타낸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조사연속구성체인 7)의 '에는'은 의미적으로 '에'의 의미 '시기'와 '은/는'의 의미 '지정'이 합쳐진 '시기+지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합성조사인 6)은 그 전체가 '출발점'을 의미하여 '으로/로'의 '방향/수단/이유' 의미와 '부터'의 '시작점' 의미의 합으로는 해석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합성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의 차이점을 형태, 통사,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속성은 한편으로는 조사연속구성체를 합성조사와 다른 방식으로 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성조사는 전체가 하나의 기억 저장 단위가 되지만 조사연속구성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체는 통사적 구성체로서 결합 자체에 대한 원리와 규칙성, 그리고 그 응용 방안 등에 관해 살펴야 하는 문법 항목의 교

23) '가을은'에 비해 '가을에'는 부사어가 문장의 시작에 쓰여 약간 어색한 느낌을 주지만 이것은 '에'와 서술어와의 호응에서 오는 어색함은 아니다.

육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2. 조사의 분류

(1) 조사 분류의 체계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순서는 각 조사의 범주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말뭉치의 분석에서 조사연속구성체를 구성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를 분류하였다.

ㄱ. 구조격조사 부류: 이/가(주격), 을/를(목적격), 이/가(보격), 의(관형격) (총 4개)

ㄴ. 의미격조사 부류: 과/와(부사격), 께, 께서(주격), 만큼(부사격), 보다, 서(주격), 서(부사격), 에, 에게, 에서, 으로/로, 으로부터/로부터, 으로서/로서, 으로써/로써, 이라고/라고, 처럼, 한테 (총 17개)

ㄷ. 보조사1 부류: 까지, 대로, 마다, 마저, 만, 만큼(보조사), 밖에, 부터, 뿐, 이나마/나마, 조차, 요(종결형)[24] (총 12개)

ㄹ. 보조사2 부류: 도, 은/는, 이나/나, 이야/야 (총 4개)

ㅁ. 접속조사 부류: 과/와[25] (총 1개)

우선 위 목록을 각 조사 범주의 '부류'로 표시한 것은, 이 분류가 조사의 결합 순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합의 순서에는 각 부류의 특징적인 의미·기능적 속성이 모두

24) '요'의 경우 결합 위치는 보조사2와 같지만 의미의 성격이 보조사1에 가까워 보조사1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조사2는 화자의 태도나 강조 등의 용법을 공유하여 넓은 작용역을 포괄하는 성격이 뚜렷하나 '요'는 종결의 의미만을 더해 주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요'는 '가요' 형태가 추출되기는 하였으나 설명문의 직접 인용문 안에서만 사용되어 실제적 사용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5) 본 연구는 조사의 목록에서 '이다'는 제외하였다. '이다'는 일반적인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조사로 언급되기도 하며, 표준 문법에서는 형용사로서 다룬다. 한편 한국어 교육은 주된 참조문법으로 볼 수 있는 국립국어원(2005)에서 '이다'를 동사, 형용사와 묶어 영어의 'be' 동사, 중국어의 '是'와 비교하고 있어 용언의 한 범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표준 문법과 같이 형용사적 활용을 보이는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구본관·황화상 2018:421).

공유된다.

격조사부터 살펴보면, 이 중 구조격조사는 보통 아무런 의미 없이 통사적인 구조에 의해 주어지는 문법 표지이며, 의미격조사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부류들이다(고영근·구본관 2008:186). 구조격조사에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가 포함되고 의미격조사에는 주로 부사격조사가 포함된다.

이 두 부류는 모두 일정한 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것이 구조적 기능만을 나타내는지, 의미를 함께 나타내는지에 따라 조사연속구성에서 순서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즉, 의미격조사는 선행 명사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구조격조사는 선행 명사구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다. 또한 의미격조사는 상호 중첩이 가능하나 구조격조사는 상호 중첩이 불가능한 것도 주된 차이점이다.

한편 보조사1과 2는 모두 보조사 항목들로, 보조사1은 조사연속구성에서 선행하고 보조사2는 후행한다. 보조사1과 보조사2의 용어는 다양한데, 예를 들어 임동훈(2004)은 이를 각기 후치사와 첨사로 구분하였고 이남순(1996)은 특수조사와 첨사로 구분하였으며 채완(1993)은 이 두 유형을 모두 아울러 특수조사로 불렀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자주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국립국어원(2005), 김호정(2012) 등의 연구를 따라 보조사1과 2로 구분하였다[26].

보조사1은 대부분 처음에는 동사였던 언어 항목이 조사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의미의 축소를 겪은 항목들로 본래의 의미 요소를 다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항목이 많다(이규호 2007:72)[27]. 따라서 이 부류는 대부분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보조사2는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공통적으로 의미의 영향력이

---

26) 후치사, 첨사를 가리키는 용어인 'postposition, particle'은 한국어의 조사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7) 예컨대 '부터'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본래 동사인 '븥다'에서 변화해 온 것이다. '븥다'는 본래 『우리말 큰사전』에 따르면 '붙다, 닿다/숙박하다, 딸리다/의지하다, 말미암다/비롯하다, 불붙다'의 약 5개 의미를 가졌으나, '브터'로 부사화하면서 '말미암아, 비롯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후 '출발점이나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 '부터'로 다시 한번 의미가 축소되었다(이규호 2007:72-73).

선행 명사구 이상의 단위로 확장된다.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의 순서에서 항상 후행한다. 이 같은 분포 위치는 구조격조사와도 같아 작용역이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가 서로 결합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조사연속구성의 특징을 고려한 분류

각 개별 조사의 분류는 대부분 『표준』이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지만, 몇 가지 항목은 조사 결합의 순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분류를 변경하였다. 첫째는 '에서, 께서, 서'를 모두 의미격조사로 보았고, 둘째,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의 보조사적 쓰임을 모두 주격조사 안에서 논의하였으며, 셋째, 보격조사 '이/가'는 주격조사와 통합하지 않고 보격으로 분리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서, 께서, 서'는 모두 의미격조사로 분류하였는데, 『표준』에 따르면, '에서'는 단체명사에 결합해 주어를 표시할 때는 주어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며, '께서, 서'는 전체가 주격조사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황화상(2012)에 따르면 '에서, 께서, 서'는 다음과 같이 다른 조사와의 결합에서 주격조사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① 일반적으로 구조격조사는 '만'에 후행하는데 '에서, 께서, 서'는 '만'에 선행하며, ② 구조격조사가 '은/는, 도'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은/는, 도'와도 자유롭게 결합한다. ③ 그리고 이 조사들은 일반적인 구조격조사와 달리 보격조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며, ④ 주격조사 '이/가'가 다시 결합하기도 한다. 다만 이때는 '에서만이'와 같이 보조사가 개재되어야 한다(황화상 2012:35-37). 이 중 주격조사가 다시 이 조사들에 결합할 수 있는 ④의 현상은 이 조사들을 주격조사로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러한 분포 특성을 고려해 황화상(2012)은 의미역을 표시하는 보조사로 분류하였는데 이 범주는 본 연구의 의미격조사 부류에 해당한다[28].

'께서, 에서, 서'의 분포 제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는 '수' 관련 표

28) 황화상(2012)에서는 이 조사들을 의미격조사가 아닌, 의미역조사로 분류한다. '의미역조사'는 의미역을 표시하는 보조사에 해당하는 조사들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격조사로 분류된 부사격조사는 대부분 황화상(2012)의 의미역조사에 해당한다.

현만으로 제약되며, '께서, 에서'는 박양규(1975)에 따르면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 무정 체언이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서만 주격에 결합한다. 즉, 무정 체언이 허용되는 위치에서는 주격이 '이/가'로만 표시되어 주격조사로서의 분포에 제약을 받는다.

8) 형님*께서/이 보이니?
9) 나는 정부*에서/가 좋아.
(박양규 1975:97)

'께서'가 높임의 주격조사라면 8)의 '형님'이 높임의 주어 표현이므로 '께서'의 결합이 허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며, '께서'보다는 '이/가'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8)은 무정 체언이 결합 가능한 자리로 예컨대 '별이 보이니?'라는 구성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는 무정 체언이 허용되는 위치에서 '께서'의 사용이 제약되는 예를 보여 준다. 이러한 양상은 '에서'도 유사한데, 9)의 '정부'는 그 자체로 무정 체언이며, 여기서 '정부'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결합이 어색하다(박양규 1975:97). 9)의 '정부에서' 위치도 무정 체언이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8)과 같다. 따라서 박양규(1975)는 '에서'의 주격적 용법을 처격에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성분으로 분석하며 '께서' 또한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29]. 그리고 이때 단체명사에 결합해 주어를 표시하는 '에서'의 용법을 '누군가가 그 단체에 있어'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특히 '께서'에서 볼 수 있었던 주격에서의 사용 제약은 '께서'가 통시적 발달 과정 중 여격과 용언이 통합된 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께

29) 그렇다면 이때의 '께서, 에서, 서'는 어떤 범주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서정목(1984)은 후치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체·수'를 의미하는 '서'를 '에서, 께서'의 '서'와 같은 항목으로 보았다(서정목 1984:163). 한용운(2005)에서도 '에서'를 합성조사가 아닌 조사연속구성으로 보며 '서'는 단일 형태소라 하였다(한용운 2005:23). 본 연구는 '에서' 전체를 하나의 조사로 보지만 '처소'의 '서'는 '에서'의 줄임말이 아닌, 독립된 형태소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우선 한용운(200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서'가 먼저 쓰이고 그 후에 '서'가 사용되었다는 통시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또한 말뭉치 분석 결과 '서'는 다른 축약형과 달리 구어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디서나' 등의 관용적 사용으로 '서'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서'는 과거의 여격형 '끼'와 용언 '겨오셔'의 통합 형태이다(유구상 1970, 고광모 2021). 그런데 이때 '-겨오셔'는 상대방의 지위와 품위를 존중하는 뜻을 나타내는 '-겨오-'에 처소를 나타내는 '셔'가 통합된 형태로, 후대에 '겨오셔'가 '끼'쪽으로 통합되었다(유구상 1970:113). 즉, 본래 의미적으로 높임과 처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항목이므로 현재에도 격조사적 특성보다는 의미적 특성을 더 많이 내포한 항목이다[30].

한편, 김수정 외(2014)에서는 '께서, 에서, 서'가 결합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뿐이기는 하지만, 주격조사 '이/가'와 달리 그 어원을 실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1격 1형태의 원칙에 비추어 주격조사가 둘 이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며 주격조사에서 제외하였다(김수정 외 2014:53). 그리고 '께서'는 존칭의 대상이 주어인 경우에만 통합되는 보조사이며, '서'는 인수를 나타내는 주어에 통합되는 보조사이고, '에서'는 부사격조사로서 다만 주어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수정 외 2014:56). 그러나 본 연구는 각 조사의 기원적 특성보다는 현재 사용되는 분포로서 공시성을 우선하며, 또한 이 항목을 보조사로 분류하기에는 다양한 성분에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는 보조사의 분포 특성에 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일반적인 보조사는 분포상으로 체언 이외에 용언이나 부사 아래에 직접 연결되기도 하며, 여러 격에 통용되는 특성을 보이는데(홍사만 2002:19) 위 조사들은 분포가 모두 체언인 주어로 제한된다.

---

30) 이러한 통합의 이유는 고광모(2021)에 따르면 의미적 혼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의미적 혼태(semantic contamination)는 의미적으로 근접한 관계에 있는 형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형태 간 통합으로, 하나의 형식이 다른 유사한 형식의 의미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Hock 1986:197, 고광모 2021:166). 따라서 탈격인 '끼'는 유사한 형태인 '겨셔'가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현상에 영향을 받아 당시 주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겨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광모 2021:156). 이러한 변화 과정으로 인해 '께서'는 문장의 '주체' 의미를 갖지만 앞서 박양규(197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모든 '높임+주격'의 명사구에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박양규(1975)는 '께서'의 '서'도 '-에 있어'의 의미를 공유한다고 보았으나 안명철(1985)은 분포상의 특징이 다르므로 '께서'의 '서'를 '에서'의 '서'와 동일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께서'는 안명철(1985)에 따르면 주격조사 '이/가'와 '존대'의 의미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이며, '에서'나 '서'가 주격으로 쓰일 경우 주로 행동성의 서술어가 오는데 '께서'는 그러한 제약이 따르지 않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안명철 1985:485).

임동훈(2004)도 '께서, 에서'가 현재는 문법격조사로 발달하였으나 분포상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격조사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의미격조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서' 역시 선행 환경에 제약이 있고, 그 뒤에 첨사가 결합할 수 있어 일반적인 주격조사와는 다른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임동훈 2004:132)[31]. 따라서 본 연구는 '께서, 에서, 서'가 이 같은 의미 특성을 나타내며, 격조사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주격으로서의 제약이 많고 보조사로 보기에는 분포가 제약되어 의미격조사로 배치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서'의 이형태로 '이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표준』의 기술 방식을 따른 것이며, 말뭉치의 태깅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32].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는 '이서'를 주격조사로 태그하고 있으나 '이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조사 단위로 보지 않는 견해도 많다. 고영근(1968, 2008)에 따르면 '-이'는 평칭의 인명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며, 사람의 수효를 표시하는 인수표시어(人數表示語)의 역할을 한다(고영근 1989:114-117)[33]. 한용운(2005)에서도 '이'를 '둘 이상의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 함께 묶음'의 의미를 갖는 독립된 형태소로 보았다(한용운 2005:20). 이같이 '이'는 '서'의 이형태로 보기에는 독립된 사용상의 특징이 분명하다고 보아 본 연구 또한 '이서'를 분리해 '서'만을 '주체·수' 의미의 조사로 본다.

둘째,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에 관한 내용이다. 이 두 조사는 『표준』에 따르면 격조사적 용법과 보조사적 용법이 구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격조사로 통합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홍사만(2002)의 보조사 분포 조건 때문이다. 보조사는 '체언 이외의 용언, 부사 아래에도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여러 격에 통용된

---

31) 본 연구는 '이서'의 '이'를 접미사로 보고 '서'와 구별하였으나 임동훈(2004)은 '이서' 전체를 하나의 조사로 보고 '이서'로 표기하였다(임동훈 2004:132).

32) 『표준』에 따르면 '서'는 이형태로 '이서'를 갖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대부분 조사의 경우 이형태 목록을 해당 조사의 해설에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서'에는 '이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특히 '서'에 관한 결합 정보로 "'셋이'와 같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말"에 결합한다는 점을 보여, '이'는 '셋'에 결합하는 접미사로 보고, '서'는 주격조사로 분리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3) 고영근(1968, 2000)에서는 '서'를 주격조사로 분류하였다.

다'와 같은 특성뿐 아니라 '구문적인 직능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기로 '이/가', '을/를'은 보조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구문적 직능의 특성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가'와 '을/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매우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속구성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히 살펴본다.

고석주(2000)는 특정 언어 항목이 주격과 목적격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가'와 '을/를'이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조사를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로 보았다. 그리고 '이/가', '을/를'은 각각 '선택지정' 및 '도달점의 선택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0) 아무것*이/도/*ø 교실에 있지 않았다.
11) 철수는 아무것*을/이나/*ø잘 먹는다.
(고석주 2000:132, 201)

위 10)에서 '아무것'은 주어이지만 '이/가'가 결합하지 못했으며, 11)은 '아무것'이 목적어인데도 '을/를'이 결합하지 못해 '이/가'와 '을/를'이 각기 격조사가 아니라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10)과 11)은 또한 의미적으로 '이/가'와 '을/를'이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예이기도 하다. 위의 '아무'는 '부정(不定)'을 의미하는데 '이/가, 을/를'은 '선택 지정'을 의미하여, 두 항목 간 의미가 상치되어 상호 결합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10)과 11)은 해당 명사구가 의미적으로 보조사 '도'와 '이나/나'를 요구하여 구조격조사 '이/가'와 '을/를'이 생략된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가'와 '을/를'을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로 본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는 작용역의 범주가 중복되어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두 조사 부류 중 의미 부담량이 적은 격조사가 주로 생략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가, 을/를'을 여전히 격조사로서 분류하였으나, 다만 이 두 조사가 각각 '선택 지정' 및 '도달점의 선택 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성은 '이/가, 을/를'의 의미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의미도 모두 각 조사가 격조사로서의 갖는 '주체, 대상'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한다.

12) *철수ø/철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13) 철수는 *강아지ø/강아지를 제일 좋아해.
(고석주 2000:210)

12)와 13)에서 '가장'은 문장에서 특정한 한 개체를 선택 지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이/가'와 '을/를'은 구어라 하더라도 생략이 어색하다. 따라서 이는 '이/가'와 '을/를'이 선택지정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예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여전히 '이/가'와 '을/를'을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로 본 이유는 12)의 '철수'는 문장의 주격이고 13)의 '강아지'는 문장의 목적격이며, 이때 '이/가'와 '을/를'이 서로 대치되지 않아 분포상으로 여전히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격조사 '이/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임동훈(2004)에서는 주격조사에 통합해 논의하였으며, 황화상(2012)에서도 이 항목들을 보격조사로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항목이 문장 성립에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것만으로 문법적 역할에 차별성이 없는 보어를 따로 설정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보어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이/가' 명사구는 주격 중출문의 두 번째 명사구와도 문법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황화상 2012:201).

그러나 본고는 보격조사 '이/가'의 쓰임이 매우 단일하여 이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N1이 N2가 되다/아니다'와 같은 문장 구성에서 보격에 해당하는 'N2가'는 '대상'의 의미역을 나타내어 'N1'의 '주체' 의미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분포상으로도 주격조사 '이/가'는 의미격조사와의 결합이 다양하지 않고, 의미격

조사와 주격조사 사이에 보조사인 '만, 까지, 부터'의 개입이 자주 나타나나, 보격조사 '이/가'는 '으로서/로서, 에서, 으로/로'와 같은 의미격조사에 직접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주격조사 '이/가'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며 '대상'을 의미하는 '이/가'를 보격조사로 분리하여 논의하였다.

1.3. 각 조사의 의미

다음으로 각 개별 조사들의 의미를 알아본다. 이는 조사연속구성체 의미 구조의 요소로 제시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예컨대 '만을'의 의미 구조는 '[[NP+유일]+대상]'의 의미로 표시한다. 이때 의미 요소를 정하는 기준은 첫째, 『표준』의 첫번째 의미와 가까울 것, 둘째, 다양한 의미를 통합하면서도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 것, 셋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것이다. 참고한 자료는 『표준』 및 다양한 조사의 의미를 제시한 고영근・구본관(2008, 2018), 김승곤(2018), 임동훈(2004, 2015), 홍기선(2017), 황화상(2012) 등이다.

(1)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 접속조사 부류의 의미

구조격과 의미격조사 부류에 속한 조사의 의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의 의미는『표준』과 위 선행 연구들을 참조해 각기 '주체', '대상'으로 보았다. 한편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에 관해 홍기선(2017)은 '상황 의미'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본고는 이를 이 조사들 의미의 기저에 관여된다고 보았다. '상황 의미'란 '화자가 그리는 상황'에 따라, 즉, 화자의 의도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철수가 민수를 때렸다.'와 '민수가 철수에게 맞았다.'를 비교하면, 이 두 문장은 화자의 상황 인식인 '민수'를 얼마나 의지적인(volitional) 개체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기술된 것이지, 실제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다(홍기선 2017:967). 이 같은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상황 인식 양상은 각 조사의 '주체', '대상' 의미의 기저에 반영되어 화자의 의도에 따라 표현되게 된다.

다음으로 보격의 '이/가'는 '대상/변성'을 의미하고 관형격조사 '의'는 '소유/소속'을 의미한다고 보았다[34]. 이 중 보격조사의 의미 '대상'은 보어로서의 기본 의미를 말하며 '변성'은 서술어가 '되다'일 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의미이다. 그리고 관형격조사 '의'의 의미로 제시된 '소유, 소속' 중 '소유'는 주로 유정물이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소속'은 유정물과 무정물을 포함한 모든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구조격조사 의미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5].

[표 Ⅱ-1] 구조격조사 부류의 의미

구조격조사		의미
주격	이/가	주체
목적격	을/를	대상
보격	이/가	대상/변성
관형격	의	소유/소속

다음으로 의미격조사로 범주화한 항목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과/와'는 고영근·구본관(2008)은 '동반', 김승곤(2018)은 '공동, 연결, 비교'의 의미를 제시하여 본 연구는 이 중 '연결'은 접속조사 '과/와'가 갖는 의미로 보고, 부사격조사 '과/와'의 의미는 '동반'으로 보았다.

'께'는 구본관·고영근(2018)에 따르면 높임, 처소를 의미하며 이는 『표준』과도 일치하여 '유정성·높임·처소'를 의미 요소로 정하였다. 한편 '께서'는 김승곤(2018)에 따르면 '주체, 높임'을 의미하여 이를 참조해 '유정성·높임·주체'를 의미 요소로 보았다.

'만큼'은 임동훈(2015)에 따르면 '동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며 김승곤(2018)은 '정도, 비교'를 의미한다. 본고는 이 중 '만큼'의 의미를 가장 상세히 나타낸다고 보이는 '동등 비교'를 기본 의미로 정했다[36]. '보다'는

34) 목적격조사 '을/를'에 관해 김승곤(2018)은 '대상, 상대, 선택물'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본고는 이 중 '대상'의 의미로 '상대, 선택물'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35) 본 연구에서 의미 요소를 표기할 때 '주체·수', '비교·대조'와 같이 두 의미 항목이 동시에 관여되거나 거의 유사할 때는 '·'로 표기하였고, '방향/수단/이유'와 같이 각 의미 항목이 구별되며 그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36) 『표준』에 따르면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와 '앞말에 한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용법을 모두 나타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김승곤(2018)에서는 '비교'로 언급되며 임동훈(2015)에 따르면 '차등 비교'를 나타내고,『표준』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비교'의 의미라 해도 서로 차이가 나는 두 대상의 비교에 중점이 놓여 '차등 비교'를 기본 의미로 설정하였다.

'서'는 '주체'와 '처소'의 두 부류가 있다 '주체'의 경우 '서'는 수사와 결합해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고영근·구본관 2018:150). 따라서 '주체·수'를 기본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표준』에 '에서'의 줄임말로 표시되는 '서'는 장소적 어휘에 결합하여 '처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에'는 김승곤(2018)은 '에서'와 같이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고영근·구본관(2018) 역시 '처소'를 기본 의미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에'와 '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오류 빈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의 구분을 위해 '에'의 장소 의미를 '소재'로 구분하고 이에 '시간' 의미를 추가하여 '소재/시간'으로 정하였다. '에'와 '에서'는 학습자들이 많이 혼동하는 항목 중 하나로 주로 다음과 같은 용법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Ⅱ-2] '에'와 '에서'의 의미(국립국어원 2005:562-563)

구분	에	에서
의미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지점	어떤 행위나 동작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
서술어	이동, 위치, 존재를 나타내는 서술어들과 쓰임. 예: *식당<u>에</u> 밥을 먹어요.	다양한 동사 서술어들과 쓰임. 예: 식당<u>에서</u> 밥을 먹어요.

위 표에 따르면 '에'는 '동작이나 상태'의 지점을 의미하고 '에서'는 '행위나 동작이 벌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이러한 각 조사의 의미는 호응하는 서술어를 특정할 때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에'는 주로 이동, 위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호응하며, 특히 대부분 형용사의 경우는 '에'만이 선행한다(황화상 2012:329)[37]. 이는 '에'가 '상태와 관련된 공간적

도 이 두 용법을 구분하여 의미격조사의 '만큼'과 보조사1의 '만큼'을 구분하였다.

37) 그러나 예외적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라 해도 '운동장<u>에</u> 아이들이 놀고 있다'와 같이 '놀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에'와의 결합을 허용한다. 따라서 '에'

위치'를 나타내는 성격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므로 '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소재'라고 할 수 있게 된다(황화상 2012:340). 또한 '에'는 '에서'와 달리 시간 표현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한편, '에서'에 관해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주격, 처소' 김승곤(2018)에서는 '장소'의 의미를 제시하여 본 연구는 '주체, 처소'를 기본 의미 요소로 보았다. '처소'란 위의 '소재'와 달리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의미한다(황화상 2012:341)[38]. 그리고 이때 선행 명사가 유정명사일 때는 '에게'가 결합되므로, '에게'의 의미는 '유정성·처소'로 본다.

'으로/로'는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행위의 재료나 도구, 수단'을 제시하였고 김승곤(2018)에서는 '방향, 방편, 까닭'을 제시하였다. 이 중 '방향, 까닭'은 다른 의미 범주와 구분되는 비교적 뚜렷한 특징을 가지나 다른 의미 범주들인 '도구, 수단, 방편'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의미들을 '수단'으로 포괄하여 '으로/로'의 기본 의미는 '방향/수단/이유'로 보았다. '으로부터/로부터'는 고영근·구본관(2018:162), 『표준』을 참조해 '출발점'을 기본 의미로 보았다.

'으로서/로서'는 김승곤(2018), 『표준』을 참조해 '자격'을 의미 요소로 보았으며, '으로써/로써'는 김승곤(2018)에서 '가지고, 방편'을 의미한다고 하였고,『표준』에는 '재료나 원료'를 의미한다고 하여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방편'을 기본 의미로 정하였다.

'이라고/라고'는 고영근·구본관(2018:154), 『표준』을 참조해 '직접 인용'을 기본 의미로 보았다[39]. '처럼'은 김승곤(2018), 『표준』을 참조해 '비

의 이 같은 결합 특성은 조사 '에'의 통사적 제약이라기보다는 의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황화상 2003:334).

38) 그런데 처소의 경우 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주체가 있는 위치가 또한 그 곳'이라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에서'는 때에 따라 대상이나 행위자의 소재를 주제로 하는 대화 상황에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에서'의 의미 특성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볼 수 있기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여전히 행위의 '처소'로 볼 수 있다(황화상 2012:341).

39) 인용격조사는 부사격조사 부류에 속하는 유형이다(고영근·구본관 2018:154). 따라서 본 연구의 의미격조사에 속하게 된다. 한편, 김승곤(2018)에는 인용격의 '이라고/라고'가 따로 언급되지 않으며 '특별'을 의미하는 보조사만이 제시된다(김승곤 2018:20). 이는 『표준』에서 보조사로 제시한 '마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항목에 해당하며, 이 항목은 본 연구에서 조사연속구성을 이루는 조사로는 추출되지 않았다.

슷함'을 기본 의미로 정하였다. '한테'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에게'보다 구어적인 표현이므로 '유정성·처소·구어'를 기본 의미로 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3] 의미격조사와 접속조사 부류의 의미

조사 부류	조사	의미
의미격조사	과/와	동반
접속조사	과/와	연결
의미격조사	께	유정성·높임·처소
	께서	유정성·높임·주체
	만큼	동등 비교
	보다	차등 비교
	서	주체·수
	서	처소
	에	소재/시간
	에게	유정성·처소
	에서	주체/처소
	으로/로	방향/수단/이유
	으로부터/로부터	출발점
	으로서/로서	자격
	으로써/로써	방편
	이라고/라고	직접 인용
	처럼	비슷함
	한테	유정성·처소·구어

(2) 보조사1과 보조사2 부류의 의미

보조사1의 범주로 분류한 조사들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까지'는 임동훈(2004, 2015)에서는 '첨가, 범위의 끝점', 김승곤(2018)은 '미침'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고는 '까지'가 어떤 것의 마지막으로서 끝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낼 때는 '끝점'의 의미가 적용되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라는 필자의 태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침'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대로'는 임동훈(2015)의 '동등 비교' 및 김승곤(2018)의 '그대로' 의미를 '동등 비교'로 통합하였으며, '마다'는 김승곤(2018)의 '하나하나, 각자'를 참조해 '각자'를 기본 의미로 정하였고, '마저'는 임동훈(2004)의 '첨가', 김승곤(2018)의 '마지막'을 참조해 '첨가, 마지막'으로 설정하였다.

'만'은 임동훈(2004)의 '단독, 비교', 김승곤(2018)의 '유일'을 참조해 '유

일'로 통합하였다. '만큼'은 『표준』을 참조해 '한정'을 의미 요소로 보았다.

'밖에'의 의미는 김승곤(2018)에는 '한도'로 제시되며, 『표준』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의미가 제시되어 '한도'를 의미 요소로 정하였으며, '부터'는 임동훈(2015)의 '범위의 시작점', 김승곤(2018)의 '시발'을 참조해 '시작점'으로 보았다. '뿐'은 김승곤(2018), 『표준』을 참조해 '한정'으로 의미를 정하였다.

'이나마/나마'의 의미는 김승곤(2018)을 참조해 '불만'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차'는 김승곤(2018)에는 기본 의미로 '더 보탬, 추종'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에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고 제시되어 이 둘을 통합해 '양보와 더함'을 기본 의미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요'는 김승곤(2018), 『표준』의 의미 기술을 참조해 '지정·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4] 보조사1 부류의 의미

보조사1	의미
까지	끝점/미침
대로	동등 비교
마다	각자
마저	첨가/마지막
만	유일
만큼	한정
밖에	한도
부터	시작점
뿐	한정
이나마/나마	불만
조차	양보와 더함
요	지정·높임

다음으로 보조사2 부류에 속하는 '도, 은/는, 이나/나, 이야/야'의 의미를 살펴본다. '도'는 임동훈(2015)의 '첨가', 김승곤(2018)의 '역시, 또한'을 '첨

가'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최소한의 것이 첨가된 양보의 의미를 추가하여 전체 의미를 '첨가/양보'로 보았다. '은/는'은 김승곤(2018)의 '지정', 홍기선(2017)의 '대조'를 통합해 '지정/비교·대조'로 보았다.

'이나/나'는 김승곤(2018) '선택', 홍기선(2017)의 '불만족스러운 선택항'을 통합해 '선택'으로 보았다. '이야/야'는 김승곤(2018)의 '제시, 부름', 홍기선(2017)의 '예상대로'를 통합해 '제시/예상대로'로 통합하였다. 또한 말뭉치 분석 결과 이 같은 의미로는 포괄하지 않는 범주의 사용이 있어 '뒤늦은 시점'의 의미를 추가하였다[40]. 이는 김승곤(2018)의 '제시된 항목'이나 홍기선(2017)의 '예상된 항목'의 의미로 통합이 어려웠으며, 한편 『표준』의 의미인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적용하기에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5] 보조사2 부류의 의미

보조사2	의미
도	첨가/양보
은/는	지정/비교·대조
이나/나	선택
이야/야	제시/예상대로/뒤늦은 시점

위 조사들은 다른 조사에 후행하여 필자의 태도나 상황적 인식을 나타내므로 의미의 확장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 항목 중에는 동일한 형태가 두 유형 이상의 부류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 이후부터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주격조사 '이/가': 이/가[1]
- 보격조사 '이/가': 이/가[2]
- 의미격조사 '과/와': 과/와[1]
- 접속조사 '과/와': 과/와[2]

40) 이에 해당하는 문장은 '한동안 곪다가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BTHO0405)'이다.

- 의미격조사 중 ‘주체·수’를 의미하는 ‘서’: 서[1]
- 의미격조사 중 ‘처소’를 의미하는 ‘서’: 서[2]
- 부사격조사 ‘만큼’: 만큼[1]
- 보조사 ‘만큼’: 만큼[2]

2. 조사연속구성체 결합의 원리

조사연속구성의 결합 순서는 우선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보조사2/구조격조사’로 나타났으며, 이에는 한국어의 후치사적 특성 및 각 조사의 작용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각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조사의 부류와 연속 구성의 순서

조사의 연속 구성은 앞서 살펴본 각 조사의 부류별로 주로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의미격조사(+접속조사) (중첩)	+	보조사1 (중첩)	+	구조격조사/보조사2

[그림 Ⅱ-1]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순서

그림에 사용한 기호 ‘+’는 위 순서에 따라 앞뒤 항목의 연속 구성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는 연속 구성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는 상호 결합하지 않는다. 반면 의미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상호 결합하는데 이때는 의미격조사가 선행한다. 이 두 유형의 조사를 함께 배치한 이유는 의미격조사와 접속조사가 ‘보조사1, 구조격조사/보조사2’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순서를 보이기 때문이다.

위 그림과 같이 조사들은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구조격조사/보조사2’의 순서에 따라 중첩되며 본 연구에서는 3개 항목까지의 조사연속구성체가 추출되었다. 같은 조사끼리의 중첩은 의미격조사와 보조사1에서 ‘의미격조사+의미격조사’, ‘보조사1+보조사1’과 같이 가능하며, 다른

부류에서는 동일 부류 내의 중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고의 분석 대상 조사들의 결합 순서는 거의 예외 없이 위와 같았으며, 다만 '까지, 만'만이 예외적으로 보조사1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격조사에 선행하였다. 그리고 종결형 보조사 '요'는 항상 다른 조사에 후행하였는데 이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위치별로 본 연구에서 추출된 조사 항목을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6] 각 조사의 결합 위치

위치	조사 부류	조사
예외	보조사1	까지, 만 (총 2개)
1위치	의미격조사	과/와[1], 께, 께서, 만큼[1], 보다, 서[1], 서[2], 에, 에게, 에서, 으로/로, 으로부터/로부터, 으로서/로서, 으로써/로써, 이라고/라고, 처럼, 한테 (총 17개)
	접속조사	과/와[2] (총 1개)
2위치	보조사1	까지, 대로, 마다, 마저, 만, 만큼[2], 밖에, 부터, 뿐, 이나마/나마, 조차 (총 11개)
3위치	구조격조사	이/가[1], 을/를, 이/가[2], 의 (총 4개)
	보조사2	도, 은/는, 이나/나, 이야/야 (총 4개)
예외	보조사1	요 (총 1개)

표 [Ⅱ-6]에서 '1위치-3위치'는 편의상 명사구에 가장 선행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 것이다. 1위치의 조사는 의미격조사와 접속조사이다. 이 중 의미격조사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며 접속조사는 조사 연속구성에서는 위의 '과/와' 하나의 항목만이 사용되었다.

2위치에 속하는 보조사1 부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치사의 속성을 갖는 조사들로, 구조격조사나 보조사2 부류에 항상 선행한다. 이 항목의 수는 의미격조사보다는 많지 않으나 위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항목이 사용되어 11개의 조사가 포함되었다.

한편 3위치의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 부류는 항상 다른 조사에 후행하며, 상호 결합하지 않는 부류들로 각각 4개씩의 조사가 속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결합으로는 '까지, 만'이 보조사1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격조사에 선행하였으며, '요'는 보조사1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3위치 조사들

에 후행하였다. 이 중 '요'는 종결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의미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조사에 후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까지, 만'의 경우는 의미적으로 보조사1 부류들과 큰 차이가 없어, 예외적인 결합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1) 어순에 반영되는 후치사적 특성

위와 같은 결합 순서는 한국어의 후치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은 어떤 언어 단위의 문법적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뒤에 오는 언어, 곧 후핵 언어(head-final language)이다(구본관·황화상 2018:404). 이러한 어순은 영어의 경우 전치사가 명사구에 선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거의 예외없이 지켜진다. 따라서 김상대(1992)에서는 이를 어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지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였다(김상대 1992:13). 조사연속구성체에서 이 같은 후치사적 특성은 주로 격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격조사가 가장 후행하는 현상으로 적용된다. 즉, 격조사는 문장 전체의 통사적 성격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가장 후행하게 되는 것이다(김진형 2000:62)[41]

이 같은 격조사의 구조적 영향력을 구체화한 논의로 이정훈(2008)에 따르면 언어 요소 간에는 통사적 병합(merge)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하위범주화가 일어나는데 구조격조사는 '선행 명사+조사'를 통합하는 하위범주화가 가능하여 다른 조사에 후행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즉 '철수에게가'의 경우 주격조사 '이/가'는 NP인 '철수'와 병합할 수 있고 나아가 '에게'가 병합한 구 '철수에게'와도 병합할 수 있다(이정훈 2008:24). 따라서 다른 조사들에 가장 후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구조격조사의 이 같은 특징은 다른 조사가 구조격조사에 후행하지 못하고 선행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14) 철수<u>만이/*가만</u> (이정훈 2008:24)

---

41) 김진형(2000)은 격조사가 선행한 구 구성의 통사적 성격을 결정하므로 핵(head)의 위치에 있는 성분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하였다(김진형 2000:62)

14)에서 '만이'는 가능하고 '가만'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격조사 '이/가'가 선행한 NP는 '철수'뿐만이 아닌, '철수'에 '만'이 병합한 구 전체이며 '이/가'는 이 전체를 하위 범주화한다. 반면에 '가만'은 구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만'이 후행하였고, '만'은 선행 명사구 전체의 하위 범주화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여 어색한 표현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어순은 의미의 측면에서는 선행 명사구와 후행 조사와의 의미적 상관성(relavance)과 관련된다. 의미적 상관성은 어떤 범주의 의미가 어휘적인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큼 상관성이 높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동사가 갖는 속성인 '상'과 '주어 일치'는 이 중 '상'이 선행 명사와 더욱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상'은 동사 자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으로서 내적인 시간 구성을 바라보는 여러 방식을 나타내나, 주어 일치는 동사의 논항에 대한 표시일 뿐 동사 자체의 행위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Bybee, 이성하·구현정 옮김 2000:54). 조사의 경우도 '까지, 만'과 같이 어휘적 특성으로서 선행 명사구의 범주 제한에 직접 관련되는 조사들은 문법 요소에 비해 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어 가장 선행하고, 구조격조사와 같이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어휘적 의미와는 관련성이 낮아져 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사1보다 의미격조사가 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의미격조사는 선행 명사구를 서술어와의 관계에 따라 '처소, 자격' 등으로 범주화한다. 따라서 명사구에 대해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성광수 1999:158).

이는 또한 의미의 구체성 및 추상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즉, 보조사1은 내면 구조상 용언으로부터 온 경우가 많아 의미가 보조사2보다 구체적이므로 보조사2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홍사만 2002:35). 의미의 구체성과 추상성의 개념은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까지, 만'은 결합의 순서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조사에 선행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 항목들이 실사인 동사, 명사에서 왔으며, 이로 인해 다른 조사에 비해 구체적인 개념을 가져 이러한 순서를 나타

낸다는 해석이 가능한 점에서는 여전히 설명력이 있는 논의이기도 하다(홍사만 2002:35-36)[42].

이와 같이 한국어가 후치사적 특성을 갖고 각 조사의 역할에 따라 순서대로 결합함으로써 나타내는 효과는 문장에 응결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김상대 1992:12).

15) 실제로 고대 로마시대의 조리기술과 함께 상업이 부활되기까지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BTHO0396)

위에서 '까지에는'의 선행 어휘부인 '부활되기'는 후행하는 조사연속구성체가 없다면 전체 문장 내에서 응결성을 갖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항목일 뿐이다. 그러나 '까지'로 '끝점'의 의미를 추가한 후 그 전체에 '시간'의 의미역을 부여하면 서술부인 '세월이 걸리다'의 보어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활되기까지에' 전체에 다시 조사 '은/는'을 결합하면 이 명사구는 문장 전체의 범주에서 주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같이 하나의 독립된 명사구였던 항목들은 조사 결합의 순서대로 다른 언어 항목과 관련을 맺고 응결성을 갖춘 문장을 구성해 나가며, 더 넓은 범주에서 응결성에 기여하는 항목일수록 한국어에서 후행하는 특성이 있다.

(2) 각 조사의 작용역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순서는 각 조사의 작용역과도 관련된다. 작용역(scope)은 조사의 문법적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의 결합에서 다음의 특징을 나타낸다(황화상 2003:119).

ㄱ. 작용역이 같고, 서로 문법적 기능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두 조사는 중첩되지 않는다.

---

42) 참고로 이러한 결합 순서는 문법소의 변화 방향과도 유사한 속성을 나타낸다. 문법소는 주로 '구체적 의미 → 추상적 의미', '어휘 범주 → 문법 범주'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단일 방향성 가설(unidirectionality hypothesis)의 순서에 부합하는데(이성하 1998:205) 위의 조사 간 결합 순서도 이와 유사하게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문법 범주에 가까울수록 후행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ㄴ. 작용역이 서로 다른 두 조사는 작용역이 좁은 조사가 선행한다.

(황화상 2003:120)

위에서 'ㄱ'은 중첩이 가능한 조사가 제약되는 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즉, 두 조사가 작용역의 크기가 같거나 문법적 기능이 모순되면 작용역이 충돌되어 상호 결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ㄴ'은 이러한 'ㄱ'의 조건을 만족한 조사들의 결합 순서에 대한 내용으로, 작용역이 좁은 조사가 선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 범주에 속하는 언어 요소를 포괄하는 자질을 갖고 있어 작용역이 넓다. 따라서 이 두 성분은 상호 결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조격조사와 구조격조사, 그리고 보조사2와 보조사2의 결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예를 들면 구조격조사와 구조격조사의 결합인 '이를'의 사용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가'와 '을/를'의 작용역이 충돌하며 기능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한 명사에 '이/가'의 하위 범주화와 '을/를'의 하위 범주화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43].

또한 'ㄴ'에서는 이때 작용역이 좁은 조사가 선행하며 넓은 조사가 후행한다는 순서의 특성을 제시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보조사2나 구조격조사는 작용역이 넓어 그보다 좁은 작용역을 나타내는 의미격조사나 보조사1을 만나면 이 항목들에 후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사연속구성의 제약 조건과 순서가 정해지게 되며 이는 몇몇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진다.

2.2. 조사연속구성의 실현 양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치적 어순에 따라 작용역이 조사의 결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의 결합 순서는 그 부류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의미격조사는 다른 모든 부류들에 선행하고, 구조격조사와

43) 한국어 학습자는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의 결합형인 '이를' 및 주격조사 '이/가'가 중복된 '이가'와 같은 잘못된 결합의 오류를 자주 나타내어 이러한 원리가 저절로 습득되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사2는 항상 다른 조사에 후행하면서도 상호 중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부류의 조사에 작용역이 적용되는 양상을 각각 '의미격조사의 작용역' 및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의 실현 양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44]. 또한 앞서 제시된 바대로 '까지, 만'은 예외적인 배열 순서를 나타내어 이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1) 의미격조사의 조사연속구성

의미격조사가 명사구에 가장 선행하는 이유는 의미격조사와 선행 명사구가 의미적 상관성이 높아 명사구의 의미 자체의 완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사적으로는 먼저 이루어진 격조사구가 전체 문장 안에서 일반적인 하나의 명사구로 취급을 받게 되므로(김진형 2000:63) 해석의 순서에 따라 먼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내가 시험을 봤던 곳은 이 학교에서만이 아니다'의 경우 '학교'만으로는 명사구의 의미가 완성되지 못하고 의미격조사인 '에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학교라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전체는 '만'의 관점에서 하나의 해석 단위로 취급되므로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의미격조사는 예외적 항목이 아닌 이상 모든 부류의 조사에 선행하며 접속조사에도 선행한다. 한편 해석상으로 접속으로 연결된 두 명사구 전체가 의미격조사에 선행하는 경우는 선행 명사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된 것에 해당한다.

16) ㄱ. 순이는 [[철수와 영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ㄴ. 순이는 [[철수에게]와 [영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정훈 2005:187)

16)에서 'ㄱ'은 접속 후에 의미역이 부여된 것이고 'ㄴ'은 의미역이 부여된 후에 접속이 이루어진 것이다(이정훈 2005:187). 즉 'ㄱ'에서는 '철수와 영이' 전체를 하나의 구로 해석하는 맥락에서 '철수와 영이'에 '에게'가

44) 보조사1은 위 두 특성에 따라 의미격조사와 만나면 후행하고 보조사2와 만나면 선행하여 따로 다루지 않는다.

의미역을 부여한 것이고, ‘ㄴ’은 조사연속구성의 순서대로 ‘철수’에 ‘에게’가 의미역을 부여한 후 이 전체를 접속조사 ‘과/와’가 후행 명사와 연결하였다. 따라서 접속조사에 비교해 보아도 의미격조사와 선행 명사구의 관련성은 가장 높고, 따라서 의미격조사는 다른 조사에 선행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2)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의 조사연속구성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구조격조사는 서술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선행 명사구+조사’ 전체를 격으로 지시해 주어야 하므로 가장 후행한다. 그런데 보조사2는 보조사1과 유사하게 기능보다는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보조사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은 보조사2에 속하는 ‘은/는’과 ‘도’가 사용된 예이다.

17) 저 책은 철수가 다섯 번을 읽었다.
18) 한 사람도 모임에 안 왔다.
(이정훈 2005:189)

17)에서 ‘저 책은’이 주제어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문두에 사용된 ‘저 책’에 ‘은/는’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의 ‘한 사람도’가 부정극어가 되는 것도 조사 ‘도’의 의미에 의한 것이다(이정훈 2005:189). 통사적으로 주제어 해석과 부정극어의 인허는 구조에 의한 것인데, 그 이유는 두 성분 모두 문장 전체의 의미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은/는’과 ‘도’는 직접 통사구조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른 조사에 의해 매몰되지 않기 위해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이정훈 2005:189). 이 같은 보조사2의 의미적 특성을 ‘은/는’과 ‘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은/는’이 의미격조사나 보조사1에 결합한 예이다.

19) 경찰로서는 선행을 한다.

20) 경찰만큼은 선행을 한다[45].

19)에서 '로서'는 선행 명사인 '경찰'의 자격을 나타내고 20)에서 '만큼'은 선행 명사인 '경찰'에 '정도'와 같은 강조의 의미를 부여하여, '으로서/로서, 만큼'은 모두 선행 명사구와 의미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은/는'은 서술어와 관련되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두 문장의 '경찰로서, 경찰만큼'이 모두 '선행을 한다'의 주제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19), 20)은 '은/는'이 모두 서술어와 관련성이 높아 '선행을 한다'의 주체인 점은 동일하게 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사2는 같은 문장이라도 후행 문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21) 민수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우 건강한 편이다.
22) 민수는 과일을 좋아한다. 철수는 과일을 싫어한다.

21)과 22)의 앞 문장은 동일하게 '민수는 과일을 좋아한다.'이다. 그러나 21)에서 '민수'는 뒷문장과의 관계에 따라 '지정'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22)의 '은/는'은 뒷문장과의 관계에 따라 '대조'로 해석된다. 이는 '은/는'의 작용역이 선행 명사인 '민수'에 한정되지 않으며 서술부인 '과일을 좋아한다'와 관련을 맺고, 이 범주를 넘어 뒷문장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보조사2는 자매항[46]의 포함 범주를 통해서도 작용역이 넓은 것이 확인된다.

23) 철수도 왔다.
24) 철수도 안 왔다.

---

45) 김진호(2000:93)에 제시된 문장을 약간 수정하였다.
46)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고 가정되는 담화상의 범위가 있게 마련이며, 이와 관련되는 개념이 자매항이다(윤재원 1989:108). 즉, 자매항은 담화상의 범위에 속한 원소 중 문제의 보조사의 선행어로 실현된 것이 아니면서, 해당 문장의 언명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원소로 볼 수 있다(윤재원 1989:112).

23)과 24)에서 '철수도'는 공통된 항목이나, 서술어가 '왔다'와 '안 왔다'로 차이가 나면서 '철수도'의 자매항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게 된다.

23)′ 철수도 왔다.
= 철수 이외의 다른 사람도 왔으며 철수도 왔다.
24)′ 철수도 안 왔다.
= 철수 이외의 다른 사람도 오지 않았으며 철수도 오지 않았다. (황화상 2003:372)

이는 '도'가 영향을 미치는 자매항 전체가 서술어 '왔다' 혹은 '안 왔다'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 준다. 23)′은 철수 외의 다른 사람도 모두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24)′는 철수 외의 다른 사람도 모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적용된다.

25)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 n번}

25)에서 '한 번'의 부정은 '한 번'부터 'n번'까지 모든 항목을 부정한다. (윤재원, 1989:150). 즉 '도'는 자매항인 'n번'까지를 모두 자동적으로 부정의 의미 안으로 포함시켜 서술어 '없었다'와 관련짓는다. 한편, '도'는 이러한 역할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 표현도 가능하다.

26) 영이도 낙제를 했다.

26)을 위와 같이 자매항과의 관련성으로 해석하면 '영이도 낙제를 했다. 또한 철수도 낙제를 했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서 한번 더 확장되어 다음과 같이 상황 전체를 가정할 수도 있다.

27) 영희도 이번에는 낙제를 했어. 올해에는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는구나. (황미향 2002:4)

위 27)은 안 좋은 상황의 여러 유형인 '동생이 입원했다. 아버지가 실직했다.' 등을 함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절뿐 아니라 그것이 실현된 문장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문장(명제)을 함축하는 것을 보여 준다(황미향 2002:4). 따라서 '도'는 이같이 확장된 상황 전체를 끌어오는 조사로서 더 상위의 명제적 단위를 문장 내에 표시하는 결속 표지로도 기능한다(황미향 2002:4).

지금까지 보조사2의 작용역이 선행 명사구를 넘어 문장 이상으로 확대된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지금부터는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이 두 부류에 속하는 조사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구조격조사가 생략된다. 김진호(2000)에 따르면 구조격조사들은 특별한 의미적 기능을 보이지 않고 이에 결합하는 성분들에 자리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은/는'과 같은 보조사들은 의미 한정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김진호 2000:125)[47]. 따라서 보조사들은 문장에서 필수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더 많다.

격 기능을 갖는 언어 항목과 의미 기능을 주로 갖는 언어 항목의 생략 현상을 비교해 보면, 격 기능만을 나타내는 언어 항목의 생략이 더 보편적이다. 즉, 통사 구성에서 핵심 관계에 대응되는 명사구의 구조를 나타내는 조사들은 비표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주변적 관계에 대응되는 명사구들은 굴절 격, 전치사 등으로 거의 항상 표현된다(Blake 2001:118). 따라서 한국어에서 격조사가 구조적 기능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른 조사와의 중첩에서 생략되기도 하는 것은 위와 유사한 보편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가 같은 명사구에 관련될 경우 구조적 기능만을 표시하는 격조사가 생략되며, 의미 특성을 나타내는 보조사2는 문장에 표현된다.

47) 김진호(2000)는 '은/는'이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또한 부사격조사와 자연스러운 결합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부사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김진호 2000:125).

(3) 예외적 결합을 나타내는 '까지, 만'의 의미·기능

'까지, 만'은 보조사1의 범주이지만 조사연속구성의 순서에서 의미격조사에 선행하여 예외적인 결합 순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과 관련해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자세히 살펴본다.

ㄱ. 까지

'까지'는 보조사1에 속하는 조사이며, 일반적으로 보조사1은 의미격조사에 선행한다. 그러나 '까지'는 예외적인 결합 순서를 많이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추출한 조사연속구성에서는 의미격조사에 선행한 항목으로 '까지에, 까지와'가 있었으며, 후행한 항목으로는 '에까지도, 에게까지도, 에까지, 으로까지, 에게까지, 에서까지'가 있었다. 이러한 결합 순서의 차이는 이 조사가 갖는 의미·기능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휘적인 사용을 보여 '끝점'을 의미할 때는 좁은 작용역을 나타내 다른 조사에 선행하고, 확장적 사용을 보일 때에는 '미침'을 의미하여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 다른 조사에 후행한 것이다.

28) 제1단계는 1990년 환경운동이 있기 전까지로 '자원절약' '쓰레기줍기' 차원의 자연보호 운동이 있던 시기이다. (BTHO0382)
29) … 약 2,000년 전에 세계인구는 2억 5천만 명으로까지 늘어났던 것이다. (BTHO0396)

28)에서 '까지'는 '끝점'을 의미하며 강조와 같은 확장성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29)에서는 확장성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나타나 '미침'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 명확하지 않고 독자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도 있으나 말뭉치의 분석 결과 서술어의 경향성을 함께 살펴보면 차이가 비교적 분명히 나타났다. 즉, '까지'가 선행한 경우는 '제1단계는 1990년 환경운동이 있기 전까지로', '제1단계는 1970년대 이후 1990년까지로', '3까지로 꾸며졌다'와 같이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특정 범주를 나타내는 문장만이 추출되었지만, 후행한 경우는 서술어가 '발전하다, 발달을 이룩하다, 늘어나다, 건너가다, 대두되다, 확

대되다'류의 확장성이 있는 표현만이 쓰였기 때문이다.

'까지'가 확장성이 없는 '끝점'만을 나타낼 때는 작용역이 의미격조사보다 좁아져 일반 어휘 의미에 가까워지며 선행 명사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을/를'이나 '이/가'와 같은 구조격조사와의 중첩도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까지'의 특성을 임동훈(2004)에서는 명사의 흔적을 지닌 '까지'와 후치사적인 성격을 지니는 '까지'로 구분해, 전자는 '의, 보다, 이/가'가 결합 가능하며 후자는 의미상 첨사 '도'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임동훈 2004:138). 그러나 임동훈(2004)는 '까지'를 보조사2의 범주로 재분류하지는 않았으며, 본 연구 또한 '까지'를 보조사1로만 분류한다. 그 이유는 주로 '까지'의 분포 특성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 추출된 '까지'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인 '에까지, 으로까지, 에게까지, 에서까지'는 모두 '도'와 한번 더 결합한 '에까지도, 으로까지도, 에게까지도, 에서까지도'의 구성이 자연스러웠으며 실제로 '에까지도, 에게까지도'는 말뭉치에서 추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까지'는 보조사1로서 다만 어휘적이거나 첨사적인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본다.

ㄴ. 만

'만'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조사 중 가장 다양한 사용 양상을 보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총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표 Ⅱ-7] '만'의 작용역과 의미

항목	만[1]	만[2]	만[3]	만[4]
작용역	좁음 ←----------→ 넓음			
의미	유일(어휘적)	비교	유일	유일(강조)
범주	보조사1	보조사1 혹은 의미격조사	보조사1	보조사1 혹은 보조사2

'만'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에 따라 작용역의 크기도 다르게 반영된다. 이 중 대부분의 '만'은 보조사1로 분류되지만 '만[2]'는 '비교'의 의미격조사로 구분하기도 하여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

면 김진형(2000), 유하라(2005)는 이러한 '만'을 의미격조사로 보았다. 이때의 서술어는 주로 '하다, 못하다'로, 예를 들면 '무술로나 학문으로나 다 아직 네 형만 못해. (김동인, 젊은 그들, 174)'와 같이 사용된다(유하라 2005:40). 이 문장은 '만'이 삭제되면 적격하지 못하게 되어 '만'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의미격조사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임동훈(2004)은 '만'의 의미를 '비교'와 '유일'로 구분하면서도 모두 보조사1로 분류하였다. 임동훈(2004)에서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격조사를 모두 보조사1로 재배치한 바 있으며, 따라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을 다시 의미격조사로 변경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홍사만(2002)에서는 정도의 '만'과 비교의 '만' 사이의 상관성을 밝히면서 범주를 재분류하는 것은 향후의 연구 과제일 것이라 하며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홍사만 2002:265).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표준』과 국립국어원의 기준을 따라 위의 '만'을 모두 보조사1로 분류하였다[48]. 그리고 '비교'의 의미 또한 보조사1 의미의 확장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유일'을 나타내는 '만[1], 만[3]'부터 다시 살펴본다.

'만[1]'은 '만[3]'과 같이 '유일'을 의미하나, '만[1]'은 의미격조사에 선행하며 '만[3]'은 후행한다. 본 연구에서 '만[1]'은 '만으로'에 한정되어 나타났으므로 '만으로'와 '으로만'에 초점을 맞추어 두 용법 사이의 차이를 알아본다. 이는 홍사만(2002)에 따르면 특수조사인 '만'이 부분적으로 격표지의 후행을 허용한 현상에 해당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 추출된 문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만[1]: 미국의 맥주회사 쿠어스는 창업 초기에 단 한 개의 브랜드만으로 사업을 벌여나갔다. (BTHO0405)

31) 만[3]: 접속문의 유형은 지금까지 대등과 종속으로만 분류되었지 더 이상의 분류는 없었던 것 같다. (BTHO0399)

48) '비교'를 의미하는 '만'은 본 연구의 설명문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 30)은 의미격조사에 '만'이 선행한 '으로만'의 예인데 이때 '만'은 본래 보조사인 항목이 부분적으로 '으로/로'에 선행한 현상이며 31)은 본래의 보조사적 특성에 따라 '으로만'으로 사용되며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만'은 해석의 순서가 달라졌을 뿐 서로 다른 항목은 아니다. 즉 두 '만' 모두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다음과 같이 해석의 순서만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만[1]: 만+격표지, [NP+한정]+격표지화
만[3]: 격표지+만, [NP+격표지화]+한정
(홍사만 2002:245)

따라서 만[1]은 NP에 직접적으로 '만'의 영향을 미치고 [NP+만] 전체를 다시 후행 조사가 격표지화 한 것이며, '만[3]'은 [NP+격표지]를 '만'에 앞서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이 의미적으로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다음을 통해 알아본다.

32) 만[1]: 빵만으로 산다.
33) 만[3]: 빵으로만 산다.
(홍사만 2002:246)

위 32), 33)은 홍사만(2002)에 따르면 구별이 쉽지 않으며 문장에서 의미를 변별시킬 만큼 미분화되지는 않는다고 한다(홍사만 2002:24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 차이가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32)의 '빵만으로 산다'는 '만'이 선행 명사에 먼저 결합함으로써 필자가 '빵'을 유일한 수단으로 선택한 의도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33)의 '빵으로만 산다'는 '으로/로'와 같은 '수단과 방법'이 우선적으로 해석되어 '수단'에도 '만'의 의미가 부가됨으로써 외부 조건이 정해져 수동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30)에서 '만으로'는 '단 한 개'와 같이 적극적 제한의 수식어

가 사용되었고, 31)의 '으로만' 과거의 분류 체계가 수동적인 관습이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차이는 다음의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34) 만[1]: 예를 들어 영어에서 'wear'나 'put on' 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들이 국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 (BTHO0399)
35) 만[3]: 이처럼 청유문은 단순히 화자와 청자가 함께 어떤 일을 하자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BTHO0399)

'만[1]'의 34)는 적은 수의 어휘로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가 나타나며, 한편 '만[3]'의 35)는 문장 이해의 방식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표현되었다. 즉, 선행 명사구의 제한성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만으로'가 쓰이고 반면에 '명사+으로/로'의 조건 전체가 제한되어 수동성이 주가 될 때에는 '으로만'이 사용된다고 본다.

'만'은 이같이 다양한 용법이 존재하지만 '만'의 조사 범주는 보조사1로 통일한다. 그 이유는 주로 '만'의 분포 특성에 따른 것인데 '만[1]'의 사용은 '만으로'의 한 유형뿐이었으나, '만[3]'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설명문에서만 해도 '에만, 으로만, 에서만, 에게만, 과만(과[1]), 만큼만(만큼[1]), 으로서만, 이라고만'으로 더 다양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만[4]'과 '만[3]'을 비교해 본다.

36) 만[3]: 너 시집도 읽었니? 아니 소설책만 읽었어.
37) 만[4]: 너 어제 하루 종일 뭐했니? 소설책만 읽었어.

(황화상 2012:141)

위에서 36)은 '만[3]'으로, 선행 명사에 '유일'의 의미를 부여하며, 한편 37)의 '만[4]'는 영향력이 서술어로 확장된다(황화상 2012:242). 즉 36)에서 '유일'의 대상은 '시집'이지만, 37)에서 '유일'의 대상은 서술어인 '읽다'로, 여

기서 배제되는 자매항은 '공부를 하다, 친구와 놀다' 등과 같은 서술어 범주이다. 이 같은 '만[4]'의 용법은 보조사2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최재웅(1996)에 따르면 '만'이 이와 같이 작용역이 넓은 강조 용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유일'의 '만'과 별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그 기능의 연장선에서 작용역이 넓게 확대된 것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현상은 특수한 화용적 맥락이 적용되어 만들어 낸 표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최재웅 1996:690).

본 연구 또한 위와 같이 '만[4]'가 보조사2와 같이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나 이 역시 보조사3의 용법 중 화자의 태도가 더 많이 드러나 작용역이 확장된 쓰임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앞서 '까지'에서도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확장적 쓰임이 허용된 것과 같이 '만'에서도 이 같은 쓰임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는 보조사1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만[2]' 또한 '만[3]'의 확장으로 이해하는데 그 이유는 '만'의 의미 '유일'은 다른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전제된 대상과의 비교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사격조사 '과/와'는 본래 '동반'을 의미하지만 '동반'이 다른 대상의 존제를 전제하므로 '비교'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만' 또한 그 고유의 의미 특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의미의 확장이 가능해진 것으로 본다[49].

2.3. 정리

조사연속구성의 원리에는 한국어의 후치사적 특성이 관여된다. 따라서 문법성을 나타내거나 의미의 추상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후행하게 되며, 또한 작용역이 함께 영향을 미쳐 조사의 선택과 배열에 영향을 주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9) 교육적 유용성의 관점에서도 여러 개의 '만'을 각기 분리하는 것보다는 '만'을 『표준』의 범주와 일치시킨 후 '만[3]'을 중심으로 '만[1], 만[2], 만[4]'로 확장되는 양상을 교수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와 기억에 유리할 것이다.

[표 Ⅱ-8] 후치사적 속성, 작용역에 따른 조사연속구성의 순서

후치사적 특성	어휘적 ←----------→ 문법적 구체적 의미 ←----------→ 추상적 의미			
작용역	좁음 ←----------→ 넓음			
조사연속구성	‘까지, 만’ (어휘적일 때)	의미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1	보조사2/ 구조격조사

‘까지, 만’이 어휘적 의미, 구체적 의미에 가까워 작용역이 제한될 때는 의미격조사보다도 선행하며, 의미격조사, 보조사1, 보조사2와 구조격으로 갈수록 작용역이 넓어지며 후행한다. 또한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는 모두 작용역이 넓지만, 보조사2가 어휘적 요소를 더 많이 함의하여 이 두 부류가 중첩될 경우 구조격조사가 생략된다. 따라서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보조사2/구조격조사’의 결합 순서는 위와 같은 원리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조사 결합의 원리가 적용되는 양상 및 이로써 파악되는 다양한 언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모어 화자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를 분석한다. 이때 분석의 순서는 모어 화자 말뭉치를 먼저 살펴보고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이에 비교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모어 화자 말뭉치의 분석은 토박이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으로서 제이언어 교사와 제이언어 학습자를 이끄는 규범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Stern, 심영택 외 옮김 1995:136).

그런데 말뭉치의 분석은 언어 사용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복잡성과 열린 체계라는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분석 방식이기도 하다(Beaugrande & Dressler, 김태옥·이현호 공역 1995:3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말뭉치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술 문법의 관점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언어 현상을 기술하여 학습자에게 실제적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 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각 언어 항목이 문장의 다른 단위들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언어를 관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호성을 감소시킨다(Kübler 2002:193). 둘째, 말뭉치에서 추출된 문장들은 연구자가 만든 가공된 문장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용 특성이 많이 나타나, 이전의 연역적 논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규칙성과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Mindt 2002:91).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행하는 조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 명사+조사'의 작용역이 후행 조사로 포괄되어, 후행 조사가 갖는 다른 항목과의 관련성과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앞 장에서는 '구조격조사 부류, 의미격조사 부류, 보조사1 부류, 보조사2 부류'로 조사 범주의 명칭을 정하였으나 지금부터는 편의상 '구조격조사, 의미격조사, 보조사1, 보조사2'로 간단히 지칭한다.

1. 조사연속구성체의 분포

말뭉치에 사용된 조사연속구성체의 분포는 우선 이러한 빈도를 나타낸 모어 화자 말뭉치의 자료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주로 모어 화자의 문어 통합 말뭉치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설명문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이 같은 분포 특성은 모두 본 연구의 설명문 말뭉치에서 추출된 108개의 조사연속구성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50].

1.1. 모어 화자 말뭉치의 자료적 특성

모어 화자 말뭉치의 자료 특성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빈도를 비교하고 둘째, 후행 조사를 기준으로 그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중이 설명문과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1) 설명문과 문어 통합 말뭉치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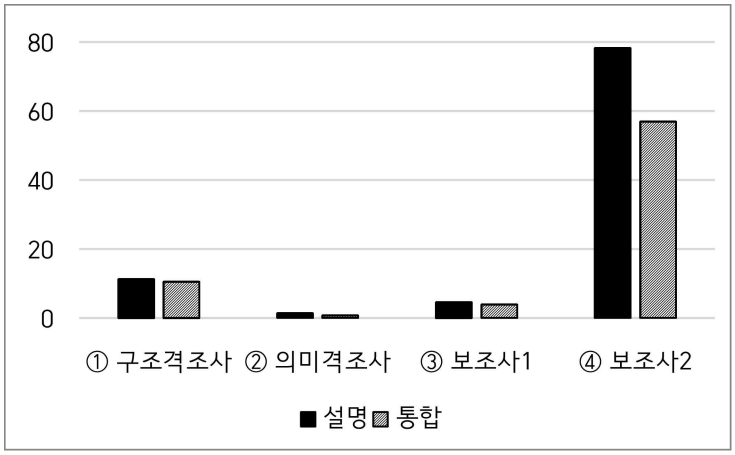
설명문에 사용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문어 통합 말뭉치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 빈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후행 조사	항목	설명		통합		정규 빈도 차이	X2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① 구조격 조사	이/가[1]	71	1.27	444	1.28	-0.01	x
	을/를	78	1.40	417	1.20	0.2	o
	이/가[2]	19	0.34	169	0.49	-0.15	o
	의	461	8.27	2,614	7.54	0.73	o
	전체	629	11.29	3,644	10.52	0.77	o
② 의미격 조사	으로/로	26	0.47	152	0.44	0.03	x
	처럼	27	0.48	63	0.18	0.3	x
	과/와[1]	19	0.63	30	0.09	0.54	o
	보다	3	0.05	5	0.01	0.04	x
	만큼	1	0.02	1	0.003	0.017	x

50) 따라서 분석 대상 항목의 사용 경향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하나, 이외 다양한 빈도로 출현한 조사연속구성체와는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전체	76	1.36	251	0.72	0.64	o
③ 보조사1	까지	35	0.63	263	0.76	-0.13	o
	만	213	3.82	1,035	2.99	0.83	o
	조차	3	0.05	12	0.03	0.02	o
	이나마/나마	3	0.05	30	0.09	-0.04	x
	부터	1	0.02	1	0.003	0.017	x
	요	1	0.02	7	0.02	0	x
	전체	256	4.59	1,348	3.89	0.7	o
④ 보조사2	도	714	12.81	5,341	15.42	-2.61	o
	은/는	3,585	64.32	13,875	40.05	24.27	o
	이나/나	52	0.93	461	1.33	-0.4	o
	이야/야	7	0.13	42	0.12	0.01	x
	전체	4,358	78.19	19,719	56.91	21.28	o



[그림 Ⅲ-1]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유형별)

위 빈도의 특징을 구조격조사부터 살펴보면 '이/가[1]'은 설명문과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유의미한 빈도 차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외 항목들인 '을/를, 이/가[2], 의'는 유의미한 빈도 차를 나타냈다. 이 중 '이/가[2]'는 유의미한 차이로 빈도가 적었고, '을/를, 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이 같은 설명문의 조사 사용 특성은 문어 전체에 대비되는 설명문의 내용 특성과도 관련된다.

설명문은 앞서 언급하였듯 주된 기능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몇 가지 구조의 유형을

택한다. 이 구조는 텍스트의 내용 전개 양상과 관련되는 다양한 거시 구조로 나타나며[51] 따라서 예컨대 양태영(2010)에서는 '나열, 강조, 인과, 예시-정의, 포괄-분류, 대조-비교, 전환'의 유형을 제시했으며 메이어와 프리들(Meyer & Freedle, 1984)은 '기술의 수집(collection of description) 인과(causation), 문제/해결(problem/solution), 비교(comparison)'를 제시하였다(Meyer & Freedle 1983:121). 또한 이삼형(1994)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관계 의미'로 파악하며 구체적으로는 '부가, 공제, 인과, 이유, 비교·대조, 상세화, 문제/해결, 초담화'의 관계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삼형 1994:63-74[52]).

이 같은 구조 유형은 문장 간 의미에 기초해 성립된 것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도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53]. 예컨대 구조격조사 유형에서 '이/가[1]'의 사용이 적은 것은 메이어와 프리들이 제시한 설명문의 거시 구조 중 '기술의 수집, 인과, 문제/해결, 비교'에 '필자 자신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 점과 관련된다. '이/가'로는 문장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 명사를 강조하며 이를 후행 명사와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의'는 설명문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요 정보와 관련되는 비인칭 주제들을 관련짓는 기능을 '의'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

51) 반 다이크(van Dijk)에 따르면 텍스트의 구조는 미시구조(micro-structur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초구조(superstructure)로 구분되는데, 이 중 텍스트의 내용 전개 양상과 관련이 깊은 것이 거시구조이다. 초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전체 구조를 일컫는 경우가 많고 미시구조는 거시구조와 유사 개념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 다이크(van Dijk)에서는 미시구조와 거시구조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매우 간단한 텍스트에서는 미시구조가 곧 거시구조가 될 수 있고, 길고 복잡한 텍스트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거시구조가 존재하게 될 수도 있어, 미시구조의 언급은 피하고 거시구조로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하였다(van Dijk, 정시호 옮김 1995:12).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이 같은 구조를 거시구조로 부르고 있으나 양태영(2013), 김보현·양명희(2019)에서는 미시구조라는 용어를 택하기도 하였다.

52) 텍스트가 응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장들이 '의미의 연속성'을 가져야 하며, 이 의미의 연속성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관계성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의미의 유형을 '관계 의미'로 살펴보았다(이삼형 1994:34).

53) 거시구조는 문장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기초한다(van Dijk, 정시호 옮김 1995:73-75). 이는 구조주의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표시한 개념이 텍스트언어학에서 명제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텍스트언어학의 형성 과정과도 관련된다(김봉순 1995:78).

다음으로 설명문에는 의미격조사가 후행하는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높은데 이는 설명문에 '비교'의 거시 구조가 자주 사용되는 경향성과 관련된다. 한편, 보조사1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의 전체 빈도는 설명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 중 '까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빈도가 낮았고, '만, 조차'만이 유의미한 차이로 빈도가 높았다. 이는 보조사1이 다양한 정도성의 의미를 나타내며, 특히 필자의 자기 표현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만'과 같이 객관성에 기반한 제한성과 강조를 주로 나타내는 조사의 사용이 더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54].

한편 보조사2에서는 '은/는' 후행 유형의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도, 이나/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로 설명문에서 낮았다. 이렇게 '은/는'의 빈도만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설명문이 주로 제보의 기능을 위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특정 주제어를 다른 조사 '에, 에서' 등에 자주 결합해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의 거시 구조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주제어에 '은/는'으로 비교·대조를 표현하는 빈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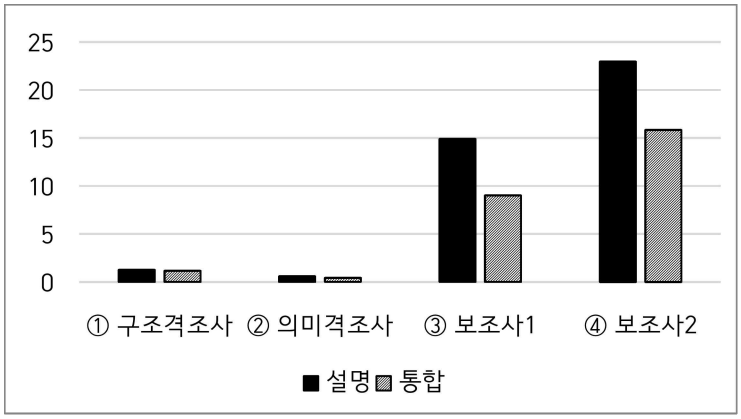
(2) 설명문과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

설명문과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각 조사가 다른 조사와 연속적으로 배열된 비율을 조사연속구성체의 후행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 보조사는 담화 의미의 하나로 객관성과 주관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객관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보조사는 '부터, 만, 밖에, 도, 이나/나, 은/는'이 있고, 주관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조사에는 '마저, 까지, 조차, 이야/야, 인들, 이라고/라고, 이나/나, 이라도/라도, 이나마/나마, 이야말로/야말로, 은커녕' 등이 있다(홍기선 2017:973).

[표 Ⅲ-2]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 구성된 비율

후행 조사	항목	설명문	문어 통합	차이
① 구조격조사	이/가[1]	0.58	0.49	0.09
	을/를	0.40	0.33	0.07
	이/가[2]	1.62	2.02	-0.40
	의	2.71	2.99	-0.28
	전체	1.26	1.16	0.10
② 의미격조사	으로/로	0.26	0.33	-0.07
	처럼	11.79	2.27	9.52
	과/와[1]	0.89	0.33	0.56
	보다	0.67	0.17	0.50
	만큼	4.76	0.34	4.42
	전체	0.59	0.41	0.18
③ 보조사1	까지	5.71	4.95	0.76
	만	30.30	16.77	13.53
	조차	27.27	2.88	24.39
	이나마/나마	42.86	22.90	19.96
	부터	0.26	0.04	0.22
	요	20	5.74	14.26
	전체	14.90	9.02	5.88
④ 보조사2	도	29.35	19.71	9.64
	은/는	21.96	14.63	7.33
	이나/나	27.08	24.31	2.77
	이야/야	38.89	7.09	31.80
	전체	22.97	15.85	7.12



[그림 Ⅲ-2] 모어 화자: 설명문, 문어 통합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유형별)

위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설명문의 조사연속구성 비중이 문어 통합 말뭉치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보조사1은 정규 빈도가 낮은 것에 반해 다른 조사에 연속 구성된 비중은 5.88%로 더 높게 나타나 차이가 큰 편이었다. 보조사2의 경우도 문어 통합 말뭉치에 비해 7.12%가 더 높아 설명문에서 결합 비중이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었다[55].

이는 설명문이 격식적 문어 텍스트인 것과 관련된다. 글의 구조를 표시하는 조사의 경우는 격식적이고 형식적인 텍스트의 구성을 위해 설명문에서 생략이 덜 되고, 고빈도로 표현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문어는 다른 구어 형식에 비해 언어 외적 정보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설명문은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함축적인 방식보다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글의 의미가 명시적이며, 논리성을 중시한다(김봉순 1999:142). 따라서 조사와 같은 언어 항목도 생략하기보다는 표현하여 글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설명문은 이미 사용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에 한해서는 대부분 그 사용 빈도와 연속 구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설명문의 제보 기능 및 문어적, 격식적 성격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문어의 특성 및 논리성과 명시성을 갖추어 이 같은 속성을 지닌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2.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분포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에 사용된 조사연속구성체 사용의 빈도 특성을 각 항목의 정규 빈도와 후행 조사 기준의 결합 비율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

모어 화자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중·고급 통합)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5) 이는 한편으로 조사연속구성체의 다양한 정도는 서사하기나 주장하기 등의 텍스트 유형에 비해 설명문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텍스트들에는 필자의 주관성을 많이 나타내는 보조사나 다양한 구어 표현, 방언들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표 Ⅲ-3]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

후행 조사	항목	모어 화자		학습자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① 구조격조사	이/가[1]	71	1.27	1	0.16
	을/를	78	1.40	-	-
	이/가[2]	19	0.34	2	0.32
	의	461	8.27	14	2.23
	전체	629	11.29	17	2.71
② 의미격조사	으로/로	26	0.47	1	0.16
	처럼	27	0.48	-	-
	과/와[1]	19	0.63	-	-
	보다	3	0.05	-	-
	만큼	1	0.02	-	-
	전체	76	1.36	1	0.16
③ 보조사1	까지	35	0.63	-	-
	만	213	3.82	39	6.23
	조차	3	0.05	-	-
	이나마/나마	3	0.05	-	-
	부터	1	0.02	1	0.16
	요	1	0.02	-	-
	전체	256	4.59	40	6.39
④ 보조사2	도	714	12.81	93	14.85
	은/는	3,585	64.32	541	86.37
	이나/나	52	0.93	3	0.48
	이야/야	7	0.13	2	0.32
	전체	4,358	78.19	639	102.01

위 자료를 살펴보면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의 빈도는 모어 화자가 더 높지만 보조사1과 보조사2의 조사연속구성체 전체 빈도는 학습자가 더 높았다. 이 중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은 카이제곱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모어 화자의 사용이 더 많았으며, 반면에 보조사1과 보조사2에서의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로 학습자가 더 높았다.

이같이 보조사1과 보조사2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하였으나 개별 조사별 빈도를 살펴보면 두 유형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보조사1의 경우는 총 빈도가 높아진 것이 '만' 후행 유형의 정규 빈도가 6.23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며 다른 조사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조사2에서는 '도, 은/는, 이나/나, 이야/야'의 빈도가 모어 화자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조사2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 구성체는 보조사1보다 더 고른 사용과 빈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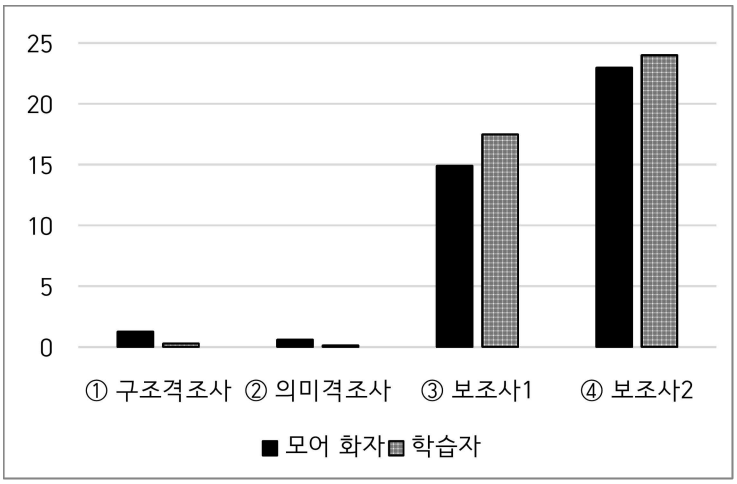
(2)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

다음으로 각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중을 모어 화자와 학습자 자료를 비교해 살펴본다.

[표 Ⅲ-4]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가 연속 구성된 비율

후행 조사	항목	모어 화자	학습자	학습자, 차이
① 구조격조사	이/가[1]	0.58	0.04	-0.54
	을/를	0.40	-	-0.4
	이/가[2]	1.62	2.22	0.69
	의	2.71	1.36	-1.35
	전체	1.26	0.28	-0.98
② 의미격조사	으로/로	0.26	0.18	-0.08
	처럼	11.79	-	-11.79
	과/와[1]	0.89	-	-0.89
	보다	0.67	-	-0.67
	만큼	4.76	-	-4.76
	전체	0.59	0.12	-0.47
③ 보조사1	까지	5.71	-	-5.71
	만	30.30	50	19.7
	조차	27.27	-	-27.27
	이나마/나마	42.86	-	-42.86
	부터	0.26	1.37	1.11
	요	20	0	-20
	전체	14.90	17.47	2.57
④ 보조사2	도	29.35	15.27	-14.08
	은/는	21.96	26.58	4.62
	이나/나	27.08	16.67	-10.41
	이야/야	38.89	100	61.11
	전체	22.97	23.99	1.02

56) 그러나 이같은 빈도들은 모두 학습자의 '생략' 오류를 포함한 빈도이며 사용한 항목만의 빈도는 아니다.



[그림 Ⅲ-3]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유형별)

후행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가 연속하여 사용된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는 학습자 자료에서 결합 비중이 더 낮았으며, 한편 보조사1과 보조사2는 약 1%정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율 차이가 1%이상 나지 않고 있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여졌다. 그러나 이같이 수치가 유사한 것은 그 항목이 적절히 사용되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며 이는 생략의 오류를 포함한 결과이므로 다음에서 학습자의 오류율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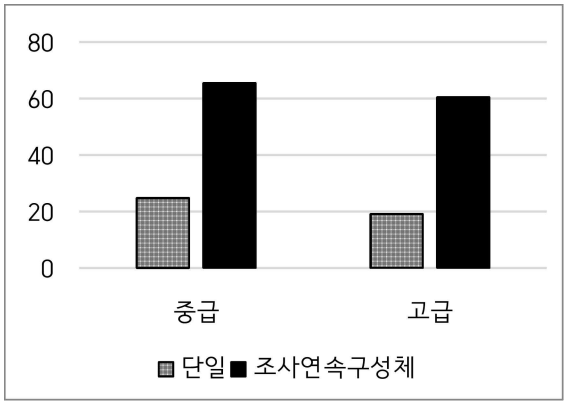
(3) 단일 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

다음은 후행 조사를 기준으로 단일 조사로 사용되었을 때의 오류율과 연속 구성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오류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안의 숫자 중 '0'으로 표시된 것은 오류율이 0%인 것을 의미하며, '-'로 표시된 것은 해당 항목을 학습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표 Ⅲ-5] 학습자: 단일 조사의 오류율과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

후행 조사	결합형	중급		고급	
		단일 (%)	중첩 (%)	단일 (%)	중첩 (%)
① 구조격조사	이/가(주격)	35.58	100	30.81	-

	을/를	19.93	-	13.96	-
	이/가(보격)	28.57	100	6.58	100
	의	17.56	50	16.86	62.5
	전체	26.24	62.5	21.31	66.67
② 의미격조사	으로/로	20.98	-	7.81	100
	처럼	0	-	14.29	-
	과/와	13.58	-	13.46	-
	보다	26.32	-	0	-
	만큼	66.67	-	-	-
	전체	18.11	-	8.42	100
③ 보조사1	까지	8	-	3.13	-
	만	8.82	14.29	-	21.88
	조차	-	-	0	-
	이나마/나마	0	100	-	-
	부터	2.86	100	2.86	-
	요	-	-	0	-
	전체	6.32	25	2.78	21.88
④ 보조사2	도	21.83	71.43	11.81	48.28
	은/는	25.07	65.73	20.99	67.84
	이나/나	28.57	50	0	0
	이야/야	-	100	-	-
	전체	24.24	66.46	18.5	64.01
총계		24.77	65.4	19.07	60.39



[그림 Ⅲ-4] 학습자: 단일 조사의 오류율과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급별 총합)

단일 조사의 오류율과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을 비교했을 때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은 큰 차이로 높다. 조사연속구성체의 총 오류율은 중급 65.4%, 고급 60.39%로 모두 60% 이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학습자가 단일 조사로 사용했을 때의 총 오류율은 24.77%, 19.07%로, 연속 구성이

었을 때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오류율을 후행 조사의 범주별로 살펴보면,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 모두 단일 조사일 때는 약 20%대의 오류율을 나타냈고, 연속 구성일 때는 모두 약 60%대로 나타나 연속 구성의 오류율이 약 3배 정도 높았다. 의미격조사는 미사용의 경향성이 두드러졌으며, 보조사1은 단일 조사일 때와 연속 구성일 때 모두 다른 조사 유형에 비해 오류율이 낮았다. 그러나 이 범주에서도 단일 조사로 쓰일 때에 오류율이 중급 6.32%, 고급 2.78%였던 것에 반해 연속 구성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오류율은 25%, 21.8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단일 조사 사용에 비해 조사연속구성의 오류율이 약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다.

1.3.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다양성 비교

마지막으로 모어 화자와 학습자가 위와 같은 수치로 조사연속구성체를 사용할 때 얼마나 다양한 조사연속구성체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고자 학습자가 사용한 유형과 사용하지 않은 유형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많은 항목을 미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개수와 빈도를 알아보았다.

(1)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과 미사용한 구성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의 개수를 모어 화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개수

후행 조사	사용한 항목의 개수	
	모어 화자	학습자
① 구조격조사	28	9 (32.14%)[57]
② 의미격조사	8	1 (12.50%)
③ 보조사1	22	6 (27.27%)
④ 보조사2	50	23 (46%)
전체	108	39 (36.11%)

57) 이 비중은 모어 화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 개수 대비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

위 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사용 개수가 더 적은 편으로 모어 화자는 108개 항목을 사용한 것에 반해 학습자는 39개인 약 36%에 해당하는 항목이 사용된 것이 보인다. 이 중 특히 의미격조사에서는 1회의 사용만이 나타났으며, 이외 항목들도 모두 모어 화자가 사용한 전체 개수의 10-50%를 사용하여 더 적은 항목이 쓰였다. 다음은 각 유형별로 학습자가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이다.

[표 Ⅲ-7] 학습자: 사용/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격조사 후행)

후행 조사		사용한 항목	미사용한 항목
① 구조격 조사 (총 28개)	이/가[1]	**만이**	**으로만이**, **에서만이**, 까지가, 부터가
	을/를	-	만을, 까지를
	이/가[2]	**만이**, **뿐만이**	으로서가, 에서가, 으로가, **에서만이**, 뿐이
	의	에서의, 과의(과[1]), 까지의, 만의, 부터의, 마다의	으로서의, 과의(과[2]), 으로의, 에의, 으로부터의, 으로써의, 만큼의(만큼[1]) 대로의
	전체 개수	9	19
② 의미격 조사 (총 8개)	으로/로	만으로	에게로, 까지로
	처럼	-	에서처럼
	과/와[1]	-	에서와(과[1]), 까지와(과[1])
	보다	-	에서보다
	만큼[2]	-	에서만큼(만큼[1])
	전체 개수	1	7

위 표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의 개수는 대략 '이/가[1], 이/가[2], 으로/로'에서 각각 1-2개씩이고, '의'는 비교적 다양한 6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한편 '을/를' 후행이나 의미격조사 후행의 유형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 중 밑줄 친 항목은 모어 화자의 경우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도 확장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만이(이[1]): 으로만이, 에서만이
만이(이[2]): 뿐만이, 에서만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격과 보격의 '이/가'에서 3개 조사의 연속 구

구성체의 개수이다.

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같은 연속 구성 형태는 '뿐만이'만을 사용하였고 다른 항목은 사용하지 않아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보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8] 학습자: 사용/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보조사 후행)

후행 조사		사용한 항목	미사용한 항목
③ 보조사1 (총 22개)	까지	-	에까지, 으로까지, 에게까지, 에서까지
	만	에만, 으로만, 에서만, 과만(과[1]), **뿐만**	에게만, 만큼만(만큼[1]), 으로서만, 이라고만, **으로서뿐만**, **으로뿐만**, 까지만, 대로만
	조차	-	에서조차
	이나마/나마	-	으로나마, 에서나마
	부터	에부터	-
	요	-	가요
	전체 개수	6	16
④ 보조사2 (총 50개)	도	에도, 에서도, **으로도**, 과도(과[1]), 이라고도, 에게도, 한테도, **까지도** 밖에도	**만으로도**, 보다도, 서도(서[2]), 으로써도, 께도, 으로부터도, 으로서도, **에까지도**, **에게까지도**, 마저도, 조차도, 만도
	은/는	**에는**, 에서는, **으로는**, **과는**(과[1]), 보다는, 에게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	**까지에는**, **만으로는**, **에서와는**(과[1]), **까지와는**(과[1]), 으로서는, 서는(서[2]), 으로써는, 이라고는, 서는(서[1]), 만은, 밖에는
	이나/나	서나(서[2]), 만큼이나(만큼[1]), 까지나	으로나, 에서나, 에나, 에게나
	이야/야	에야	
	전체 개수	23	27

위 목록에서 모어 화자는 보조사1 후행 유형에서 22개, 보조사2 후행 유형에서는 50개의 조사연속구성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을 조사 부류별로 살펴보면 보조사1은 '만' 후행 유형과 '부터' 후행 유형만이 사용되었다. 특히 '까지' 후행이 모어 화자는 활발히 사용한 데 반해 학습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보조사2 후행 유형은 학습자 말뭉치에서도 가장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도'와 '은/는', 그리고 '이나/나' 후행 유형에서도 비교적 많은 항목을 사용했고, '에야'는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도 사용이 1회뿐이었는데 이 또한 사용되었다[58]. 한편 이 유형에서도 격조사와 유사하게 3

개 조사의 연속 구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보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 구성체 중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은 다음과 같다.

뿐만: 으로서뿐만, 으로뿐만
으로도: 만으로도
까지도: 에까지도, 에게까지도
에는: 까지에는
으로는: 만으로는
과는(과[1]): 에서와는, 까지와는

위의 3개 조사 연속 구성은 대체로 '뿐만, 까지도'와 같은 '보조사+보조사' 구성이 의미격조사에 한번 더 후행한 경우였다. 이외 항목들은 모두 보조사1 중 예외적 순서를 나타내는 '까지, 만'이 '의미격조사+보조사'에 선행한 것이었다. 한편, 학습자는 위 목록의 3개 조사 연속 구성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3개 조사로 확장이 가능한 2개조사의 연속 구성인 '으로도, 까지도, 에는, 으로는, 과는(과[1])'은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사연속 구성체의 구성 자체보다 이것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인식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었다.

(2) 학습자가 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개수와 빈도

다음은 학습자가 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항목의 개수와 빈도를 모어 화자와 비교한 것이다.

[표 Ⅲ-9] 학습자: 미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개수와 빈도

후행 조사		모어 화자 사용		학습자 미사용			
		개수	빈도	개수	개수(%)	빈도	빈도(%)
① 구조격조사	이/가[1]	5	71	4	80	4	5.63
	을/를	2	78	2	100	78	100
	이/가[2]	7	19	5	66.67	6	26.32
	의	14	461	8	57.14	163	35.36

58) 이후 살펴보겠으나 다만 이는 오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전체	28	629	19	75	250	39.75
② 의미격조사	으로/로	3	26	2	66.67	6	23.08
	처럼	1	27	1	100	27	100
	과/와[1]	2	19	2	100	19	100
	보다	1	3	1	100	3	100
	만큼	1	1	1	100	1	100
	전체	8	76	7	87.50	56	73.68
③ 보조사1	까지	4	35	4	100	35	100
	만	13	213	8	61.54	21	9
	조차	1	3	1	100	3	100
	이나마/나마	2	3	2	100	3	100
	부터	1	1	0	0	0	0
	요	1	1	1	100	1	100
	전체	22	256	16	72.73	63	24.61
④ 보조사2	도	21	714	12	57.14	69	9.66
	은/는	21	3,585	11	52.38	96	2.68
	이나/나	7	52	4	57.14	40	76.92
	이야/야	1	7	0	0	0	0
	전체	50	4,358	27	54	205	4.70
전체		108	5,319	68	62.96	574	10.79

학습자가 미사용한 항목은 개수로 보았을 때는 약 63%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수의 비중에 비해 빈도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전체에서 약 10.79%의 빈도를 차지하는 항목들을 학습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각 범주별로 살펴보면 의미격조사의 후행 유형에서 항목의 개수와 그 항목의 빈도의 가장 높아 미사용의 경향이 뚜렷했다. 이외 구조격조사 후행, 보조사1 후행에서는 미사용한 항목의 개수가 각기 75%, 72.73%로 나타났는데 이에 반해 빈도의 비중은 각기 39.75%, 24.61%로 낮게 나타나 고빈도에 해당하는 항목은 학습자가 사용하였으나 다양한 저빈도 항목은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보조사2 후행에서는 이 같은 경향성이 더 두드러져, 개수로는 54%의 항목을 학습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 항목들의 빈도는 4.70%에 그쳤다. 즉 학습자는 의미격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빈도의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은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저빈도 표현에 대한 사용 시도가 적었다고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말뭉치 자료에 나타나는 분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모어 화자 말뭉치의 자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어 통합 말뭉치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설명문 말뭉치를 비교해 본 결과 각 조사연속구성체 항목과 후행 조사 기준의 조사연속구성의 비율이 설명문에서 모두 더 높았다. 이는 이 자료가 객관적이고 격식적 텍스트로서 명료한 구조를 지향하여, 이로 인해 조사를 잘 생략하지 않는 텍스트라는 것을 보여 준 결과이다. 그러나 조사연속구성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 적은 유형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어 화자와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보조사2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외 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주로 학습자의 미사용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2와 같은 유형에서 학습자의 사용 빈도가 높게 추출되기는 하였으나 오류율이 조사 단독 사용에 비해 연속 구성에서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상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였다.

셋째,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다양성을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 학습자는 전체 항목의 개수 중 약 63%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미사용한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빈도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학습자는 개수의 다양성 비중이 낮은 것에 반해 빈도에서는 차이가 비교적 적어 고빈도 표현에 사용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 모어 화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모어 화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은 앞서 살펴본 '형식, 의미, 사용'의 범주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형태'에서는 조사 결합의 원리와 제약 조건을 알아보고, '의미'에 관해서는 의미 구조와 관용적 사용 양상을, 그리고 '사용'에 관해서는 문어성이나 격식성, 강조의 용법이 나타나는 양상을 알아본다.

이 중 '의미 구조'는 앞서 살펴본 개별 조사의 의미 요소를 조사연속구성체 해석의 순서에 따라 [ ]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화자가 언어 항목을 사용할 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고, 이후에 그에 맞는 언어 항목을 찾아 가는 과정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 항목의 기능이나 규칙성이 의미에 앞서 제시되는 것은 학습의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항상 맥락과 의미가 먼저 고려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품사에 대한 고려가 먼저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이 컴퓨터에 앉아 갑자기 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생성하고 싶어 이에 해당하는 언어를 입력하여 문어로 산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Biber & Conrad 2019:9). 따라서 실제 상황 안에서 언어 항목을 선택하는 절차를 고려한다면 맥락에 맞는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대상 항목의 전체 유형 중 후행 조사가 격조사일 때는 거의 '통사·의미·기능'이 문장에 모두 나타나고 후행 조사가 보조사일 때에는 주로 '의미·기능'이 나타났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특징은 문장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한다[59]. 한편 '가요, 한테도, 에게나'는 빈도의 분석에서는 대상으로 포함하였지만 모두 필자가 인용한 예문이나 직접 인용문에서 1회만 사용되어 실제적으로 필자가 언급한 조사연속구성체가 아닌 것으로 보고 문장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59) 격조사와 보조사는 문장 내 역할에서 차이를 보인다. 격조사는 통사·의미적인 기능을 하며, 보조사는 문법적 기능이 뚜렷하지 않아 주로 의미·기능만을 나타낸다(고영근·구본관 2018:149).

2.1. 구조격조사의 강조 표현 및 통사·의미·기능 부가

다른 조사에 후행한 구조격조사에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의'가 있다. 이때 '강조' 의미는 생략이 가능한 격조사를 문장에 표현하거나 그 조사를 사용한 문장 구조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로 나타났다.

(1) 주격조사 '이/가[1]' 후행

주격조사 '이/가'가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는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유형'은 조사 부류에 따른 결합 유형이며, '항목'은 조사연속구성체의 개별 항목이다. '원빈도'는 각 항목이 사용된 횟수이며, '정규 빈도'는 전체 형태소를 1만 개로 환산했을 때의 빈도이다. '의미 구조'는 선행 조사와 후행 조사와의 의미 및 통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컨대 [[유일]+대상(강조)]의 경우 [유일]은 [NP+유일]을 나타낸다. 이때 'NP+'는 공통 항목이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그리고 [ ]는 해석의 순서를 고려한 표시로, [[유일]+대상(강조)]은 '유일'의 의미를 '대상(강조)'이 포괄하는 해석의 순서를 나타낸다[60].

[표 Ⅲ-10] 모어 화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61]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의미격)+보조사1+구조격	만이	67	1.20	[[유일]+주체(강조)]
	으로만이	1	0.02	[[[방식]+유일]+주체(강조)]
	에서만이	1	0.02	[[[처소]+유일]+주체(강조)]
	까지가	1	0.02	[[끝점]+주체(강조)]
	부터가	1	0.02	[[시작점]+주체(강조)]

60) 의미의 해석 순서를 표시하지 않고 의미 간 결합 관계만을 나타낼 때는 '유일+대상(강조)'과 같이 표시하기도 하였다.

61) 표 안에서 조사연속구성체의 제시 순서는 '1) 격조사 결합형 → 보조사 결합형 2) 고빈도 항목 → 저빈도 항목'의 순서로 하였으며 이 중 관용적 사용이 유사하거나 2개 조사 결합형이 3개 조사의 결합으로 확장되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연이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격조사 '이/가'의 조사연속구성체는 '만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으로만이, 에서만이'의 3개 조사 연속 구성으로도 확장되었다. '만'에 선행한 '으로/로, 에서'는 의미격조사이므로 '만'은 일반적인 보조사1의 순서에 따라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가'에 선행한 보조사1인 '만, 까지, 부터'는 어떤 것에 대한 범주의 제한과 관련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다. 이 목록 중 가장 빈도가 높으면서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도 사용된 '만이, 으로만이, 에서만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만이, 으로만이, 에서만이>

1) 그리고 숟가락은 왕조 시대의 귀족만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BTHO0396)
2) 즉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은 반드시 '문장'이라는 단위로만이 완전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다. (BTHO0399)
3) 뿐만 아니라 언어의 의미는 문장 차원에서 모두 파악될 수 없고, 담화 차원에서만이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BTHO0399)

1)의 '만이'에서 '만'은 선행 명사인 '귀족'에 '유일'의 의미를 더해 주었으며, 후행하는 '이/가'는 '귀족만' 전체를 서술어 '사용하다'의 주체로 언급하는 기능을 하였다. 2), 3)은 '만이'의 이러한 '유일+주체'의 의미 결합에 앞서 선행 명사에 '으로/로', '에서'를 결합시켜 '방식', '처소'의 의미를 추가하였다. 한편 위에서 '이/가'에 선행한 보조사1 '만, 까지'는 다른 조사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 항목들로 격조사와의 결합도 다른 조사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위 주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한데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명시화되고 강조되어 '주체(강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62]. 한국어에서 격조사

62) 조사의 생략 가능성은 문장별로 다를 수 있다. 전반적인 특징은 성광수(1978)에 따르면 주격, 목적격은 동사에 의한 논리적인 판단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기원격, 처격, 시격, 경로격 등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여격, 도구격, 공동격, 도달격은 동사에 따라 필수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성광수 1978:50). 그러나 분석 대상을 구어와 문어의 여러 텍스트 유형으로 확장하면 주격, 목적격에서도 이 같은 전반적 특징에 예외가 많이 나타나 위에서 제시한 1)-3)의 경우 모두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는 생략이 가능한 상황이 많으며 이 같은 때는 보통 강조를 나타낸다. 생략이 가능한데 사용된 것은 선행 명사구와의 격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거나 초점, 강조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황화상 2012:229). 즉, '이/가, 을/를'의 기본적 의미는 격을 나타내는 것이나 이것이 생략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성기철 1994:35-36).

'강조'는 말의 표현에 힘을 주어 하려 하거나, 말의 어조를 다채롭게 하거나 혹은 말에 어떠한 정서를 부여하려 할 때 쓰이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허웅 1975:923). 이는 과거 15세기 국어에서는 '-아/어-, -거-, -도-' 등의 어미들로 실현되기도 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방언을 제외하고 이러한 방식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쓰이지 않게 되어 오히려 여러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게 되었다(권재일 1986:59)[63]. 이러한 강조는 방법적으로 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임성규 1989:134).

음운적인 방법: 얹힘음운에 의한다.
어휘적인 방법: 명사, 동사, 부사 등 품사 범주에 의한다.
형태적인 구성법: 파생형-접사에 의한다. 굴절성-조사, 어미에 의한다.
통사적인 구성법: 둘 이상의 어휘, 형태적인 결합에 의한다.
(임성규 1989:122)

위와 같이 강조의 방법은 '음운적,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으로 구별되며, 이 중 '이/가[1]'를 통한 강조는 '형태적인 방법'에 속한다. 생략이 가능한 주격조사가 문장에 표현됨으로써 명시화되고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가, 을/를'이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은 현상을 주된 경향성으로는 보고 있으나 규칙이나 원리로는 제시하지 않는다.

63) 강조는 15세기 한국어에서 굴곡 범주로 실현된 바 있으며 따라서 현재에도 어휘적이기보다는 문법적 관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권재일 1992:190). 이러한 강조 표현이 현재 한국어에는 일관된 언어 형식이 없는데 이는 임성규(1989)에 따르면 강조의 심리적 요인과도 관련된다. 즉, 화자는 보통 앞선 사람이 사용한 표현법보다 더 강한 강조법을 찾아 쓰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되며, 이에 결국에는 다양한 강조 형식이 생성되어 하나의 형태로 잘 고정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서는 중세에 쓰이던 많은 강조 표시의 형태소들이 거의 쓰이지 않고, 더 첨가되고 길어진 통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임성규 1989:134).

(2) ‘을/를’ 후행

목적격조사 ‘을/를’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Ⅲ-11] 모어 화자: ‘을/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보조사1+구조격	만을	77	1.38	[[유일]+대상(강조)]
	까지를	1	0.02	[[끝점]+대상(강조)]

‘을/를’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위에서 살펴본 ‘이/가’보다 더 제한적으로, ‘만, 까지’에만 후행하였으며, 보조사 ‘부터’나 의미격조사 ‘으로/로, 에서’와의 추가적인 결합은 없었다[64]. ‘만을, 까지를’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만을, 까지를>

4) 서울의 궁중에서 그랬듯이 충청도에서는 장의 발효액에서 간장만을 먹고, 평안도에서는 된장을 별로 먹지 않는다. (BTHO0396)

5) 일찍이 Ogden & Richards(1923)는 '의미'라는 말의 정의를 단순히 '사물의 속성'이라는 정의에서부터 '화자의 의도', '청자가 화자의 의도라고 믿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 22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BTHO0399)

4)에서 ‘만’은 ‘된장’에 유일성 의미를 더했으며 5)의 ‘까지’는 여러 종류의 정의 유형 중 마지막 항목에 ‘끝점’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그리고 4), 5)에서 ‘간장만을, 까지를’에서 ‘을/를’은 ‘간장만, 까지’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을/를’을 명시해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64) 문어 전체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보아도 ‘으로만을, 에서만을’의 빈도는 0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터’의 경우는 문어 전체에서 ‘부터를’이 2회 사용되었고 ‘부터가’가 24회 사용되었다. 따라서 ‘부터’는 ‘이/가’와의 결합 비중이 ‘을/를’보다 높으나 제약되는 정도는 아니며, ‘으로만을, 에서만을’의 결합은 거의 제약된다고 보여진다.

즉, '만을, 까지를'에서 '을/를'은 생략이 가능한데도 표현된 경우가 많아 '대상'의 의미에서 확장된 '강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만을, 까지를'은 모두 그 문장 성분이 목적어로 분석될 때로 한정되어 '대상'의 의미는 유지된다[65]. 이때 '을/를'이 강조를 나타내는 방식은 임성규(1989)에서 제시한 방법 중 조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형태적인 구성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을/를'은 '이/가'와 유사하게 여러 의미의 보조사 중 '만, 까지'와만 결합했는데, 이는 이 두 조사가 어휘적인 사용으로도 가능하여 다양한 조사에 선행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이/가'와의 차이점으로 '을/를'은 '에서만이, 으로만이'로 확장되지 않았는데 이는 '을/를'이 종결성(telicity)을 함의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을/를'은 장소 표현의 조사들 중 같은 종결성의 속성을 함의하는 조사들과 결합하는 특성이 있는데 '에서, 으로/로'는 그렇지 않아 결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종결성은 시간적 경계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건의 종결성을 보여 주는 의미적 특성 즉 증량적 해석(incremental interpretation)과 영향 입음(affectedness)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남승호 2006:50, 이선희 2004:58)[66]. 이는 직접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 예컨대 후퍼와 톰슨(Hopper & Thompson 1980)에서는 타동성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여

---

65) '이/가'와 '을/를'은 주어나 목적어적 성분 외의 언어 항목에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선희(2004)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을/를'이 강조나 초점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를 주어와 목적어의 원형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이선희 2004:220).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도 '이/가'와 '을/를'은 각 조사의 주어적, 목적어적 의미에 따른 분포 제약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미는 땅바닥엘 주저앉아 버렸어.'과 같은 문장에서 '을/를'은 부사어에 결합하였지만 여전히 '행위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한정된 장소'라는 의미를 나타내 선행 명사구의 의미가 '서술어의 행위로 인해 한정적인 상태의 변화를 겪거나 사건의 결과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원형 대상역의 의미와 관련성을 유지한다(이선희 2004:217, 221). 본 연구는 이 같은 의미 특성을 고려해 '이/가, 을/를'이 주어나 목적어 외의 성분에 결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모두 주격과 목적격으로만 분류하였다.

66) '증량적 해석'과 '영향 입음'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밥 한 공기를 먹었다'에서 '을/를'에 연결된 '밥 한 공기'는 '먹다'의 행위가 진행됨에 따라 양이 줄어드는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 '증량적 변화, 영향 입음'의 의미를 갖게 된다(남승호 2007:52, 이선희 2004:58). 한편 상적 의미의 구분은 벤들러(Vendler 1967)에 따르면 크게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성(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종결동사는 이 중 주로 완성 동사와 달성 동사를 포함한다(이선희 2004:58).

러 척도 중 하나로 상(aspect)적 의미 중 종결상(telic)을 제시하기도 하였다(Hopper & Thompson 1980:252)[67].

'에서, 으로/로'와 같이 장소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들은 임동훈(2017)에 따르면 각기 지점(point)과 지역(area)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된다. '지점'은 확장되지 않은 공간이고, '지역'은 확장되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에 방향성의 의미가 결합되면 '경계 닿음'에 따라 의미가 다시 구별된다(임동훈 2017:107).

종결성과 같은 의미는 '지역, 경계'의 개념을 함의하며 '을/를'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에서'는 '지점'과 관련되고, '으로/로'는 '지역'의 의미는 있지만 '경계 닿음'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아 '을/를'과 상충되어 상호 결합하지 않게 된다. 이정훈(2005), 홍기선(2017) 등에 따르면 대격조사와 통합할 수 있는 의미격조사는 '장소성' 중에서도 '도달점'의 의미 특성을 지녀야 한다[68]. 여기서의 '도달점'도 '지역, 경계'의 개념을 포함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6) 철수는 거리??에서를 돌아다녔다. (홍재성 1987:26)[69]

위 6)에 사용된 '에서'는 '을/를'과의 결합이 어색한데 이는 '에서'가 '도달점(지역, 경계 함의)'이 아닌, '지점'을 나타내어 '을/를'과 어울리지 않

67) 김영희(1999)에 따르면 후퍼와 톰슨(Hopper & Thompson 1980)이 제안한 여러 타동성의 매개 변인(parameters of transitivity) 중 한국어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둘 이상일 것, 활동성, 의지성, 작용성, 대상에 대한 영향성이 높을 것' 중 하나 이상이 '높음'의 정도로 나타나야 하며, 이러한 통사 의미적 타동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을/를'의 중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김영희 1999:100-107).

68) 이정훈(2005)에 따르면 목적격조사와 통합할 수 있는 어휘격조사는 '도달점'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주격조사와 통합할 수 있는 어휘격조사는 '장소성'의 의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제한된다. 홍기선(2017) 또한 '을/를'은 상황의 도달점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예: 철수가 영미에게를 책을 던졌다.)(홍기선 2017:972). 목적격조사의 이 같은 특성은 언어 일반적인 것이기도 한데, 예컨대 라틴어의 대격(accusative) 또한 직접목적어라는 통사적 관계 외에 목적지(destination)와 같은 의미적 관계를 표시하기도 한다(Blake 1994:33, 임동훈 2004:123).

69) 홍재성(1987)은 '에서'를 장면보어로, '을/를'을 행로보어로 보며 이 두 성분은 문장 내에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를'이 양태화된다 하더라도 '에서'와는 통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홍재성 1987:25-26).

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제약은 또한 '으로/로'가 '을/를'에는 선행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된다. 즉, '철수는 동쪽으로를 갔다'와 같은 사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으로/로'의 경우 지역에 전제되는 경계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고 방향성만을 의미하여, 도달점이나 종결상과 같이 경계의 개념을 포함하는 '을/를'과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을/를'은 보조사1의 경우는 주격조사 '이/가'와 유사하게 '만, 까지'와의 결합 빈도가 높았으나 '만이'가 의미격조사 '에서, 으로/로'와 결합한 형태는 쓰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에서, 으로/로'의 상적 특성이 종결상을 함의하는 '을/를'의 상적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편, 생략이 가능한 '을/를'이 보조사1에 후행하여 문장에 표현된 것은 '대상'의 '강조' 역할로도 볼 수 있었다.

(3) 보격조사 '이/가^{2}' 후행

보격조사 '이/가^{2}'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 관용적 사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12] 모어 화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의미격+구조격	으로서가	2	0.04	[[자격]+대상]	서술어가 모두 '아니다'
	에서가	1	0.02	[[처소]+대상]	
	으로가	1	0.02	[[방향/수단/이유]+대상]	
(보조사1)+보조사1+구조격	만이	9	0.16	[[유일]+대상]	
	에서만이	1	0.02	[[[처소]+유일]+대상]	
	뿐만이	2	0.04	[[[한정]+유일]+대상]	
	뿐이	1	0.02	[[한정]+대상]	

보격조사 '이/가'는 의미격조사나 보조사1에 결합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선행 명사구를 '대상'으로 언급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보격조사 '이/가'가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은 앞선 유형과 유사하게 제약이 많은 편이나 주격조사에 비해서는 다양한 조사연속구성체가 사용되었다. 선행조사로 의미격조사는 '으로서, 에서, 으로/로'가이 쓰였고, 보조사1 중에

서는 ‘만, 뿐’과만 결합하였으며 서술어는 ‘아니다’로만 사용되었다. 보격조사 ‘이/가’에 의미격조사가 선행한 예는 다음과 같다.

<으로서가, 에서가, 으로가>

7) 말하자면 단순한 자극에 대응하는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어미로부터 받은 학습에 의해서 먹게 되는 것이다. (BTHO0396)

8)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동의성 여부는 어휘차원에서가 아닌, 문장 속에 들어와야만 알 수 있고… (BTHO0399)

9) 또한 Langacker(1987)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사전식’으로가 아니고 ‘백과사전식’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BTHO0399)

7)은 후행 서술어로 ‘아니라’가 배치되었는데 이는 위 문장뿐 아니라 ‘으로서가’가 나타난 모든 문장에 공통된 특징이었다. 여기서 각 조사의 의미는 ‘으로서/로서’는 ‘자격’을 나타내고 ‘이/가’는 ‘대상’을 나타냈다. 8)과 9) 또한 7)과 유사하게 서술어는 ‘아니다’이며 선행 명사구 전체인 ‘어휘차원에서’, ‘사전식으로’가 문장에서 대상의 의미로 나타났다.

한편 보격조사 ‘이/가’는 의미격조사에 후행하였을 때 잘 생략되지 않아 위의 7)-9) 모두 ‘이/가’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이는 주격조사 ‘이/가’에서 볼 수 있었던, 조사 결합을 통한 ‘강조’ 기능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이 유형 또한 강조의 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 서술어 ‘아니다’와만 공기하여 부정의 대상으로만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임성규(1989)에서 제시한 ‘둘 이상의 어휘, 형태적인 결합’에 해당하여 ‘통사적인 구성법’에 따른 강조로 볼 수 있다.

한편 보조사1에 보격조사 ‘이/가’가 결합한 ‘만이’는 ‘에서만이, 뿐만이’로 확장되기도 하였고, ‘뿐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중 ‘만이, 뿐만이, 뿐이’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이, 뿐만이, 뿐이>

10) 1995년만이 아니라 1993년과 1994년에도 각각 170억 달러와 270억

달러의 기록적인 규모에 달했다. (BTHO0405)

11)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시, 주(州)의 경우도 집중화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BTHO0405)

12) 즉 명령이나 요청을 나타내는 형식은 반드시 지금까지 "명령문"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문형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THO0399)

10)-12)에서 '이/가[2]'에 선행한 보조사1은 '만'과 '뿐'인데, 이 두 조사는 각기 '유일, 한정'을 의미하여 '정도의 제한'을 의미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형식 또한 형태적이거나 통사적인 방식의 강조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형태적인 구성법에 해당하는 이유는 유사 의미의 조사를 중첩한 구성으로 '뿐'과 '만'의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통사적인 구성법인 것은 위 표현이 모두 서술어 '아니다'와 공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의미격조사로 한정해 보았을 때 '에서, 으로/로'는 주격조사에도 선행한 조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격의 '이/가'와 보격의 '이/가'를 구분하였으나 이는 조사의 의미역 및 서술어의 차이에 따른 분류이고, 상적 의미에 관해서는 두 조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의' 후행

관형격조사 '의'가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 및 관용적 사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13] 모어 화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의미격/접속+구조격	에서의	142	2.55	[[처소]+소속]	-
	으로서의	109	1.96	[[자격]+소속]	-
	과의(과[1])	89	1.60	[[동반]+소속]	-
	과의(과[2])	1	0.02	[[연결]+소속]	-
	으로의	33	0.59	[[방향/수단/이유]+소속]	-
	에의	8	0.14	[[소재/시간]+소속]	-
	으로부터의	6	0.11	[[출발점]+소속]	-
	으로써의	2	0.04	[[방편]+소속]	-
	만큼의(만큼[1])	1	0.02	[[동등 비교]+소속]	거의 항상

					의문사와 결합
보조사+구조격	까지의	58	1.04	[[끝점]+소속]	-
	만의	5	0.09	[[유일]+소속]	-
	부터의	2	0.04	[[시작점]+소속]	
	대로의	3	0.05	[[동등 비교]+소속]	항상 '나름대로'의 형태로 사용됨.
	마다의	2	0.04	[[각자]+소속]	2회 모두 선행 명사가 중복 형태임.

관형격조사 '의'와 결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의'가 다른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으며 또한 생략이 잘 되지 않는 속성과도 관련된다. 이정훈(2005)에 따르면 '의'는 특히 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사로 거의 모든 의미격조사(이정훈 2005에서는 어휘격조사)와 통합이 가능하다(이정훈 2005:186). 또한 김광해(1981)에 따르면 복합조사 구성에서 '의'는 생략되면 해당 명사구의 해석이 부사어로 해석되어 서로 다른 통사 구조를 나타내게 되므로 거의 잘 생략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김광해 1981:29). 따라서 '의'는 종류가 많은 편이므로 조사연속구성의 유형별로 '의미격조사/접속조사+구조격조사'와 '보조사1+구조격조사'를 살펴본다.

ㄱ. 의미격조사/접속조사+구조격조사

다음은 '의미격조사/접속조사+구조격조사'의 순서로 '의'가 후행한 유형 중 가장 고빈도로 사용된 '에서의'의 예이다.

<에서의>

13) 표 6-11은 1995년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곡류 소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BTHO0396)

14)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Variety in Unity)은 조형의 중요한 원리로 어떤 건축에 있어서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BTHO0387)

위 문장 13)에서 '에서의'는 물리적 장소인 '처소+소속'을 의미하였고 14)는 개념으로서 '처소+소속'을 의미했다. 이때 두 문장의 '의'는 모두 유정물의 소유 개념이 아닌, 특정 개념인 '소비 비율' 및 '다양성'에 대한 소속을 의미하여 공통점을 나타냈다. 한편 다음은 의미격조사인 '과[1]'과 접속조사인 '과/와[2]'가 '의'에 선행한 유형이다.

<과의(과[1]), 과의(과[2])>

15) 과의(과[1]): 인텔의 성공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BTHO0405)

16) 과의(과[2]): 이러한 함의와 주문장과의 진위관계를 확실히 알아야만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 (BTHO0399)

15)는 부사격조사 '과/와'가 '긴밀한 협력관계로 동반된 대상'에 결합했다. 그리고 16)은 '함의와 주문장과'로 연결된 접속의 대상 '진위관계'에 '과/와'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때 '의'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에서의'와 같이 개념이나 개체 간 소속을 나타냈다.

이외 의미격조사에 '의'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으로서의, 으로의, 에의, 으로부터의, 으로써의, 만큼의(만큼[1])'가 있으며 이 조사연속구성들은 모두 선행 명사구의 통사·의미적 필요에 의해 두 개의 격조사가 선택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미격조사는 의미역을 부여하기 위해, 그리고 '의'는 이에 '소속'의 의미·기능을 부여하고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다만 이 중 '만큼의(만큼[1])'는 관용적 쓰임을 보이기도 하여 별도로 살펴본다.

<만큼의(만큼[1])>

17) 그러니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까? (BTHO0405)

17)은 ‘만큼’에 의문사 ‘얼마’가 결합하여 반어법의 방식으로 강조되었다. 즉, [선행 명사+조사]의 단계에서 이미 강조된 대상 전체를 후행 조사인 ‘의’가 소속 관계로 나타냈다. 이 같은 의문사의 결합은 형태적인 구성법에 따른 강조로 볼 수 있고, 또한 종결 형태가 의문형으로 실현되어 통사적인 구성법의 강조도 함께 적용되었다.

ㄴ. 보조사1+구조격조사

보조사1에 ‘의’가 후행한 유형에서 ‘까지의, 만의, 부터의, 대로의, 마다의’는 모두 선행한 보조사구 전체에 관해 ‘의’가 관형격 구조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였으며, 이 중 ‘대로의, 마다의’는 관용적인 사용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대로의, 마다의>

18) … 이들 명칭은 각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BTHO0396)

19) 이처럼 전승된 집집마다의 음식맛이 ′어머니의 맛′, 또는 ′고향의 맛′이라고 불리는 후천적인 것이다. (BTHO0396)

‘대로의’는 18)과 같이 모두 ‘나름대로의’로만 사용되었다. 『표준』에서 ‘나름대로’의 ‘나름’이 의미하는 바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식. 또는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에 ‘대로’의 ‘동등 비교’가 통합된 것은 유사한 의미의 항목이 중첩된 것이다. 19)의 ‘마다’ 또한 명사구가 ‘집집’으로 중첩되었고 이에 ‘각자’를 의미하는 ‘마다’를 추가하여 유사 의미를 중복하였다. 즉, 18), 19)는 모두 유사한 표현을 겹쳐서 사용한 형태적 구성법의 강조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선행 명사와 보조사1이 강조를 나타내며 선행한 것은 ‘의’가 갖는 강조 기능과도 관련된다. ‘의’는 두 명사를 소속으로 이어 줄 때 일반적으로 선행 명사를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꿈에 우리 거북선을 보았다.’와 ‘꿈에 우리의 거북선을 보았다.’를 비교해 보면 ‘의’가 사용된 후자에서 ‘우리’가 더 강조된 느낌을 받게 된다(김명희 1987:253). 따

라서 조사연속구성체의 배열에서도 '의'에 선행하는 조사들인 '대로, 마다, 만큼'이 먼저 강조되고 '의'가 연결되었다.

한편 이 같은 '의'의 다양한 조사연속구성은 다음과 같은 통사·의미적 특징을 나타낸다. 우선 통사적으로 김광해(1981)에 따르면 복합조사 뒤에서 '의'는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 17), 18), 19)의 '얼마만큼의', '나름대로의', '집집마다의'의 '의'는 생략하여도 문장이 크게 비문으로 느껴지지 않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장에서 '의'를 생략하면 선행 명사구가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가 생략되어도 많은 경우 그대로 주격과 목적격의 해석이 유지되는 '이/가'나 '을/를'과는 경우가 다르다. 즉, '의'와 같은 관형격 구성은 이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의미나 구조의 변환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광해 1981:29). 유하라(2005)에서도 보조사1 뒤에서 '의'가 생략되면 대부분 선행 명사구가 부사어로 다르게 이해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생략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유하라 2005:92-93).

'의'의 이 같은 조사연속구성은 의미적으로는 특정성의 속성과 관련된다. 특정성(specificity)은 (화자가 가정하는) 정체 확인 가능성(identifiability)과 관련되는 것으로(이정민 1992:398) 화자가 담화 상황에서 특정 지시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한정한 2012:45)[70]. 한정한(2012)에 따르면 '의'가 특정성을 갖는다는 근거는 우선 부정대명사(不定代名詞) '아무나'나 '누구나'에 '의'가 결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명사들은 '의'의 특정성 의미와 상치되는 '부정(不定)'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특정성 문맥에서 '의'의 결합이 제약되는 것인데 예컨대 '그것'과 같은 지시대명사로 어떤 대상을 특정적으로 지시한 경우는 '의'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71]. 마지막으로 특정성을 나타내는 보조

70) 이는 화자나 청자가 그 명사구에 지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의 식별(한정성)과는 관계가 없다(한정한 2012:45). 한정성(definiteness)은 발화에서 표현된 명사구가 발화 맥락 안에서 유일물이어서 청자가 명사의 지시체를 식별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가정이 명사에 표현된 것이며, 따라서 이 한정성은 보통 명사의 구정보와 관련된다(한정한 2012:46).

71)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선진국들은 <u>그것의</u> 해결을 위해/??<u>그것</u> 해결을 위해

사나 부사격조사의 작용역이 명사구에 한정될 때에는 '의'가 반드시 결합하는데, 이 세 번째 조건이 본 연구의 '보조사1+의'와 관련된다.

20) 철수만의/*만 컴퓨터
21) 결혼 직전까지의/*까지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다.
(한정한 2012:48)

20)에서 '만'의 작용역은 선행 명사인 '철수'에 한정되며 21)에서 보조사 '까지'의 작용역도 '결혼 직전'에 한정된다. 따라서 선행 명사의 이러한 특정성에 따라 '의'가 생략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한정한 2012:48).

또한 한정한(2012)에 따르면 '의'는 이러한 특정성을 가져 보조사2와는 중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특정성이 갖는 조건 중 하나가 '선행 어휘의 작용역이 선행 명사구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보조사2는 이 같은 작용역이 그 이상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조사 간 결합의 원리에서 '의'를 구조격조사에 포함하면서, 이 조사들은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어 작용역이 중첩되는 보조사2와는 결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조격조사 중 '의'는 다른 구조격조사와 달리 작용역이 서술어가 아닌, 후행 명사구까지만으로 제한되어 차이가 난다. 또한 '의'가 이같이 주로 명사류와만 관련성을 가지는 특성은 이 항목을 구조격조사보다는 등위접속조사인 '과/와'에 가까운 것으로 보게 하기도 한다(김광해 1981:12)[72]. 이같이 '의'는 일반적인 구조격조사와 차이를 나타내어 보조사2와의 결합에서도 또 다른 분석을 요할 수 있는데 '의'의 특정성은 이에 관한 의미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에서 '그것'은 '문제'를 특정화하고 있다. 이같이 명사구에 특정성이 부여되었을 때는 '??그것 해결'과 같이 '의'의 생략이 매우 어색해진다(한정한 2012:47)

72) 이러한 이유로 김광해(1981)에서는 '의'를 격조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명사구 사이를 연결하여 내심 구조의 명사구절을 생성하는 관계 조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김광해 1981:14).

2.2. 의미격조사의 통사·의미·기능 부가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총 사용 빈도는 앞선 '의' 후행 유형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의미격조사는 격조사의 하나이므로 명사와 서술어와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하나의 명사와 서술어에 두 개의 의미격이 중복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서 후행한 조사는 '으로/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대조'를 나타내는 의미격조사들만으로 사용이 제약되었다.

(1) '으로/로' 후행

의미격조사 '으로/로'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Ⅲ-14] 모어 화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의미격+ 의미격	에게로	3	0.05	[[유정성·처소]+방향]
보조사1+ 의미격	만으로	20	0.36	[[유일]+방향/수단/이유]
	까지로	3	0.05	[[끝점]+방향/수단/이유]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중 격조사와 결합한 것은 '에게로'이며 보조사1과는 '만, 까지'와만 결합하였다. 이 중 '에게로'는 특히 두 개의 장소 표시 격조사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며 다음이 그 예이다.

<에게로>

22) 선진국 경제의 권력은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와 소매업자에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BTHO0405)

23) 오노는 린 생산방식에서 의사결정권을 조립라인의 노동자들에게로 이전하였는데, 그 범위는 독일의 공장보다도 더 크다. (BTHO0405)

22)와 23)의 '소매업자', '노동자들'은 모두 유정성을 나타내는 어휘 항목들로 이를 위해 '에게'의 결합이 필요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에게로'

는 ‘유정성의 목적지(도달점)+방향’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에게’는 ‘에’와 유사하게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에로’는 주로 이동의 목적지라는 의미 위에 움직임의 방향 의미를 추가하고자 ‘목적지+방향’의 순서대로 사용된 것으로, 이 반대의 순서는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결합하지 않는다(임동훈 2004:136-137). 즉, ‘에’가 후행한다면 ‘경계’나 착점을 함의하지 않는 방향 의미의 ‘으로/로’에는 ‘에’로 경계의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의 ‘에게로’ 또한 선행한 ‘에게’에 ‘으로/로’가 ‘방향’의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 결합했으며 이 반대의 순서는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으로/로’에 보조사 ‘만, 까지’가 결합한 예이다.

<만으로, 까지로>

24) 쌀은 그것만으로, 또는 다른 곡식을 섞어서 밥을 짓고 경거니(반찬)를 곁들여서 먹어 왔다. (BTHO0396)

25) 한편 정조는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를 발간케 하였는데, 권수(卷首), 권 1(卷一)부터 권 6(卷六), 부편 1(附編一)부터 부편 3(附編三)까지로 꾸며졌다. (BTHO0387)

24)에서 ‘만’은 의미격조사에 선행하여 어휘적 특징을 보이며 ‘유일’의 의미를 나타냈고, ‘으로/로’는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했다. 그리고 25)는 ‘까지’의 ‘끝점’ 의미에 ‘으로/로’가 후행한 경우로, ‘까지’ 역시 의미격조사에 선행하여 어순상으로 어휘적인 사용을 보였다. 이 두 조사는 의미적으로도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24)는 특별히 강조의 의미나 수동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5)는 서술어가 확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조사는 보조사1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작용역이 나타나 ‘으로/로’와의 결합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 ‘처럼, 과/와, 보다, 만큼[1]’ 후행

의미격조사 ‘처럼, 과/와[1], 보다, 만큼[1]’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와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Ⅲ-15] 모어 화자: '처럼, 과/와[1], 보다, 만큼[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후행 조사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처럼	의미격+ 의미격	에서처럼	27	0.48	[[처소]+비슷함]	-
과/와[1]	의미격+ 의미격	에서와	18	0.32	[[처소]+동반]	서술어가 주로 '같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다른'
	보조사1+ 의미격	까지와	1	0.02	[[끝점]+동반]	서술어가 '마찬가지'류
보다	의미격+ 의미격	에서보다	3	0.05	[[처소]+차등 비교]	-
만큼[1]	의미격+ 의미격	에서만큼	1	0.02	[[처소]+동등 비교]	-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에서처럼, 에서와, 까지와, 에서보다, 에서만큼'은 후행 조사가 모두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냈으며, 선행 조사는 어휘적 사용에 가까운 보조사1 '까지'를 제외하면 모두 의미격조사 '에서'로만 나타났다. 이 유형에서는 먼저 가장 고빈도인 '에서처럼' 및 '처럼'과 의미적으로 비교되는 '만큼'이 포함된 '에서만큼'을 살펴본다.

<에서처럼, 에서만큼>

26) 또 점토질 밑층에는 제일 윗층에서처럼 잔자갈들을 깔았다. (BTHO0387)

27) 게다가 MIT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이 테크닉이 고신뢰 국가에서만큼 저신뢰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런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BTHO0405)

26)에서 '처럼'은 '비슷함'을 의미한다. '비슷함'은 다른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비교의 쓰일 수 있게 된다[73]. 이러한 비교나 대조의 의미는 '보

73) '에서처럼'은 총 28회 중 『한국건축사』 'BTHO0387' 파일에서만 24개가 추출되었다. 따라서 빈도가 높아진 것은 글의 주제에 따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 만큼'에도 나타나며 각각 '에서보다, 에서만큼'으로 구성되어 '처소+차등 비교', '처소+동등 비교'를 의미한다.

한편 이 중 '만큼'은 '차등 비교'를 나타내는 '보다'와 달리 '동등 비교'를 의미하여, '비슷함'을 의미하는 '처럼'과 유사해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한다. 그러나 '만큼, 처럼'은 같은 유사성에 관한 비교라 하더라도 정도성의 의미를 내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만큼'은 정도성 비교 구문을 구성하나 '처럼'은 정도성과 본질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비정도성 비교 구문을 형성한다(오경숙 2004:201). 정도성은 모호성과 척도 개념의 적용이 가능한 속성을 말하며(Kennedy 1997:36) 이 같은 정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항목은 일반적으로 비교의 맥락에서 사용된다(Lyons 1977:271, 오경숙 2004:201). 위의 27) '만큼' 구문에서도 '고, 저'의 정도성 개념을 바탕으로 '고신뢰 국가'와 '저신뢰 국가'가 비교되고 있으며 반면에 26)의 '처럼'에는 정도성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74].

다음으로 '에서와(과[1]), 까지와(과[1])'를 살펴보면, 여기서의 '과/와' 또한 '동반'을 의미하여 다른 대상의 존재를 전제함으로써 비교나 대조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 조사들의 경우는 조사 자체의 의미가 비교의 맥락에서 쓰였을 뿐 아니라 서술어 또한 관용적으로 '-와 같다. 마찬가지이다' 등의 부류만이 사용되었다.

<에서와(과[1]), 까지와(과[1])>

28) 넓은 의미의 의미론은 아래에서와 같이 다시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BTHO0399)

29)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개될 것이 90% 확실한 사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BTHO0405)

28), 29)에서 '에서와'와 '까지와'의 서술어는 모두 '같다, 마찬가지이다'로 관용적인 사용을 나타냈다. '에서와'에 후행하는 서술어는 위 28) 외

74) 이 같은 의미적 차이는 서술어에도 영향을 미쳐 '만큼'의 서술어는 거의 '차이가 있다, 다르다'와 같은 차별성을 나타낸다(안주호 2011:53-54). 따라서 위 27)에서도 서술어가 '여부가 확실치 않다'이며 이는 차별성과 관련되는 표현이다.

에도 ‘같다’류가 15개, ‘마찬가지로, 똑같은, 다른’이 각기 1회씩 사용되었으며 ‘까지와’에 결합한 서술어 또한 위 29)와 같이 ‘마찬가지’만이 나타났다. 따라서 ‘과/와[1]’은 모두 ‘동반’의 의미 요소가 ‘비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서술어의 제약은 ‘과/와’의 여러 특성 중 부사격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과/와’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대칭동사의 주체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교호성을 내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차이가 나는데, 위의 경우는 교호성을 내포하지 않는 부사격의 역할에 가까웠다.

30) 영희가 철수와 심하게 싸웠다. (한정한 2015:298).
31)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다 (남기심 1990:226).

30)에서 ‘영희’와 ‘철수’는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 즉, ‘영희’와 ‘철수’ 두 주체 모두가 함께 싸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입은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교호성을 나타낸다(한정한 2015:298). 그러나 31)에서 ‘나’와 ‘컴퓨터’는 상호 교체되지 않는다. ‘나’에 ‘컴퓨터’가 동반의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컴퓨터와 내가 씨름을 했다’와 같은 구성은 자연스럽지 않게 되어 ‘컴퓨터와’가 후행 서술어의 일부로서 해석되기 때문이다(남기심 1990:226). 즉 30)은 교호성을 내포하며 31)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역할은 위에서 ‘과/와’가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설명문의 말뭉치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호성을 내포하지 않는 용법만이 사용되었다. 즉, ‘아래에서와 같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에서 교호성을 공유하는 대상은 문장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관용적으로 ‘과/와’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설명문에서 이러한 쓰임으로 제한되었다.

2.3. 보조사1의 어휘적 의미·기능 부가

보조사1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빈도에 비해 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이 중 '까지, 만'은 앞서 의미격조사에 선행해 제한적인 사용을 나타냈으나 이 유형에서는 모두 다른 조사에 후행함으로써 확장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외 다른 조사에 후행한 보조사1은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로 이 항목들은 유형이 다양하므로 '까지' 후행, '만' 후행,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까지' 후행

보조사1인 '까지'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Ⅲ-16] 모어 화자: '까지'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의미격+보조사1	에까지	25	0.45	[[소재/시간]+미침]	서술어가 확장성이 있는 표현인 경우가 많음.
	으로까지	8	0.14	[[방향/수단/이유]+미침]	
	에게까지	1	0.02	[[유정성·처소]+미침]	
	에서까지	1	0.02	[[처소]+미침]	

이 유형은 의미격조사 '에, 으로/로, 에게, 에서'에 보조사1이 후행하였다. '까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격조사에 선행할 때도 있으나 이같이 후행하는 경우 보조사1 범주의 더 전형적인 사용에 가까우며, 강조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 중 '에까지, 으로까지'가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까지, 으로까지>

32) 이 시기에는 귀족층에까지 불교가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BTHO0387)

33)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세계인구는 2억 5천만 명으로까지 늘어났던 것이다. (BTHO0396)

32), 33)에서 선행한 조사 '에, 으로/로'는 각기 '소재, 방향'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후행한 '까지'는 어떤 영향력의 범주가 선행 명사까지 미친 것을 강조하였다. '까지'가 '미침'으로 확장성을 나타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술어가 '널리 유포되다, 발달되다'로 확장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결합의 순서는 의미격조사 '에, 으로/로'가 선행하였고,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는 '까지'가 후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에게까지, 에서까지'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도 서술어는 확장적인 성격을 보였다.

(2) '만' 후행

보조사1인 '만'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분포와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Ⅲ-17] 모어 화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의미격+보조사1	에만	43	0.77	[[소재/시간]+유일]	-
	으로만	31	0.56	[[방향/수단/이유]+유일]	-
	에서만	25	0.45	[[처소]+유일]	-
	에게만	7	0.13	[[유정성·처소]+유일]	-
	과만(과[1])	1	0.02	[[동반]+유일]	-
	만큼만(만큼[1])	1	0.02	[[동등 비교]+유일]	-
	으로서만	1	0.02	[[자격]+유일]	-
	이라고만	1	0.02	[[직접 인용]+유일]	-
(의미격)+보조사1+보조사1	뿐만	92	1.65	[[한정]+유일]	문두에 단독으로 '뿐만', 서술어는 '아니다'
	으로서뿐만	2	0.04	[[자격]+유일]	서술어가 '아니다'
	으로뿐만	1	0.02	[[[방향/수단/이유]+한정]+유일]	서술어가 '아니다'
	까지만	7	0.13	[[끝점]+유일]	서술어가 '해도, 하여도'
	대로만	1	0.02	[[동등 비교]+유일]	-

‘만’이 후행한 경우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조사에 후행하여 확장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또한 ‘뿐만’과 같은 강조 표현과의 결합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만’ 후행 유형에서 의미격조사가 선행한 항목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의미격조사+보조사1

다음은 ‘의미격조사+보조사1’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에만, 으로만’이 사용된 문장이다.

<에만, 으로만>

34)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큰 회사다. 코카콜라는 대체로 청량음료 에만 전념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BTHO0405)

35) 조선 초기까지 소주는 일반 백성이 널리 마시는 단계는 아니었으며 약용의 효과로만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BTHO0396)

34)와 35)에서 ‘에’, ‘으로/로’는 각기 의미·통사적 필요에 따라 ‘소재, 수단’으로 사용된 조사이며 ‘만’은 이에 ‘유일’의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조사에 후행하여 약간의 강조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까지’에 비해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니었으나, 문어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36) 전쟁은 억지(抑止) 능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 (BTAA0158 수정)

37) 최근에 밖으로만 나다니는 너에게 고함을 질렀던 것이 가슴이 아파. (BTEO0314)

36)에서 ‘만으로’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의 의미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위 문장이 ‘의지로만’으로 쓰였다면 이는 ‘다른 항목은 모두

배제되어 수동적으로 그것만이 가능하며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한편 '으로만'이 쓰인 37)의 '밖으로만 나다니다'는 청자가 집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집 안'이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즉, '으로만'의 '만'은 '유일한 항목' 중에서도 '다른 선택은 이미 배제되어 있어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남게 된 항목이다.

'만'에 의미격조사가 결합한 '에서만, 에게만, 과만(과[1]), 만큼만, 으로서만, 이라고만' 역시 대부분 '으로만'과 같이 선행 의미격조사의 의미에 '만'의 '유일'의 의미가 결합해 수동적 태도로서 유일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 중 한 문장을 더 살펴보면 '에서만'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에서만>

38) 요컨대 신정보, 구정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장 차원에서는 논의가 제한 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담화 차원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다. (BTHO0399)

38)의 '에서만'은 처소를 의미하는 '에서'에 조사 '만'을 결합하였다. 그리고 다른 항목은 배제된 채 '담화 차원에서만이 논의가 가능하며 다른 차원에서의 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함.'의 의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ㄴ. 보조사1+보조사1

'보조사1+보조사1' 유형은 크게 '뿐만'이 포함된 항목과 '까지, 대로'가 포함된 항목들로 구분된다. '뿐'이 결합했을 때는 우선 관용적 구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92회의 사용 중 '뿐만 아니라'의 빈도가 29회로 높았으며 또한 '뿐만'은 선행 명사와의 관계에서도 특징을 보였다. 즉, 선행 명사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나 문두에 '뿐만'이 단독으로 위치한 형태가 63회였다[75]. 또한 '뿐만'이 다른 명사에 후행했을 때는 결합한 명사는 모

75) '뿐'이 '-을 뿐만 아니라'와 같이 쓰인 의존명사 항목들은 앞서 말뭉치의 태깅 수정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두 다른 단어로, 2회 이상 중복되는 단어가 없었다. ‘뿐만’이 문두에 단독으로 위치한 경우와 일반 명사에 결합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뿐만>

39) 또 몇 가지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이 공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고 말았다. (BTHO0396)

40)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경 주변 도카이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있었다. (BTHO0405)

39)에서 ‘뿐만’은 선행 명사가 없이 문장이 ‘뿐’으로 시작되며, 40)은 선행 명사 ‘발전소’에 후행하였다. 이때 의미는 ‘뿐’의 한정 의미와 ‘만’의 유일 의미가 통합되어 크게는 모두 ‘제한성’과 관련되는 유사 의미의 중첩이었다. 또한 ‘뿐만’은 모두 ‘아니다’의 대상으로 사용되어 형태적, 통사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강조 표현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뿐만’이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 확장된 ‘으로뿐만, 으로서뿐만’의 예이다.

<으로서뿐만, 으로뿐만>

41) 여성은 경제주체(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자 및 양육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BTHO0382)

42) 창덕궁 후원 존덕정 동남 터에는 징검돌이 갈지자「之」 걸음으로 딛고 갈 수 있도록 깔려 있어 시각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의 행위에 즐거움을 주고 있다. (BTHO0387)

41), 42)는 위에서 살펴본 39), 40)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의미격조사 ‘으로서/로서’ 및 ‘으로/로’가 한번 더 선행하였다. 이는 ‘뿐만’과 동일한 의미 구조에 ‘자격’이나 ‘방향/수단/이유’의 의미를 추가하여 ‘자격+한정+유일’, ‘수단+한정+유일’의 의미를 나타냈으며 서술어도 모두 동일하게

‘아니다’만이 사용되었다. 즉, ‘뿐만’의 의미나 구성상의 특성은 위의 2개 조사 결합형인 ‘뿐만’과 같으며, 다만 선행 명사를 의미격으로 한정할 필요에 따라 의미격조사가 한번 더 선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까지만, 대로만’이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까지만, 대로만>

43)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랑스를 지배한 유통체계는 고도로 전문화된 소상인들의 몫이었다. (BTHO0405)

44) 그러나 한일합방이 되면서 …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되어 일본이 지정한 방법대로만 만들 수밖에 없는 비통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 (BTHO0396)

‘까지만, 대로만’은 각각 선행 조사의 ‘끝점, 동등 비교’ 의미에 ‘만’의 ‘유일’ 의미가 통합된 것이다. 이 중 ‘까지만’은 7회 사용에서 서술어가 모두 ‘해도/하여도’의 형태로 양보 표현만이 공기하는 관용성을 보였다. 이는 제한성의 ‘까지만’에 양보 의미의 ‘해도’가 공기하는 통사적 구성에 의한 강조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대로만’은 ‘동등 비교+유일’의 의미가 적용되어 ‘그것과 똑같이’라는 뜻을 나타냈으며 앞서 ‘대로의’가 관용적 사용을 나타낸 것과 달리 특별한 관용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만’의 용법을 정리하면 의미격조사에 ‘만’이 후행한 유형에서는 ‘만’이 보조사1로서 ‘유일(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상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다른 조사에 후행하여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자동적으로 다른 항목들이 배제된 강조의 표현임을 볼 수 있었다. 보조사1이 선행한 경우는 ‘대로만’을 제외하고는 ‘뿐만, 으로서뿐만, 으로뿐만’의 서술어로 모두 ‘아니다’가 쓰이거나 ‘까지만’의 서술어가 모두 ‘해도, 하여도’로 쓰이는 관용적 사용이 많았다. 이 표현들은 둘 이상의 어휘 결합에 의한 통사적 구성에 의한 강조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뿐만’은 유사 의미의 조사가 중첩된 형태적 구성에 의한 강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었다.

(3)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

보조사1인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Ⅲ-18] 모어 화자: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후행 조사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조차	의미격+보조사1	에서조차	3	0.05	[[처소]+양보와 더함]
이나마/나마		으로나마	2	0.04	[[방향/수단/이유]+불만]
		에서나마	1	0.02	[[처소]+불만]
부터		에부터	1	0.02	[[시간]+시작점]

이 유형에서는 모두 의미격조사에만 후행했고 보조사1과의 추가적인 결합은 없었다. '조차'가 후행한 항목부터 '에서조차'의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서조차>

45) 그나마 저소득 직업에서조차 일할 수 없는 홈리스(Home-less)도 상당히 늘었다. (BTHO0405)

46) 전후의 일본 국내시장은 유통·금융·정보·운수 등은 물론, 수출입이 많은 제조업에서조차 이것이 통용돼 왔으며 게다가 … 고가격화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 (BTHO0405)

45), 46)에서 '에서조차'는 '처소+양보와 더함'을 의미하였으며, 이때 서술어는 '일할 수 없는'과 같이 부정적인 유형이거나 혹은 46)의 '통용돼 왔으며'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다음은 '이나마/나마'가 후행한 '으로나마, 에서나마'의 예이다.

<으로나마, 에서나마>

47)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손으로 만든 음식이 여전히 시장에 나와 비싼 값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BTHO0396)

48) 그리고 스푼은 고대 애굽의 목제와 상아제가 확인되었는데, 상류 계급에서나마 일반화된 것은 14C 이후의 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 (BTHO0396)

위 문장은 모두 의미격조사 '으로/로', '에서'에 '불만'을 의미하는 '이나마/나마'가 후행하였다. 이때 의미는 각기 '수단+불만', '처소+불만'을 나타냈다. '이나마/나마'는 47)과 같이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에부터'가 사용된 예를 살펴본다.

<에부터>

49)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천장은 대들보 위에부터 우물천장을 설치하였는데, 특히 불단 상부에는 보개천장을 달았다. (BTHO0387)

49)의 '에부터'는 설명문에서뿐 아니라 문어 전체 말뭉치에서도 위의 문장 1회에서만 사용되어 빈도가 매우 적은 표현이었다. 이는 위와 같이 위치나 장소의 표현과 주로 결합하고 시간 표현과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의 '에' 의미는 '소재/시간' 중 '소재'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보조사1이 후행한 유형은 '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미격조사에만 후행하여 보조사1의 어휘적 의미가 다른 의미와 거의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에는 '뿐만, 까지만, 대로만'과 같은 보조사1과의 결합도 나타나 유일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까지, 만' 후행 유형에서는 일부 서술어와의 공기 관계로 관용적인 쓰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는 그러한 용법이 거의 없었고 '부터'에서는 '에'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의미가 '소재'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었다.

2.4. 보조사2의 확장된 의미·기능 부가

보조사2가 후행한 유형은 가장 다양하면서도 고빈도의 조사연속구성을 나타낸 유형이다. 이는 '도' 후행, '은/는' 후행, 이외 조사들인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1) '도' 후행

보조사2 중 '도'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 및 관용적 사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19] 모어 화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보조사1)+의미격+보조사2	에도	301	5.40	[[소재/시간]+첨가/양보]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사용됨.
	에서도	188	3.37	[[처소]+첨가/양보]	일부 '어디에서도'로 사용됨.
	으로도	75	1.35	[[방향/수단/이유]+첨가/양보]	-
	만으로도	3	0.05	[[[유일]+방향/수단/이유]+양보]	-
	보다도	47	0.84	[[차등 비교]+첨가]	일부 '무엇보다도'로 사용됨.
	과도(과[1])	20	0.36	[[동반]+첨가/양보]	-
	이라고도	12	0.22	[[직접 인용]+첨가/양보]	-
	에게도	10	0.18	[[유정성·처소]+첨가/양보]	-
	서도(서[2])	3	0.05	[[처소]+첨가/양보]	-
	으로써도	2	0.04	[[방편]+첨가/양보]	-
	께도	1	0.02	[[유정성·높임·처소]+첨가/양보]	-
	으로부터도	1	0.02	[[출발점]+첨가/양보]	-
	으로서도	1	0.02	[[자격]+첨가/양보]	-
(의미격)+보조사1+보조사2	까지도	37	0.66	[[미침]+첨가/양보]	-
	에까지도	2	0.04	[[[소재/시간]+미침]+첨가/양보]	-
	에게까지도	1	0.02	[[[유정성·처소]+미침]+첨가/양보]	-
	마저도	5	0.09	[[마지막]+양보]	-
	밖에도	1	0.02	[[한도]+첨가]	'그밖에도'로만 사용됨.

	조차도	2	0.04	[[양보와 더함]+양보]	-
	만도	1	0.02	[[유일]+양보]	-

‘도’가 다른 조사에 후행한 빈도는 높은 편이며 유형도 다양하여 총 21개 항목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도’에 의미격조사가 선행한 경우와 보조사1이 선행한 경우로 나누어 문장을 살펴본다.

ㄱ. (보조사1)+의미격조사+보조사2

‘도’ 결합형 중 의미격조사가 선행한 항목에서 가장 고빈도를 보인 항목은 ‘에도’이며 이 항목의 원빈도는 301회이다. 이와 같이 빈도가 100 이상인 항목들은 대략 상위 10위까지의 명사구를 함께 살펴보며 예문을 선택하였다. ‘에도’가 결합한 상위 10개의 명사구는 다음과 같다.

[표 Ⅲ-20] 모어 화자: ‘에도’가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에도’가 포함된 명사구		원빈도
1	이외에도	23
2	외에도	15
3	그럼에도	11
4	후에도	10
5	경우에도, 때에도	8
6	있음에도	5
7	나라에도, 뒤에도, 범주에도, 이후에도	4

‘에도’와 결합한 어휘 1-3위는 모두 ‘이외[76], 외, 그럼, 후’와 같은 대용이나 위치 표현이다. 그리고 빈도 8이하부터는 ‘경우, 나라, 범주’ 등과 같은 일반 명사도 쓰였다. 예문은 이 중 빈도가 가장 높은 대용 표현인 ‘이외에도’와 ‘에’의 의미 ‘소재/시간’ 중 ‘시간’이 표현된 ‘이후에도’의 문장이다.

<에도>

50) 한편 이들 사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찰들이 있다.

76) 명사.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밖. (『표준』)

(BTHO0387)

51) 이러한 법의 제정 이후에도 특수층에서는 법에 정한 크기를 넘게 지은 사례들이 ≪왕조실록≫ 곳곳에서 보인다. (BTHO0387)

50)에서 '에도'는 '이외'의 의미인 '위치로서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밖'을 처소로 나타냈고 51)에서의 '에'는 '시간'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50), 51)의 '도'는 모두 선행 '명사+조사'를 첨가의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에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명문에서 중첩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에'는 이후 살펴볼 '은/는'과의 결합 빈도도 높았다. 이는 빈도 2위인 '에서'에 비해서도 큰 차이로 빈도가 높은 편이다. 문어 전체에서 '도'에 '에, 에서'가 결합한 비중은 각기 9.11%, 3.84%인데 설명문에서는 각기 12.37%, 7.73%로 나타났으며, '에'는 '에서'에 비해서도 더 고빈도로 사용되었다.

'에, 에서'는 모두 장소 표현과 관련된 조사로 다양한 확장성을 나타내어 설명문의 여러 주제 관련 어휘들을 부사어로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이에 관한 내용을 '에, 에서'의 의미 차이 및 이에 기반한 확장 양상과 관련지어 살펴본다.

'에, 에서' 사이의 의미와 용법 차이는 서정목(1984)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 두 조사의 차이는 주로 '에서'에 포함된 '서'로 인한다. 즉 '서'는 '상태의 유지, 존재의 요구'를 의미하여 '에서'는 '어떤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 반면, '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경우의 정태적 현상을 표현'하여 차이가 난다(서정목 1984:163)[77].

52) 학교에서/에 회의가 있다.

---

77) 서정목(1984)에 따르면 '서'는 본래 실사로 구체적 존재를 요구하는 '시+어'의 모습이었으며, 이러한 의미는 조사화한 현재에도 유지된다. 그리고 이때의 '서'는 '혼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그 의미 요소를 '주체·수'로 설정한 항목과도 기원이 같다. 즉, '처소'의 '에서'와 '주체'의 '서'에 포함된 '서'는 하나의 항목이다. '주체'를 의미하는 '서'는 선행 명사가 그 자체로서의 상태로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에서'는 선행 명사와 관련해 무엇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나타낸다(서정목 1984:177-182).

위 문장이 '학교에서 회의가 있다'로 쓰일 경우는 '화자가 그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강한 암시가 들어 있어 동작적인 표현에 가깝다. 그러나 '학교에 회의가 있다'로 쓰이는 경우는 회의를 동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명사 '회의'가 존재하는 정태적인 의미로 표현된다(서정목 1984:167).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에 대한 표현은 '에서'가 담당하고, 정태적 관념 혹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에'가 쓰이는 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에'의 이러한 특성은 의미 확장의 양상에도 적용되어 '관념적으로 멀리 존재하는 대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면 '에서'는 '구체적 공간으로 눈 앞에 존재하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서정목 1984:171-172)[78]. 이에 따라 '에'는 '에서'에 비해 여러 관념적인 표현에 결합되는 빈도가 더 높다.

두 조사의 구체적인 확장 양상을 이남순(1983)에서 살펴보면 우선 '에'는 동작이 일어나는 표면이나 장소의 양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작 자체의 양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53) 옷을 비에 적신다.
54) 철수가 여행에 지쳤다.
(이남순 1983:330-331)

위에서 53)은 장소적 양식을 나타내고 54)는 동작 자체의 양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확장은 다음과 같이 '에'의 시간적 의미에도 적용된다[79].

55) 철수가 10시에 학교에 갔다. (이남순 1983:334).

위에서 '10시에'는 동작의 시간적 양식으로, 그리고 '학교에'는 동작의

78)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에'의 도달점 의미와도 관련된다. 즉, '도달점'의 장소는 이미 도착해 있는 곳이 아니고, 눈 앞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공간도 아니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 개념에 더 가까워 '에'의 특징에 부합한다(서정목 1984:172).
79) 이남순(1983)에서는 '장소'를 '처소'의 용어로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의 이러한 의미를 '소재'로 표현하고 있어 혼동을 피하고자 '장소'로 기술하였다.

공간적 양식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56) 철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57)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58) 철수가 잠에서 깨어났다.
(이남순 1983:337-340).

56)의 '도서관에서'는 처소적 양식을 의미하고 57)은 '처소'가 '장소 이동'의 출발점으로 확대된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 의미는 '장소 이동'뿐 아니라 58) '잠에서'와 같이 '상태 이동'의 출발점으로도 쓰인다. 즉, 이남순(1983)의 논의에 따르면 '에'는 '동작이 일어나는 표면이나 장소의 양식 및 동작 자체의 양식'으로 확장되고, '에'의 또한 '시간적, 동작의 공간적 양식'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에서'는 '장소나 상태 이동의 출발점'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같은 확장성은 이 두 조사가 설명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다른 조사와의 결합 비중이 높아지게 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설명문은 대체로 '발아(germination), 자동차, 도시, 학교' 등과 같은 사물의 부류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명사가 많이 사용되는 특성을 보인다(주세형 외 역 2007:125). 따라서 '에, 에서'의 확장성은 이 같은 다양한 명사들의 의미역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위 명사구 목록 중 관용적인 쓰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이다. 이는 설명문 말뭉치에서 11회 중 10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80]. 따라서 '그럼에도'는 거의 항상 '불구하고'와 함께 쓰이는 고정된 사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서도'에 관해 살펴본다. 이 항목의 총 빈도는 188회로 '에

80) 나머지 1회의 사용은 직접인용문에 사용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미국의 유통 컨설턴트는 백화점이 전체 쇼핑 고객의 30% 정도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백화점 측이 나머지 70%의 쇼핑 고객을 끌어오는 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 (BTHO0405)

도'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고빈도에 해당했다. '에서도'가 결합한 명사구를 빈도가 높은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1] 모어 화자: '에서도'가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에서도'가 포함된 명사구		원빈도
1	중에서도	15
2	등에서도	6
3	나라에서도	4
4	곳에서도, 면에서도, 속에서도,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활동에서도	3
5	고분벽화에서도, 구성에서도 포함 총 11개	2

'에서도'와 결합한 명사구는 '중, 등'의 중복 사용이 많은 편이다. '중', '등'은 모두 여러 항목이 나열될 때 사용된다. 이외에 저빈도 표현으로는 '속, 안'과 같은 위치 표현과 '나라' 등의 일반 명사가 다양하게 결합하였다. 이 중 1위 표현인 '중'과 일반 명사인 '나라'가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서도>

59) 표 2-7의 흡수율 분포를 보면 동일시기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커다란 흡수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BTHO0396)

60) 그런 변화가 우리 나라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BTHO0405)

59)의 '중에서도'는 앞서 언급된 항목들 중 하나를 가리키고, 60)의 '우리 나라'는 추가된 장소를 가리킨다. 이때의 '에서'는 59)와 같이 개념적 처소를 나타내거나 혹은 60)과 같이 물리적인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는 59), 60) 모두 '첨가'를 의미하며 '선행 명사구+의미격조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에서도'는 위의 일반 명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의문사와의 결합도 자주 나타난다.

<에서도>

61)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아도 이러한 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

다. 유럽, 호주, 미국, 어디에서도 자가 소비하는 양조주는 누구나 마음대로 담가 먹을수 있다. (BTHO0396)

위 61)에 쓰인 '어디에서도'의 '에서도'는 '첨가'의 의미가 의문사에 결합하여 미지칭을 의미하였다. '어디에서도'의 빈도는 설명문에서 총 3회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도'의 의미가 미지칭으로 확대된 것을 보여 주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는 '으로도'이다. 이는 '만으로도'의 3개 연속 구성으로도 사용되었다.

<으로도, 만으로도>

62)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인가를 먹어왔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BTHO0396)

63) 그들은 벌써 어떤 노력으로도 해체할 수 없는 독재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BTHO0405)

64) 지금은 보통의 김치만으로도 줄잡아 60~100종류는 된다. (BTHO0396)

62)에 쓰인 '도'는 '첨가'를 나타내며 63)의 '도'는 양보를 나타낸다. 즉, '으로도'에서 '도'는 선행 명사의 유형에 따라 '첨가/양보'를 모두 표현한다. 그러나 64) '만으로도'의 '도' 용법은 약간 차이가 난다. '만'의 유일성 의미가 '으로도'에 결합하면서 항상 '양보'만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으로도'와 '만으로도'는 이같이 '만'의 사용 여부에 따라 '도'의 의미 유형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조사연속구성체는 '보다도'이다. 이는 총 사용 횟수 47회 중 14회가 '무엇보다도'의 형태로 관용적 사용의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의 형태만이 쓰이는 것은 아니며 '때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등 다양한 일반 명사와의 결합도 가능했다. '보다도'에 '무엇'과 일반 명사가 결합한 각 문장을 살펴본다.

<보다도>

65) 또 비좌우대칭균형의 틀은 무엇보다도 주택의 평면과 배치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BTHO0387)

66) 우리나라의 연간 쌀 생산량은 50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1.5%이다. 미국도 생산량은 불과 456만 톤으로 우리나라보다도 적다. (BTHO0396)

65)의 '무엇보다도'는 '무엇'에 '보다'의 '차등 비교' 의미와 '도'의 첨가 의미가 결합해 최상급으로 강조되었다. 한편 66)에서는 '차등 비교'의 '보다'에 '도'의 양보 의미가 결합되었다. 이는 '첨가'와 '양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예이다.

이러한 용법에 관해 홍사만(2002)은 '도'의 의미 범주를 '첨가'와 '양보'로 구분하고, '첨가'는 다시 동류 제시와 극단 제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어디에서도, 무엇보다도'는 극단 제시의 한 유형에 속한다. '극단 제시'는 부정의 의미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선행 명사구 전체에 적용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67) 아무 맛도 없었다.: 맛이라곤 전혀 아무 맛도 없었다. (극단 제시, 전체 부정)

68) 단 맛도 없었다.: 별로 맛이 없긴 하나 단 맛 외의 어떤 맛이 있을 수도 있다. (동류 제시, 부분 부정)

67)에서 '아무 맛'은 '맛'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 전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극단 제시'로 사용된 것이고, 68)은 맛의 요소 중 부분적으로 '단 맛'이 없었는 점이 제시된 것이므로 '동류 제시'이다. 따라서 앞선 문장 61)의 '어디에서도'와 65)의 '무엇보다도'는 그 의미가 '모든 나라, 모든 배치'에 적용되므로 '극단 제시'에 해당된다.

'도'는 정리하면, 위와 같이 '극단 제시'와 '동류 제시'로 다시 구분되며,

‘에도, 에서도, 으로도, 만으로도, 보다도’ 등을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동화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홍사만 2002:204). 즉, ‘에도, 에서도, 으로도, 보다도’는 선행 어휘에 따라 ‘극단 제시, 동류 제시’가 결정되며, 극단 제시는 의문사가 결합하여 ‘어디에서도, 무엇보다도’로 쓰이거나 혹은 ‘만으로도’와 같이 조사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외 의미격조사와 ‘도’와의 결합인 ‘과도(과[1]), 이라고도, 에게도, 서도(서[2]), 으로써도, 께도, 으로부터도, 으로서도’는 모두 앞서 살펴본 항목들 중 선행 명사구의 의미 특성에 따라 ‘첨가(동류 제시)’나 ‘양보’의 의미가 적용되었으며, 관용적인 쓰임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ㄴ. (의미격조사)+보조사1+보조사2

다음으로 보조사1에 ‘도’가 결합항 항목을 살펴본다. 이 유형은 보조사1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만큼 조사연속구성체 또한 특정한 의미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까지도, 에까지도, 에게까지도’처럼 ‘까지도’를 포함한 유형과 이외 ‘마저도, 밖에도, 조차도, 만도’로 구분해 순서대로 살펴본다. 다음은 ‘까지도’가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의 예이다.

<까지도, 에까지도, 에게까지도>

69) 그러나 그에 따른 손실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BTHO0405)

70) 그래서 후추가 유산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영국에서는 1500년 이후에까지도 서민층에는 보급되지 못하였다. (BTHO0396)

71) 또한 ′형′이라는 단어는 … 일반사회에서 학교선배에게도 쓰고, 심지어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에게까지도 쓰이는 등 일반화되었다. (BTHO0399)

69)-71)의 ‘까지’는 모두 어떤 범주가 크다는 인식을 전제로 그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까지’가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어순을 통해서도 파악되는데, 의미격조사에 후행할 때는 주로 강조로 ‘미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69)의 ‘까지’ 또한 의미격조사가 선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의미를 '미침'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이 항목이 '에까지도, 에게까지도'로 확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문장 전체가 '손실이 지속된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에 대한 주관적 태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문장들에서 '까지'는 '미침'을 의미하고, '에'와 '에게'는 선행 명사구에 '소재/시간' 및 '유정성·처소'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는 69)-71)은 '첨가/양보'의 의미가 적용되다. 이 중 69), 70)은 모두 선행 명사구가 '늦은 시점'을 표현하여 '양보'를 의미하고 71)은 '추가된 대상'에 '도'가 결합하여 '첨가'를 의미하였다. '도'의 이 두 의미의 선택은 위와 같이 선행 명사구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다음으로 '마저도, 밖에도, 조차도, 만도'가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 조사들은 모두 '마지막, 한도, 양보와 더함, 유일'을 의미하는 면에서 '어떤 범주의 제한'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저도, 밖에도, 조차도, 만도>

72)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는 …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주권개념마저도 상당부분 개정이 되거나 어쩌면 완전히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BTHO0405)

73) 그밖에도 본초학(本草學)에서는 콩나물, 대두즙 등을 해독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리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BTHO0396)

74) 3M 자신조차도 그들이 무엇을 새로 개발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3M의 매력이다. (BTHO0405)

75) 옛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 이름만도 50여 종이나 된다. (BTHO0396)

위 조사연속구성체들이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72), 74), 75)에서 '마저도, 조차도, 만도'는 모두 '제한적인 특성을 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로 해석되는 '양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73)의 '그밖에도'는 앞서 살펴본 '이외에도'와 유사하게 '첨가'만을 의미하였다. 즉, '마저도, 밖에도, 만도'는 선행 조사의 영향을 받아 '도'가 '양보'의 의미만

을 나타냈고, 한편 '밖에도'는 관용적으로 '그밖에도'로만 쓰이며 '첨가'만을 의미했다[81].

이러한 특징은 '도'에 선행한 보조사1들이 의미격조사와는 달리 모두 그 자체로서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 발생된 것이다. 즉, '마저, 조차, 만'이 대부분 '낮은 가치의 것'을 의미하여 '도'가 '양보'를 나타내게 되었고 '밖에'는 조사 자체는 '한도'를 의미하지만 '그밖에도'와 같은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됨으로써 '양보'가 아닌 '첨가'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밖에'는 『표준』에 따르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고 해설되어 있다. 그러나 '도'와의 결합에서는 이 같은 부정의 성격이 약화되어, '그밖에도'로 쓰였으며 서술어 또한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의 의미는 대부분은 선행 명사구나 조사에 따라 '첨가/양보'의 의미가 선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외 특징적인 쓰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5] 모어 화자: 조사연속구성체에서 '도'의 의미

'도'의 의미는 크게 '첨가'와 '양보'로 나뉘며, '첨가'는 다시 '극단 제시'와 '동류 제시'로 구분된다. 극단 제시를 나타내는 용법으로는 '무엇보다도'와 '어디에서도'를 들 수 있고, 동류 제시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항목에는 '그밖에도'가 있다. 한편 '마저도, 조차도, 만도'는 선행하는 조사 자체

81) '밖에도'는 '그밖에도' 외에 '뜻밖에도'로도 쓰였다. 그러나 '뜻밖에' 전체 구성은 『표준』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뜻밖에+도'로 분석되며,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체에서 제외된다.

가 ‘낮은 가치의 것’을 의미하고 있어 ‘도’의 의미도 주로 ‘양보’만이 적용되었다[82].

(2) ‘은/는’ 후행

보조사2 중 ‘은/는’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의미 구조 및 관용적 사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22] 모어 화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의미격/보조사1)+의미격+보조사2	에는	1,918	34.41	[[소재/시간]+지정/비교·대조]	-
	까지에는	3	0.05	[[[끝점]+소재/시간]+지정/비교·대조]	-
	에서는	876	15.72	[[처소]+지정/비교·대조]	-
	으로는	362	6.49	[[방향/수단/이유]+지정/비교·대조]	-
	만으로는	17	0.31	[[[유일]+방향/수단/이유]+비교·대조]	주로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만이 사용됨.
	과는(과[1])	120	2.15	[[동반]+비교·대조]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 비중이 높음.
	에서와는(과[1])	2	0.04	[[[처소]+동반]+비교·대조]	서술어가 모두 ‘달리’임.
	까지와는(과[1])	1	0.02	[[[끝점]+동반]+비교·대조]	
	보다는	108	1.94	[[차등 비교]+비교·대조]	-
	에게는	37	0.66	[[유정성·처소]+지정/비교·대조]	-
	으로서는	28	0.50	[[자격]+지정/비교·대조]	-
	서는(서[2])	11	0.20	[[처소]+지정/비교·대조]	‘여기서는’으로만 사용됨.
	으로써는	6	0.11	[[방편]+지정/비교·대조]	-
	이라고는	2	0.04	[[직접 인용]+지정/비교·대조]	-
	께서는	1	0.02	[[유정성·높임·주체]+지정/비교·대조]	-

82) 보조사2는 이같이 의미 적용 양상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넓은 작용역으로 선행 명사구나 조사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의미의 확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분석은 주로 홍사만(2002)의 의미 분석을 참조하으나, 다만 본 연구는 조사연속구성체에 나타난 의미 요소에 한하여 논의하였다.

	서는(서[1])	1	0.02	[[주체·수]+지정/비교·대조]	-
보조사1+보조사2	까지는	53	0.95	[[끝점]+비교·대조]	-
	부터는	12	0.22	[[시작점]+비교·대조]	-
	만큼은 (만큼[2])	2	0.04	[[한정]+비교·대조]	-
	만은	24	0.43	[[유일]+비교·대조]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와 결합이 많음.
	밖에는	1	0.02	[[한도]+비교·대조]	거의 항상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 결합함.

'은/는'이 후행한 유형의 빈도는 조사연속구성체 중 가장 높다. 이 중 '에는'의 총 빈도는 총 1,918회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으며 이는 '까지'가 다시 결합된 '까지에는'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은/는'은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격조사 및 보조사2와 결합하여 21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에 유형별로 나누어 사용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ㄱ. (의미격조사/보조사1)+의미격조사+보조사2

'은/는'이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에는'이며 '에는'의 상위 10개 명사구는 다음과 같다.

[표 Ⅲ-23] 모어 화자: '에는'이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에는'이 포함된 명사구		원빈도
1	위에는	61
2	때에는	50
3	경우에는, 중앙에는	30
4	앞에는	27
5	사이에는	26
6	중에는	25
7	서쪽에는, 처음에는	24
8	북쪽에는, 여기에는	17

'에는'과 결합된 명사는 1위인 '위'를 비롯해 '중앙, 사이, 앞, 서쪽, 여기' 등 위치 관련 표현이 많다. 이는 분석 대상 텍스트 중 하나인 『한국건

축사』가 내용적으로 건물의 위치별 설명을 상세히 제시한 것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때, 처음'과 같은 시간 관련 표현 및 '경우'와 같은 상황 지시 표현의 빈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음 문장은 '에는'에 '위치, 시간, 개념어'가 결합한 예이다.

<에는>

76) 위치: 기단의 높이는 약 5척, 정면과 측면 3간으로 기단 위에는 다듬은 방형초석들이 남아있다. (BTHO0387)

77) 시간: 열거법은 수가 적을 때에는 편리하나 수가 많을 때는 서술법이 편리하다. (BTHO0399)

78) 개념어: 그러나 과거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성공을 거둘 것이란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패로 끝날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BTHO0405)

76)-78)에서 '에'의 의미를 살펴보면, '위에는'은 거의 대부분이 위 76)과 같이 물리적 위치를 나타냈으며 시간 표현인 '때'는 77)에서는 『표준』에서 제시한 '어떤 경우'로 개념어화한 의미를 나타냈다. 따라서 78)의 '경우' 또한 77)의 '때'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한편 위 문장에서 '은/는'의 의미는 76)에서는 '지정', 77)에서는 '대조', 78)에서도 '대조'이다. 즉, 76)에서 '기단 위에는'은 후행 절인 '다듬은 방형초석들이 남아있다'의 주제어 기능을 하였으며 77)의 '수가 적을 때에는'은 후행하는 '수가 많을 때는'과 비교된다. 그리고 78)에서 '실패로 끝날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은 앞 문장 전체에 대해 뒷문장이 대조되었다. '은/는'은 이같이 선행 명사구 외에 서술어 이상의 단위에까지 작용역이 확장되며 의미격조사에 후행하였다. 다음은 '에는'이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 사용된 '까지에는'의 예이다.

<까지에는>

79) … 실제로 고대 로마시대의 조리기술과 함께 상업이 부활되기까지에

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BTHO0396)

79)는 시간적인 끝점을 의미하는 '까지'에 '에는'이 결합한 것으로, 나머지 2회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장소나 시간 표현인 '종보까지에는[83],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적어도 20년이라는 …'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때 '까지'는 의미격조사에 선행하여 확장적이거나 강조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끝점'이라는 어휘적 의미 표현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서술어 또한 일반적인 서술어인 '걸리다' 등이 사용되어 앞서 확장적 의미의 서술어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조사연속구성체 '에서는'을 살펴본다. 이 항목의 사용 빈도는 876회로 '에는'의 빈도에 비해서는 50%가 채 못 되지만 여전히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빈도가 높다. '에서는'이 포함된 상위 10개 명사구는 다음과 같다.

[표 Ⅲ-24] 모어 화자: '에서는'이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에서는'이 포함된 명사구		원빈도
1	우리나라에서는	32
2	중국에서는	25
3	본서에서는	22
4	일본에서는	17
5	본고에서는	11
6	곳에서는, 안에서는	10
7	미국에서는, 차원에서는	9
8	지역에서는	8

'에서는'은 '에는'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위치 표현보다는 장소 표현이 더 많다. 예외적인 단어는 6위인 '안', 그리고 8위인 '차원' 정도이다. 이 중 '본서, 본고'는 텍스트 자체로서의 처소를 가리키기도 하여 필자가 직접 텍스트에 관해 설명하는 메타언어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 위에서 가장 고빈도인 '우리나라에서는'과 메타언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본고에서는'의 예를 살펴본다.

83) 종보: 『건설』 → 마룻보(『표준』).

<에서는>

80) 오늘날 미국에서는 하루의 소금 섭취량은 5g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10g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5g으로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BTHO0396)

81)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접속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BTHO0399)

'에서는'에서 '에서'는 80), 81) 모두 처소를 의미하였으나 이 중 81)은 필자가 직접 책의 내용을 설명한 메타언어로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22회는 모두 『한국어 의미론』에 사용된 것으로, 학술적 주제를 다루면서 내용상의 제한이나 초점을 나타냈다.

한편 '은/는'의 의미는 80)에서는 '비교·대조'가 적용되었고 81)은 '지정'이 적용되었다. 즉, '에서는'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명사를 처소로 의미화하는 '에서'가 우선 결합한 후, '은/는'이 맥락에 맞게 '지정'이나 '비교·대조'를 나타내기 위해 추가되었다. 이외의 의미격조사 결합형인 조사연속 구성체 항목들은 대부분 모두 이같이 맥락에 따라 '은/는'의 '지정' 혹은 '비교·대조'의 의미가 부가되었다.

다만 이 유형 중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항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살펴본다. ① '으로는 → 만으로는', '과는 → 에서와는, 까지와는'은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 확장되었다. ② '보다는'은 선행 조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은/는'이 '지정'이 아닌, '비교·대조'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③ '서는(서[2])'의 '서'는 '에서'의 축약형임에도 불구하고 격식적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으며 주로 '여기서는'으로 표현되었다.

이 내용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①에서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 확대된 '만으로는'은 '으로는'이 확장된 항목이다. '으로는'은 빈도가 총 346회로 높은 편이었으며, 선행 명사구와의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25] 모어 화자: '으로는'이 포함된 명사구 상위 10개 항목

'으로는'이 포함된 명사구		원빈도
1	것으로는	11
2	전체적으로는	10
3	유적으로는, 한편으로는	9
4	궁극적으로는, 뒤로는, 안쪽으로는, 연구로는	7
5	동측으로는, 뒤쪽으로는	5

위 표에서 1위로 사용된 의존명사 '것'은 설명문에서 명사 전체 중 가장 고빈도를 나타낸 단어이다. 설명문 전체에서 '것'의 빈도는 4,810회로 의존명사, 대명사, 일반 명사 중 빈도가 가장 높다. 즉, 앞서 '에, 에서'와 달리 '으로/로'는 그만큼 더 문어에서 보편적인 명사에 결합한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3위의 '전체적, 유적, 한편'은 글에서 특정 관점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키거나 초점화하거나 전환한다. 4위의 '궁극적'과 같은 표현 또한 '으로/로'가 가진 '방향'의 의미가 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용된 예이다. 이외의 방향 표현인 '뒤, 안쪽, 동측, 뒤쪽' 등은 대부분 『한국건축사』에 사용된 표현으로, 특정 건물을 위치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 중 '것으로는'과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의 예를 살펴본다.

<으로는>

82) 가향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소나무이다. (BTHO0396)

83)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리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BTHO0405)

84)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는 방법과 도구 만드는 기법을 발달시켰으며, 한편으로는 동굴에 그림도 그리고 음식과 옷 만드는 법도 발달시켜 왔다. (BTHO0396)

82)의 '으로는'은 '수단'을 의미하며, 83), 84)의 '으로는'은 각기 특정한 관점으로서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때 '은/는'은 모두 문장에서 '지정'이나 '비교·대조'를 의미하였다. 82)는 '지정'의 의미가 분명한 편이며 83), 84)

는 '사회의 다른 부분과 전체', 그리고 '싸우는 방법과 도구 만드는 기법을 발달시킨 것'의 비교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한편 '으로는'에 '만'이 다시 선행하여 세 개 조사의 연속 구성을 이룬 '만으로는'은 다음과 같이 '으로는'에 비해 의미가 더 제한적인데 이는 조사 '만'이 결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으로는>

85) 이런 기법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두드러진 경영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BTHO0405)

85)는 '만'의 '유일' 의미가 추가됨으로써 명사구 전체가 '매우 제한적인 것'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에 연결되는 서술어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만으로는 -기 어렵다/설명할 수 없다/효과가 없다/충분하지 않다/알 수 없다…' 등만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서술어는 '은/는'의 의미를 비교나 대조로 해석하게 하는 요소이며 거의 예외가 없는 관용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었다. 이때의 '만'은 좁은 작용역으로 '유일성'을 나타내며 '으로는'에 선행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3개 조사 연속 구성은 '과는(과[1])' 및 이 항목이 확장된 '에서와는, 까지와는'이다. '은/는'이 '과/와[1]'와 같이 '동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격조사와 결합했을 때는 대부분 이와 유사한 의미 부류인 '비교·대조'를 의미했다. 그리고 '과는'이 포함된 3개 조사의 연속 구성 또한 위에서 살펴본 '만으로는'과 유사하게 부정적인 서술어와의 호응이 많았다. '과는'이 사용된 문장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는(과[1])>

86) 그는 자신의 의사결정 방식을 미국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행했다. (BTHO0405)

87) 밑술과정은 멥쌀을 주로 사용하고 밀가루와 15:1, 누룩과는 5:1의 부피비로 사용한다. (BTHO0396)

위 86)의 ‘과는’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 호응하였으며 이외에도 ‘과는’의 서술어는 많은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다르다, 달리, 어긋나다, 관계가 없다’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항상 부정적인 유형의 서술어와만 공기하는 것은 아닌데 87)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전히 비교의 맥락에서 사용된 점은 86)과 유사했다.

다음은 ‘과는’에 ‘에서’와 ‘까지’가 선행한 ‘에서와는, 까지와는’의 예이다.

<에서와는(과[1]), 까지와는(과[1])>

88) 서울과 그 북녘에서와는 달리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많이 만들고, 충청도, 경상도 등 지방별로 차이는 있지만, … (BTHO0396)

89) 위의 (10)ㄱ ~ㄷ 까지와는 달리 (11) ㄱㄴ 은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BTHO0399)

88), 89)의 서술어는 위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과 결합하는 비중이 ‘과는’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조사연속구성체 자체의 빈도가 낮기는 했지만 ‘에서와는’ 2회, 그리고 ‘까지와는’ 1회의 서술어가 모두 ‘달리’로만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의미격조사+은/는’의 특징 ②인 ‘보다는’에 관해 살펴본다. 이 역시 위에서 살펴본 ‘과는’과 같이 선행 조사 ‘보다’의 ‘차등 비교’ 의미로 인해 ‘은/는’도 ‘비교·대조’를 의미했다.

<보다는>

90) 그러나 아직도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고, 분석된 것보다는 분석되지 않은 의미 현상이 더 많다. (BTHO0399)

90)의 ‘보다는’은 [[차등 비교]+비교·대조]의 의미 구조로 해석된다. ‘보다’와 같이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 뒤의 ‘은/는’은 거의 예외 없이 ‘비교·대조’만을 의미하였다.

‘의미격조사+은/는’의 특징적인 사용인 ③ ‘서는(서[2])’은 다음과 같이 관용적인 쓰임을 나타냈다[84].

<서는(서[2])>

91) 포도주 문화권에는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등 라틴계 나라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음식에 관심이 높고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길다. (BTHO0396)

92) 색채어장의 명사형은 이와 인접하여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BTHO0399)

91), 92)와 같이 ‘서는’은 모두 ‘여기’와 결합해 관용성을 나타냈다. 이때 ‘여기서는’은 91)과 같이 앞서 언급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92)와 같이 메타언어로서 글의 전개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은/는’ 또한 ‘지정’과 ‘비교·대조’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 다양한 의미가 적용되었다. 다만 이때 ‘서’는 ‘에서’의 축약형임에도 불구하고 구어성이 나타나지 않고 문어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일반적인 다른 축약형의 조사들과 차이를 보였다.

ㄴ. 보조사1+보조사2

다음으로 ‘보조사1+은/는’의 결합에 관해 살펴본다. 이 조사들이 나타내는 특징은 주로 두 가지이다. ① 보조사1과 결합한 ‘은/는’은 선행 조사의 의미에 따라 주로 ‘비교·대조’가 적용되었으며 ② ‘만은, 밖에는’에서는 관용적인 사용을 볼 수 있었다. ①과 관련된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의 예는 다음과 같다.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

93) 해방 후 1975년까지는 쌀의 절대부족시기였으며 1976년부터 1988년에 이르는 13년간이 쌀의 자급시기였고 1989년부터는 쌀이 과잉 생산

84) 참고로 ‘주체·수’의 ‘서[1]’이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 '덧버선'에서의 '덧-'이나 '사람들'에서 '-들' 과 같이 홀로서는 쓰일 수 없고 … (BTHO0399)

되기 시작하였다. (BTHO0396)

94) 태조는 … 국호는 전 왕조의 국호 "고려"(高麗)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종묘·사직만큼은 새롭게 할 것을 명하였으나, … (BTHO0387)

93)에서 '까지는'과 '부터는'은 모두 한 문장 안에 사용되었다. 이 둘은 특정 시기가 나열되는 맥락에서 '까지는'과 '부터는'에 각기 '끝점+비교·대조', '시작점+비교·대조'의 의미가 적용되었다. 94)은 '만큼[2]'의 '한정' 의미에 '은/는'이 결합되었는데, 이때 '은/는'의 의미는 '지정'인지 '비교·대조'인지 모호하나, 여기서는 '만큼'으로 선행 명사구를 부각시켜 한정하였으므로 '비교·대조'의 의미로 보았다. 즉, '까지, 부터, 만큼'은 각기 '끝점, 시작점, 한정'을 의미하였으며 '은/는'은 이 조사들에 모두 '비교·대조'의 의미를 더했다.

다음으로 '보조사1+은/는'의 특징 ②에 관한 내용으로, '만은, 부터는'에는 다음과 같은 관용적인 사용이 있었다.

<만은, 밖에는>

95) 그러나 산성이라 하여 산성을 쌓는 곳 모두가 험준한 산악만은 아니다. (BTHO0387)

96) 다만 용법 사이의 부분적인 공통성만은 인정하여 가족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BTHO0399)

97)「의미 = 지시」로 보는 지시설은 의미의 아주 일부분밖에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THO0399)

95)에서 '만은'은 부정적인 서술어와 결합해 강조되었고, 이때 '만'은 어휘적 의미에 가까운 '유일'을 나타냈다. 그러나 '만은'은 항상 부정적인 서술어와만 호응하지는 않으며, 96)과 같이 긍정적인 서술어와의 호응도 많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관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용으로 제약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97)은 '밖에는'이 사용된 문장이다. 여기서 선행한 조사 '밖에'의 의미는

‘한도’이며, 후행하는 ‘은/는’의 의미는 위 문장의 서술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점을 근거로 긍정성과의 대조를 내포한다고 보고 ‘비교·대조’로 보았다. 따라서 ‘밖에는’ 전체의 의미는 ‘한도+비교·대조’이다.

‘밖에는’은 빈도가 1회뿐으로 나타나 위의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의 결합을 관용적인 사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표준』에 따르면 부정적 서술어와의 호응이 많고, 문어 전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보아도 대부분이 부정적 서술어와 공기하여 이를 근거로 ‘밖에는’은 부정적 서술어와 공기하는 관용적인 사용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은/는’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여러 유형 중 가장 다양한 결합과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 중 특히 ‘에는, 에서는’의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이 범주에서 의미격조사와 ‘은/는’이 결합된 유형에서는 주로 선행 조사에 ‘지정/비교·대조’의 의미를 맥락에 따라 부여하였으나, 보조사1에 ‘은/는’이 후행한 경우는 대부분 선행 조사의 의미에 영향을 받아 ‘은/는’도 ‘비교·대조’로만 쓰였다.

또한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만으로는, 과는(과[1]), 에서와는(과[1]), 까지와는(과[1]), 만은, 밖에는’이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와 자주 결합했고, ‘서는(서[2])’은 ‘여기서는’으로만 사용되며 축약형임에도 불구하고 구어성이나 비격식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3개 조사 연속 구성으로의 확장은 ‘으로는→만으로는’, ‘과는→에서와는, 까지와는’에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은/는’의 의미가 ‘지정’이나 ‘비교·대조’로 나타나는 양상이 선행 조사가 의미격조사인지 보조사1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속성은 ‘은/는’의 표별 의미와 관련이 있다(김진호 2000:125)[85]. 즉, 보조사1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자매 항목의 전제를 수반하므로 그 자체가 실제문과 함의문의 기술 가치의 대립을 함의하여 ‘은/는’도 ‘비교나 대조’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김진호 2000:127). 이렇게 선행하는 언어 항목의 의미 특성에 따라 후행 조사의 의미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은/는’에 보조사1이 선행한 유형에서뿐 아니라 의미격조사와 결합한 ‘만으로는, 과는

85) ‘표별(表別)’은 홍사만(2002:37)에 따르면 朴勝彬(1935)에서 유래한 용어로, 상호 대립적인 의미 관계를 나타내며, 반대되는 용어로는 ‘협수(協隨)’가 사용된다. 이는 주로 보조사의 의미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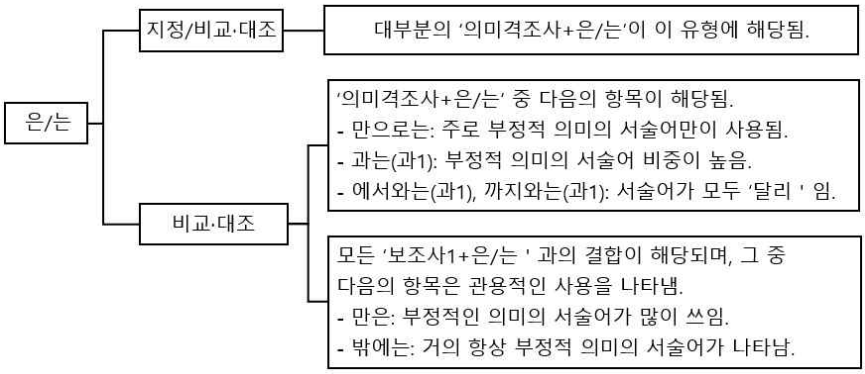
(과[1]), 에서와는(과[1]), 까지와는(과[1])'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 조사들은 '만'이 '유일'을 의미하고 '과/와'가 '비교'를 의미함에 따라 '은/는'도 '비교·대조'만을 나타낸 경우였다.

한편, 이 같은 '지정'과 '비교·대조'의 의미는 서로 구분되면서도 맞닿아 있다. 임홍빈(2007)에 따르면 주제와 대조의 '은/는'은 다음과 같이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98) 옛날 옛날 고려 적에 <u>한 임금님은</u> 당나귀 귀를 가졌습니다. (임홍빈 2007:317)

98)에서' '은/는'은 '지정'과 '비교·대조' 중 어느 하나의 의미로 특정하기 어렵다. 주제의 '은/는'이라고만 해서는 '한 임금님'이 하는 문장의 도입 기능이 잘 설명되지 않으며, 대조의 '은/는'이라고만 해서는 다른 사람과 대조되어 '귀가 크다'는 이 임금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의 '은/는'과 대조의 '은/는'을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로나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임홍빈 2007:319).

이 같은 '은/는'의 다양한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관용적 사용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즉, '은/는'이 포함된 발화는 간혹 시비(是非)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공부는 잘한다"라는 말은 일단 "운동은 못한다"와 같은 말을 함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운동도 잘한다"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처럼 어떤 내용을 함축하기만 할 뿐 확실히 선을 그어 주지는 않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이익섭 2010:149). 이같이 '은/는'은 온전히 가치 중립적이지만은 않은 특성이 있어, 관용적 표현에서도 '부정형으로의 관용적 사용'이 나타난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은/는'의 사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6] 모어 화자: 조사연속구성체에서 '은/는'의 의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는'은 '지정/비교·대조'를 모두 나타내는 경우와 '비교·대조'만을 주로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된다. '은/는'이 의미격조사와 결합했을 때는 대부분 문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나, 보조사1과 결합했을 때는 대부분의 보조사1이 자매항을 전제하는 특성에 따라 '은/는'도 거의 '비교·대조'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두 유형의 의미는 상호 관련된 것으로 별개의 속성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은/는'은 부정적인 서술어와의 호응이 많은데 이는 이 조사가 함의문과의 대립적인 속성을 전제하고, 또한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어 의미 범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 '이나/나, 이야/야' 후행

보조사2 '이나/나, 이야/야'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와 의미 구조 및 관용적 사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26] 모어 화자: '이나/나, 이야/야'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후행 조사	유형	항목	원빈도	정규 빈도	의미 구조	관용성
이나/나	의미격+보조사2	으로나	19	0.34	[[수단]+선택]	'으로나' 명사구를 포함한 앞뒤 명사구나 대응됨.
		에서나	13	0.23	[[처소]+선택]	의문 표현과 결합. ('어디, 어떤 N, 어느 N'으로만

						사용됨.)
		에나	7	0.13	[[소재/시간]+선택]	의문 표현과 결합. (‘어떤 N, 어느 N’으로만 사용됨.)
		서나(서[2])	6	0.11	[[처소]+선택]	의문 표현과 결합. (‘어디서나’로만 사용됨.)
		만큼이나 (만큼[1])	1	0.02	[[동등 비교]+선택]	-
	보조사1+ 보조사2	까지나	5	0.09	[[끝점]+선택]	의문 표현과 결합. (어디, 언제)
이야/야	의미격+ 보조사2	에야	7	0.13	[[시간]+뒤늦은 시점]	

‘이나/나’와 ‘이야/야’의 의미는 각기 ‘선택’, ‘뒤늦은 시점’이며 관용적으로 ‘이나/나’는 의문사와 많이 결합했고 ‘이야/야’는 시간 표현과 주로 결합하였다. 그러나 두 조사 모두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유사했다.

ㄱ. ‘이나/나’ 후행: 의미격조사+보조사2

‘이나/나’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의미격조사+보조사2’ 유형부터 살펴본다. ‘으로나’가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으로나>

99) 그러므로 대등과 종속의 관계는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BTHO0399)

위 99)에서 ‘으로나’의 의미는 [수단+선택]이다. 이때 ‘으로나’ 포함의 명사구는 위의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도’와 같이 대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결합의 순서는 ‘통사론적’에 ‘수단’의 의미를 부여하는 ‘으로/로’가 선행하고, ‘선택’을 나타내는 ‘이나/나’가 후행하였다.

다음으로 ‘에서나, 에나, 서나’를 살펴본다. 이 항목들은 각각 [처소+선택], [소재+선택], [처소+선택]의 의미를 나타냈으며, 모두 의문사나 의문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에 결합하였다.

<에서나, 에나, 서나(서[2])>

100)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나, 그들은 보통법의 오래된 격언 즉, '기업은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임을 보여준다. (BTHO0405)

101) … 팬암의 본사 건물은 뉴욕의 어디에서나 눈에 잘 띄었고, … (BTHO0405)

102) 은유는 어떤 언어에나 다 있는데 표현의 신선미를 주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언어표현이다. (BTHO0399)

103) 그리고 13세기 이후에는 온돌이 널리 퍼져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인 바닥구조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BTHO0387)

이 조사들은 모두 의문과 관련된 표현과 결합해 미지칭의 의미를 나타냈다. 100)은 의문관형사 '어느'의 수식을 받은 명사에 조사연속구성체가 결합하였고 101)은 의문대명사 '어디'에 '에서나'가 결합하였다. '에서나'는 총 13회 사용되었는데 모든 문장에서 '어느, 어떤'의 수식을 받는 명사나 '어디'에만 결합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102)는 '에나'의 예로 이 또한 의문 표현과 결합하였다. 설명문 말뭉치에서는 7회가 모두 '어느, 어떤'의 수식을 받은 명사에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103)은 '서나'의 예인데 '서나'는 위 예와 같이 6회 모두 '어디서나'로만 사용되었다. '서[2]'는 앞서 '은/는'과의 결합에서 '여기서는'으로만 사용된 바 있는데 '이나/나'에 선행해서도 '어디서나'로만 사용되는 관용성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만큼이나(만큼[1])'가 사용된 문장을 살펴본다.

<만큼이나(만큼[1])>

104) 왜냐하면 요청문은 어느 한 가지 문장유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의문은 '의미'의 종류만큼이나 동의문의 유형이 많기 때문이다. (BTHO0399)

104)에서 ‘만큼’은 ‘동등 비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 ‘′의미′의 종류만큼이나’는 ‘동의문의 유형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교를 나타낸다. 즉, 이는 ‘동등 비교+선택’의 의미가 적용된 것으로, 다른 ‘이나/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와 달리 관용적 사용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ㄴ. ‘이나/나’ 후행: 보조사1+보조사2

보조사2인 ‘이나/나’에 보조사1이 선행한 조사연속구성은 ‘까지나’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까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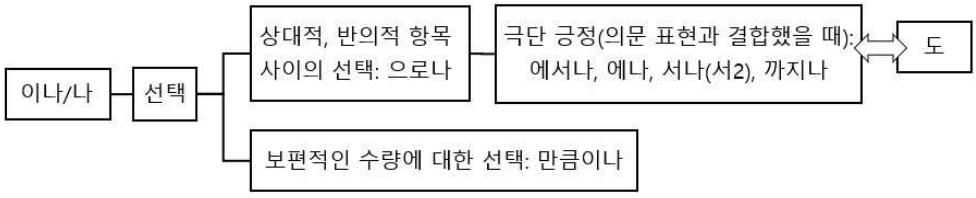
105) 그러나 지금 세계는 활짝 열렸고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 되였는데, 언제까지나 찌개문화를 고집할 수는 없다. (BTHO0396)

105)에서 ‘까지나’에는 ‘끝점+선택’의 의미가 적용되었으며 총 5회의 빈도 중 4회가 위와 같은 ‘어디까지나‘였고, 1회가 ‘언제까지나’로 쓰여 의문사와 결합하는 관용성을 나타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나/나’는 크게 ‘선택’을 의미하나, 이는 다시 여러 의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조사연속구성체에 해당하는 세부 의미 유형을 살펴보면 ‘으로나’는 논리적으로 상대적, 반의적이 되는 두 항목 사이의 선택을 나타냈고, 이 같은 맥락에 의문 표현이 쓰인 경우는 ‘누구나 직장을 가질 수 있다’와 같이 ‘극단 긍정’의 의미를 나타냈다(홍사만 2002:268-275). 조사연속구성체 중 이와 해당한 항목이 ‘에서나, 에나, 서나(서[2]), 까지나’였다. 그러나 한편, ‘만큼이나(만큼[1])’는 보편적인 수량에 대한 선택을 나타내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항목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이나/나’의 의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와는 상반되어 차이를 보인다.

106) 그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107) 그 사실은 누구도 잘 모르고 있다.
(홍사만 2002:277).

106)과 107)은 모두 동일한 선행 명사 '누구'에 '이나/나'와 '도'가 결합하였으나 106)은 극단 긍정을 의미하고 107)은 극단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106)과 같이 서술어가 긍정적인 '알고 있다'일 때 '이나/나'는 '도'로 교체되지 않으며, 107)과 같이 서술어가 부정적인 '모르고 있다'일 때의 '도'도 '이나/나'로 교체되지 않는다. 즉, '이나/나'는 의문 표현과 결합해 전체 긍정의 의미를 만들고 '도'는 의문 표현과 결합해 전체 부정의 의미를 만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나/나'의 의미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Ⅲ-7] 모어 화자: 조사연속구성체에서 '이나/나'의 의미

위에서 '이나/나'의 '선택' 의미는 상대적, 반의적 항목 사이의 선택, 그리고 보편적인 수량에 대한 선택으로 구분되며, 이 중 반의적 항목 사이의 선택에서 확장된 극단 긍정의 예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문사와 주로 결합하는 조사연속구성에서 나타났다[86]. 이때의 '이나/나' 의미는 '도'가 결합했을 때와는 반대로 전체 긍정을 의미했다.

ㄷ. '이야/야' 후행: 의미격조사+보조사2

마지막으로 보조사2인 '이야/야'가 후행한 '에야'가 사용된 문장을 살펴본다.

86)제시된 의미 요소는 홍사만(2002)을 참조한 것이다.

<에야>

108)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한동안 곪다가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BTHO0405)

위 108)의 '에야'는 '에'의 '시간' 의미와 '이야/야'의 뒤늦은 시점을 강조하는 의미가 결합되었다. '에야'는 이같이 선행 명사가 모두 '최근, 다음, 이후, 나중, 새벽, 1950년대, 19세기말'로 시간 표현만이 결합하여 '에'의 '소재/시간' 중 '시간' 의미만이 나타났다. '이야/야'는 그 시기가 늦은 것임을 표현하였다.

한편 '이야/야'는 앞서 그 의미를 '제시/예상대로/뒤늦은 시점'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조사연속구성으로는 '뒤늦은 시점'의 의미가 적용된 문장만이 추출되었다. 이 같은 의미는 '이야/야'의 '예상대로' 의미에 부정적인 태도가 추가된 것다. 따라서 '그까짓 돈이야 나도 가지고 있어.'와 같이 격하된 가치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홍사만 2002:304).

2.5. 정리

지금까지 모어 화자 말뭉치에 나타난 조사연속구성체를 '구조격조사 후행, 의미격조사 후행, 보조사2 후행, 보조사1 후행'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조사의 작용역과 관련되는 의미 구조 및 관용적 사용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연속구성체에서 결합의 순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보조사2/구조격조사'이며,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는 상호 결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말뭉치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외적인 결합 순서를 보이는 '까지, 만'의 사용 또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주로 의미격조사에 선행하는 제한된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과 의미격조사에 후행하여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는 두 유형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까지'의 경우 확장된 사용일 때는 서술어의 유형 또한 확장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 결합 원리 특성을 살펴보면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은 생략이 가능한데 사용되어 선행 명사의 '주체,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을/를'의 '만을'은 '이/가'의 '만이'와 달리 '으로/로, 에서'가 추가로 결합하는 3개 조사 연속 구성의 확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을/를'의 종결성 의미와 관련되어 '으로/로, 에서'의 상적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보격조사 '이/가'는 유사 의미의 조사연속구성 및 서술어가 '아니다'로 제약되는 사용을 통해 강조 의미를 나타냈으며, 의미격조사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이/가'의 상적 의미 특성은 주격조사와 유사했다.

관형격조사 '의'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 중 가장 다양했는데 그 이유는 '의'가 다른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거의 없고 생략이 잘 되지 않는 특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의'는 다른 조사에 결합했을 때 후행 명사보다는 선행 명사를 강조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한편,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에서는 '으로/로'가 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가 다른 조사에 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연속 구성되었다. 구조격조사 전체 유형에서 관용적인 사용은 보격조사 '이/가' 전체 및 관형격조사 후행 유형의 일부인 '만큼의, 대로의, 마다의', 그리고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일부인 '에서와, 까지와'에서 볼 수 있었다.

보조사1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까지'의 경우 확장적 서술어와의 결합이 두드러졌고 '만' 후행 유형은 '까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조의 의미와 다른 항목이 자동적으로 제한된 '배제됨'의 의미를 나타냈다. 그리고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는 모두 의미격조사에만 후행하여 조사 단독으로 쓰일 때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유형에서 관용적인 사용은 '까지'에 모두 확장성의 서술어가 결합한 것과 '만' 후행 유형의 일부인 '뿐만, 으로서뿐만, 으로뿐만, 까지만, 에부터'에서 볼 수 있었다.

보조사2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다양성과 빈도의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연속 구성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도, 은/는' 후행 유형 및 '이나/나,

이야/야' 후행 유형에서 관용적인 사용도 많았다. 즉, '에도, 에서도, 보다도, 밖에도, 만으로는, 과는(과[1]), 에서와는(과[1]), 까지와는(과[1]), 서는(서[2]), 만은, 밖에는, 으로나, 에서나, 에나, 서나(서[2])' 등 여러 항목의 전체 혹은 일부에서 이 같은 사용 양상이 나타났다. 보조사2는 다양한 쓰임이 많은 만큼 후행 조사의 의미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어 의미 분화의 양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한편 의미 구조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의미 요소는 각 조사의 부류 및 작용역의 크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었다.

[표 Ⅲ-27] 작용역의 범주별로 적용된 조사의 의미

작용역, 조사 부류	'까지, 만'	<의미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1	<보조사2	<구조격조사
의미	• 끝점 • 유일	• 방편 • 소재/시간 • 유정성·높임·주체 • 유정성·높임·처소 • 유정성·처소 • 자격 • 주체·수 • 직접 인용 • 처소 • 출발점 (이하 의미는 의미격조사끼리의 결합에서 후행함) • 비슷함 • 동반 • 차등 비교 • 동등 비교[87] • 방향/수단/이유	• 연결	• 각자 • 끝점 • 동등 비교[88] • 마지막 • 미침 • 불만 • 시작점 • 양보와 더함 • 유일 • 한도[89] • 한정[90]	• 뒤늦은 시점 • 선택 • 지정/비교·대조 • 첨가/양보	• 대상(강조)[91] • 주체(강조) • 소속 • 대상[92]
	의미의 구체성 <----------> 의미의 추상성					

87) 만큼[1]
88) 대로
89) 밖에
90) 뿐, 만큼[2]
91) 을/를
92) 이/가[2]

위 표에서 가장 선행하는 의미의 유형은 '끝점, 유일'이다. 다음으로 의미격조사류가 나타낸 의미들은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했다. 이 중 '비슷함, 동반, 차등 비교, 동등 비교, 방향/수단/이유'의 의미 요소들은 다른 의미격조사와의 연속 구성에서 후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보조사1에 속하는 의미 유형들은 모두 어떤 것의 제한성과 관련되었다. 또한 정서적인 아쉬움이나 한도를 나타내는 표현도 많았다. 한편 보조사2는 보조사1보다 더 확장적인 의미 부류로, '뒤늦은 시점'과 같은 적극적인 정서 표현이거나 혹은 '첨가/양보, 지정/비교·대조, 선택'으로 문장이나 절의 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구조격조사는 '대상(강조), 주체(강조), 소속, 대상'의 의미 유형이 나타났다. 이는 각각 목적격, 주격, 관형격, 보격의 기능에서 파생된 의미이므로 앞선 의미 유형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강조와 같은 특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편 '소속'을 의미하는 '의'는 다른 조사 뒤에서 거의 생략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다양성이 큰 편이었다. 이 같은 의미 유형은 가장 넓은 범주의 작용역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앞서 살펴본 홍사만(2002), 성광수(1978) 등의 논의에 따르면 언어 항목의 의미는 명사구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의미의 구체성을 나타내며, 멀어질수록 의미의 추상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위 표에서 조사연속구성의 순서대로 제시한 의미의 요소들 또한 선행할수록 구체적이고, 후행할수록 더 추상적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은 모어 화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첫째, 조사 선택의 양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어 화자의 경우 조사의 선택과 배열은 이미 적절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작용역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의미 요소를 살펴보았으나, 학습자는 조사의 연속 구성 자체와 관련해 작용역의 크기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혹은 조사의 대치, 생략, 과잉 등의 오류가 나타나 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의미'와 관련, 의미 구조보다는 관용적 사용의 적용을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학습자가 조사 선택의 오류를 나타낸 경우 그러한 오류 형태의 의미 구조를 분석하기보다는 이때는 조사 선택상의 기제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미'에 관해서는 관용적 쓰임의 적용 여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중급과 고급 사이의 향상도를 알아보았다.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중급에 비해 고급에서 사용 횟수가 늘었는지, 그리고 늘었다면 오류율에 개선이 있었는지이다. 또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오류율이 고급에서도 100%이거나 더 낮아진 경우만을 제외하고, 빈도가 늘었거나 오류율이 100%아니며 어느 정도 낮아졌다면 대부분 향상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별 향상도를 나타낸 항목은 많지 않았다.

3.1. 구조격조사의 강조 표현 및 통사·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과 오류

모어 화자의 경우 구조격조사는 생략 대비 사용의 효과로서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 다양한 통사, 의미적 기능을 부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 유형 중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 후행 유형의 항목은 1회의 사용만이 있었으며,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의' 후행 유형에서는 적은 사용 빈도만이 관찰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오류율도 높은 편이었다.

(1) 주격조사 '이/가[1]' 후행

주격조사 '이/가'가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및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원빈도'는 각 항목을 사용한 횟수이며 '정규 빈도'는 총 형태소 수가 1만개일 때의 비중이다. 그리고 '오류율'에서 '-'로 표시된 항목은 학습자가 사용하지 않은 항목이고, '0%'로 표시된 항목은 사용했으나 오류율이 0%인 항목이다.

[표 Ⅲ-28]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만이	67	1.20	1	0.37	-	-

[표 Ⅲ-29]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만이	• 대치·생략 1[93] ('만'대치·'이/가[1]'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	-

학습자는 모어 화자가 1.20의 정규 빈도로 사용한 '만이(이[1])'를 중급에서만 1회 사용하였다. 이는 대치·생략 오류에 해당하였으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대치·생략: 우리 나라에는 조금만(√소수의) 사람들은(√만이) 아파트, 빌라 등에서 산다[94]. (중급, 11505)[95]

93) '생략' 오류의 경우는 수정한 결과가 해당 조사연속구성이면 그 항목의 생략 오류로 포함하였다. 이외 나머지 오류 유형은 학습자가 사용한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사용한 형태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오류 수정의 대안이 둘 이상일 경우는 일관된 오류의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94) 학습자 문장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밑줄이 분석의 초점이 되는 조사연속구성체에 해당하며, 점선으로 표시한 밑줄은 조사연속구성체는 아니지만 전체 문장이 수정되어야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 판단이 가능하여 함께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같이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 분석에서 텍스트 전체에 대한 오류 분석을 한 후 조사연속구성체

위 1)의 '은/는'은 이를 '만'으로 대치해야 하는 점에서 오류를 나타냈으며 또한 '이/가[1]'도 생략하였다. 선행 조사에 관해 학습자는 '은/는'의 '비교·대조' 의미와 '만'의 '유일' 의미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측면에서 오류를 나타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각 개별 조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다. 학습자가 사용한 '은/는'과 수정한 형태인 '만'을 비교해 보면, '은/는'은 보통 '대등한 관계에서의 비교나 대조'를 전제하나, 위 문장에서 '사람들'은 비교나 대조되는 항목이 아니며 유일한 대상으로 언급되는 항목이다. 즉, '비교·대조'와 '유일' 의미의 구분에서 오류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문장의 전체 구조를 잘 보지 못했다. 위의 경우 문두에 '우리 나라에는'으로 '은/는'이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후행 절의 주체인 '사람들'에는 '은/는'을 다시 쓰면 어색해지고, 주격조사 '이/가'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즉, 한국어의 일반적인 주제와 평언 구조인 '-은/는+-이/가+서술어'의 구조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이나[96] 이러한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급별 향상도에 관해서는 중급 학습자 말뭉치에서만 1회 사용되었고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표 Ⅲ-30]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만이	• 선행 조사: '은/는'과 '만'의 의미 구별에서 오류를 나타냄. • 후행 조사: 주제와 평언의 문장 구조인 '-은/는 -이/가 서술어' 구조에서 주어의 '이/가[1]'를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의 빈도를 산출하는 순서로 분석하였다. 한편 밑줄 없이 수정 표시가 있는 것은 '생략' 오류에 대한 수정이다.

95) 괄호 안의 표시는 문장의 출처로, 급수와 말뭉치 원본의 표본 번호이다.

96) '주제(topic)와 평언(comment)'구조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주제가 문두에 등장하고, 이후에는 주제에 대해 설명 부분이 등장하는 문장 구조를 말한다(채완 1976:99). 주제 부분은 주로 '은/는'으로 표시되며 평언 구조는 '이/가+서술어' 구조로 나타나 전체는 '-은/는+-이/가+서술어' 구조로 표현된다.

(2) ‘을/를’ 후행

학습자는 조사연속구성체 중 ‘을/를’이 포함된 항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만을’로 [[유일성]+대상(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까지를’로 [[끝점]+대상(강조)]의 의미를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표현의 다양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보격조사 ‘이/가^{2}’ 후행

보격조사 ‘이/가’가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및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31]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만이	9	0.16	-	-	1	0.28
뿐만이	2	0.04	1	0.36	-	-

[표 Ⅲ-32]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만이	-	-	• 생략 1 (‘이/가^{2}’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뿐만이	• 생략 1 (‘뿐, 이/가^{2}’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	-

‘만이(이^{2})’는 고급에서 1회 사용되었으며 ‘뿐만이(이^{2})’는 중급에서 1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모두 오류 표현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이 중 ‘만이’가 사용된 문장이다.

2) 생략: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 차이가(√차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만(√만이) 아니라 그 문화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면 그 외국 생활이(√생활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있게

되는) 법이다. (고급, 6052)

2)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특정 대상을 부정하며 강조하는 '만이 아니라'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아니다' 앞에서 보격조사 '이/가'를 생략하여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이는 '유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문장 구조와 관련되는 '이/가[2]'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중급에서 1회 사용된 '뿐만이'의 예이다.

3) 생략: 그런데 길몽만(√뿐만이) 아니라 흉몽도 많이 있다[97]. (중급, 13371)[98]

3)의 오류 원인은 2)와 매우 유사하다. 후행절을 강조하기 위해 '만 아니라' 구조를 표현하였으나, 보격조사인 '이/가' 및 이러한 강조의 맥락에서는 '만'에 한번 더 중첩해야 하는 '뿐'을 생략하였다. '만'과 '뿐만'의 의미 차이는 [유일] 및 [[한정]+유일]이라는 의미 구조 외에도, 문장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만이'와 '뿐만이'가 모두 사용되고, 문장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명사에는 '뿐만이'가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아 차이를 보인다[99]. 이 유형의 급별 향상도는 중·고급에서 각 1회씩의 사용이 있었고, 모두

97) 이 문장의 오류 판단을 위해 앞 부분의 문장을 추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 신앙에서는 꿈마다 해석돼서 현실에서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뱀이 와서 안기는 꿈을 꾸거나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꿈을 꾼다면 현실에서 좋은 일은 생길지도 모른다. 특히 뱀이 와서 안기는 꿈은 태국의 대표적인 꿈이다. 이런 꿈을 꾼다면 곧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외에는 태국 사람들이 모든 꿈을 꿨을 때도 숫자로 해석해서 복권을 산다. 그런데 길몽만 아니라 흉몽도 많이 있다. (중급, 13371)

98) 본고에서 오류 분석은 최대한 학습자가 이미 사용한 형태를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이 문장은 학습자가 사용한 '만'을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수정 방향이다.

99) 이는 경향성의 차이이며 사용상의 제약은 아니다. '만이'는 많은 경우 '뿐만이'로 대체되어도 비문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만이'와 '뿐만이'를 검색한 결과 이와 같은 경향성을 볼 수 있었는데 예컨대 '만이'의 경우는 '…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만이 아니라, 대도시의 빌딩이나 목욕탕까지 중유 보일러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BTHO0405)'와 같이 문장 중간에 '만이'가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뿐만이'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시, 주(州)의 경우도 집중화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BTHO0405)'와 같이 문장의 첫머리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오류로 분석되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표 Ⅲ-33]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만이	• 선행 조사: '만'의 사용은 적절함. • 후행 조사: 보격조사 '이/가'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해 생략함.
뿐만이	• 선행 조사: '만'의 사용은 적절함. • 후행 조사: 보격조사 '이/가'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해 생략함. • 관용성: 문장의 앞부분에서 '뿐만이'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성을 고려하지 못해 '뿐'을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4) '의' 후행

관형격조사 '의'가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34]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에서의	142	2.55	2	0.73	2	0.57
과의(과[1])	89	1.60	2	0.71	4	1.13
까지의	58	1.04	1	0.37	-	-
만의	5	0.09	-	-	1	0.28
부터의	2	0.04	-	-	1	0.28
마다의	2	0.04	1	0.37	-	-

[표 Ⅲ-35]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에서의	• 생략 1 ('의'생략 1) • 대치·과잉 1 ('에서'대치·'의'과잉 1)[100] ⊙ 총계: 오류 2	100%	• 생략 2 ('의'생략 2) ⊙ 총계: 오류 2	100%
과의(과[1])	• 적절함 1 • 형태·과잉 1 ('과/와[1]'형태·'의'과잉 1) ⊙ 총계: 적절함 1, 오류 1	50%	• 적절함 2 • 과잉 2 ('과의(과[1])'과잉 2) ⊙ 총계: 적절함 2, 오류 2	50%
까지의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	-
만의	-	-	• 적절함 1	0%

			⊙ 총계: 적절함 1회	
부터의	-	-	• 생략 1 (‘의’생략 1) ⊙ 총계: 오류 1회	100%
마다의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	-

‘에서의, 과의(과[1]), 까지의’는 모어 화자의 경우 자주 사용한 편에 속하는 항목으로 정규 빈도가 1에서 2.5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에 비해 빈도가 적은 편이었다. 고급에서 ‘과의(과[1])’를 1.13의 정규 빈도로 사용한 것 외에는 1 미만의 빈도를 보였다. 한편, ‘만의, 부터의, 마다의’는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도 빈도가 낮았고 학습자의 사용 빈도도 낮았다.

‘에서의’부터 문장을 살펴보면, 이는 중고급에서 모두 100%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이 중 생략과 과잉은 관형격조사 ‘의’에 관한 것이며 대치는 ‘에’와 ‘에서’ 간의 구분에 대한 것이다.

4) 생략: 한국과 중국의 문화 중에서(√문화는/문화 중에는) 비슷한 점이 많은 편이라서 한국에서(√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 (중급, 4222)
5) 대치·과잉: 일상생활 속에서의(√에) 미신이 있기는 있는데(√있으나) 여전보다(√예전보다는/예전에 비해서는) 달라지고 있다. (중급, 1262)

4)에서 밑줄친 부분 중 ‘에서’의 선행 명사 ‘한국’은 장소 표현이므로 학습자가 ‘에서’를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으로 후행하는 ‘유학 생활’의 관형어이기도 하므로 ‘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처소의 의미 파악은 적절했으나 관형격 구조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5)는 ‘에서의’에 선행하는 ‘속’이 서술어 ‘있다’에 대한 소재이나, 유사 부류의 의미격조사인 ‘에서’를 사용하여 대치 오류를 보였으며, ‘속에’

100) 표에서 <‘에서’대치·‘의’과잉 1>로 표시된 것은 하나의 항목 안에서 두 유형의 오류가 모두 나타난 것이고 <‘에서’대치 1, ‘의’과잉 1>과 같이 쓰인 것은 각각 다른 항목에서 대치 1회, 과잉 1회의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는 문장의 부사어이므로 다른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나 관형격조사 '의'를 과잉 사용했다. 따라서 4)와 5)는 다음의 공통점을 나타낸다. 첫째, 의미격조사에 대해서는 '에', '에서'와 같이 유사 범주 안에서 혼동했다. 장소성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지했으나 '소재'와 '처소'에 대한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둘째, 구조격조사 '의'에 대한 과잉 사용이나 생략의 오류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4), 5)는 공통적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인식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같이 모두 오류 표현만이 사용되었으므로 급별 향상도는 없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과의(과[1])'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중급 학습자 2회, 고급 학습자가 4회를 사용하였고 오류율은 모두 50%였다. 중급 학습자부터 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나씩 살펴본다.

6) 적절함: 배우자와의 언어와 문화 차이가 크고 2세의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중급, 12639)
7) 형태·과잉: 왜냐하면 배우자외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응할 수 없은(√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문제가 될 수 있다). (중급, 12640)

6)의 문장은 '[[배우자와]의]+[언어와 문화 차이]]' 구조로 '배우자와'가 '언어와 문화 차이'의 관형어에 해당하므로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이 적절했다. 또한 이때 선행 명사는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필자 자신에 대한 '동반'의 대상이으로 '과/와[1]'의 사용이 필요하여 이 역시 적절한 사용으로 볼 수 있었다[101].

그러나 7)은 관형격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를 보였다. 즉, 학습자는 '배우자와의 언어와 문화' 전체를 하나의 구로 해석했으나, 여기서 '배우자와'는 '다르다'의 부사어이다. 7)을 6)과 비교해 보면, 6)에는 '배우자와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차이'라는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차이'는 두 개

101) 6)은 '배우자와'로만 쓰고 '의'를 제거해도 비문이 아니다. 그러나 학습자가 사용한 '와의'의 구성 또한 가능하며, 본고의 오류 수정 방향이 학습자가 사용한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표현으로 보았다.

의 논항을 필요로 하여 ‘A와 B의 차이’로 쓰고 6)과 같이 ‘A와의 B 차이’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7)에는 ‘차이’와 같은 명사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A와 B가 다르다’의 구조로 써야 한다.

이러한 예로 알 수 있는 것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관형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절이나 문장의 후행 성분이 서술어인지 명사인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명사구에 후행하는 요소가 ‘차이’와 같은 명사인지 아니면 ‘다르다’와 같은 형용사나 동사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7)에는 ‘와’를 ‘외’로 사용한 형태 오류도 나타났는데, ‘과/와’는 조사 중에서도 간혹 철자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는 항목이다. 형태 오류는 중급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총 4회가 나타났으며, 고급 학습자에서는 2회의 오류가 나타났다[102].

다음으로 ‘과의(과[1])’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문장을 살펴본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과의’ 모두를 삭제해야 하는 과잉 사용의 오류를 2회 나타냈고 전체 오류율은 50%였다.

8) 적절함: 직후에 미국 나라는(√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 (고급, 2884)
9) 적절함: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이상 자국과의 문화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급, 5762)
10) 과잉: 9.11 테러란 뉴욕 도시에서(√도시에서 일어난) 테러와의(√테러) 공격을 말한다. (고급, 2884)

8)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므로 ‘과의’의 사용이 적절했다. 또한 9)에서 ‘과의’도 ‘자국과의 문화 차이’로 문장을 구성하여 ‘차이’의 구 구조를 적절히 파악하였다. 그러나 10)은 후행 요소가 명사라 하더라도 ‘의’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로, ‘테러와의 공격’이 아닌 ‘테러 공격’으로 표현해야 한다. 즉, 문장의 구조 측면에서 후행 요소가 명사라

102) 참고로 중급의 형태 오류는 ‘이라고도-이라도, 밖에도-밖어도, 과의-외의, 을과-을와’로 나타났고, 고급의 형태 오류는 ‘에는-엔, 에서는-에세는’으로 나타났다.

는 것까지는 파악하였으나 '의'가 사용되어야 할 환경과 생략되어야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이 구분을 위해서는 한정한(2012)의 다음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의'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 비유 관계: 평화의 종소리/*평화 종소리 등.
- 일부 논항 관계: 이순신의 거북선/*이순신 거북선, 다윈의 진화론/*다윈 진화론 등.

<'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 논항 관계: 문제(의) 해결 등.
- 전체-부분: 동굴(의) 입구, 소매(의) 단추 등.
- 소유주-소유물: 소년(의) 가방, 철수(의) 책 등.
- 친척 관계: 남편(의) 동생, 조카(의) 사촌 등.

<'의'가 생략되어야 하는 경우>

- 속성/관형사 관계: 여성 잡지/*여성의 잡지 등.
- 관형 명사: 국제 결합/*국제의 결혼 등.

(한정한 2012:50-51)

10)의 '테러와의 공격'은 '테러와의 전쟁'과는 달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여기서 '테러'는 '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유형인, '관형 명사' 관계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테러 전쟁'으로 써야 하므로 위 10)은 '와의'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까지의, 만의'를 살펴보면 중급과 고급에서 각각 1회씩 사용하였으며 오류 표현은 없었다. 그리고 '부터의, 마다의'도 각기 고급에서 1회, 중급에서 1회씩 사용하였는데 고급 학습자가 1회 사용한 '부터의'에서 '의'의 생략 오류가 있었다. 즉, 오류율이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오류를 나타낸 경우는 문장의 구조와 관련되는 '의'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어 학습자는 '의미격조사+의'의 구조에서 전반적으로 의미격조

사보다는 격조사인 '의'에 어려움을 보였다. 의미격조사와 관련해서는 '에'와 '에서'의 구분에서 대치 오류를 나타낸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과/와'에서는 형태 오류도 1회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급별 향상도는 '에서의, 과의(과[1])'는 중고급의 오류율이 같았고 '까지의, 만의'는 두 집단 모두 1회의 사용에서 오류율이 50%였으므로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부터의, 마다의' 또한 고급에서 사용 횟수가 늘거나 오류율이 낮아진 경우가 없어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표 Ⅲ-36]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에서의	• 선행 조사: '에, 에서' 간 의미 구분이 정확하지 못함. • 후행 조사: 관형격 구조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해 '의'와 관련한 오류가 많음.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과의	• 선행 조사: '과'의 철자 오류가 있었음. • 후행 조사: 두 명사가 속성 관계일 때는 '의'를 생략해야 하나, 사용하여 오류를 나타냄.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까지의	• 적절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만의	• 적절함. • 향상도: 향상됨.
부터의	• 선행 조사: '부터'의 의미를 적절히 사용함. • 후행 조사: 관형격 구조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해 '의'를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마다의	• 적절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3.2. 의미격조사의 통사·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를 학습자는 대부분 미사용하였으며, '만으로'의 1회 사용이 있었으나 이는 오류 표현으로 확인되었다.

(1) '으로/로' 후행

의미격조사 '으로/로'가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37] 모어 화자와 학습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만으로	20	0.36	0	0	1	0.28

[표 Ⅲ-38] 학습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만으로	-	-	• 생략 1 ('으로/로'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유형에서는 고급 학습자가 '만으로'를 사용하여 생략 오류를 보였다.

11) 생략: 그중에(√에는) 부모와 자녀만(√만으로) 조합하는(√조합된) 핵가족 형태가 제일 많을 것 같다. (고급, 2681)

11)에서 '만'은 '유일'을 의미하며 '자녀만' 전체는 후행하는 서술어 '조합'의 '수단(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만'에는 '방향/수단/이유'의 조사 '으로/로'를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학습자는 '만'의 '유일' 의미만을 고려하였고 서술어 '조합되다'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역시 문장의 구조와 관련되는 후행 조사에서 오류를 나타냈다. 급별 향상도는 고급에서의 1회 사용이 오류로 나타나 없었다고 보았다.

[표 Ⅲ-39] 학습자: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만으로	• 선행 조사: '만'의 의미를 적절히 고려함. • 후행 조사: 서술어 '조합되다'와의 관계에 따라 필요하게 된 의미격조사 '으로/로'를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2) ‘처럼, 과/와, 보다, 만큼[1]’ 후행

학습자는 ‘처럼, 과/와, 보다, 만큼[1]’이 다른 조사에 후행한 유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 항목들은 모두 ‘비교·대조’를 나타내므로 이 같은 의미 구조의 표현에서 표현의 다양성이 적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3. 보조사1의 어휘적 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 과잉 사용과 오류

(1) ‘까지’ 후행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까지’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가 사용되지 않았다. ‘까지’는 모어 화자의 경우 ‘에까지, 으로까지, 에게까지, 에서까지’ 등으로 조사를 연속 구성하여 ‘미침’ 의미를 나타냈고 확장성이 있는 서술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문장은 이와 관련된 표현에서 다양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 ‘만’ 후행

보조사1 ‘만’이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40]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에만	43	0.77	1	0.37	-	-
으로만	31	0.56	-	-	2	0.57
에서만	25	0.45	-	-	1	0.28
과만(과[1])	1	0.02	-	-	1	0.28
뿐만	92	1.65	6	2.20	28	7.92

[표 Ⅲ-41]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에만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	-
으로만	-	-	• 적절함 1 • 대치 1 (‘으로/로’대치 1) ⊙ 총계: 적절함 1, 오류 1	50%
에서만	-	-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과만(과[1])	-	-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뿐만	• 적절함 5 • 생략 1 (‘뿐’생략 1) ⊙ 총계: 적절함 5, 오류 1	16.67%	• 적절함 22 • 대치 3 (‘뿐’대치 3) • 생략 2 (‘뿐’생략 2) • 과잉 1 (‘만’과잉 1) ⊙ 총계: 적절함 22, 오류 6	21.43%

‘만’이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는 ‘에만, 으로만, 에서만, 과만(과[1]), 뿐만’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아 오류율이 0-20% 정도로 낮은 편이었으며, ‘으로만’에서만 50%의 오류율을 보였다.

‘에만’부터 살펴보면 중급 한국어 학습자는 ‘에만’을 1회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2) 적절함: 전통 음식 중에(√에는) 나우르즈에만 만드는 음식이 하나 있다. (중급, 5389)

12)에서 언급된 ‘나우르즈’는 카자흐스탄 명절의 명칭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시기를 나타내는 말에 ‘소재/시간’의 의미격조사 ‘에’를 결합한 후 ‘유일’의 보조사 ‘만’을 적절히 추가한 경우이다. 다만 이는 중급에서만 1회 사용되어 급별 향상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으로만’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만 2회 사용하였으며 이 중 1회의 대치 오류를 나타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3) 대치: 조기 유학으로 예를 들면 사람들이(√은) 자신의 자녀를 유학

보낼지 보내지 않을지 생각할 때 (√흔히) 학비, 비행표나 일상적인 비용 등의 명시적 비용으로만(√만을) 생각한다. (고급, 19156)

13)에서 '으로만'의 선행 명사구인 '명시적 비용'은 문장 끝의 서술어 '생각한다'의 '대상'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를 '방식'으로 생각하여 '으로/로'를 사용해 오류를 나타냈다. 이는 '만'의 의미는 적절히 파악하였으나 문장의 구조는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술어 '생각하다'는 '-으로 생각하다'와 '-을/를 생각하다'가 모두 가능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의 방식인지 아니면 대상이 되는 특정 항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급별 향상도는 중급에서는 사용이 전혀 없었던 것에 반해 고급에서는 2회 사용하였고 적절한 문장도 포함되었으므로 약간의 향상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에서만'은 고급 학습자만 1회 사용하였고, 이는 적절한 사용이었다.

14) 적절함: 그렇지만 태국 사람이(√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말하지 않으며) 드라마나 만화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고급, 5870)

14)에서 '에서만'은 '만화'의 '처소'를 의미하는 '에서'와 '유일'을 의미하는 '만'을 적절히 사용했다. 중급에서는 사용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간의 향상도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부사격조사 '과/와'가 포함된 '과만(과[1])' 또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만 1회 사용하였고 적절한 표현이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5) 적절함: 한국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만 친구 할 수 있는(√있다는) 점은(√이) 칠레와 다르다. (고급, 7651)

15)는 동반의 '과/와'에 유일의 의미 '만'이 통합된 예이다. 즉 '친구 할

수 있다'의 동반격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로 제한되는 의미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적절히 고려해 표현하였다.

한편 '뿐만'에 관해서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16.67%의 오류율을 보였고 고급 학습자는 21.43%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다른 조사연속구성체에 비해서는 오류율이 낮으나, '만'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중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사용 빈도가 모어 화자는 1.65인데 반해 중급은 2.20, 고급은 7.92로 매우 높아 과잉 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생략: 그렇게 때문에 러시아인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세르게이 소이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 (중급, 13082)

17) 생략: 부모와 아이들만(√뿐만) 아니라 할부모님(√조부모), 이모, 삼촌 등 많이(√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며 생활했다. (고급, 7658)

16)은 '뿐만'을 '만'으로만 사용해 오류를 나타냈다. 16)과 같이 어떤 것에 '첨가'되는 대상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만이 아니라' 혹은 '-뿐만 아니라'로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다[103]. 따라서 이는 강조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관용적인 쓰임에 대한 오류로도 볼 수 있다. 17) 또한 '만'의 선행 명사 '아이들'이 '첨가'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뿐'을 한번 더 중복해서 사용해야 한다[104]. 위와 같이 '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강조의 표현이 아닌, '유일'의 의미만을 표현하게 된다.

한편, 고급에서 '뿐만'의 빈도가 높아진 것은 과잉 사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용 횟수뿐만 아니라 오류율도 16.67%에서 21.43%로 약간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일'의 의미를 포함하는 강조를 이와 같이 '뿐만'의 사용으로만 집중하는 것은 다른 강조 표현에 대한 사용을 줄여 언

103) 16)은 '뿐'의 생략 오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격조사 '이/가'의 생략 오류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만이(이[2])'의 모어 화자 사용 횟수는 12회이며 '뿐만'의 모어 화자 사용 횟수는 92회로 더 높아 '뿐만 아니라'의 오류로 보았다.

104) 17)도 16)과 같이 '만이/뿐만/뿐만이 아니라'가 모두 가능해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뿐만'으로 수정하였다.

어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만' 후행 유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에만, 에서만, 과만(과[1])'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용도 있어 오류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이 중 '으로만, 뿐만'에서는 '만'보다는 '만'과 결합한 다른 조사에서 주로 오류를 나타냈다. 그리고 '뿐만'에서는 약간의 과잉 사용도 볼 수 있었다. 급별 향상도는 '에만, 뿐만'을 제외하고는 약간 나타났으며 따라서 다른 유형에 비해 학습자 문장의 적절성이 높은 편이었다.

[표 Ⅲ-42]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에만	• 선행 조사: 적절함. • 후행 조사: 적절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고급에서 미사용)
으로만	• 선행 조사와 후행 조사: '만'의 의미 파악은 적절하였으나 '으로/로'의 '수단' 의미는 적절히 고려하지 못함. • 향상도: 향상됨.
에서만	• 선행 조사: 적절함. • 후행 조사: 적절함. • 향상도: 향상됨.
과만	• 선행 조사: 적절함. • 후행 조사: 적절함. • 향상도: 향상됨.
뿐만	• 선행 조사+관용성: '뿐만 아니라, 혹은 '만이 아니라'로 사용되어야 하나 '만'만을 사용함. 제한성의 강조와 관련되는 관용적 표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후행 조사: '만'의 사용은 대부분 적절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고급에서 약간은 과잉 사용됨.

(3)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

보조사1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가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에부터'였으며 빈도와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43] 모어 화자와 학습자: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에부터	1	0.02	1	0.36	-	-

[표 Ⅲ-44] 학습자: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에부터	• 과잉 1 ('에'과잉 1) ⊙ 총계: 오류 1	100%	-	-

'에부터'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1회 과잉 사용의 오류를 나타내었으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8) 과잉: 6월에부터(√부터) 9월이까지(√까지) 방학입니다. (중급, 13509)[105]

18)의 '6월에부터'에서 '에'는 과잉 사용에 해당했다. '에부터'는 위와 같이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잘 결합하지 않고 위치나 장소 표현과만 결합하는 특성을 보여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중급에서만 1회의 오류가 나타나 급별 향상도는 없었다고 보았다.

[표 Ⅲ-45] 학습자: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에부터	• 선행 조사: 선행 명사가 시간 관련 표현일 때는 '에부터'가 잘 사용되지 않으며 이때는 '부터'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3.4. 보조사2의 확장된 의미·기능 부가에 대한 미사용과 오류

보조사2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모어 화자와 같이 학습자 또한 비교적 다양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빈도가 높고 항목이 비교적 다양해 '도'가 후행한 유형과 '은/는'이 후행한 유형, 그리고 이외에 '이나/나,

105) 이 글은 베트남의 학제에 관한 설명 중 사용된 문장으로, 그 앞 문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6살에 입학합니다. 입학식은 9월에 있고 그날은 바로 공부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한 학년이 2개의 학기로 되어 있으며 1학기는 9월에, 2학기는 1월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하나만 있습니다. 6월에부터 9월이까지 방학입니다. (중급, 13509)

이야/야'가 후행한 유형으로 나누어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1) '도' 후행

보조사 '도'가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46] 모어 화자와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에도	301	5.40	15	5.50	21	5.94
에서도	188	3.37	10	3.66	11	3.11
으로도	75	1.35	1	0.37	5	1.41
과도(과[1])	20	0.36	2	0.73	1	0.28
이라고도	12	0.22	4	1.47	8	2.26
에게도	10	0.18	-	-	5	1.41
한테도	1	0.02	-	-	1	0.28
까지도	37	0.66	2	0.73	5	1.41
밖에도	1	0.02	1	0.37	1	0.28

[표 Ⅲ-47]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에도	• 적절함 5 • 대치 2 ('에'대치 1, '도'대치 1) • 생략 5 ('에'생략 1, '도'생략 4) • 과잉 2 ('에'과잉 1, '도'과잉 1) • 대치·생략 1 ('에'대치·'도'생략 1) ⊙ 총계: 적절함 5, 오류 10	66.7%	• 적절함 10 • 생략 5 ('에도'생략 1, '도'생략 3, '에'생략 1) • 과잉 2 ('에'과잉 2) • 대치·생략 4 ('에'대치·'도'생략 4) ⊙ 총계: 적절함 10, 오류 11	52.38%
에서도	• 적절함 3 • 대치 5 ('에서'대치 5) • 생략 1 ('도'생략 1) • 대치·생략 1 ('에서'대치·'도'생략 1) ⊙ 총계: 적절함 3, 오류 7	70%	• 적절함 6 • 생략 3 ('도'생략 3) • 대치·생략 2 ('에서'대치·'도'생략 2) ⊙ 총계: 적절함 6, 오류 5	45.45%
으로도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 적절함 4 • 생략 1 ('도'생략 1)	20%

			⊙ 총계: 적절함 4, 오류 1	
과도(과[1])	• 대치·생략 2 (‘과/와’대치·‘도’생략 2) ⊙ 총계: 오류 2	100%	• 생략 1 (‘도’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이라고도	• 생략 3 (‘이라고/라고’생략 3) • 형태 1 (‘이라고/라고’형태 1) ⊙ 총계: 오류 4	100%	• 적절함 3 • 대치 1 (‘이라고/라고’대치 1) • 생략 1 (‘이라고/라고’생략 1) • 과잉 2 (‘도’과잉 2) • 대치·생략 1 (‘이라고/라고’대치·‘도’생략 1) ⊙ 총계: 적절함 3, 오류 5	62.5%
에게도	-	-	• 적절함 3 • 과잉 1 (‘도’과잉 1) • 생략 1 (‘에게’생략 1) ⊙ 총계: 적절함 3, 오류 2	40%
한테도	-	-	• 대치 1 (‘한테’대치 1) ⊙ 총계: 오류 1	100%
까지도	• 적절함 1 • 생략 1 (‘도’생략 1) ⊙ 총계: 적절함 1, 오류 1	50%	• 적절함 4 • 생략 1 (‘도’생략 1) ⊙ 총계: 적절함 4, 오류 1	20%
밖에도	• 형태 1 (‘밖에’형태 1) ⊙ 총계: 오류 1	100%	• 과잉 1 (‘도’과잉 1) ⊙ 총계: 오류 1	100%

‘도’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학습자가 비교적 다양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빈도도 모어 화자와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에도, 에서도’의 정규 빈도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가 모두 3-6 정도로 매우 유사했으며 이외 항목들 또한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저빈도로 나타난 양상이 유사했다. 다만 오류율이 전반적으로 높아 ‘에도, 에서도, 과도(과[1]), 이라고도, 에게도, 한테도, 밖에도’에서 모두 40-100%였으며, ‘으로도, 까지도’만이 오류율이 낮은 편이었다. ‘으로도’는 중급에서 0%, 고급에서 20%의 오류유을 나타냈으며 ‘까지도’는 중급에서는 50%의 오류율을 보였지만 고급에서는 20%로 오류율이 낮아졌다.

가장 고빈도 항목인 ‘에도’에 관해 중급 학습자부터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선행 조사는 주로 ‘에’와 ‘에서’의 구별에서 오류가 많았고, ‘도’에 관

해서는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다른 조사와 대치하기도 하였다.

<에도>

19) 대치: 학생들도 학교(√의) 독립식에서(√독립 기념 행사에서) 전국(√전국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묵념해야 한다. 그날에도(√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천통 음식을(√전통 음식도) 먹는다. (중급, 3901)

20) 대치·생략: 집에 4층(√이) 있으면 안 된다. 병원에서(√에도) 4층이 없는다(√없다). (중급, 1319)

19)는 '에도' 중 '도'의 사용에 관한 오류이다. 위에서 '그날'에는 처소 표현을 주제화한 '에는'을 결합해야 한다. 이는 '학교의 독립 기념 행사'라는 구정보를 포함한 뒷문장의 주제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를 '도'로 표시하여 '은/는'과 혼동하였다.

20) 또한 '도'를 생략하였으며 '에서'와 '에'의 사용에서도 대치 오류가 있었다. 여기서 '병원'은 장소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서술어가 형용사인 '없다'이므로 '에'를 써야 한다. 그리고 '도'에 관해서는 '병원'이 앞 문장의 '집'에 첨가된 장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생략 오류를 나타냈다.

한편 '에도'에서 고급 학습자는 총 21회의 사용 중 52.38%의 오류율을 보였다. 오류율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약간 줄었으나, '에'와 '에서' 및 '도'의 '첨가' 의미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를 나타내는 양상은 매우 유사했다.

21) 과잉: 한국에(√의) 난방법은(√이) 집으로(√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있다면) 다른 나라에도(√도) 한국에(√을) 따라 하면 다 할 수 있다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급, 115)

22) 대치·생략: 예를 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에도) 결혼할 때 폐백하는 것도(√것이/행사가/절차가) 있다. (고급, 2879)

21)에서 ‘에도’에 선행한 ‘다른 나라’는 장소성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문장 구조상 이는 부사어가 아닌 주어이므로 ‘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한국’을 언급한 후 ‘다른 나라’를 유사한 항목으로 첨가한 경우이므로 ‘도’를 사용해 주어야 하며, 따라서 주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격조사는 넓은 작용역이 중첩되므로 생략해야 한다.

22)는 앞서 살펴본 중급 학습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와 ‘에서’의 사용에서 오류를 나타냈다. ‘에서’에 선행한 ‘우리 나라’가 장소성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서술어가 ‘있다’와 같은 형용사이므로 ‘소재’를 나타내는 ‘에’만이 사용 가능했다. 또한 앞 절의 ‘한국’을 기준으로 후행절 ‘우리 나라’는 첨가된 대상이므로 ‘도’를 추가해야 한다. 즉, 22)는 좁은 작용역과 관련해 선행 명사구의 장소성 의미만을 고려하여 ‘에’와 ‘에서’를 변별하지 못했으며, 넓은 작용역과 관련해서는 절 이상의 의미 단위에서 ‘도’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했다.

이 같은 양상은 ‘에도’ 전반에서 보이는데, 오류의 빈도를 ‘에’와 ‘도’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급의 경우 ‘에’는 대치가 2회, 과잉과 생략이 각 1회씩으로 나타났으나 ‘도’는 대치가 1회, 생략이 총 5회, 과잉이 1회로 생략의 오류가 많은 편이었다. ‘도’에서 생략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고급 학습자 역시 유사하여 ‘에’는 생략 2회, 과잉 2회, 대치 4회의 다양한 오류를 보였으나, ‘도’는 생략 오류만이 총 7회로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와 유사하게 넓은 작용역에 관한 의미와 관련된 조사 사용에서 그 필요를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향상도는 고급에서 오류율이 약 14%정도 낮아져 향상되었다고 보았으나 여전히 오류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다음으로 ‘에서도’에 관해 살펴본다. 중급 한국어 학습자는 총 10회의 사용 중 70%의 오류율을 나타냈고 고급 학습는 11회의 사용 중 45.45%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모두 오류율이 높지만 고급에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양상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에도’와 유사하게 주로 ‘에’와 ‘에서’의 구분 및 ‘도’의 첨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많았다.

23) 대치: 홍콩에서도(√에도) 비슷하게(√비슷한) 명절이 있다. (중급, 651)

24) 대치·생략: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이란을(√은) 세계적으로 혹은 중동 나라들 중에(√에서도) 특이한 법이나 원칙들이 많이 있는 나라로 보면 될 거(√것) 같다. (고급, 17461)

23)은 중급 학습자의 문장으로 '에'와 '에서'의 대치 오류를 나타냈으며 24)는 '에'와 '에서'의 구분 및 '도'에 대해서도 생략의 오류를 보였다. 위에서 '중동 중에서'는 '세계적으로'에 첨가된 항목이므로 '도'를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도'의 오류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급에서 '에서'는 대치 오류가 6회였으며, '도'는 생략 오류가 2회였다. 고급 또한 '에서'는 대치 오류가 2회였으며 '도' 생략 오류가 5회로, '에서'는 대치, '도'는 생략의 오류율이 높았다. 한편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는 '에도'와 '에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나 '어디에서도'와 같이 관용적으로도 사용하였고, 양보나 첨가 의미의 확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학습자는 이러한 사용이 전혀 없었다.

이외 항목들인 '으로도, 과도(과[1]), 이라고도, 에게도, 한테도, 까지도, 밖에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조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조사의 의미 구조와 선택에 대해 오류를 나타낸 경우로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연속구성체 전반에 나타난다. ② 문어체와 관련된 오류로 '과도, 한테도'에서 볼 수 있었다. ③ 형태 오류가 포함된 항목으로는 '이라고도, 밖에도'가 있었다. ④ 관용적 사용과 관련해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는 '보다도, 밖에도'가 '무엇보다도, 그밖에도'로 쓰이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으나 학습자는 '보다도'의 경우는 조사연속구성 자체를 미사용하였고, '밖에도'는 관용적인 결합을 사용하지 않았다.

①에 관해서는 '으로도, 에게도, 까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으로도'가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면 '도'가 생략된 1회의 오류가 나타나 앞선 문

장과 같이 넓은 작용역에 대한 고려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외에는 적절한 쓰임을 보여 급별 향상도는 높아진 항목이었다.

25) 생략: (√따라서)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은) 예절로(√예절이 바른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급, 21829)

위 25)는 서술어 '유명하다'를 고려해 '으로/로'를 적절히 사용하여 '수단'의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더해 25)는 위 문장의 앞 문장에서 남부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므로 보조사인 '도'도 첨가해야 했다[106]. 이 항목의 급별 향상도는 중급의 오류율 0%에 비해 고급에서 20%로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전체 사용 빈도가 1회에서 5회로 늘어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다음은 '에게도'가 사용된 문장을 살펴본다. 이는 고급에서만 사용하였고 2회의 오류를 나타냈는데 1회는 '도'에 대한 것이고 1회는 '에게'에 대한 것이다. 이 중 '도'의 오류는 하나의 합성명사를 별개의 독립된 두 명사로 인식한 데서 온 과잉 사용에 해당하였으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26) 과잉: 40대가 집을 사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나이라는 사실은 남녀에게도(√남녀 모두에게/남녀에게 모두) 마찬가지다. (고급, 277)

26)에서 '남녀'는 한 단어이므로 '남'에 '여'가 첨가된 항목이 아니나, 학습자는 첨가된 대상으로 생각하고 '도'를 사용해 오류를 나타냈다. 두 개의 명사를 별개로 인식한 것으로 인한 오류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넓은 작용역에 사용된 조사와 관련된 오류에 속했다. 고급 학습자에서 사용이 늘었고 오류율이 100%가 아니므로 급별 향상도는 있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까지도'에 관해 중급 한국어 학습자는 총 2회의 사용 중 1회

106) 위 문장의 앞문장을 추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부에서 사람이 말하면 상대방이 따뜻한 느낌을 받고 남부의 사투리로 말하는 사람이 매우 배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부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절로 유명하다. (고급, 21829)

의 ‘도’ 생략 오류를 보였으며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5회 사용 중 1회의 ‘도’ 생략 오류를 나타냈다. 중급과 고급의 ‘도’ 생략 오류 양상은 매우 유사하여 오류에 관해서는 중급 학습자의 문장을 하나 살펴보고 고급 학습자는 적절히 사용된 문장을 살펴본다.

27) 생략: 봉투에(√이 봉투에는) 돈뿐만 아니라 행운까지(√까지도) 담고 있다(√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급, 13359)
28) 적절함: 아직까지도 태국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마음의 상처는 13년 전에 일어난 참혹한 사건 때문에 받은 상처이다. (고급, 17908)

27)의 ‘행운’은 ‘돈’에 첨가된 대상이나 학습자는 ‘도’를 생략하였다. 28)에서 고급 학습자는 ‘아직까지도’를 적절히 사용했으며, ‘까지도’ 5회 모두를 ‘지금까지도’ 3회, ‘아직까지도’ 2회로 시간 관련 표현과만 결합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까지도’를 시간 관련 표현에 한정하지 않았다. 총 37회의 사용 중 ‘지금까지도’는 2회, ‘아직까지도’는 1회이며 이외에 ‘오늘날, -세기 말, 초, 후’ 등과 같은 시간 표현뿐 아니라 ‘기술, 민가, 사회계층, 선배, 세계’ 등 다양한 항목에 결합하였다. 따라서 ‘까지도’는 급 간 향상도는 있었으나 더 다양한 표현에 사용할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②의 문어체와 관련된 오류로 ‘과도(과[1])’의 예는 다음과 같다.

29) 대치·생략: 주변에는 편의점(√이) 있고 산책로(√도) 있고(√있으며) 서강대역하고(√과도) 가깝다. (중급, 13510)

위 29)에서 ‘하고’는 ‘과/와’로 대치되어야 하며 ‘도’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도’의 의미·기능적 특성 뿐 아니라 ‘과/와’와 ‘하고’ 간의 문체적 특성도 적절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이다. ‘과도’는 중급과 고급의 오류율이 100%이므로 향상도는 없었다. 다음으로 ‘한테도’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만 1회 사용하였으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30) 대치: 마지막으로 태국 사람들이(√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한는(√낯선) 사람한테도(√에게도) 미소를 잘 짓는다. (고급, 16583)

위 30)은 설명문임에도 구어체인 '한테도'를 사용해 오류를 나타냈다. 이 경우 학습자는 가벼운 격식성을 의도하고 '한테도'를 사용했을 수 있으나 글 전체의 의도가 문어인 설명문이고, 말뭉치 전체에서 모어 화자의 경우 '한테도'를 실제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오류로 판단하였다[107]. 이는 고급에서만 1회 사용되었고 오류율이 100%였으므로 급별 향상도도 없었다고 보았다[108].

다음은 ③과 관련해 형태 오류를 나타낸 '이라고도'가 사용된 문장이다.

31) 형태: 아이딜 아드하는 '쿠르반'이라도(√이라고도) 부른다. (중급, 16603)

31)은 '이라고'를 '이라'로 적은 형태 오류로 볼 수 있다. 『표준』에 '이라'는 '이라고'의 준말로 등재되어 있으나 본고의 문어 전체 말뭉치에서 '이라'를 검색해 본 결과 '그리하여 태초에 … 길이 있었으니'라 해도 좋을 것이다. (BTHO0104)'의 한 문장만이 추출되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라도'와 같은 조사 결합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라고도'의 급별 향상도는 중급은 4회의 사용이 모두 오류인데 반해 고급에서는 사용 횟수가 5회로 늘었고 오류율도 62.5%로 낮아져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④와 관련해, 조사연속구성과 자주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이

107) 학습자 글쓰기 또한 문어로 설명문을 쓴 것이므로 구어에 사용되는 조사인 '한테, 하고'가 쓰인 것은 모두 오류로 보았다.

108)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한테도' 1회는 인용된 예문에 사용되어 실제적 쓰임으로 보지 않고 문장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 빈도로는 포함하였으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6) 칭찬의 대상물을 제공하기 '나중에 너한테도 줄게', '너 줄까?', … (BTHO0399)

있지만 그것을 학습자가 사용하지 않은 문장은 다음과 같다.

32) 과잉: 왜냐하면 판사는(√에 따르면) 장 모 씨가(√는) 그냥(√단지) 10초밖에도(√밖에) 안되는(√안 되는) 시간 동안 … (고급, 3968)

32)의 '밖에도'는 거의 첨가를 의미할 때만 '이밖에도'로 쓰이는 관용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32)의 '10초'는 '첨가'를 의미하지 않고 매우 작은 시간을 표현한 것이므로 '밖에'나 '도' 중 하나의 조사만을 사용해야 한다. 급별 향상도는 고급에서 사용된 1회가 오류이므로 없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도'가 후행한 유형 중 '에도', '에서도'는 유사한 의미 관계인 '에'와 '에서'의 구별에서 오류가 많았고, '도'에 대해서는 선행 명사구가 첨가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오류가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이 유형의 전반에서 나타났다.

또한 '과도, 한테도'에서는 문어성, 격식성과 관련해 '과/와'와 '하고', 그리고 '에게'와 '한테'의 사용에 관한 인식도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라고도'에서는 형태 오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밖에도'에서는 관용적 사용과 관련된 오류가 있었다.

급별 향상도는 '과도, 한테도, 밖에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인 '에도, 에서도, 으로도, 이라고도, 에게도, 까지도'에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오류율이 여전히 30% 이상으로 높았으므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표 Ⅲ-48]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에도, 에서도	• 선행 조사: '에'와 '에서'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음. • 후행 조사: 선행 명사가 첨가된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함. • 향상도: 향상됨.
으로도	• 선행 조사: 적절함. • 후행 조사: '도'를 생략하여 첨가된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함. • 향상도: 향상됨.
과도	• 선행 조사: '하고'는 구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와'로 교체해야 함. • 후행 조사: '도'를 생략한 경우가 있었음.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이라고도	• 선행 조사: 1) '이라고'의 형태에 유의해야 함. 2) 명사구와 서술어와의 관계를 고려해 생략하지 않아야 함. • 후행 조사: '도'에 대한 생략이나 과잉 사용의 오류도 나타남. • 향상도: 향상됨.
에게도	• 선행 조사: '에게'를 1회 생략함. • 후행 조사: '도'를 1회 과잉 사용함. • 향상도: 향상됨.
한테도	• 선행 조사: 문어체임을 고려해 '에게'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 • 후행 조사: 적절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까지도	• 선행 조사: 적절함. • 후행 조사: '도'의 생략에 유의해야 함. • 향상도: 향상됨.
밖에도	• 선행 조사: '밖에'에서 형태 오류가 나타남. • 후행 조사: '도'의 과잉 사용이 나타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2) '은/는' 후행

보조사 '은/는'이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와 오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Ⅲ-49]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에는	1,918	34.41	198	72.55	138	39.04
에서는	876	15.72	70	25.65	83	23.48
으로는	362	6.49	12	4.40	20	5.66
과는(과[1])	120	2.15	2	0.73	-	-
보다는	108	1.94	1	0.37	5	1.41
에게는	37	0.66	1	0.37	2	0.57
께서는	1	0.02	-	-	4	1.13
까지는	53	0.95	2	0.73	1	0.28
부터는	12	0.22	-	-	1	0.28
만큼은(만큼[2])	2	0.04	1	0.37	1	0.28

[표 Ⅲ-50]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에는	• 적절함 61 • 대치·생략 29 ('도'대치·'은/는'생략 1, '에서'대치·'은/는'생략 22, '의'대치·'은/는'생략 4, '이/가1'대치·'은/는'생략 2)	69.19%	• 적절함 41 • 과잉 8 ('은/는'과잉 5, '에'과잉 2, '에는'과잉 1) • 대치 7 ('은/는'대치 1, '에'대치 6)	71.01%

	• 대치·과잉 5 (‘에’대치·‘은/는’과잉 5) • 생략 84 (‘은/는’생략 77, ‘에’생략 2, ‘에는’생략 5) • 대치 10 (‘에’대치 10) • 과잉 9 (‘은/는’과잉 1, ‘에’과잉 5, ‘에는’과잉 3) ⊙ 총계: 적절함 61, 오류 137		• 대치·과잉 6 (‘에’대치·‘은/는’과잉 6) • 대치·생략 15 (‘에게’대치·‘은/는’생략 1, ‘에서’대치·‘은/는’생략 1, ‘에서’대치·‘은/는’생략 8, ‘의’대치·‘은/는’생략 1, ‘이/가[1]’대치·‘은/는’생략 4) • 생략 61 (‘은/는’생략 45, ‘에’생략 6, ‘에는’생략 10) • 형태 1 (‘은/는’형태 1) ⊙ 총계: 적절함 41, 오류 98	
에서는	• 적절함 27 • 과잉 3 (‘에서’과잉 1, ‘은/는’과잉 1, ‘에서는’과잉 1) • 대치 13 (‘은/는’대치 1, ‘에서’대치 12) • 대치·과잉 2 (‘에서’대치·‘은/는’과잉 2) • 대치·생략 2 (‘에’대치·‘은/는’생략 2) • 생략 23 (‘은/는’생략 20, ‘에서’생략 3) ⊙ 총계: 적절함 27, 오류 43	61.43%	• 적절함 32 • 과잉 11 (‘은/는’과잉 8, ‘에서’과잉 1, ‘에서는’과잉 2) • 대치 6 (‘에서’대치 6) • 대치·생략 1 (‘에’대치·‘은/는’생략 1 • 생략 32 (‘은/는’생략 31, ‘에서는’생략 1) • 형태·생략 1 (‘에서’형태·‘은/는’생략 1) ⊙ 총계: 적절함 32, 오류 51	61.45%
으로는	• 적절함 7 • 생략 4 (‘은/는’생략 1, ‘으로/로’생략 3) • 대치·생략 1 (‘에’대치·‘은/는’생략 1) ⊙ 총계: 적절함 7, 오류 5	41.67%	• 적절함 3 • 과잉 3 (‘은/는’과잉 3) • 대치·생략 5 (‘에’대치·‘은/는’생략 2, ‘의’대치·‘은/는’생략 1, ‘이/가[1]’대치·‘은/는’생략 2) • 생략 9 (‘은/는’생략 7, ‘으로는’생략 2) ⊙ 총계: 적절함 3, 오류 17	85%
과는(과[1])	• 적절함 1 • 생략 1 (‘은/는’생략 1) ⊙ 총계: 적절함 1, 오류 1	50%	-	-
보다는	• 생략 1 (‘은/는’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 적절함 5 ⊙ 총계: 적절함 5	0%
에게는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 과잉 1 (‘에게’과잉 1) • 생략 1 (‘에게’생략 1) ⊙ 총계: 오류 2	100%

께서는	-	-	• 적절함 2 • 생략 2 (‘은/는’생략 2) ⊙ 총계: 적절함 2, 오류 2	50%
까지는	• 적절함 1 • 생략 1 (‘은/는’생략 1) ⊙ 총계: 적절함 1, 오류 1	50%	• 생략 1 (‘은/는’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부터는	-	-	• 생략 1 (‘은/는’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만큼은 (만큼[2])	-	-	• 생략 1 (‘은/는’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은/는’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앞서 살펴본 ‘도’ 후행 유형과 같이 학습자가 다양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빈도도 높은 편이다. 정규 빈도로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면 ‘에는’의 경우 모어 화자의 정규 빈도는 34.41인데 중급 학습자는 72.55, 고급 학습자는 39.04로 나타나 중급에서 빈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이는 생략 오류를 포함한 결과이므로 ‘에는’을 많이 사용했다기보다는, ‘에는’을 써야 할 상황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서는’의 빈도는 모어 화자가 15.72였는데 중급과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각각 25.65, 23.48을 나타내어 학습자의 빈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으로는’은 모어 화자가 6.49의 빈도를 나타낸 것에 비해 중급과 고급의 한국어 학습자는 4.40, 5.66을 나타내어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외에 조사 항목인 과는(과[1]), 보다는, 에게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은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모두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므로 정규 빈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은/는’ 후행 유형의 오류를 살펴보면, ‘은/는’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전체에서 오류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에는’과 ‘에서는’의 오류율은 중·고급 모두 61-71% 정도였으며, ‘으로는’은 중급에서 41.67%, 고급에서 85%를 나타내 고급에서도 여전히 적절히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 항목들인 ‘과는(과[1]), 보다는, 에게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은 사용 빈도가 모두 5 이하로 적게 나타나 한두개의 오류나 적절한 사용만으로도 0, 50%, 100%와 같은 오

류율을 나타냈다.

조사연속구성체를 하나씩 살펴보면 '에는'에서는 두 집단 모두 약 70%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에도, 에서도'와 유사하게 주로 선행 조사인 '에'와 '에서'의 변별에서 오류가 많았고 후행 조사에서는 '은/는'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중급과 고급의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대치·생략: 봄의 4월에서(√에는)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있다. (중급, 838)

34) 대치: 한국에는(√에서는) 보통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는 반면에 싱가폴에는(√에서는) 보통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한다. (고급, 3093)

33)의 대치 오류부터 살펴보면 '에'와 '에서'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고, 또한 '은/는'도 생략했다. '은/는'에 대한 판단을 위해 33)의 앞뒤 문장을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꿈처럼 아름다운 부산 환영한다. 부산의 계절에 따르면 다양한 축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ㄱ. 봄의 4월에서(√에는)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있다. 사람들이 대저 생태 공원 가서 유채꽃 관람할 수 있다. ㄴ. 5월에서(√에는) 해운대 모래 축제가 있다. 시민들이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다양한 모래 조각 관람할 수 있다. ㄷ. 가을의 9월에서(√에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고 영화의 전당도 볼 수 있고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이다. … (중급, 838)

위 문장은 '부산의 축제'라는 전체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맥락에서 'ㄱ'부터 'ㄷ'을 연이어 언급하며 세부 화제로서 '4월, 5월, 9월'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각 월을 나타내는 표현은 각 문장의 주제어가 되므로 '지정'을 의미하는 '은/는'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 문장에서는

‘은/는’이 생략돼 있었다. 중급에서 특정 주제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은/는’을 생략하는 경우는 이외에도 많은 편이다.

한편 34)는 ‘은/는’의 비교·대조 의미가 적용된 경우로 여기서도 ‘에’와 ‘에서’의 변별에 대한 오류가 계속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에는’의 각 조사별 오류를 살펴보면 더 뚜렷해진다. 오류의 양상을 ‘에는’의 ‘에’와 ‘은/는’에 대한 것만 비교해 보면[109], 중급에서 ‘에’는 대치 15회, 생략 2회, 과잉 5회의 사용이 있었고, ‘은/는’은 생략이 106회, 과잉 사용이 6회 나타났다. 즉, 오류의 총 빈도뿐 아니라 양상에 있어서도 ‘에’는 대치, ‘은/는’은 생략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고급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에’와 ‘은/는’의 오류만을 살펴보면 ‘에’는 과잉 사용이 2회, 대치 12회, 생략이 6회로 나타났으며, ‘은/는’은 과잉 사용이 11회, 대치가 1회, 생략이 60회로 나타났다. ‘에는’은 급별 향상도와 관련, 중급과 고급이 빈도와 오류율이 유사해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급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적절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에서는’에 관해 살펴본다. 중급과 고급의 문장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대치: 그런데, 한국의 문화 중에서(√중) 높임말을 쓰는 것은(√것이/문화가) 중국에서는(√에는) 없다. (중급, 4222)

36) 대치·생략: 그러므로 베트남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을) 모욕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고급, 5762)

35)는 ‘에’와 ‘에서’에 대한 오류로, 서술어가 ‘없다’와 같은 형용사인데 ‘에서’를 사용해 오류를 나타냈다. 한편 36)은 ‘에’와 ‘에서’뿐 아니라 ‘은/는’의 사용에서도 오류가 나타난 경우이다. 문장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을 위해 36)의 앞뒤 문장을 추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09) 이와 같이 조사 각각의 오류 빈도를 알아볼 때는 ‘에는’ 전체 항목에 대한 오류는 제외하였고 <‘에’대치·‘은/는’생략>의 경우는 ‘에’, ‘은/는’의 각 빈도로 포함하였다.

ㄱ. 한국 유학하기 전에 알고 있었지만 아직 적응이 안될뿐더러 가끔 새삼 낯선 것의 바로 절을 올리는 예절이다. … ㄴ. 베트남에도 절을 올리는 예절이 있다. ㄷ. 다만 보통 살아있는 사람보다 세성의 다른 편에 돌아간 사람에게 한다. ㄹ. 그러므로 베트남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을) 모욕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ㅁ.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절을 통해 죽은 사람에게 그리움을 몰론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고마움, 존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급, 5762)

위 글은 'ㄱ'에서 언급한 '절을 올리는 예절'을 주제로 베트남과 한국의 풍습을 비교한 것이다. 36)에 해당하는 'ㄹ'의 '베트남'은 전체 주제와 관련된 세부 화제이자, 이 문장 안에서는 한국과 대조되는 항목이다[110]. 이러한 대조의 의미는 'ㅁ'에서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의 언급으로 더 명확해진다. 따라서 이는 '베트남에서는'으로 쓰일 필요가 있는 표현이다.

이같이 '에서는'의 오류는 '에는'과 유사하게 '에서'와 '에'의 구별이 문제가 되고, '은/는'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에서'와 '은/는'의 개별 오류 양상으로도 확인되는데, '에서는'의 '에서'와 '은/는' 각각에 대한 오류를 살펴보면, 중급에서 '에서'는 과잉 사용이 1회, 대치 14회, 생략 오류가 3회이며, '은/는'은 과잉 사용이 3회, 대치 1회, 생략이 22회로, '에서'는 대치, '은/는'은 생략 오류의 비중이 높다. 고급 학습자 역시 유사하여 '에서'는 과잉 1회, 대치 6회, 형태 오류가 1회였으며, '은/는'은 과잉 사용이 8회, 생략이 33회로, 생략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오류율 또한 각가 61.43%, 61.45%로 매우 유사해 급별 향상도는 없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으로는'에 대해 살펴본다. 중급과 고급의 각 문장 예는 다음과 같다.

110) 이 문장은 위와 같은 수정도 가능하지만, '베트남에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글의 초점이 한국과 베트남의 비교에 있으며 또한 'ㅁ' 문장에서 '한국에서는'이라는 명사구가 이미 사용되어 이에 맞추어 '베트남에서는'으로 수정하였다.

37) 생략: 이러한 원인으로(√으로는) 2개(√2가지가) 있다. (중급, 19173)
38) 과잉: 다음으로는(√으로) 엔트로피 법칙이란 '사용 가능' 상태에서 '사용 불가능 에너지' 상태로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급, 19183)

37)에서 중급 학습자는 '으로'의 의미격만을 고려하고 이 명사구의 주제어를 표시하는 '은/는'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에서는'에서 보았듯이 선행 명사구의 좁은 작용역과 관련된 조사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38) 또한 '으로/로'의 사용은 적절했으나 '은/는'에서 과잉 사용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즉, '으로는' 역시 좁은 작용역에서는 유사 의미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고, 넓은 작용역에서는 생략이나 과잉에 더 유의해야 했다. 그러나 좁은 작용역의 '으로/로' 오류율은 '에서'나 '에'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으로/로'와 '은/는' 각각의 오류 양상을 알아보면 중급의 경우 '으로/로'는 생략이 3회, '은/는'도 생략 2회의 오류가 나타났으며, 고급에서는 '으로/로' 단독 오류는 없었고 '은/는'에서 과잉 사용의 오류 3회, 생략의 오류 12회만이 나타났다. 따라서 '으로/로'는 '에, 에서'와 같이 유사 조사와의 구별에 큰 어려움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급별 향상도는 고급의 오류율이 중급의 41.67%에서 85%로 더 높아져 없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살펴볼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은 '과는(과[1])'이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와 결합해 관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모어 화자의 경우는 이러한 관용적 사용의 유형에서 '만으로는, 과는(과[1]), 에서와는, 까지와는'을 사용했으나 학습자 문장으로는 이 중 '과는'에 대한 것만이 추출되었으며 1회는 적절한 표현이었고 1회는 '은/는'의 생략 오류를 보였다.

39) 생략: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행진과(√과는) 다르다. (중급, 3875)

39)는 노르웨이의 독립기념일의 행사 중 진행되는 '행진'을 한국과 비교한 것이다. '은/는'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앞 문장을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노르웨이는 기념일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의 기념일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념일은 5월 17일이다. 1819년 5월 17일에 스웨덴으로 동립했다. 그날에 우리 나라의 법도 국기도 만들었다. 그래서 매년 5월 17일에 아주 큰 축제가 있다. ㄴ. 그때는 행진도 하고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다. ㄷ.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행진과(√과는) 다르다. (중급, 3875)

위 글에서 주된 주제는 문장 'ㄱ'에 나타난 '노르웨이의 기념일에 하는 축제'이다. 이와 관련해 'ㄴ'에서는 '행진'에 대해 언급하였고, 위 39)에 해당하는 'ㄷ'은 이를 한국과 비교·대조하기 시작하였므로 '은/는'이 필요했다. 한편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이 같은 사용이 전혀 없어 급별 향상도 또한 없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이외의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중에서는 '보다는, 에게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이 있었으며, 이 항목들에서 오류의 유형은 '에게는'을 제외하고 모두 '은/는'의 생략 오류였다. '에게는'에서는 '에게'에서만 과잉과 생략 오류가 각 1회씩 나타나 다른 의미격조사에 비해 적절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중 모어 화자의 경우 관용적인 사용을 나타냈던 '서는(서[2]), 만은, 밖에는'과 관련된 사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살펴볼 문장은 '은/는'이 생략된 '보다는'과 의미격조사에서 오류가 나타난 '에게는'에 관한 것이다.

'보다는'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1회 '은/는' 생략의 오류를 나타냈고,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5회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40) 생략: 그런데 천음에(√처음으로) 기숙사에 사(√살아) 보니까 생각보다(√보다는) 편리한 편이다(√편이었다). (중급, 3506)

41) 적절함: 개인보다는 공동제척(√공동체적) 성향을 강하게 띠므로 화

합(√이) 잘 된다. (고급, 5990)

40)의 경우 밑줄 친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으로 의외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앞 문장을 추가로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ㄱ. 지금 기숙사에 산 지 1달 쯤 된다. ㄴ. 기숙사에서 가수 요금, 수도 요금 등 다 포함되고 지하 1층에 매점과 세탁실을 있고 방에 가구가 있으니까 편리한 편이다. ㄷ. 그리고, 마포구에 사니까 쇼핑센터하고 식당이 많으니까 주변 환경이 좋긴 하지만 기숙사의 방에 부엌이 없고 공동생활 때문에 이사하고 싶다. ㄹ. 그런데 천음에(√처음으로) 기숙사에 사(√살아) 보니까 생각보다(√보다는) 편리한 편이다(√편이었다). (중급, 3506)

40)의 문장은 'ㄹ'인데 이는 그 바로 앞선 문장 'ㄷ'에서 기숙사의 단점을 나열한 후에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반대되는 'ㄹ'에서 '생각보다는'으로 대조의 의미를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한 문장인 41)에서 '보다는'은 적절히 사용되었다. '보다'의 '차등 비교' 의미에 '은/는'의 대조 의미가 추가되어 적절한 의미 결합을 나타냈다. 고급은 5회 모두 적절히 사용하여 급별 향상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에게는'은 중급에서는 1회를 사용했고 오류는 없었으나, 고급에서는 총 2회의 사용 중 1회의 '에게' 과잉 사용과 '에게' 생략 오류가 있었다. 중급 학습자가 '에게는'을 적절히 사용한 문장과 고급 학습자가 '에게'를 과잉 사용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42) 적절함: 무슬림에게는 다양한 명절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 하리라야이다. (중급, 16607)

43) 과잉: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가서) 미국인과 대화하면서 이 몸짓을 하면 그 미국인에게는(√은) 아주 자연스롭다고(√자연스럽다

고) 생각한다(√생각할 것이다). (고급, 14822)

42)에서 ‘무슬림’은 다양한 명절을 가진 유정물의 처소 표현에 해당하면서 이 문장의 주제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게는’의 결합이 적절했다. 한편 43)에서 ‘미국인’은 ‘생각하다’의 주체이며 처소는 아니므로 ‘에게’가 불필요하다. 즉, ‘미국 사람들’의 유정성을 고려해 ‘에게’를 선택한 것은 적절했지만 이것이 부사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를 보인 것이었다. 이러한 오류는 고급에서 나타나 급별 향상도는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은/는’ 후행의 오류 유형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이 선행 조사에 관해서는 최소한 유사 범주의 조사들까지는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은/는’은 이 조사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에는, 에서는, 으로는, 과는(과[1]), 보다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에서 ‘은/는’의 생략 오류 빈도가 더 높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 ‘에게는’에서는 선행 명사구의 유정성만을 고려하고 문장에서 부사격인지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혼동하여 오류를 나타내기도 했다.

급별 향상도는 ‘에는, 에서는’의 경우 고급에서 오류율이 약 1.82%, 0.02%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차이가 매우 적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으로는, 과는(과[1]), 에게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의 경우는 고급에서 사용이 없거나 오류율이 더 높아져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한편 ‘보다는’은 비록 적은 빈도이기는 하나 고급에서 빈도의 증가도 있었고 오류율도 0으로 나타나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표 Ⅲ-51]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에는, 에서는	• 선행 조사: 장소 표현 어휘에 ‘에’와 ‘에서’를 구별 없이 결합함. • 후행 조사: 문장의 주제어와 비교·대조 표현에 ‘은/는’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으로는	• 선행 조사: 명사구가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 후행 조사: 문장의 주제어와 비교·대조 표현에 '은/는'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과는(과[1])	• 선행 조사: 동반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와'를 적절히 사용함. • 후행 조사: '지정'이나 '대조' 의미의 필요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해야 함. • 관용성: 서술어 '다르다'를 사용했으나 '과/와'에 '은/는'은 결합시키지 않았음.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에게는	• 선행 조사: 유정물 선행 명사가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처소인지 주체인지를 판단해야 함. • 후행 조사: 문장의 주제어를 적절히 판단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보다는	• 선행 조사: 차등 비교 의미를 적절한 적용함. • 후행 조사: 대조 의미를 적절한 적용함. 다만 중급에서 간혹 여전히 '은/는'의 생략이 나타나기도 했음. • 향상도: 향상됨.
께서는	• 선행 조사: '께서'의 결합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했으나 격식성을 고려한다면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후행 조사: 큰 주제와 관련되는 새로운 화제를 나타내는 어휘에 '은/는'을 결합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까지는	• 선행 조사: '끝점'의 의미를 파악함. • 후행 조사: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은/는'을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부터는	• 선행 조사: '시작점'의 의미를 적절히 파악함. • 후행 조사: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은/는'을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만큼은 (만큼[2])	• 선행 조사: '만큼'의 한정 의미를 적절히 적용함. • 후행 조사: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은/는'을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3) '이나/나, 이야/야' 후행

보조사2 '이나/나, 이야/야'가 후행한 유형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 및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52]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항목	모어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서나(서[2])	6	0.11	-	-	1	0.28
만큼이나 (만큼[1])	1	0.02	1	0.37	-	-
까지나	5	0.09	1	0.37	-	-
에야	7	0.13	2	0.73	-	-

[표 Ⅲ-53]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오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별 빈도	오류율
서나(서[2])	-	-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만큼이나 (만큼[1])	• 적절함 1 ⊙ 총계: 적절함 1	0%	-	-
까지나	• 생략 1 (‘이나/나’생략 1) ⊙ 총계: 오류 1	100%	-	-
에야	• 생략 2 (‘이야/야’생략 2) ⊙ 총계: 오류 2	100%	-	-

‘이나/나, 이야/야’가 후행한 항목 중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은 ‘에야, 서나, 까지나’이다. 사용 횟수는 않은 편으로 모어 화자는 정규 빈도가 대략 모두 0.1 이하였으며, 학습자는 모두 0-2회 사용하였다.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서나(서[2])’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 문장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1회 사용되었으며 중급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만큼이나(만큼[1]), 까지나, 에야’는 중급에서만 사용하였고, 이 중 ‘까지나, 에야’에서 생략 오류로 인한 오류율이 100%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유형들과 같이 작용역이 넓은 후행 조사에서 나타났다. 먼저, ‘서나(서[2])’가 사용된 문장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적절함: 이는 뿐만 아니라 세팍타크로는 실내, 실외 어디서나 경기가 가능해 공간의 제약이 없다. (고급, 26867)

위 44)는 처소의 부사격조사 ‘서’와 ‘선택’의 보조사2 ‘이나/나’를 결합해 의문사 ‘어디’에 미지칭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나’는 주로 의문 표현과 결합해 쓰이며 학습자 또한 이 관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중급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고급에서는 1회 사용하여 급별 향상도도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만큼이나'에서는 오류가 없었고, '까지나'에서는 중급에서 1회의 생략 오류를 나타냈다. 각 문장은 다음과 같다.

45) 적절함: 그만큼 우즈벡키스탄에서는 (√이 기름밥이) 한국의 김치만큼이나 유명하고 자주 먹습니다. (중급, 17539)
46) 생략: 꿈은 어디까지(√까지나) 꿈이니까. (중급, 16910)

45)에서 '김치만큼이나'는 '김치와 같은 정도'의 '김치+만큼'에 '선택'을 나타내는 '이나/나'를 부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그 정도로 유명하고 자주 먹는다는 언급이 이어졌다.
46)은 '까지'의 '끝점'과 '이나/나'의 '선택'이 통합되어 '제한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이나/나'가 생략되어 있었다. '어디까지나'는 위에서 살펴본 '서나'와 유사하게 의문사와 결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도 자주 쓰이므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고급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급별 향상도는 없었다.
한편 '이야/야'가 후행한 '에야'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만 2회 사용하였고 생략 오류로 나타났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47) 생략: 우리(√는) 이상(√의) 일을 잘한(√잘 완수한/완수한) 끝에(√끝에야/후에야) 환경가(√을) 회복할 수가 있다(√있을 것이다). (중급, 1119)

'이야/야'의 의미는 '뒤늦은 시점'이며 47)의 '끝'은 늦은 시기를 의미하므로 '이야/야'를 추가해야 한다. 한편 선행한 '에'에 관해서는 오류를 나타내지 않아, 이 역시 좁은 작용역의 의미는 적절히 사용했으나 넓은 작용역과 관련된 의미 표현에서 오류를 나타냈다. 고급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급별 향상도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에야, 까지나'에서는 선행 조사의 사용에서는 비교적 적절한 사용을 나타냈으나 '선택'이나 '뒤늦은 시점'을 의미

하는 후행 조사에서는 오류를 나타냈다. 한편 '서나'는 관용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향상도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Ⅲ-54]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정리

항목	조사의 사용 양상
서나(서[2])	• 선행 조사: 처소 의미역을 적절히 표현함. • 후행 조사: '이나/나'의 '선택' 의미를 적절히 표현함. • 관용성: '어디서나'를 적절히 사용함. • 향상도: 향상됨.
만큼이나 (만큼[2])	• 선행 조사: 적절함 • 후행 조사: '이나/나'를 적절히 사용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중급에서만 사용)
까지나	• 선행 조사: '끝점' 의미를 적절히 표현함. • 후행 조사: '선택' 의미를 생략함. • 관용성: '어디까지나'에 대한 관용적 사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에야	• 선행 조사: '시간' 표현을 적절한 결합함. • 후행 조사: '뒤늦은 시점'과 관련된 표현을 생략함. • 향상도: 나타나지 않음.

3.5. 모어 화자는 사용하지 않은 조사연속구성

학습자만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조사의 선택에 대한 오류를 보인 항목이다. 이는 결합이 불가능한 조사들을 조합한 것으로 대부분 작용역이 중복되는 조사를 연이어 배열하거나 하나의 조사를 두 번 사용한 경우였다. 둘째는 조사 배열의 순서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인데, 이 유형은 거의 조사의 선택에서도 오류를 함께 나타냈다. 셋째, 조사의 배열은 적절했으나 모어 화자는 사용하지 않은 구성이다. 이 유형 또한 조사의 배치를 적절히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오류인 문장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항목들은 중급과 고급에 모두 낮은 빈도로 분포하여 개별 항목별 향상도는 판단이 어려웠으므로 별도로 살펴보지 않았다.

(1) 조사 선택의 오류

조사 선택의 오류를 나타낸 항목 및 그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Ⅲ-55] 학습자: '조사 선택의 오류' 유형에서 항목별 빈도

유형	항목	중급	고급
구조격+구조격	이가(이[1])	1	1
	이를(이[1])	1	-
구조격+보조사2	이도(이[1])	6	14
	을도	-	1
보조사2 중첩	은보다는	-	1
총계		8	17

[표 Ⅲ-56] 학습자: '조사 선택의 오류' 유형에서 오류의 양상

유형	항목	중급	고급
구조격+구조격	이가(이[1])	• 과잉 1 ('이/가[1]'과잉 1) ⊙ 총계: 오류 1	• 과잉 1 ('이/가[1]'과잉 1) ⊙ 총계: 오류 1
	이를(이[1])	• 과잉 1 ('을/를'과잉 1) ⊙ 총계: 오류 1	-
구조격+보조사2	이도(이[1])	• 과잉 5 ('이/가[1]'과잉 4, '도'과잉 1) • 대치 1 ('이/가[1]'대치·'도'대치 1) ⊙ 총계: 오류 6	• 과잉 4 ('이/가[1]'과잉 4) ⊙ 총계: 오류 4
	을도	-	• 과잉 1 ('을/를'과잉 1) ⊙ 총계: 오류 1
보조사2 중첩	은보다는	-	• 과잉 1 ('은/는'과잉 1) ⊙ 총계: 오류 1

조사 선택의 오류는 모두 구조격조사나 보조사2가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부류 조사끼리의 중첩은 모어 화자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항상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오류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도(이[1])'로, 주격조사와 보조사2의 결합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되어야 하는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이 항목에서는 과잉 사용을 나타냈는데, 개별 조사별로 오류의 빈도를 살펴보면, 주격조사 '이/가'에 관한 오류가 11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을/를'이 2회, '은/는'이 1회, '도'가 2회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항목의 공통점은 과잉 사용된 조사만 제거하면 나머지 조사의 사용은 대

부분 적절한 경우가 많았다. ‘이가’와 ‘이를’이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과잉: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원인에 대한 설이가(√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는 … (고급, 23070)
49) 과잉: 영국 사람들은 … 집값이를(√이) 너무 비싸서 은행에(√에서) 돈을 빌려야 해요. (중급, 13520)

위 48)은 주격조사 ‘이/가’를 두 번 사용한 예이며 49)는 주격과 목적격을 중복한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단순 실수로도 보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수는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체계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추측한 것으로, 코더(Corder, 1981:10)에 따르면 이는 일회적인 잘못이며 체계성이 결여되므로 교육에서 크게 초점을 두어야 할 요소는 아니다[111].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격조사의 선택 오류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 체계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학습자는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는 두 개 이상의 조사가 중첩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위 부류 중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낸 ‘이도’의 사용 예이다.

50) 과잉·순서: … 무슨 지역도(√모든 지역에서) 꼭(√반드시) 하는 일이도(√일도) 있는다(√있다). (중급, 3914)
51) 과잉·순서: 지금 사람들이(√은) … 매매 집이도(√도) 많이 사서 살아요(√산다). (고급, 11774)

위 50), 51)은 주격조사 ‘이/가’를 과잉 사용하였다. ‘이/가’는 작용역이 중복되어 ‘도’와 함께 쓰이지 않는 항목인데 사용하였으며, 한편 ‘도’의 선택은 적절했다. 이같이 주격에 ‘도’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의미를 나타내는

111) 오류는 학습자의 지식 차이나 간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예견이 가능하나, 실수는 언어 수행에서 가끔 일어나는 과실을 반영하는 것이다(Ellis 1997, 박경자 외 역 2001:25-26).

성분이 표현되고 격을 나타내는 성분은 생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는'이 의미격조사인 '보다' 앞뒤에 두 번 사용된 사례가 있어 추가로 살펴본다.

52) 과잉: 한편에(√한편)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 '돈, 명예, 지위 또는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은(√이) 40, 50대 사람들은보다는(√보다는)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276)

52)는 '보다'의 앞뒤에 '은/는'을 중복 결합한 것이다. 이 같은 사용의 이유는 '사람들'에 '은/는'을 결합한 후 '보다는'을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생각하고 '사람들은+보다는'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명사구에 이같이 두 개의 조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 유형은 전반적으로 첫째, 구조격조사끼리의 중첩이 불가능한 점, 둘째,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의 결합에서 구조격조사가 생략되는 점, 셋째, '은/는'의 두 유형 의미가 모두 나타난다 하더라도 보조사2는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조사의 선택과 관련해 연속 구성이 가능한 조합이기는 하지만 배열의 순서에서 오류를 나타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Ⅲ-57] 학습자: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유형에서 항목별 빈도

공통적으로 포함된 조사	유형	항목	중급	고급
'이/가[1]' 포함	구조격+의미격	이하고(이[1], '하고'는 부사격)	-	1
	구조격+의미격	이한테(이[1])	1	-
	구조격+접속	이와(이[1],과[2])	-	1
	구조격+의미격	이보다(이[1])	-	1
	구조격+의미격	이처럼(이[1])	1	-
	구조격+보조사1	이마다(이[1])	1	-
	보조사2+의미격	이까지(이[1])	1	-
'을/를' 포함	구조격+의미격	을과(과[1])	-	1

	구조격+접속	을과(과^2)	1	-
	구조격+보조사1+보조사1	을뿐만	1	-
‘의’ 포함	구조격+접속	의와(와^2)	1	-
‘은/는’ 포함	보조사2+의미격2	은처럼	1	-
총계			8	4

[표 Ⅲ-58] 학습자: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유형에서 오류의 양상

공통적으로 포함된 조사	항목	중급	고급
‘이/가^1’ 포함	이하고 (이^1, ‘하고^1’)	-	• 대치·순서 1 (‘이하고’ 대치 1) ⊙ 총계: 오류 1
	이한테(이^1)	• 대치·과잉·순서 1 (‘이/가^1’대치·‘한테^1’과잉 1) ⊙ 총계: 오류 1	-
	이와(이^1,와^2)	-	• 과잉·순서 1 (‘이/가^1’과잉 1) ⊙ 총계: 오류 1
	이보다(이^1)	-	• 과잉·순서 1 (‘이/가^1’과잉 1) ⊙ 총계: 오류 1
	이처럼(이^1)	• 과잉·순서 1 (‘처럼’과잉 1) ⊙ 총계: 오류 1	-
	이마다(이^1)	• 대치 1 (‘이마다’ 대치 1) ⊙ 총계: 오류 1	-
	이까지(이^1)	• 순서 1 (‘이까지’순서만 1) ⊙ 총계: 오류 1	-
‘을/를’ 포함	을과(과^1)	-	• 과잉·순서 1 (‘을/를’과잉 1) ⊙ 총계: 오류 1
	을과(과^2)	• 형태·과잉·순서 1 (‘을/를’과잉 1) ⊙ 총계: 오류 1	-
	을뿐만	• 과잉·순서 1 (‘을/를’과잉·순서 1) ⊙ 총계: 오류 1	-
‘의’ 포함	의와(과^2)	• 과잉·순서 1 (‘의’과잉 1) ⊙ 총계: 오류 1	-
‘은/는’ 포함	은처럼	• 과잉·순서 1 (‘은/는’과잉 1) ⊙ 총계: 오류 1	-

위 항목은 조사 배열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순서가 포함된 항목들로 공통적으로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가 모두 해당된다. 이 중 특히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사용이 많고 '의'와 '은/는'이 포함된 유형은 각 1회씩으로 나타났다. 총 사용 빈도는 중급이 8회로, 고급의 4회보다 높은 편이다. 각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면 순서의 오류 외에는 대부분 과잉 사용에 대한 오류가 많다. 또한 이러한 과잉 사용은 거의 넓은 작용역과 관련된 조사에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학습자 사용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ㄱ. 주격조사 '이/가'가 포함된 형태

주격조사 '이/가'가 포함된 형태는 다음의 세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첫째, 구어체적 표현이 포함된 '이하고, 이한테', 둘째, 접속조사 및 의미격조사와 결합한 '이와, 이보다, 이처럼', 셋째, 보조사1과 결합한 '이마다, 이까지'이다.

첫째 유형으로 구어체의 표현이 포함된 '이하고, 이한테'는 고급과 중급에서 각 1회씩 사용되었으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53) 대치·순서: 예전의 방법이하고(√과는) 완전히 다르다. (고급, 109)[112]
54) 과잉·순서: 보통은 아이들이 … 존경하는 사람들이한테(√의) 손이나 발을(√에) 뿌린다. (중급, 16912 수정)[113]

53)은 주격조사 '이/가'와 부사격조사 '하고'에 관해 모두 대치 오류를 나타냈다. 위에서 '방법'은 '다르다'의 부사어이므로 '동반'의 '과/와' 및 대조의 '은/는'을 결합해야 하며, 한편 '하고'는 '과/와'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문어에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조사들은 순서에서도 넓은 작용역의 조사를 선행시켜 오류를 나타냈다.

그리고 54)에서 '사람들'은 '손, 발'이라는 신체 부위의 주체에 해당하므

112) '은/는'을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앞 문장을 추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한국의 난방법은 까스로 바닥하고 공기를 따뜻시키는 것이다. 에어컨하고 보인로 등 여라 방법이 있다. 예전의 방법이하고(과는) 완전히 다르다. (고급, 109)

113) 수정한 부분은 '사람들이(예;스승)한테' → '사람들이한테'이다. 원문의 괄호 안 표현이 본 연구의 오류 표기와 혼동되어 생략하고 제시하였다.

로 관형격조사 '의'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이한테' 전체를 '의'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한테'는 결합의 순서에서도 '한테가'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53)과 54)는 모두 조사의 선택과 결합 순서 모두에서 오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각 조사의 작용역 크기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해당 명사구의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둘째 유형인 '이와(이[1],와[2]), 이보다, 이처럼'을 살펴본다.

55) 과잉·순서: 중국 사람들을(√은) … 시어머님이와(√과) 친정 엄마께(√께서) 봐줬어요(√봐줍니다). (고급, 11774)

56) 과잉·순서: 힘들게 일하는 게보다(√것보다/것보다는) 가족과 친구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좋겠다고 생각한다). (고급, 286)

57) 과잉·순서: 빨간색은 불과 같아서 돈복이 불이처럼(√이) 타오르는(√타오르는) 것처럼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을(√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하게 한다). (중급, 16600)

55)와 56)은 주격조사 '이/가'를 과잉 사용한 예이다. 그러나 주격조사에 선행한 의미격조사 자리의 '과/와'와 '보다'는 적절히 사용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순서에 있어서도 '이/가'가 선행하여 넓은 작용역의 조사가 선행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한편 57)은 55), 56)과는 다른 경우로, 구조격조사가 아닌 의미격조사 '처럼'을 과잉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문장의 구조와도 관련된 오류로 볼 수 있었다. 위 문장에서 비유의 대상은 '불이 타오르는 것' 전체이므로 '것'에만 '처럼'을 결합해야 하는데 '불'에도 '처럼'을 한번 더 결합해 '처럼'의 명사구 범주에 대해 혼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인식에 개선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보조사1이 포함된 셋째 유형, '이마다, 이까지'를 살펴본다.

58) 대치·과잉·순서: 우리 나라 사람이마다(√사람들은 모두) 텔레비전을(√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중급, 3930)

59) 순서: 그리고 방학이(√은) 하나만(√한번만) 있습니다. 6월에부터(√부터) 9월이까지(√까지가) 방학입니다. (중급, 13509)

58)의 '이마다'는 두 조사 모두 적절하지 않은 사용을 나타냈다. 즉, 개개인의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합해 언급해야 하므로 '사람들은 모두'로 사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마다'는 '은/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59)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 중 유일하게 두 조사 모두 선택은 적절하고 순서의 오류만 나타낸 항목이다. '9월'에 결합한 '까지'는 '끝점'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때 '이/가'는 '까지'에 후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은 대부분 '이까지'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의 선택에서도 오류를 나타내 문장 성분의 의미와 구조에 관한 인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순서의 오류도 나타나고 있어 넓은 작용역의 조사는 선행하지 않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ㄴ. '을/를'이 포함된 형태

'을/를'이 포함된 형태는 '을과(과[1]), 을과(과[2]), 을뿐만'의 예를 하나씩 살펴본다.

60) 과잉·순서(과[1]): 예전에(√부터)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배나 위사람을과(√과) 같이 밥을 먹으면(√먹게 되면/먹을 때는) … (고급, 7644)

61) 과잉·순서(과[2]): 옛날에 캄보디아(√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에처럼(√처럼/과 같이) 초가집을와(√과) 나무집을(√에서) 살았습니다. (중급, 11786)

62) 과잉·순서: 중국에서 술을뿐만(√뿐만) 아니라 담배를 사도 된다. (중

급, 4225)

위 60), 61)은 모두 ‘을/를’을 과잉 사용하여 조사의 배열 및 선택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는 해당 명사구가 목적어가 아니라는 구조적 인식 외에도 ‘을/를’이 ‘과/와’에 선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순서의 오류도 같이 나타냈다. 한편 62)는 해당 문장에서 ‘술’이 타동사가 아닌, ‘아니다’의 대상이므로 보격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를’을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순서에서도 구조격조사를 보조사1에 선행하여 오류를 나타냈다. 대부분 문장의 전체 구조와 그 조사의 위치에 관해 오류를 보이고 있었다.

ㄷ. ‘의, 은/는’이 포함된 형태

조사 배열의 순서에서 오류를 나타낸 항목 중 ‘의’와 ‘은/는’이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는 다음과 같다.

63) 과잉·순서: 한국의와(√과) 캄포디아의(√캄보디아의) 옛날 생활 댁(√집/주거) 문화를(√의) 자이(√차이를) 비교합니다(√비교한다). (중급, 11786)
64) 과잉·순서: 저는(√나도) 그분은처럼(√처럼) 되고 싶다. (중급, 13080)

63)은 ‘의와’라는 순서도 잘못되었지만 이 중 ‘의’를 생략해야 하므로 과잉 사용의 오류도 나타났다. 즉 ‘한국’, ‘캄보디아’는 서로 동반된 대상이고 하나의 명사가 다른 명사에 소속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과/와’만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64)에서 ‘그분’은 ‘지정’이나 ‘비교·대조’를 나타내는 항목이 아니므로 ‘은/는’의 결합이 불필요하며, ‘비슷함’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처럼’만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구조격조사와 관련된 오류 유형과 유사하게 좁은 작용역보다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조사를 과잉 사용한 오류였다.

(3) 적절한 구성 원리가 적용된 항목

학습자만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 중 조사의 배열이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유형에 속한 조사들은 조사 결합의 순서는 적절했으므로 앞서 구별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과 같이 후행하는 조사를 기준으로 ㄱ. 구조격조사가 후행한 '처럼의', ㄴ.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에처럼, 만에', ㄷ. 보조사1이 후행한 '에서든지, 에뿐만, 에서뿐만, 에서부터', ㄹ. 보조사2가 후행한 '에부터는'으로 구별해 사용 양상을 알아본다.

[표 Ⅲ-59] 학습자: '적절한 구성 원리가 적용된 항목'의 빈도

유형		항목	중급	고급
ㄱ. 구조격조사 후행	의미격+구조격	처럼의	1	
ㄴ. 의미격조사 후행	의미격+의미격	에처럼	1	
	보조사1+의미격	만에	1	
ㄷ. 보조사1 후행	의미격+보조사1	에서든지	3	
	의미격+보조사1+보조사1	에뿐만	1	
		에서뿐만		1
		에서부터		1
ㄹ. 보조사2 후행	의미격+보조사1+보조사2	에부터는		1
총계			6	3

[표 Ⅲ-60] 학습자: '적절한 구성 원리가 적용되 항목'에서 오류의 양상

항목	중급	고급
처럼의	• 과잉 1 ('처럼의'대치 1) ⦿ 총계: 오류 1	-
에처럼	• 과잉 1 ('에'과잉 1) ⦿ 총계: 오류 1	-
만에	• 대치 1 ('만'대치 1) ⦿ 총계: 오류 1	-
에서든지	• 적절함 1 • 대치 1 ('에서든지'대치 1) • 생략 1 ('에서'생략 1) ⦿ 총계: 적절함 1, 오류 2	-
에뿐만	• 과잉 1 ('에'과잉 1) ⦿ 총계: 오류 1	-
에서뿐만	-	• 생략 1 ('에서'생략 1) ⦿ 총계: 오류 1
에서부터	-	• 생략 1 ('에서'생략 1) ⦿ 총계: 오류 1
에부터는	-	• 과잉 1 ('에'과잉 1) ⦿ 총계: 오류 1

위는 적절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나 모어 화자는 설명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형태이며, 이는 구조격, 의미격, 보조사1, 보조사2 후행의 조사연속 구성체가 고르게 적은 빈도로 분포하였다. 중급의 총 사용 횟수는 6회이고 고급의 사용 횟수는 3회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오류 항목으로 '에서든지'의 1회 적절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류 표현에 해당하였다.

ㄱ. 구조격조사 후행

관형격조사 '의'가 후행한 '처럼의'가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65) 대치: 요즘 저처럼의(√저와 같은) 사람들의(√은) 관심이 없어서 몰린(√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다(√많다). (중급, 1319)

65)는 '-와 같은'의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처럼'을 사용해 오류로 분석된 예이다. '처럼'은 의미격조사로 선행 명사와 서술어를 연결하지만 위 '저'는 '사람들'이라는 명사와 연결되므로 '저와 같은'의 관형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즉, 이는 '처럼'과 '의'를 중첩한 조사 간 결합의 원리에 대한 오류이기도 하지만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오류이기도 했다.

ㄴ. 의미격조사 후행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유형으로 분류된 조사연속구성체인 '에처럼, 만에'가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66) 과잉: 옛날에 캄보디아(√는) 한국에처럼(√처럼/과 같이) 초가집을 와(√과) 나무집을(√에) 살았습니다. (중급, 11786)
67) 대치: 첫 학교를 만든 지 23년만에(√23년 만에) 학교 10개를 만들었다. (중급, 13079)

위 66)은 '한국'이라는 어휘가 장소를 나타내어 '에'를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은 '초가집과 나무집에 살았습니다.'에 대한 '비슷함'의 대상이고, 서술어 '살다'의 처소가 아니다. '살다'의 처소는 '한국'이 수식하는 명사 '초가집과 나무집'이다[114]. 즉, '한국'이라는 단어의 장소적 성격만을 고려하고 이 단어가 어떤 항목의 부사어인지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잘 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67)은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오류로 볼 수도 있고 띄어쓰기에 관한 오류로 볼 수도 있다. 동음이의어에 관한 오류로 본다면 『표준』의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의존명사 '만'과 '유일'의 의미를 갖는 조사 '만'을 혼동한 오류이다. 그리고 띄어쓰기 오류라면 의존명사 '만'을 '23년 만'으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써, 조사로 인식되게 한 오류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에'의 사용은 적절해 좁은 작용역보다는 넓은 작용역과 관련해 오류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ㄷ. 보조사1 후행

보조사1이 후행한 '에서든지, 에뿐만, 에서뿐만, 에서부터'는 '에서든지'에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 전체에 대한 대치 오류가 1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행한 의미격조사에서 오류를 보였다. 중급과 고급의 예로 '에서든지'와 '에서부터'의 를 살펴본다.

68) 대치: 미신은 어디에서든지(√까지나) 미신이기 때문이다. (중급, 16600)

69) 과잉: 무죄 판결을 받았어서(√받아) 퍼거슨뿐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재판과 경찰(√의) 만행에 대한 시위가 있었다. (고급, 3979)

68)에서 '어디'는 처소의 의미가 아닌 제한성의 의미를 부가해 주어야

114) 이 문장의 앞뒤 맥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와 캄포디아의 옛날 생활 댁 문화를 자이 비교합니다. 옛날에 캄보디아 한국에처럼 초가집을와 나무집을 살았습니다. 초가집을 어떻게 짓었습니까? 캄보디아에는 초가집을 짓을 때 찰흙와 벼를 혼합한 후에 짓습니다. 초가집이 모양이 멋지지 않았지만 여름에 날씨가 더위도 많이 덥지지 않았습니다. (중급, 11786)

하므로 ‘끝점’의 ‘까지’에 ‘선택’의 ‘이나/나’를 결합해 ‘미신은 미신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를 장소적 개념으로 보고 ‘에서’를 사용해 오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전체를 ‘일정함 범주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음’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69)는 ‘퍼거슨’이라는 어휘가 장소의 표현이며 ‘시위가 있었다’의 부사어이므로 ‘에서’가 필요하나 이를 생략하였다. 강조의 ‘뿐만’에 대한 사용은 적절했으나 부사격과 같은 문장 구조에 대한 판단을 통합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ㄹ. ‘은/는’ 후행

‘은/는’이 후행한 유형은 ‘에부터는’이 있었으며 이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만 1회의 과잉 사용 오류를 나타냈다.

70) 과잉: 그다음에부터는(√부터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복잡해진다. (고급, 3981)

70)의 ‘에부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 표현과는 잘 결합하지 않고 위치나 장소 표현과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는 ‘에’를 생략해야 한다. 즉, ‘에부터’가 위치에만 결합하는 제한적 사용의 양상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3.6. 정리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모어 화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에 비추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항목과 학습자만 사용한 항목으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모어 화자와 학습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항목의 학습자 사용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 중에서 ‘을/를’이 포함된 항목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가[1], 이/가[2]’ 후행 유형에서는 사용한

항목들의 오류율이 모두 100%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사용과 오류의 비중이 높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관형격조사 후행의 유형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사용이 있었고 오류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에서는 '만으로'만을 사용하였으며 오류율도 100%로 나타났다. 이는 모어 화자의 경우에도 사용이 많지 않은 부류이기는 하지만, '으로/로' 외에 '처럼, 과/와[1], 보다, 만큼[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은 특히 비교나 대조의 특수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항목들이므로 글쓰기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시도해 볼 필요도 있었다.

셋째, 보조사1 후행 유형 중에서는 '까지'가 후행한 유형, 그리고 '조차, 이나마/나마'가 후행한 유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은 비교적 활발했으며 '부터'가 후행한 '에부터'의 사용도 1회 있었다. '만'이 후행한 유형은 오류율도 비교적 낮아 가장 적극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나, 이외 유형은 미사용이 많았고 '에부터'의 1회 사용 또한 오류로 판별되어 다양한 표현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다.

넷째, 보조사2 후행 유형에서는 비교적 많은 항목을 사용했으나 선행조사의 의미 특징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넓은 작용역에 적용되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후행하는 조사에서 미사용이 두드러져 선행 명사구의 좁은 작용역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모어 화자는 사용하지 않은 조사연속구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구분되었다. 첫째, 조사 선택의 오류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학습자의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사연속구성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이해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하였다.

둘째, 결합 순서의 오류를 나타낸 유형이다. 이는 '이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의 배열뿐 아니라 선택에서도 오류를 나타냈으며, 특히 구조격조사나 '은/는'에 대한 오류의 비중이 높아 여전히 넓은 작용역을 갖는 조사의 사용을 더 어려워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조사의 결합 순서는 적절했으나 모어 화자의 설명문에 나타나지 않은 조사연속구성체 유형이다. 이 표현들도 '에서든지'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류로 분석되었다.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구성을 시도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류율이 높아 조사 결합의 원리와 의미 특성에 관해 여전히 더 명시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4. 모어 화자와 학습자 사용 양상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며, 조사연속구성체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한다.

4.1.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사용과 오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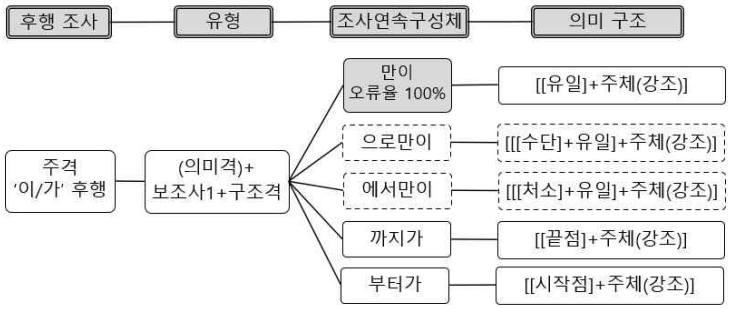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의 비교는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과 미사용한 항목, 그리고 사용했을 때의 오류율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알아본다.

(1) 구조격조사 후행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은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의'가 후행한 유형의 순서대로 살펴본다.

① 주격조사 '이/가' 후행

다음 그림은 주격조사 '이/가'가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의 모어 화자와 학습자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에 색이 채워진 것은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으로 오류율을 병기하였다. 한편, 테두리가 점선인 것은 바로 위 항목의 확장으로 3개 조사가 연속 구성된 것이다.



[그림 Ⅲ-8]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모어 화자는 주격조사 ‘이/가’를 다른 조사에 연속 구성할 때 보조사1에 후행한 유형으로는 ‘만이, 까지, 부터가’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만이’는 ‘으로만이, 에서만이’로 확장하였다. 결합한 보조사 ‘만, 까지’는 어떤 범주의 제한을 의미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 조사들은 예외적으로 의미격조사에 선행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어휘적 쓰임을 자주 보인 항목이었다. 그러나 주격조사 후행 유형에서는 의미격조사에 후행하는 순서로 결합하였다. 주격조사 ‘이/가’는 ‘주체’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명시하는 강조의 용법을 나타냈다.

한편 학습자는 이 유형에서 ‘만이’만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연속 구성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가 구조격조사를 다른 조사와 결합하는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적격하지 않은 조사연속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 조사 선택의 오류: 이가, 이를, 이도
-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이하고, 이한테, 이와, 이보다, 이처럼, 이마다, 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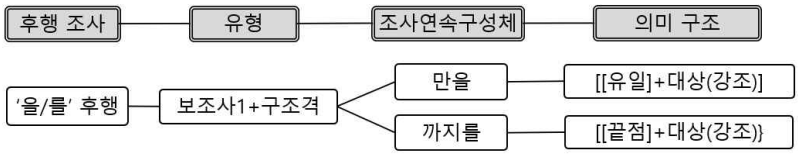
학습자가 사용한 유형 대부분은 위와 같이 결합 자체에서 오류를 나타내어 별도로 분류된 유형에 속했다. 학습자만 사용한 항목 중 적절한 구성을 제외하고 조사 선택의 오류와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를 나타낸 항목은 총 17개인데 이 중 주격조사 ‘이/가’가 포함된 항목이 10개로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이 유형은 조사의 결합 원리 자체에 대한 오류를 함께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유일하게 학습자가 사용한 ‘만이’는 조사 ‘만’과 ‘은/는’의 의미 구별이 명확하지 못했고, 주격조사 ‘이/가’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선행 조사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항목 간의 구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고, 후행 조사에서는 해당 명사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체는 조사의

결합 원리 및 선행 명사구의 의미와 그 명사구의 구조적 역할을 나타내는 후행 조사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② ‘을/를’ 후행

모어 화자가 사용한 ‘을/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으며, 한편 학습자는 이 유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Ⅲ-9]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을/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모어 화자는 ‘을/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로 ‘만을, 까지를’을 사용하였다. ‘만, 까지’는 주격조사 ‘이/가’에서도 자주 선행하여 좁은 작용역의 사용을 나타내기도 하는 항목이었고 이 보조사들은 모두 의미적으로 어떤 범주의 제한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때 ‘을/를’은 생략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장에 표현되는 유표적 사용으로 강조를 나타냈다. 한편 ‘만을’은 앞서 살펴본 ‘만이(이[1])’와 달리 ‘에서, 으로/로’와의 연속 구성으로 확장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을/를’이 ‘도달점’의 의미와 관련되는 종결상의 의미를 내포하여 ‘에서, 으로/로’와는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학습자는 이 같은 유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주격조사와 매우 유사하다. 즉, ‘을/를’이 포함된 유형은 학습자가 조사 간 결합의 원리 자체에서부터 오류를 나타내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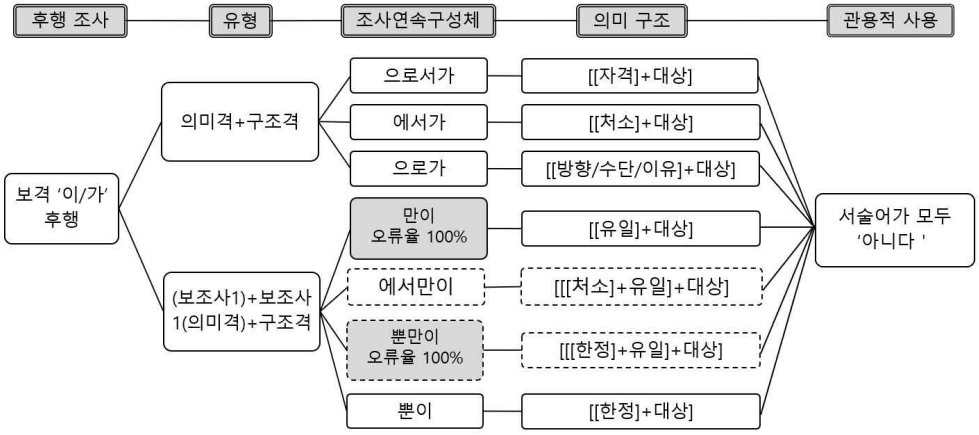
- 조사 선택의 오류: 이를(이[1]), 을도
-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 을과(과[1]), 을과(과[2]), 을뿐만

위 목록 중 조사의 선택에서 오류를 나타낸 항목인 '이를'과 '을도'는 앞선 '이/가'의 선택 오류와 유사하다. '이를(이[1])'은 모순된 두 기능을 하나의 조사에 부과한 것이며, '을도'는 작용역의 범위가 중복되어 의미의 부담량이 적은 '을/를'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다.

한편 조사의 배열과 순서에서 오류를 나타낸 '을과(과[1]), 을과(과[2]), 을뿐만' 역시 '을/를'에서 과잉 사용이나 순서의 오류를 나타내어 격조사 사용에서의 오류가 더 많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사 결합의 원리에서부터 조사연속구성체의 의미 구조나 관용성, 혹은 격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까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③ 보격 '이/가' 후행

보격조사 '이/가'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을 의미구조과 관용적 사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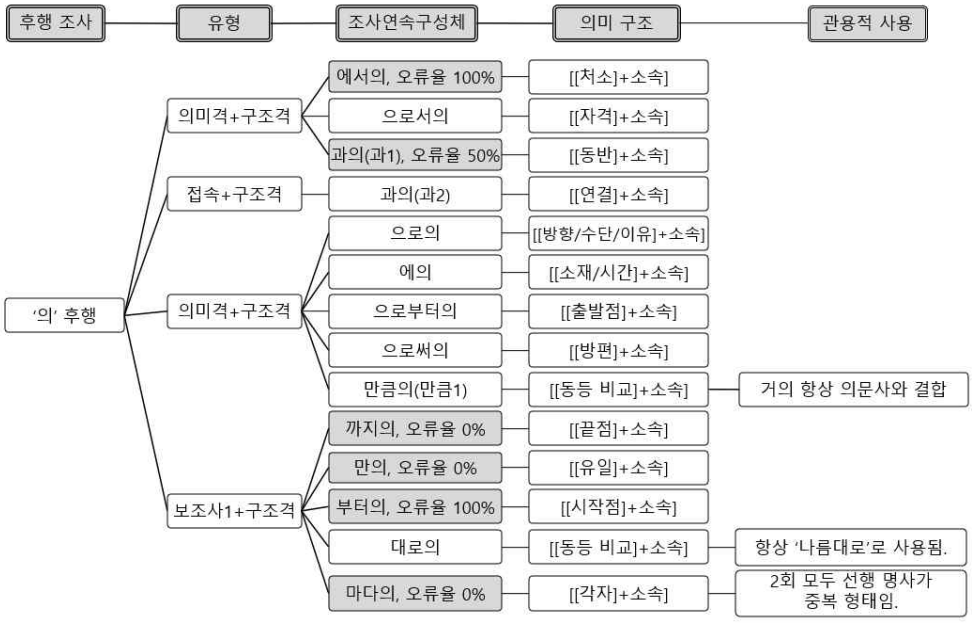
[그림 Ⅲ-10]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가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보격조사 '이/가'가 후행한 유형은 서술어가 모두 '아니다'였으며, 따라서 주로 비교나 대조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조사는 의미격조사 '으로서/로서, 에서, 으로/로' 및 보조사1인 '만, 뿐'과 고루 결합하였으나 다른 관형격조사 '의'나 보조사1, 보조사2에 비해서는 확장성이 크지 않았다.

한편 학습자는 이 유형의 조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각 1회씩 사용한 '만이, 뿐만이'는 오류 표현이었다. 이 오류는 주로 '뿐'을 생략하거나 보격조사 '이/가'를 생략한 것으로, 선행 조사 '뿐'의 사용 및 '이/가'의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도 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④ '의' 후행

관형격조사 '의'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을 의미구조과 관용적 사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1]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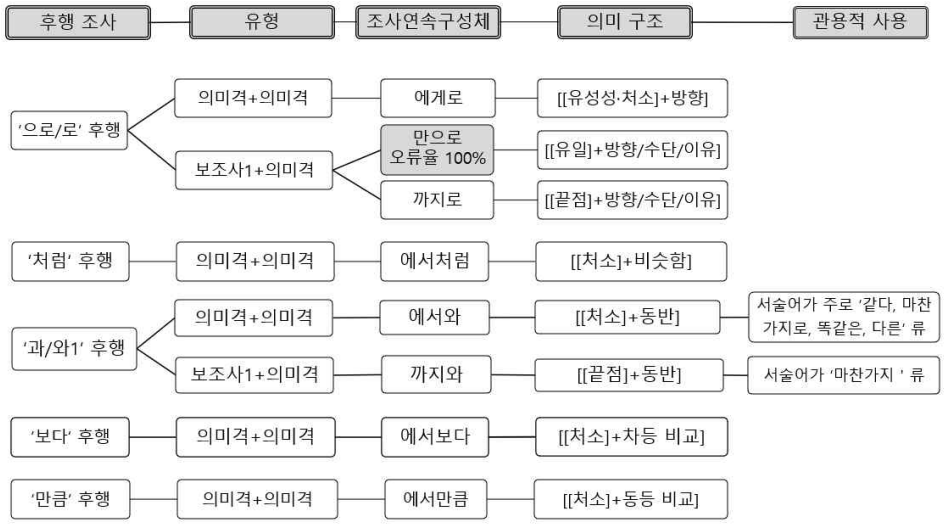
관형격조사 '의'는 다른 조사에 후행할 때 거의 생략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다른 구조격조사에 비해 더 다양한 연속 구성이 쓰였다. 또한 선행 조사로 보조사1이 자주 사용된 것은 '의'의 특정성의 의미로 인해 보조사 1 뒤에서 생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중 '만큼의, 대로의, 마다의'에서는 관용적인 사용으로써 강조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이러한 강조는 대부분 '의'에 후행한 명사보다는 선행한 명사에 대한 것이었다.

학습자는 이 중 '에서의, 과의(과[1]), 까지의, 만의, 부터의, 마다의'를 사용했다. 이 중 '에서의'나 '부터의'이 오류율은 100%로 나타나긴 했으나, '까지의, 만의, 마다의'의 오류율은 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 중에서는 적절한 사용이 많은 편이었다. 학습자 오류의 양상은 주로 선행 조사 자리에서는 유사 의미의 구별이 잘 되지 않았고, 후행 조사 자리에서는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오류가 나타났다. 특히 구조와 관련해서는 후행하는 언어 항목이 서술어일 때는 해당 항목이 부사어로 쓰여야 하고, 명사일 때만 관형어로 쓰여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후행 항목이 명사일 때에도 다시 한번 '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또한 이외에 '과/와'에서 형태 오류가 나타나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2) 의미격조사 후행

의미격조사 '으로/로, 처럼, 과/와, 보다, 만큼'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을 의미구조과 관용적 사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5].

115) '가요(이[1])'는 실제적 사용이 없어 앞서 문장 분석에서 제외된 항목이므로 위 그림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Ⅲ-12] 모어 화자와 학습자: '으로/로, 처럼, 과/와[1], 보다, 만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모어 화자의 경우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유형은 '방향/수단/이유'를 나타내는 '으로/로'와 비교나 대조를 나타내는 '처럼, 과/와[1], 보다, 만큼' 후행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으로/로'의 조사연속구성은, '으로/로'가 유정성의 명사에 직접 결합하지 못하므로 이를 표시하는 '에게'가 개입한 경우만이 나타났으며, 이때 '으로/로'가 후행한 이유는 의미적으로 '처소'의 '에게'에 '방향'의 '으로/로'가 선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보조사1 중에서는 앞서 격조사와의 결합이 많았던 '까지, 만'과만 결합하여 확장성이 큰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외 조사들은 의미적으로 모두 '비교나 대조'와 관련되는 항목이었다.

한편 학습자는 이 같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만으로'만을 1회 사용하였다.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이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표현의 다양성 측면에서 비교·대조를 의미하는 언어 항목의 다양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모어 화자의 위와 같은 사용 양상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보조사1 후행

보조사1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항목은 비교적 다양하고 종류가 많았다. 이는 '까지'의 후행 유형과 '만'의 후행 및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의 세 부류로 구분해 살펴본다.

① '까지' 후행

보조사1 '까지'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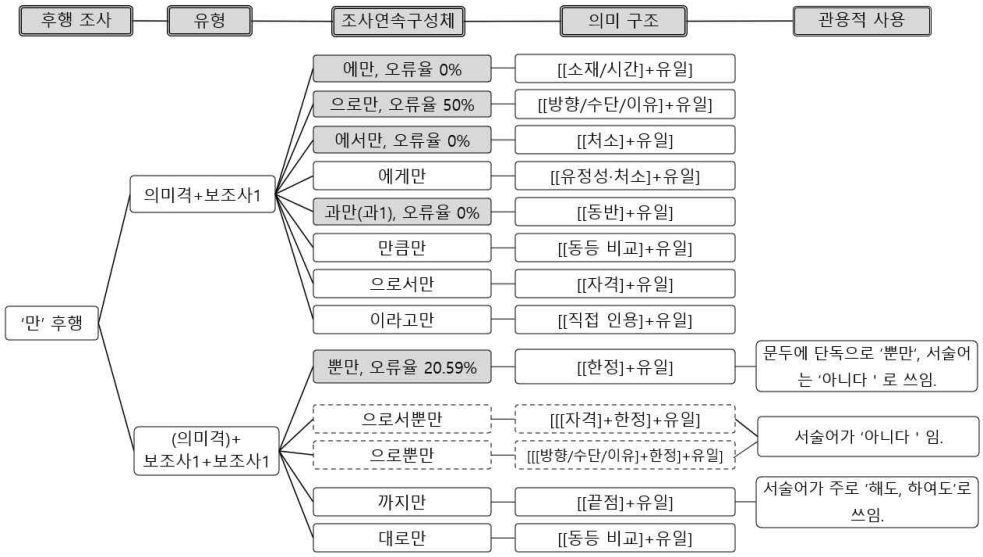
[그림 Ⅲ-13] 모어 화자와 학습자: '까지'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모어 화자가 사용한 '까지'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는 '에까지, 으로까지, 에게까지, 에서까지'가 있었으며, 모두 확장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까지'의 '미침' 의미를 표현하였다.

한편 학습자는 이 같은 유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까지'가 선행한 용법에 대한 사용은 '까지의, 까지도, 까지는, 까지나'로 나타나고 있어 '끝점'을 의미하는 좁은 작용역과 관련된 사용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연속구성체의 제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언어 항목의 사용을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② '만' 후행

보조사1 중 '만'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4]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만'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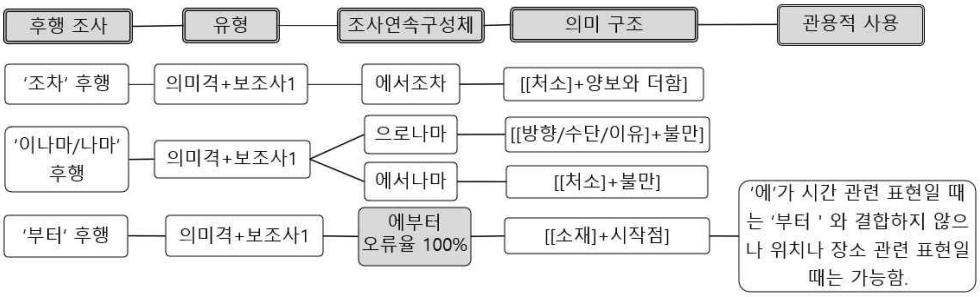
보조사1인 '만'이 후행한 유형은 매우 다양한 연속 구성이 이루어졌다. 그 의미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선행 조사가 의미격조사인 경우는 '만'이 후행할 때의 고유 의미인 '유일'을 주로 나타냈고, 보조사1이 선행할 때에는 보조사1의 의미에 영향을 받아 서술어에서도 관용적 사용이 나타나는 등 특정 용법으로 집중되었다. 이는 주로 부정적인 표현 앞에 '만'의 조사연속구성체가 선행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이 유형 중 '뿐만'은 '으로서뿐만, 으로뿐만'의 3개 조사 연속 구성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는 이 유형에서 다양성과 적절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에만, 으로만, 에서만, 과만, 뿐만'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으로만, 에서만, 과만'은 급별 향상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오류율이 높지 않아 학습자에게 가장 익숙한 조사연속구성체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급 학습자는 '뿐만'을 매우 고빈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강조와 관련된 표현이 '뿐만'으로 집중되어 표현의 다양성이 낮아지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며, '뿐만'은 오류율 또

한 중급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③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

보조사1에 속하는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5] 모어 화자와 학습자: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보조사1인 ‘조차, 이나마/나마, 부터’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모두 의미격조사에만 후행하여, 후행한 보조사1의 의미가 다른 의미에 통합되지 않고 온전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중 ‘에부터’는 ‘에’가 ‘소재’를 나타낼 때만 ‘부터’와 연속 구성되었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쓰이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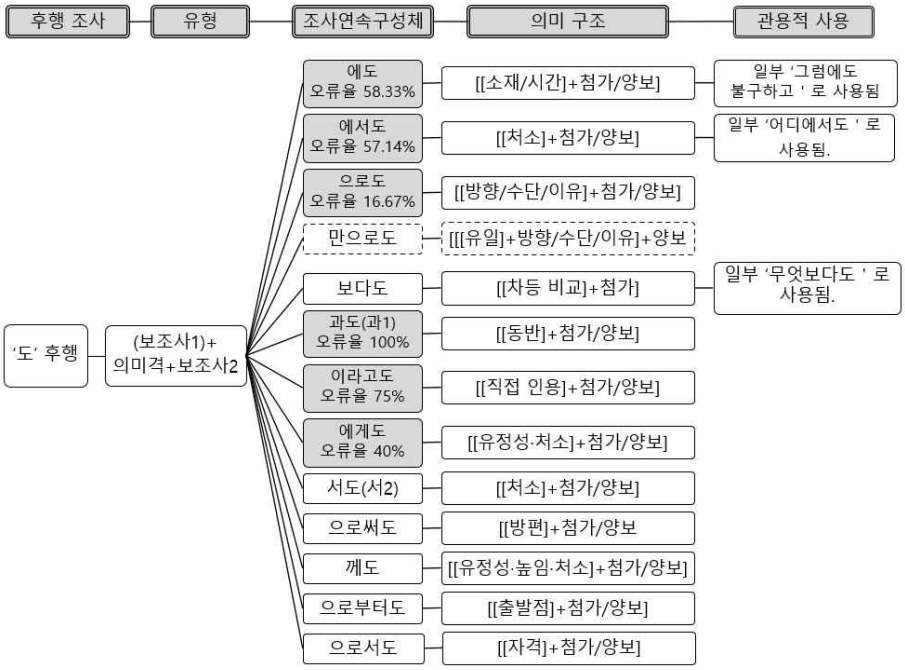
한편 학습자는 이 유형에 대한 사용이 많지 않아 중급에서 ‘에부터’만을 사용하였고 이 표현 또한 오류에 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정확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4) 보조사2 후행

보조사2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은 가장 다양하고 빈도도 높다. 이는 ‘도’가 후행한 유형과 ‘은/는’이 후행한 유형, 그리고 ‘이나/나, 이야/야’가 후행한 유형으로 나누어 사용 양상을 정리해 본다.

① ‘도’ 후행

‘도’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중 ‘(보조사1)+의미격조사+보조사2’ 구성을 먼저 살펴본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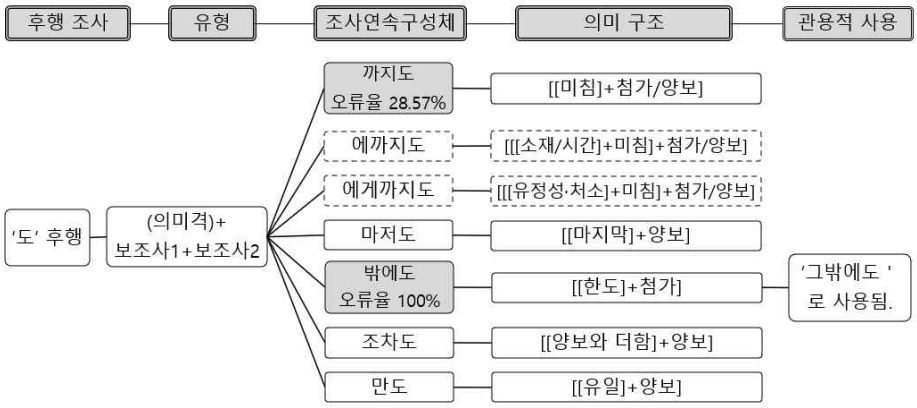


[그림 Ⅲ-16] 모어 화자와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1)

‘도’가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은 위와 같이 다양하여 총 1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의미는 대부분 선행 조사나 명사구의 의미에 따라 ‘도’의 ‘첨가’나 ‘양보’ 의미가 적용되었다. 이 중 ‘에도, 에서도, 보다도’는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무엇보다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으로도’는 ‘만으로도’의 3개 조사 연속 구성으로도 사용되었다.

116) ‘도’가 후행한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항목 중 ‘한테도’는 모어 화자의 경우 실제적인 쓰임이 없어 문장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도 포함하지 않았으나 학습자는 이 항목을 1회 사용한 바 있다.

이 유형에서 학습자는 ‘에도, 에서도, 으로도, 과도, 이라고도, 에게도’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항목을 사용한 편이며 이 중 ‘에도, 에서도, 으로도, 이라고도, 에게도’는 급별 향상도도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오류율의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선행 조사에서는 의미의 구별에 대한 대치 오류가 많고 후행 조사에서는 넓은 작용역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아 ‘도’를 생략/과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 그림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모어 화자는 실제적인 쓰임이 없었던 ‘한테도’를 학습자는 1회 사용하여 문어성/격식성에 대한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라고도’에서는 ‘이라고’에 대한 형태 오류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은 보조사1에 ‘도’가 후행한 유형이다.



[그림 Ⅲ-17] 모어 화자와 학습자: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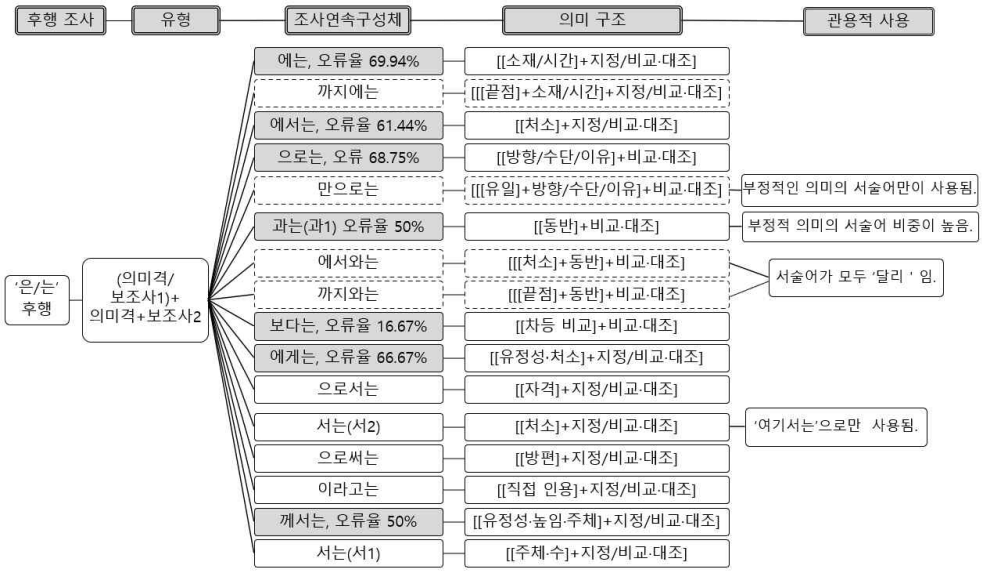
이는 앞서 살펴본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에 비해 수는 적었으나 다양한 의미 유형의 보조사가 결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까지도’에서는 ‘에까지도, 에게까지도’의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 확장이 있었으며, ‘밖에도’는 일반적으로 ‘밖에’가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는 것과 달리 ‘그밖에도’로만 쓰이며 서술어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학습자는 이 유형의 사용이 많지 않았으나 ‘까지도’는 고급에서 약간 오류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는 ‘도’의

생략이나 과잉 사용의 오류가 많고 ‘밖에’에서는 형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해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② ‘은/는’ 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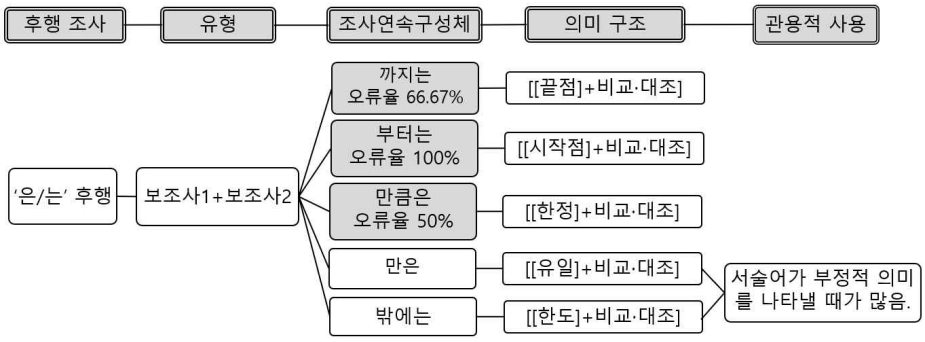
‘은/는’이 후행한 유형 역시 ‘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며, 빈도에 있어서는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 빈도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 중 우선 ‘은/는’이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8]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1)

‘은/는’이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앞서 살펴본 ‘도’와 마찬가지로 항목이 매우 다양해 총 16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의미적으로는 대부분 맥락에 따라 ‘지정, 비교·대조’를 나타냈다. 다만 서술어가 주로 부정적인 유형이 사용되는 ‘만으로는, 과는, 에서와는, 까지와는’은 ‘은/는’이 주로 ‘비교·대조’의 의미만을 나타냈다. 또한 3개 조사가 연속 구성된 항목도 많아 ‘에는, 까지에는’, ‘으로는, 만으로는’, ‘과는, 에서와는, 까지와는’의 구성도 사용되었다.

학습자 또한 이 유형의 사용이 다양한 편인데 앞선 '도'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과 유사하게 오류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보다는'을 제외하고는 급별 향상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사용의 적절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류의 양상은 주로 선행 조사의 의미 구별과 후행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한 것이었다. 다음은 '은/는'이 보조사1에 후행한 유형이다.



[그림 Ⅲ-19]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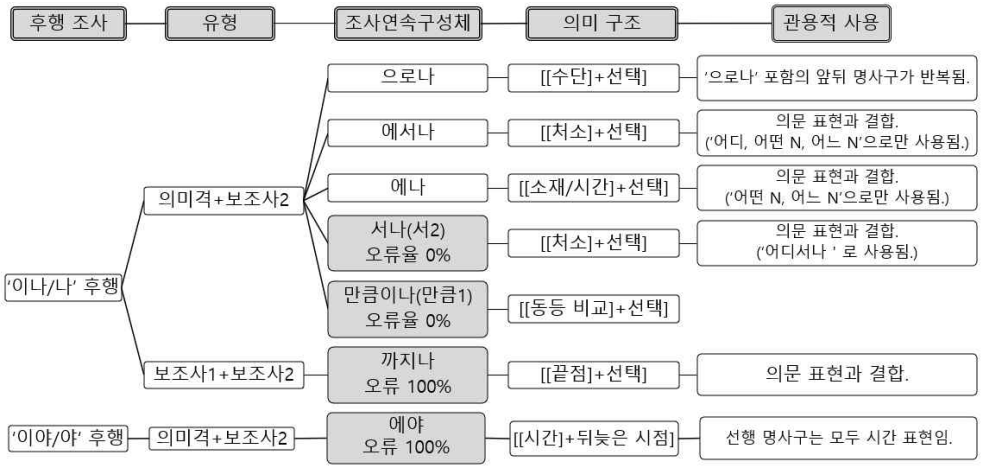
보조사1에 '은/는'이 후행한 유형은 자매항을 내포하는 보조사1과 결합한 특징으로 인해 대부분 '은/는'이 '지정'보다는 '비교·대조'를 의미했다. 또한 '만은, 밖에는'은 주로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관용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학습자는 보조사1에 '은/는'이 후행한 유형의 사용이 적은 편이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급 통합 오류율이 50%-100%로 나타나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은 급별 향상도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였다.

③ '이나/나, 이야/야' 후행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이나/나, 이야/야'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로, 각 조사의 의미가 '선택, 제시/예상대로/뒤늦은 시점'을 의미하여 의

문사의 결합과 같은 특수한 사용이 많은 유형이었다. 그 사용 양상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림 Ⅲ-20] 모어 화자와 학습자: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 비교

보조사2인 '이나/나'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는 총 6개 항목이 나타났으며, 보조사1보다는 의미격조사에 후행한 항목이 더 많았다. 이 중 '으로나, 에서나, 에나, 서나(서^2)'에서 모두 관용적 사용이 있었으며 특히 의문 표현과만 결합하는 항목이 많아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보조사1에 '이나/나'가 결합한 '까지나'에서도 공통되었다.

학습자는 이 중 '서나, 만큼이나, 까지나'를 사용하였다. 오류율은 적은 편이었으나 급별 향상도는 '서나'에서만 나타나 학습자가 자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표현들로 보기는 어려웠다.

'에야'는 모어 화자의 사용 빈도도 적은 편인데 선행 명사구가 모두 시간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다. 한편 학습자는 이 표현을 2회 사용하여 모두 오류를 나타냈고, 2회 모두 넓은 작용역인 '이야/야'를 생략하여 여전히 넓은 작용역과 관련되는 의미 인식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학습자의 사용에 나타난 오류와 미사용의 유형

지금까지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과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무엇이며, 사용된 용법 안에는 주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오류의 주된 경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형식, 의미, 사용'의 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1) '형식'에 관한 오류

① 조사의 형태 오류

대부분의 언어 항목에서 학습자의 형태 오류는 고급에서도 꾸준히 나타나나, 조사에서는 비교적 그 빈도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급과 고급에서 간혹 형태 오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중급: 이라고도-이라도, 밖에도-밖어도, 과의-외의, 을과-을와
- 고급: 에는-엔, 에서는-에세는

위 목록은 '에는-엔'이 문체와 관련된 오류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자의 실수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이는 '과/와'에서 2회의 오류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조사 항목에 고루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급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② 조사 선택의 오류

조사연속구성체는 서로 다른 작용역의 조사들만이 연속적으로 구성되며 동일한 작용역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중첩되지 않는다. 특히 보조사 2와 구조격조사가 상호 중첩되지 않는 현상은 예외가 없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류를 많이 나타냈고, 이는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미사용과도 관련되었다. 즉, 사용은 하였으되 구성 자체에 오류가 나타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당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선택의 오류를 나타낸 항목: 이가(이[1]), 이를(이[1]), 이도(이[1]), 을도, 은보다는

조사의 선택에서 오류를 나타낸 항목은 하나의 조사를 중첩한 '이가' 및 주격과 목적격의 기능을 동시에 나타낸 '이를' 그리고 보조사2와 격조사와의 결합에 해당하는 '이도, 을도', '은/는'의 2회 반복인 '은보다는'이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사 결합의 원리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의 대치 오류

학습자가 사용한 다양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는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 선행 조사는 유사 의미의 변별이 명확히 되지 않아 발생되었다. 또한 간혹 후행 조사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관련된 항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만이(이[1]): '만'과 '은/는'의 구별
- 에서의, 에도, 에서도, 에는, 에서는: '에', '에서'의 구별

우선 위에서 학습자가 대치한 유사 항목인 '만'과 '은/는'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만'은 주로 다른 자매항을 전제하지만 문장에 표현하지는 않으며, 자매항들을 배제하고 하나의 요소를 유일한 대상으로서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러나 '은/는'의 비교·대조는 두 항목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거나 대조되며, 모두 문장에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에'와 '에서' 간의 의미 변별은 오류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에', '에서'의 차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에'는 '소재/시간'을 나타내고 '에서'는 '처소'를 나타내며, 서술어에 관해 '에서'는 주로 동사로 제한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 두 조사는 장소성을 기본으로 하나, 앞서 살펴본

이남순(1983)의 논의대로 '소재/시간', '처소' 개념을 기초로 다양한 양식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용법이 다양한 만큼 적절한 사용에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넓은 작용역과 관련된 조사의 생략과 과잉 사용의 오류

조사연속구성체에서 후행 조사는 주로 생략이나 과잉 사용의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가 처음부터 그 조사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조사는 주로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 부류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만이(이[1]): '이/가[1]'의 생략
- 만이(이[2]), 뿐만이(이[2]): '이/가[2]'의 생략
- 에서의, 과의, 부터의: '의'의 생략
- 만으로: '으로/로'의 생략
- 에도, 에서도, 으로도, 과도(과[1]), 이라고도, 에게도, 까지도, 밖에도: '도'의 생략이나 과잉 사용
- 에는, 에서는, 으로는, 과는(과[1]), 보다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 '은/는'의 생략이나 과잉 사용
- 까지나: '이나/나'의 생략
- 에야: '이야/야'의 생략

위 목록은 조사연속구성의 많은 항목이 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명사구에 조사를 결합할 때 좁은 작용역만 고려하고 넓은 작용역은 고려하지 못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항목들은 대부분 보조사2 및 구조격조사들로, 서술어 이상의 언어 단위에서 응결성을 나타내 주는 항목이므로 이 같은 오류와 관련된 명시적인 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조사 배열의 순서와 관련된 오류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 배열상의 오류를 나타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를 나타낸 항목: 을과(과[1]), 을과(과[2]), 을뿐만, 이하고, 이한테, 이와, 이보다, 이처럼, 이마다, 이까지, 의와, 은처럼

이는 대부분 좁은 작용역의 조사에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는 구조격조사 선행한 오류이며, 또한 위 유형에서의 공통점은 '이까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사 선택에서도 오류를 나타낸 점이다.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은 문장의 구조 표현 및 이러한 표현의 어순에도 유의해 교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의미'와 관련된 오류와 미사용

① 비교·대조 표현의 제한적 사용

모어 화자의 경우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는 주로 비교·의 의미·기능을 나타냈다. 그런데 학습자의 경우 이 항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유형의 의미 표현을 위해서는 조사 '보다'의 사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② 관용적인 표현에 대한 오류와 미사용

조사연속구성체는 모어 화자의 말뭉치 분석 결과 다수의 관용적인 사용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확장성이 제한적이므로 기억하기가 쉬운 반면, 다양한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오류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항목이다. 말뭉치 분석 결과 추출된 관용적 사용의 양상을 '서술어와의 호응, 선행하는 명사의 제한, 어순'의 측면에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술어와 관련>

- 주로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 함께 사용됨: 으로서가(이[2]), 에서가(이[2]), 으로가(이[2]), 만이(이[2]), 뿐만이(이[2]), 뿐이(이[2]), 으로서뿐만, 으로뿐

만, 까지만, 만으로는, 과는(과[1]), 에서와는(과[1]), 까지와는(과[1]), 만은, 밖에는, 뿐만(어순에서도 문두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서술어가 '같다, 비슷하다' 등과 같은 유사성을 나타내는 경우: 에서와(과[1]), 까지와(과[1])
- 서술어가 확장성이 있는 표현인 경우: 에까지, 으로까지, 에게까지, 에서까지

<선행 명사의 제한>

- 주로 의문사와 결합: '에서도' 일부, 서는(서[2]), 만큼의(만큼[1]), 보다도, 에서나, 에나, 서나(서[2]), 까지나

<기타>

- 선행 명사가 중복 형태: 마다의(예: 집집마다)
- 어순: 으로나('으로나'의 명사구에 대응되는 명사구의 반복 제시)
- 특정 어휘와 결합: 에도(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사용됨.), 밖에도(그밖에도), 대로의(나름대로의)
- 조사의 특정 의미만이 적용됨: 에부터(선행 명사구가 위치나 장소 표현일 때만 결합), 에야(선행 명사구가 시간 표현일 때만 결합)

위와 같은 유형의 다양한 관용적 표현은 대부분 각 조사의 고유한 의미·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결합을 이해하고 자주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언어 사용이 더욱 다양해지며, 적절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사용'과 관련된 오류와 미사용

① 문어성과 격식성에 관한 오류

조사 사용에는 문어성과 격식성이 고려되는데, 이는 크게 조사의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과, 세부적으로는 구어체에 해당하는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조사의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점은 특히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전반에 관련되며, 구어체의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다음의 항목에서 볼 수 있다.

- 한테도 → 에게도, 이하고 → 과는, 하고도 → 과도, 께서는 → 는, 엔 → 에서는

위 목록 중 '한테도, 이하고, 하고도, 엔'은 모두 학습자의 오류로 분석했으며, '께서는'은 오류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글 전체의 격식성을 고려했을 때 생략도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용은 학습자가 가벼운 문어체를 지향할 경우 간혹 허용될 수는 있으나,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는 사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는(서[2])'은 축약형임에도 문어체에 적절히 어울렸으며, 주로 '여기서는'의 형태로 다양한 위치 표현이나 설명문의 메타 언어 기능을 하였다. 학습자는 이 항목을 미사용하여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강조 표현의 미사용

조사연속구성체는 다양한 강조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출된 강조 표현들은 설명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객관성과 격식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설명문에서 '강조'는 주로 사실 강조형으로 나타나, 논설문과 같은 텍스트 유형에서 의견 강조형이 많이 사용되는 것과 대비되며(Brinker, 이성만 역 1994:168)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체에 후행한 다양한 격조사의 사용은 문장의 구조를 명시해 주는 사실 강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항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에서 특징

적인 것이 미사용된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형식, 의미, 사용' 중 '의미' 범주에서 비교나 대조를 의미하는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의 범주에서 구조격조사가 후행하는 강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었다.

이 중 구조격조사가 후행한 유형의 미사용은 조사연속구성체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조사 선택, 배열의 오류와 관련되기도 했으나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들은 이에 대응되는 사용을 거의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텍스트에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러한 의미는 주로 '보다는'이나 '은/는'을 사용해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습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 항목만을 사용하여 특정 의미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다른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의 전략 중 하나인 '회피'로도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의 전략이란 학습자가 기존의 언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의사소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다(Coder, 신승용 외 옮김 2011:150). 이때 학습자는 많은 경우 '단순화(simplification)'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단순화란 자신의 언어 행위를 학습자가 자신에 맞게 단순하게 조정함으로써 의사소통적 효과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절차이다(Widdowson 1977:15). 즉 의사소통에서의 단절이나 지연, 오류 등을 방지하고자 학습자는 언어 규칙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결국 학습자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 표현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회피는 언어 사회 내에서 의사소통의 영역과 기능이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더 많은 언어 항목을 사용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117]. 이러한 동기에 관해, 슈만(Schumann 1975)에 따르면 학습자는 자신이 사용한 언어 항목의 단순한 체계로 인해 내재되는 모호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가질 때

117) 예컨대 러시아어 제이언어 학습자의 경우 관사나 복수 형태, 과거 시제 형태의 형식을 회피하여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자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느라 소통이 지연되고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Selinker 1972:220).

동기가 생긴다고 한다(Schumann 1975, 신승용 외 옮김 2011:140). 예컨대 슈만(Shumann 1974)은 제이언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 발달의 과정을 피진이 크레올로 발달하는 과정을 참조해 설명하였는데, 피진에서의 단순화는 주로 정보의 교환에만 의사소통적 목적을 집중하고 개인의 정체성이나 심리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동기는 약할 때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적이고 표현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중복성이나 의무 시제 표시, 어휘 사용 등이 더 많이 발달되었다(Schumann 1974:152). 따라서 제2언어 학습자가 더 복잡하고 확장된 언어 사용의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소통의 목적이 통합적이고 표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연속구성체에 대한 교육 내용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모어 화자가 사용한 다양한 언어 항목과 학습자의 단순화된 표현을 비교하고, 강조나 격식성에 대한 표현도 필요한 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118].

구체적으로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해서는, 기존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인 '보다, 은/는'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다양한 의미·기능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보다'나 '은/는'은 주로 '차등 비교'나 '대조'에 관한 표현에 사용되지만, 이외에도 유사성에 근거한 비교로 '-에서와 같이, -까지와 마찬가지로'와 같은 관용적 사용이 가능하고, '에서처럼, 에서만큼'과 같은 표현도 자주 쓰이는 것을 교수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자신이 쓴 문장이 정보의 전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욱 효과적인 사실 강조의 표현과 격식적인 글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다양한 언어 항목의 사용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8) 제2언어 학습의 발달 과정을 분석한 캠벨과 웨일즈(Campbell & Wales 1970)는 의사소통의 환경과 언어의 통사/의미론적 측면 또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비교'를 나타내는 통사 구문의 사용에 관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보았다. 그 결과 '비교'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받은 학습자가 단순한 선택을 요구받은 학습자에 비해 더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최상급 표현이나 형용사를 사용했다고 한다(Campbell & Wales 1970:7). 즉, 의사소통의 환경 안에 교사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때 학습자의 언어 사용도 더 다양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Ⅳ.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의 구성과 방안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육 내용에는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학습자 언어 사용상의 특징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 앞서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의 현재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 그리고 학습자 대상의 어미·조사 사전의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 요소를 살펴본다.

1. 조사연속구성체와 관련된 기존의 교육 내용 검토

1.1. 한국어 교재 분석

(1) 분석 대상 교재의 목록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수 상황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 한국어 교재는 『경희한국어』, 『연세한국어』, 『서울대한국어』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비교적 많은 교육 기관 중 최근에 교재를 개정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을 알아보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고 선택하였다.

분석 대상 교재의 세부 항목은 교재의 어휘, 문법, 읽기 부분이다. '어휘와 문법'은 그 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가 주의 깊게 학습하는 부분이며, '읽기'는 비교적 긴 길이의 문어 텍스트가 실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다양한 조사연속구성체의 항목들을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부분이다[119]. 본고에서 분석한 교재의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19) 한편 같은 문어에 속하지만 '쓰기' 항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쓰기'의 경우 읽기 지문의 내용 확인이나 문법 항목의 활용 차원에서 주로 연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학습자가 직접 채워야 하는 빈 칸이 많았다. 따라서 글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표 Ⅳ-1]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의 목록

제목	권	출판사	초판
경희한국어 문법	중급1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중급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고급1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고급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경희한국어 읽고 쓰기	중급1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중급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고급1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고급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년 3월 23일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3-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년 8월 30일
	3-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년 8월 30일
	4-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년 6월 5일
	4-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년 6월 5일
	5-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년 1월 28일
	5-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년 1월 28일
	6-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년 1월 28일
	6-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년 1월 28일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3-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년 8월 30일
	3-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년 8월 30일
	4-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년 6월 5일
	4-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년 6월 5일
	5-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년 8월 30일
	5-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년 8월 30일
연세 한국어 읽기	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0년 1월 25일
서울대한국어 Student's Book	3A	㈜ 투판즈	2015년 11월 1일
	3B	㈜ 투판즈	2015년 12월 30일
	4A	㈜ 투판즈	2015년 11월 30일
	4B	㈜ 투판즈	2015년 12월 30일
	5A	㈜ 투판즈	2012년 3월 1일
	5B	㈜ 투판즈	2012년 3월 1일
	6A	㈜ 투판즈	2015년 6월 1일
	6B	㈜ 투판즈	2015년 7월 1일

위 교재들은 모두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출판된 것으로 급수는 3급-6급이다. 위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교재이거나 '문법, 읽고 쓰기' 등으로 기능이 분리된 교재도 있다. 기능이 분리된 교재의 경우는 문어에 속하는 '읽고 쓰기, 어휘와 문법, 듣기와 읽기, 읽기'를 선택해 분석하였다[120].

120) 6급의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교재는 분석 당시 출판되지 않아 기존의 '연세 한국어 읽기 6급' 교재를 분석하였다.

(2) 조사연속구성체가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양상

한국어교재의 조사연속구성체 관련 내용 중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의 의미와 결합의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로 해설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우선 문법 항목으로 조사연속구성체가 제시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주된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특별히 해설이 되지 않았더라도 ① 주요 문법 표제 항목에 조사연속구성체가 함께 포함된 경우, ② 다른 문법 표제 항목의 해설 중 조사연속구성이 제시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두 유형에 속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전체 항목과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Ⅳ-2] 한국어 교재의 문법 표제항에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후행 조사 부류	후행 조사	조사연속구성체 개별 항목의 빈도	유형별 총 빈도
보조사1	만	뿐만2, 으로만1	3
	이든지/든지	에서든지1	1
보조사2	도	에도2, 만이라도1, 에게도2, 한테서도1, 하고도2	8
	은/는	까지는2, 보다는3, 에는3, 으로는2, 이라고는1	11
	이나/나	하고나1, 에서나1, 에게나1	3
	이야/야	까지야1, 에야3	4
전체			30

3개 언어교육기관의 교재에서 조사연속구성체는 위의 형식으로 총 30회 제시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보조사1과 보조사2 후행 유형으로 집중되었다. 즉, 기타 구조격조사나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중 후행 조사가 '은/는, 도'인 항목의 빈도가 각기 8회, 11회로 가장 많았고 이외 항목들은 모두 1회-3회의 적은 빈도로 제시되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법 항목에 조사연속구성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목록이다. 유형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 주요 문법 표제 항목에 조사연속구성체가 함께 포함된 경우, ② 다른 문법 표제 항목의 해설 중 조사연속구성이 제시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표 Ⅳ-3] 문법 표제항에 포함된 조사연속구성체의 상세 항목

유형	조사연속구성체	단계	급수	교재[121]	문법 항목
①	까지는	고급	5	서울	N(까지)는 못 돼도[아니더라도] N은/는 A/V-(으)ㄹ 줄 알았다
	까지는, 까지야	고급	6	서울	A/V-다고 할 것까지는[할 것까지야] 없다
	만이라도	중급	4	연세	만이라도
	보다는	중급	4	서울	A-다기보다는,V-ㄴ다기보다는
		고급	5	경희	동사(는/ㄴ)다기보다(는)
		고급	5	연세	-는다기보다는/ㄴ다기보다는/다기보다는
	뿐만	중급	4	경희	동사+(으)ㄹ 뿐(만) 아니라, 명사+뿐(만) 아니라
		중급	4	서울	A/V-(으)ㄹ 뿐만 아니라, N뿐만 아니라
	에는	중급	4	경희	동작동사+기에(는)
		중급	4	연세	-기에는
	에는, 에야	고급	6	서울	V -(으)ㄹ 바에는[바에야] (차라리)
	에도	고급	5	연세	에도 불구하고
		고급	6	서울	N에도 불구하고
	에야	고급	5	서울	V-(으)ㄴ 후에야 (비로소)
	에야	고급	6	연세	-을/ㄹ 바에야
	으로는	고급	5	서울	한편으로(는)
		고급	5	연세	으로는/로는
	으로만	중급	4	경희	명사+치고, 명사+치고(는)
	이라고는	고급	5	서울	N(이)라고는
②	에게도, 한테서도, 하고도	중급	3	경희	아무 명사+도
	에서든지	중급	3	서울	무엇이든(지), 무슨 N(이)든(지)
	하고나, 에서나, 에게나	중급	3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무엇이나, 무슨 N(이)나
	하고도, 에게도	중급	3	서울	아무 N도

위 표에 따르면 급별로는 고급이 14개, 중급이 16개씩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항목들이 제시된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법 해설에 표제항 전체의 의미가 제시되고 조사연속구성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즉, 해당 표제항에 조사연속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 혹은 나아가 그 항목의 의미나 구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다.

위의 예로서 ① 유형과 ② 유형의 제시 양상을 하나씩 살펴본다. ①에서 '뿐만'이 포함된 항목을 살펴보면, '뿐만'은 보조사1인 '만'이 후행하는

121) 지면 관계상 '새 연세한국어'는 '연세', '경희한국어'는 '경희', '서울대한국어'는 '서울'로 표기하였다.

항목으로, 앞서 수행한 말뭉치 분석 결과 모어 화자의 사용 빈도는 92(정규 빈도 1.65), 학습자의 사용 빈도는 34(정규 빈도 5.43)로 비교적 고빈도로 사용된 항목이다. 중급과 고급의 통합 오류율은 20.59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또한 '뿐만'은 '으로서뿐만, 으로뿐만'과 같이 3개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 확장되기도 하였으나 학습자는 이 같은 사용은 하지 않았다. '뿐만'이 교재에 제시된 예는 다음과 같다.

<A/V-(으)ㄹ 뿐만 아니라, N뿐만 아니라>

- 예문: 웃음은 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까지 한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 연습문제: 다음 광고를 보고 이곳의 좋은 점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서울대한국어 4a:53)

위와 같이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문형의 구성 원리나 개별 조사의 의미·기능보다는 전체 항목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 예시 또한 전체 예문과 연습문제의 수행을 통해 문법 표제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 표제항의 형태가 선행하는 언어 항목이 동사, 형용사, 명사인지에 따라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만이 교재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문법 표제항 전체의 의미를 각 언어 항목의 조합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선행 언어 항목의 품사에 따른 어형 변화만을 제시하는 것도 후행 언어 항목들인 '(으)ㄹ, 뿐, 만, 아니라' 각각의 조합으로 문법 표제항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모든 문형의 구성 원리에 분석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는 없겠으나, 학습자가 자주 오류를 나타내거나 주요한 통사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시적 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조사 연속구성체의 경우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에도 오류율이 단독 사용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저절로 습득되지 않는 내용이며, 따라서 별

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유형의 예로 '으로는'을 살펴보면, 이는 모어 화자의 설명문 말뭉치에서는 총 362회(정규 빈도 6.49)의 빈도를 나타낸 항목이며,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32회(정규 빈도 5.11)의 빈도를 나타냈다. 중급과 고급의 통합 오류율은 68.7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으로는/로는>

해설: 명사에 붙어서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의 의미를 나타낸다. 뒤 내용이 그 범주에서 최고임을 강조할 때 쓴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기로는'을 쓴다.

예문: 야식으로는 치킨이 제일이야. 부모님 선물로는 현금만 한 게 없지요. (연세, 어휘와 문법 5-2:106)

위에서는 '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으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선행하는 언어 항목이 명사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일 때에는 '-기로는'으로 변환되는 점도 제시하였다. 조사연속구성체의 '으로/로'와 '은/는'의 결합 관계보다는 '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그 앞에 오는 항목이 명사인가 동사인가에 따른 활용에 더 초점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물론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유용하며 필요한 것이지만, 앞선 예시와 같이 한국어교재 전체가 이 같은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선행 명사의 품사적 특성만을 고려해 조사연속구성체 전체를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선행 명사와 서술어의 관계 사이에서 연결의 기능을 하는 항목이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대로 보조사2 부류의 경우는 선행하는 언어 항목뿐 아니라 서술어와의 관계나 다른 문장과의 관계도 고려해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으로는'은 '으로/로'와 '은/는'의 결합 관계를 분리하고 변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살펴본 이러한 방식은 선행 문법 표제항의 선

행 언어 항목에 따른 후행 언어 항목의 활용 및 전체 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한 편이었으나 그 항목 자체의 원리나 의미 구조 및 변형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조사연속구성체의 유형별 분포

위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 문법 표제항으로 조사연속구성체가 포함되는 양상은 빈도로도, 내용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여러 한국어 교재에서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조사연속구성을 개별 조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응용하여 습득할 수 있는 항목으로 기대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읽기나 다른 지문 안에 조사연속구성체가 노출된 빈도와 학습자가 실제 사용한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때 교재의 빈도는 교재 전체와 교재의 설명문에 나타난 두 부분에 관해 살펴보았다.

ㄱ. 구조격조사 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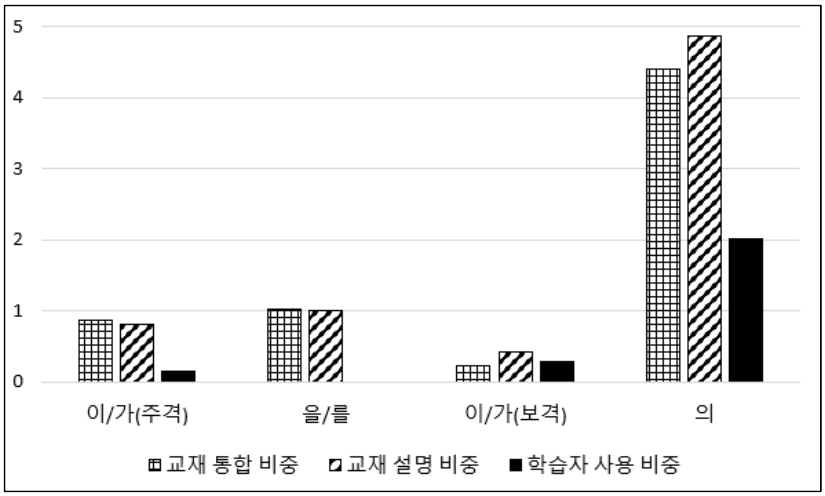
다음은 구조격조사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에 대한 교재와 학습자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122].

[표 Ⅳ-4]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구조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후행 조사	항목	교재-전체		교재-설명		학습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이/가[1]	만이	14	0.80	4	0.81	1	0.14
	으로만이	-	-	-	-	-	-
	에서만이	-	-	-	-	-	-
	까지가	-	-	-	-	-	-
	부터가	1	0.06	-	-	-	-
	전체	15	0.86	4	0.81	1	0.14
을/를	만을	18	1.03	4	0.81	-	-
	까지를	-	-	1	0.20	-	-
	전체	18	1.03	5	1.01	-	-

122) 위 표에서 '빈도'는 교재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 사용된 횟수를 의미하고 '비중'은 이것이 총 조사연속구성체의 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산출한 것이다.

이/가[2]	으로서가	-	-	-	-	-	-
	에서가	-	-	-	-	-	-
	으로가	-	-	-	-	-	-
	만이	3	0.17	2	0.41	1	0.14
	뿐만이	1	0.06	-	-	1	0.14
	뿐이	-	-	-	-	-	-
	전체	4	0.23	2	0.41	2	0.29
의	에서의	13	0.74	5	1.01	4	0.57
	으로서의	8	0.46	3	0.61	-	-
	과의(과[1])	22	1.26	3	0.61	6	0.86
	과의(과[2])	-	-	-	-	-	-
	으로의	5	0.29	3	0.61	-	-
	에의	-	-	-	-	-	-
	으로부터의	1	0.06	-	-	-	-
	으로써의	-	-	-	-	-	-
	만큼의(만큼[1])	2	0.11	-	-	-	-
	까지의	6	0.34	3	0.61	1	0.14
	만의	19	1.09	7	1.42	1	0.14
	부터의	1	0.06	-	-	1	0.14
	대로의	-	-	-	-	-	-
	마다의	-	-	-	-	1	0.14
	전체	77	4.40	24	4.87	14	2.01



[그림 Ⅳ-1]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구조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우선 표를 살펴보면 많은 항목이 교재 전체, 교재의 설명문에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자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유형은 총 27개 항목인데 이 중 12개 항목이 교재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을 학습자가 사용한 것은 '마다의' 1회가 있었다. 즉,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은 대부분 한국어 교재에도 제시된 항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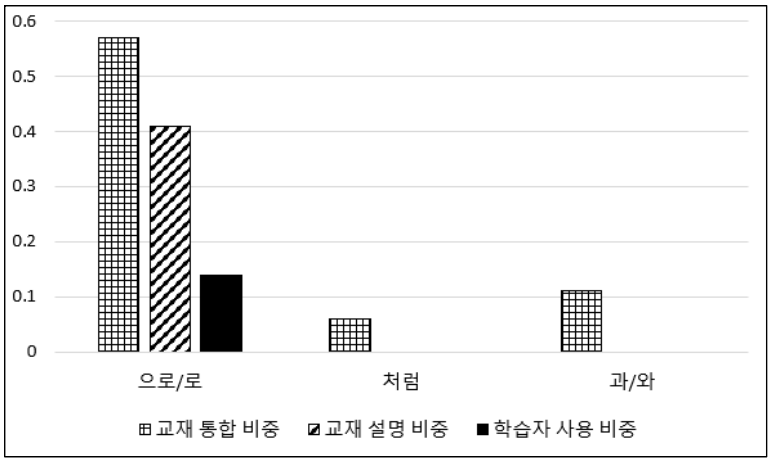
한국어교재에 출현한 항목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교재 전체와 교재의 설명문에서 조사연속구성체가 제시된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는 교재에 비해 학습자의 사용 비중이 적은 경향이 있었으나 보격조사 '이/가'의 경우는 교재와 학습자의 사용 비중이 매우 유사했다. 따라서 학습자가 교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며, 전반적으로 더 적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ㄴ. 의미격조사 후행

다음은 의미격조사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비중과 학습자의 사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Ⅳ-5]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후행 조사	항목	교재-전체		교재-설명		학습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으로/로	에게로	2	0.11	-	-	-	-
	만으로	6	0.34	2	0.41	1	0.14
	까지로	2	0.11	-	-	-	-
	전체	10	0.57	2	0.41	1	0.14
처럼	에서처럼	1	0.06	-	-	-	-
	전체	1	0.06	-	-	-	-
과/와[1]	에서와(과[1])	2	0.11	-	-	-	-
	까지와(과[1])	-	-	-	-	-	-
	전체	2	0.11	-	-	-	-
보다	에서보다	-	-	-	-	-	-
	전체	-	-	-	-	-	-
만큼	에서만큼(만큼[1])	-	-	-	-	-	-
	전체		-		-	-	-



[그림 Ⅳ-2]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또한 출현하지 않은 항목이 많았는데 총 8개의 항목 중 3개의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중 학습자가 사용한 것은 1개 항목으로 교재에 제시된 것이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구조격조사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항목 중 그 일부를 실제 텍스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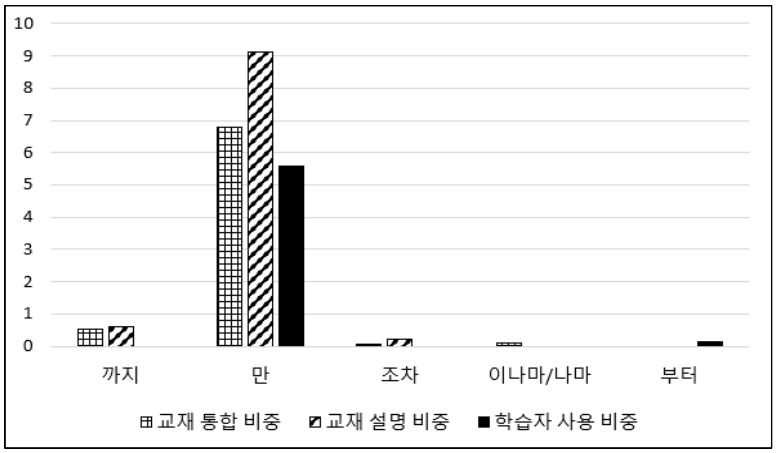
학습자가 사용한 '으로/로'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는 교재에서 10회 제시된 항목이었으며 '처럼, 과/와' 후행이 조사연속구성체는 각 1회와 2회 제시되었다. 그리고 '보다, 만큼'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는 교재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용이 없었던 이 항목들은 교재에서도 많이 출현하지 않은 항목이었다.

ㄷ. 보조사1 후행

보조사1이 한국어교재에 표현된 비중과 학습자의 사용 비중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6] 한국어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후행 조사	항목	교재 전체		교재-설명		학습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까지	에까지	7	0.40	3	0.61	-	-
	으로까지	-	0.00	-	-	-	-
	에게까지	1	0.06	-	-	-	-
	에서까지	1	0.06	-	-	-	-
	전체	9	0.51	3	0.61	-	-
만	에만	35	2.00	7	1.42	1	0.14
	으로만	24	1.37	6	1.22	2	0.29
	에서만	6	0.34	3	0.61	1	0.14
	에게만	2	0.11	3	0.61	-	-
	과만(과[1])	-	-	-	-	1	0.14
	만큼만(만큼[1])	-	-	-	-	-	-
	으로서만	-	-	-	-	-	-
	이라고만	1	0.06	1	0.20	-	-
	뿐만	44	2.52	23	4.67	34	4.88
	으로서뿐만	-	-	-	-	-	-
	으로뿐만	-	-	1	0.20	-	-
	까지만	6	0.34	1	0.20	-	-
	대로만	1	0.06	-	-	-	-
	전체	119	6.80	45	9.13	39	5.60
조차	에서조차	1	0.06	1	0.20	-	-
	전체	1	0.06	1	0.20	-	-
이나마/나마	으로나마	2	0.11	-	-	-	-
	에서나마	-	-	-	-	-	-
	전체	2	0.11	-	-	-	-
부터	에부터	-	-	-	-	1	0.14
	전체	-	-	-	-	1	0.14
요	가요	-	-	-	-	-	-
	전체	-	-	-	-	-	-



[그림 Ⅳ-3] 한국어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1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이 유형에서 조사연속구성체는 총 22개인데 이 중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8개이다. 한편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은 총 6개인데 이 중 2개를 제외하고 4개가 교재에 출현한 항목이었으므로 사용 여부에 교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의 사용 모두 '만' 후행의 사용 비중이 다른 조사연속구성체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한국어교재에 노출된 정도가 '만' 후행 유형과 같이 고빈도일 경우는 학습자 또한 특히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전적으로 교재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 조사가 그만큼 생활 속에서 접할 가능성도 높은 항목이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말뭉치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로, 교실 현장에서 수집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교재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까지, 조차'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는 교재의 빈도와 달리 학습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은 '만'과 같은 고빈도 항목에 더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ㄹ. 보조사2 후행

보조사2가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체는 항목의 개수가 많으므로 '도'와 '은/는' 후행, 그리고 '이나/나, 이야/야' 후행의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다음은 보조사2의 '도, 은/는'이 후행한 조사연속구성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비중과 학습자의 사용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Ⅳ-7]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1)

후행 조사	항목	교재-전체		교재-설명		학습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도	에도	189	10.81	41	8.32	36	5.16
	에서도	58	3.32	19	3.85	21	3.01
	으로도	40	2.29	8	1.62	6	0.86
	만으로도	4	0.23	1	0.20	-	-
	보다도	18	1.03	4	0.81	-	-
	과도(과[1])	10	0.57	4	0.81	3	0.43
	이라고도	5	0.29	1	0.20	12	1.72
	에게도	19	1.09	2	0.41	5	0.72
	서도(서[2])	2	0.11	-	-	-	-
	으로써도	-	-	-	-	-	-
	께도	2	0.11	-	-	-	-
	으로부터도	-	-	-	-	-	-
	으로서도	-	-	1	0.20	-	-
	한테도	8	0.46	-	-	1	0.14
	까지도	10	0.57	3	0.61	7	1.00
	에까지도	-	-	-	-	-	-
	에게까지도	-	-	1	0.20	-	-
	마저도	-	-	1	0.20	-	-
	밖에도	-	-	-	-	2	0.29
	조차도	-	-	-	-	-	-
	만도	1	0.06	-	-	-	-
	전체	366	20.93	86	17.44	93	13.34
은/는	에는	600	34.31	186	37.73	336	48.21
	까지에는	1	0.06	-	0.00	-	-
	에서는	224	12.81	82	16.63	153	21.95
	으로는	57	3.26	16	3.25	32	4.59
	만으로는	2	0.11	2	0.41	-	-
	과는(과[1])	15	0.86	8	1.62	2	0.29
	에서와는(과[1])	-	-	-	-	-	-
	까지와는(과[1])	-	-	-	-	-	-
	보다는	65	3.72	12	2.43	6	0.86
	에게는	50	2.86	4	0.81	3	0.43
	으로서는	5	0.29	-	-	-	-

	서는(서[2])	1	0.06	-	-	-	-
	으로써는	-	-	-	-	-	-
	이라고는	6	0.34	1	0.20	-	-
	께서는	18	1.03	-	-	4	0.57
	서는(서[1])	1	0.06	-	-	-	-
	까지는	23	1.32	1	0.20	3	0.43
	부터는	14	0.80	3	0.61	1	0.14
	만큼은(만큼[2])	1	0.06	2	0.41	1	0.14
	만은	11	0.63	1	0.20	-	-
	밖에는	-	-	-	-	-	-
	전체	1,094	62.55	318	64.50	541	77.62

‘도’와 ‘은/는’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는 총 42개인데 교재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도’ 후행 유형이 5개, ‘은/는’ 후행 유형이 4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 중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은 ‘도’ 후행 유형이 9개, ‘은/는’ 후행 유형이 11개로,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을 학습자가 사용한 경우는 ‘밖에도’ 1회뿐으로 나타났다. 즉, 우선적으로 교재에서 접한 항목을 학습자들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나/나, 이야/야’가 후행한 유형에서 교재와 학습자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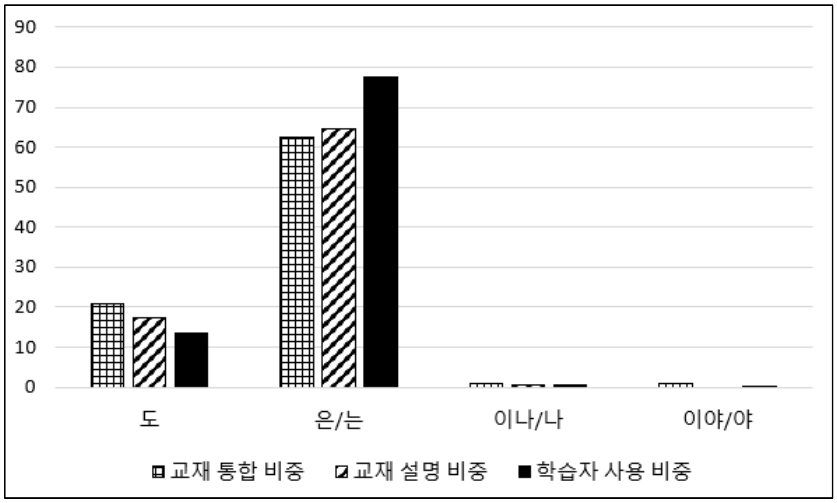
[표 Ⅳ-8]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2)

후행 조사	항목	교재-전체		교재-설명		학습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이나/나	으로나	-	-	-	-	-	-
	에서나	4	0.23	2	0.41	-	-
	에나	3	0.17	-	-	-	-
	서나(서[2])	2	0.11	-	-	-	-
	에게나	4	0.23	1	0.20	-	-
	만큼이나 (만큼[1])	-	-	-	-	1	0.14
	까지나	2	0.11	-	-	-	-
	전체	15	0.85	3	0.61	1	0.14
이야/야	에야	16	0.91	-	-	-	-
	전체	16	0.91	-	-	-	-

‘이나/나’ 후행 유형에서 분석 대상으로 추출된 항목은 총 8개였는데 이 중 교재에 제시된 항목은 6개로 비교적 많은 항목이 출현하였다. 그런데

모두 고빈도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으며, 학습자가 사용한 항목도 3개 항목뿐이었다. 또한 빈도도 낮게 사용되어 2회 이하의 빈도를 보였으며 이 중 학습자가 사용한 '만큼이나'는 교재에는 제시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앞선 구조격조사나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빈도 항목들은 교재의 영향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고빈도로 제시된 항목들이 학습자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보조사2 후행 유형의 각 유형별 총 사용 빈도를 교재 통합, 교재의 설명문, 학습자의 사용 비중으로 비교해 살펴본 것이다.



[그림 Ⅳ-4]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말뭉치: 보조사2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유형별)

'이나/나' 및 '이야/야'가 후행한 유형은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교재에 제시된 비중이 더 높았다. 이같이 빈도가 높지 않은 항목은 한국어교재에 제시된 양상이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한편, '은/는, 도'와 같이 텍스트에 고빈도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많이 사용한 항목들은 두 자료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학습자의 정확한 사용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 조사연속구성체의 오류율이 단독 구성에 비

해 약 3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을 지문에 포함해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 접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의 다양하고 적절한 사용을 이끌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같은 항목의 출현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2. 문법서 및 학습자 사전의 내용 분석

한국어수업의 내용 요소는 한국어 교재 외에도 몇 가지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료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 국립국어원(2005)는 많은 한국어 교사 및 학습자가 참조하는 문법서로 볼 수 있으며, 이희자·이종희(2006)는 특히 조사와 어미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의 형식으로 언어 항목을 해설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참조할 수 있어 중요성이 있다다. 따라서 이 두 교육 자료에 조사연속구성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설되었는지 알아본다.

(1) 한국어 문법서 검토

국립국어원(2005)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사와 어미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그에 관한 해설과 예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해당 조사가 앞서 추출한 108개 조사연속구성체에 사용된 바 있는 항목이면서 동시에 그 개별 조사에 다른 조사와의 연속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항목에서 조사연속구성체에 대한 해설을 볼 수 있었다.

- 이/가[1], 께서, 도, 부터, 뿐, 에, 으로서/로서

위 조사들의 해설상 공통점은 조사 간 결합의 원리나 작용역과 관련된 언급은 없으며, 다른 조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항목과 겹쳐 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룬 것이다. 이 중 주격조사 '이/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격조사 '이/가'>
해설: 다른 조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예문: 철수도 왔니? (O), 철수가도 왔니? (X) (국립국어원 2005:2).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위와 같이 주격조사 '이/가'가 다른 조사와 통합되어 사용되지 않는 특징을 제시해 주었다. '이/가'와 '도'의 결합은 학습자가 자주 오류를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결합이 불가함을 보여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이/가'와 '도'가 상호 결합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해설이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가'와 '도'는 모두 넓은 작용역을 공유하여 서술어 이상의 언어 항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겹쳐 사용되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조사들이다. 그리고 '이/가'와 '도' 중 의미에 대한 비중이 적은 '이/가'가 생략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2005)에는 이러한 해설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 두 항목이 결합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같은 원리의 응용이나 확장 또한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주격조사 '이/가'는 '도'와의 결합은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보조사인 '만, 부터, 까지'와의 결합 및 '에서만이, 으로만이'로의 구성은 가능하다. 따라서 결합하지 못하는 조사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결합이 가능한 조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위에서 '이/가'와 '도'의 결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므로, 추가적으로 '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해설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도>
해설: '도'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는 '이/가', '을/를'이 쓰이지 않고 '도'만 쓰인다. 그러나 '께서, 에, 에게, 와/과, 까지2' 등과는 같이 쓰일 수 있다.

예문: 너도 왔니?(O), 너가도 왔니? (X)
빵도 샀어? (O), 빵을도 샀어? (X) (국립국어원 2005:374)

국립국어원(2005)은 '도'에 관해 어떤 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가능한지 주격조사에 비해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주격조사와 유사하게 두 가지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가'와 같이 조사 간 결합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도'와 결합이 가능한 항목은 위에서 제시된 조사들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데 그러한 내용이 제외된 점이다. '도'는 설명문 말뭉치에서만 약 20개('한테도'를 포함하면 21개)의 결합 유형이 나타났으며 관용적인 표현도 많았다. 예컨대 '보다도'는 '무엇보다도'와 같은 관용적인 구성으로서 극단 제시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까지도'와 같은 경우는 '에까지도, 에게까지도'와 같은 3개 조사 연속 구성으로의 확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관용적 사용을 나타내거나 3개 조사 연속구성으로 자주 쓰이는 등의 특징적인 항목에 대한 정보만이라도 추가한다면 학습자가 다양한 쓰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학습자용 사전 검토

이희자·이종희(2006)는 학습자용 사전의 형식으로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학습용 말뭉치 등을 참조해 조사와 어미 항목에 대한 용법과 용례를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례와 참고 정보를 제시한 특징이 있다. 이 사전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모든 개별 조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그 항목의 해설에 조사연속구성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께서, 만, 보다, 부터, 에게, 으로서/로서, 의, 한테

위 항목은 총 8개이며, 조사연속구성체에 대한 내용은 특정 용법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일반적인 어순에 바탕한 통사적 구성에 대한 설명은 대표적인 것만으로 제한하고, 조사연속구성으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항목에 집중해 그 예를 소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면 '의'의 조사연속구성에 관한 해설 또한 '그 외의 용법'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의>

설명: … 5. 그 외의 용법. … 앞말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를 가지고 뒷말을 꾸미는 기능을 가짐을 나타낸다. 즉, '저자와의 대화'에서와 같이 '저자'가 조사 '와'와 결합하여 '저자와'가 되고 이것이 '의'와 결합하여 쓰인다.

예시: 행복에의 초대. 저자와의 대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이희자·이종희 2006:430)

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연속구성체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앞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뒷말을 꾸민다는 해설은 '의'가 관형격조사로서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설에는 조사연속구성체의 해석 순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즉, '저자'가 조사 '와'와 결합하여 '저자와'가 되는 해석을 먼저 한 후에 이것이 '의'와 통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사연속구성체의 해석 순서에 관해, 합성조사라면 [[저자+[와+의]]와 같은 순서로 해석되었을 것이나, 조사연속구성체는 이와 달리 [[저자+와]+의]의 순서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학습자들이 조사연속구성체를 통사적 구성으로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 '의'가 매우 다양한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

았다. 즉, '의'가 다른 조사에 후행하여 꾸미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으나 어떤 조사에 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의'는 거의 제약 없이 대부분의 의미격과 보조사에 후행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의'의 조사연속구성을 더 확장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의'의 단독 형태에 대한 정보 중에는 '입말'에서는 흔히 [에]로 발음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으나(이희자·이종희 2006:425), '의'가 문어에서 특히 다른 조사 뒤에서 잘 생략되지 않으며, 수식 관계를 형성할 때 선행 명사구가 강조되는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해설은 나와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희자·이종희(2006)에서는 개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원리나 사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특수한 용법으로 제한하여 정보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 학습자용 사전을 토대로 조사연속구성체가 교수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조사연속구성의 원리와 의미 형성의 과정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사용 빈도와 오류율과도 비례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련된 교육 내용을 구안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원리란 여러 가지 규칙들의 다발로서, 그 규칙들을 제어하는 상위의 이치이다(구본관·신명선 2011:267). 이는 규칙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어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 및 언어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그리고 모어 화자와 학습자 사용 양상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브라운(Brown 2002)은 언어 교수의 원리에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원리가 관여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세 측면 중 조사연속구성체와 관련해 언어적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 조직의 상위 요소로 제시하고자 한다.[123].

언어적 원리로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학습자의 모국어 효과, 중간 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의 요소인데 '학습자 모국어'는 결국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에 반영되는 것이며, 중간 언어 체계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두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를 제시한다[124].

중간 언어는 학습자의 언어가 목표어의 완전한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달 과정상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언어 변이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는 그 자체를 하나의 언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교육적으로 이러한 오류의 체계성을 활요하는 것은 학습자 언어의 발달을 고려할 때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해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 구안의 원리를 첫째, 문법 항목의 '형태+의미+사용' 통합적 제시, 둘째, 학습자 언어의 반영, 셋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고려한 교수법의 적용으로 과제 기반 교수의 하나인 의식고양과제를 제안하였다.

---

123) 인지적 원리는 주로 정신적, 지적인 기능들에 연관된 것이며, 정의적 원리는 학습자 자신 및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 그리고 언어와 문화 간의 정서적 연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적 원리는 언어 자체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가 복잡한 언어 체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된다(Brown, 권오량 역 2002:67-79).

124) 본 연구는 학습자 언어 체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국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앞서 한국어와 유사한 문법 체계를 나타내는 알타이 언어권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료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외 학습자의 개별 모국어 특성은 대조 분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본 연구가 보편적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 효과보다는 목표 언어 자체의 특수성이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련된 실험으로 셀린커(Selinker 1969)는 이스라엘 히브리어(Israeli Hebrew) 화자의 영어 생산에 나타나는 통사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언어 전이보다 중립적 언어 전이(neutural language transfer)의 빈도가 더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Selinker 1969:90). 즉, 이전에 부정적 언어 전이로 관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항목들이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중간 언어의 발달이 모국어와 차이가 나는 정도에 항상 비례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오류의 양상 및 목표 언어인 한국어 자체의 특수성에 더 초점을 두고 교육 내용의 원리를 구안하였다.

2.1. ‘형식, 의미, 사용’ 요소의 통합적 제시

앞서 현재 조사연속구성체와 관련해 교육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사연속구성과 관련된 결합 원리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선행 요소의 품사 정보와 전체 문법 표제항의 의미 및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문법 해설이 집중되고 있었다. 한국어 교재에서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언어 규칙의 제시는 학습자의 언어 이해를 돕는 방향이 아닌, 학습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구성상의 원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언어의 발달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본 연구의 교재 분석 결과 설명 없이 제시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의 빈도는 학습자의 사용 빈도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성취도와는 큰 관련이 없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캐롤과 스웨인(1993)의 실험에서도 학습자의 언어에는 규칙을 알았으면 나타내지 않았을 오류들이 존재하며, 이 같은 오류는 그 원인이 비록 비교적 복잡한 규칙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학습했을 때 더 높은 성취와 연결된다고 하였다(Carroll & Swain 1993: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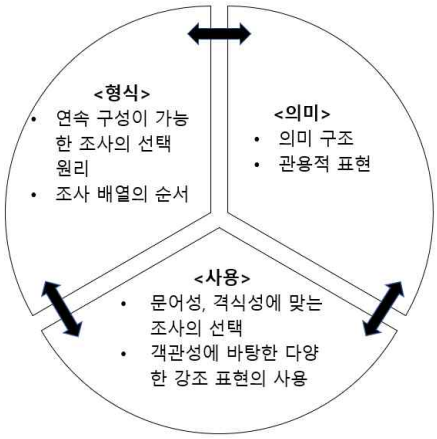
다만 문법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또한 명확히 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의 진행형을 예로 들면 ‘영어 문법에서는 상태 동사에 진행형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언어의 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칙에는 ‘진행이 나타내는 과정은 보통 변화를 동반하는데, 상태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불변성은 이 ‘변화’와 의미적으로 충돌한다’와 같이 규칙의 존재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 원리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Larsen-Freeman, 김서형 외 역 2012:82). 이 같은 언어 지식의 교육적 필요성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u>언어 지식</u>은 메시지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언어적 요소인 <u>어휘, 문법</u>, 발음 등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이러한 언어적 요소는 의

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언어 재료로 작용하게 되며 성공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이 언어 재료들이 갖는 형태적, 통사적, 음운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20:7)

언어 지식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지식의 구성 요소는 위에서 어휘와 문법, 형태와 통사, 맥락적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언어 지식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교육 내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라슨 프리만에서 문법 교수에 '형식, 의미, 사용'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것과도 유사하다. 특히 언어 교수는 어떤 실용적인 활동이 진행되든 중요한 것은 의미론적 자원으로서 언어의 내면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맥락적 조건의 구체화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통합적 문법 정보의 제시는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Widdowson 1998:712).

이를 조사연속구성체에 적용해 보면 언어의 '형태' 측면에서는 연속 구성이 가능한 조사의 선택 원리, 그리고 조사 배열의 순서에 관여되는 원리와 관련되고, '의미'는 각 조사연속구서체의 의미 구조 및 관용적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특수한 의미 유형들과 관련된다. 그리고 '사용'은 문어성/격식성에 따른 조사의 선택 및 객관성에 바탕한 다양한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의 강조 표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세 측면의 내용은 라슨 프리만(Larsen-Freeman 2004)에서 제시한 문법 교육의 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관여된다.



[그림 Ⅳ-5] 조사연속구성체의 '형식, 의미, 사용' 요소

위 그림에서 보이듯 이 세 가지 문법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배제되면 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므로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육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볼 수 있다.

2.2. 학습자 언어의 반영

학습자는 언어를 사용할 때 특정 규칙을 활용하는데, 이 규칙은 수업 시간에 배운 언어 규칙들에 비해 단순화되며 그대로 다 표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Widdowson 1977:12). 즉, 수업 시간에 교수한 내용은 학습자의 산출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내면의 언어 사용 능력을 거쳐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교사는 이 내면의 언어 체계를 수업 내용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훔볼트(Humbolts)에 따르면 교사는 진정으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학습자가 스스로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Corder 1967:169). 즉, 교사는 학습자 언어의 산출을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학습자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장치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가 이미 산출한 언어의 특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이 학습자가 산출하는 언어 고유의 체계성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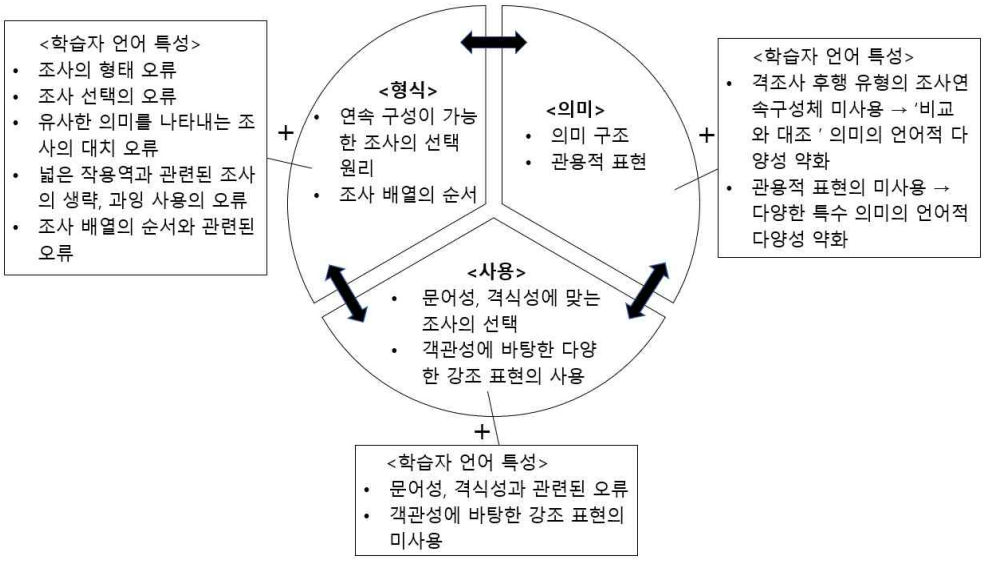
것이 중간 언어 논의이다. 중간 언어(interlagngage)는 셀린커(L. Selinker)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가 특정 목표 언어를 의도하고 발화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표현된 학습자의 언어로서 나름의 체계를 지닌 언어 변이의 한 유형이다(Selinker 1972:214). 여기서 말하는 '체계'란 제2언어를 생성하고자 할 때 활성화되는 심리적 구조로 존재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언어를 구성하는 규칙성을 말한다(Schumann 1974:146).

한편, 학습자 언어의 체계라는 것은 결국 목표 언어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므로 이를 하나의 '언어'로 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언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 변이를 이해하려는 언어 연구자의 의도의 측면에서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Stern, 심영택 외 옮김 1994:138). 즉, 학습자의 발화 중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나름의 체계성을 인정해 교육 내용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그 체계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에 중간 언어의 관점이 유용하다.

셀린커와 같이 학습자 언어의 체계성을 중시하면서도 그 발달적 체계성에 더 초점을 맞춘 Nemser(1971)에 따르면, 이러한 체계는 하나의 근접 체계(approximative systems)로도 볼 수 있다[125]. 근접 체계는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언어(target language)와 대부분 학습자의 모국어인 자원 언어(source language)의 영향을 받아 목표 언어와 다르게 사용된(deviant) 학습자의 언어 체계이다(Nemser 1971:115-116). 이는 자원 언어와 목표 언어 외에도 학습자의 경험, 의사소통 기능, 개인적 학습 특성 등의 영향을 받으며 학습의 단계별로도 특징을 나타낸다. 초기 단계에서는 음운론적, 문법적, 어휘적 범주에서 목표 언어와 차이가 발생되며 주로 제한된 수의 형식적 요소만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후기로 갈수록 재해석의 간섭, 과교정 혹은 유추 등의 양상을 나타낸다(Nemser

125) 셀린커(Selinker 1972)의 중간 언어 연구는 다양한 용어로 수행되었는데, Nemser는 근접 체계(approximative system)로 보았고, 코더(Corder)는 전이적 언어 능력(transitional competence)으로 보았다(Corder, 신승용 외 옮김 2011:116). Nemser(1971)는 학습자 언어를 자원 언어와 목표 언어 모두와 구별되는 응집성이 있는 언어 체계로 보았으며, 특히 연속적인 발달 단계의 하나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중간 언어의 관점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Schumann 1974:146).

1971:120) 조사연속구성체의 경우는 위와 같은 근접 체계의 발달에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기와 후기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관여된다. 즉 제한된 수의 조사만을 학습하는 미사용 및 생략이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외에 문장의 의미나 구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대치나 과잉, 형태, 순서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오류들은 중·고급 학습자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므로 하나의 체계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 사용의 오류 유형을 교육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살펴보았던 모어 화자의 '형식, 의미, 사용'의 틀에 학습자 언어의 사용 양상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라슨 프리만(Larsen-Freeman 2004)의 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Ⅳ-6] 조사연속구성체의 '형식, 의미, 사용' 요소 -학습자 언어 특성 통합

위에서 먼저 '형식'과 관련된 오류는 주로 조사의 형태와 선택 오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의 대치 오류, 넓은 작용역과 관련되는 조사의 생략/과잉 사용의 오류가 있었으며 조사 배열 순서에 오류도 이에 해당했다. 이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형식>

오류 유형	해당 항목	규칙성
1. 조사의 형태 오류	• 중급: 이라고도-이라도, 밖에도-밖어도, 과의-외의, 을과-을와 • 고급: 에는-엔, 에서는-에세는	• 주로 이중모음이 포함된 조사에서 하나의 음운을 생략하는 오류를 나타냄. • 고급에서는 특별한 규칙성 없이 예외적 축약이나 음운 첨가의 오류를 나타냄.
2. 조사의 선택 오류	• 이가(이^1), 이를(이^1), 이도(이^1), 을도, 은보다는	• 넓은 작용역을 나타내어 중첩이 불가능한 보조사2와 구조격조사를 중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3.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의 대치 오류	• 만이(이^1): '만'과 '은/는'의 구별 • 에서의, 에도, 에서도, 에는, 에서는: '에, 에서'의 구별 • 에게도, 에게는: '에게'에 관한 오류	• 유사한 의미 범주인 '유일'과 '대조'의 구분에서 오류를 나타냄. • '에, 에서'의 장소 표현의 구분에서 오류를 나타냄. • 유정성의 표현에 결합해야 하는 조사의 선택에서 오류를 나타냄.
4. 넓은 작용역과 관련된 조사의 생략과 과잉 사용의 오류	• 만이(이^1): '이/가^1'의 생략 오류 • 만이(이^2), 뿐만이(이^2): '이/가^2'의 생략 오류 • 에서의, 과의, 부터의: '의'의 생략 오류 혹은 조사연속구성 전체의 생략 오류 • 만으로: '으로/로'의 생략 오류 • 에도, 에서도, 으로도, 과도(과^1), 이라고도, 에게도, 까지도, 밖에도: '도'의 생략이나 과잉 사용의 오류 • 에는, 에서는, 으로는, 과는(과^1), 보다는, 께서는, 까지는, 부터는, 만큼은(만큼^2): '은/는'의 생략이나 과잉 사용의 오류 • 까지나: '이나/나'의 생략 오류 • 에야: '이야/야'의 생략 오류	• 공통적으로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가 후행하는 경우 이 조사들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음. • 공통적으로 보조사2는 생략 및 과잉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5. 조사 배열의 순서와 관련된 오류	• 을과(과^1), 을과(과^2), 을뿐만, 이하고(이^1), 이한테(이^1), 이와(이^{1}와^2), 이보다(이^1), 이처럼(이^1), 이마다(이^1), 이까지(이^1), 의와, 은처럼	• 공통적으로 모두 구조격조사와 보조사2가 최소한 하나 이상 포함되며, 배열의 순서뿐 아니라 과잉 사용의

		오류를 겸하여 나타냄.

다음으로 '의미'의 측면에서 학습자는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를 미사용하여 비교 표현의 다양성이 약화된 바 있으며, 다양한 관용적 사용을 통한 의미 유형도 문장에 많이 표현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를 학습자 언어의 규칙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오류 유형	해당 항목	규칙성
1. 비교·대조 표현의 제한적 사용	•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미사용 → 표현의 다양성 약화 • '보다, 은/는'의 사용을 비교 표현이 집중됨.
2. 관용적인 표현에 대한 오류와 미사용	• 부정적 서술어, 유사성을 나타내는 서술어, 확장성의 서술어가 주로 결합하는 유형 • 선행 명사가 의문사로 제한되는 유형 • 기타 선행 명사의 중복 형태나 전체 반복형, 특정 어휘와의 결합형	• 미사용과 오류 → 표현의 다양성 약화

마지막으로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습자가 주로 문어석/격식성 및 구조격조사 후행 조사연속구성체의 미사용으로 객관성에 바탕한 강조 표현을 미사용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

오류 유형	해당 항목	규칙성
1. 문어성과 격식성에 관한 오류	• 한테도 → 에게도, 이하고 → 과는, 하고도 → 과도, 께서는 → 는, • 엔 → 에서는	• 주로 구어적 표현의 사용으로 인한 문어성과 격식성의 약화
2. 강조 표현의 미사용	• 구조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	• 미사용 → 표현의 다양성 약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학습자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상의 특징

및 규칙성을 '형식, 의미, 사용'의 측면에서 정리한 것으로, 이는 중간 언어의 관점에서 교육의 내용 요소로 포함하여 학습자 언어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3.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고려한 교수법의 적용

(1) 과제 기반 교수 - 의식고양과제

'교수'란 '지도, 연구에 대한 시사, 지식 제공, 알게 하거나 이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학습을 용이하게 하며, 학습자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해 주는 일이다(Brown, 이흥수 외 역 2007:8).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국어의 '형식, 의미, 사용'의 측면의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면, 이것은 적절한 교수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학습자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조사연속구성체는 개별 조사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것을 실제 맥락에서 적절히 연속적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며, 이것이 교재의 노출을 통해 자연적으로 습득되지 못한 지금까지의 양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제 기반 교수의 한 기법인 의식고양과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의식고양과제(consciousness raising task)는 형태 초점 접근법(Focus on Form) 중 과제 기반 교수에 사용되는 한 기법으로 볼 수 있다[126]. 이는 주로 언어의 여러 형태, 즉 논항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Williams & Evans 1998:140). 특히 한국어는 형태가 매우 분화되어 있는 언어이므로 문법 교육에서는 그간 개별 형태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주목을 받아 왔는다(우형식 2022:101). 조사 또한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 중 하나이므로 의식고양과제는 이러한 형태에 학습자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다.

---

126) 형태 초점 교수법은 의사소통 과제 중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언어 형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문법적 정확성의 향상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교수법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2014:971). 따라서 이는 조사연속구성체와 같은 문법 항목의 원리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용 능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도입하기에 적절한 교수법으로 본다.

특히 의식고양과제가 속한 과제 기반 교수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를 실제적 정보의 교환과 같은 의미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험을 하나의 과제로서 제시한다(Fotos & Ellis 1991:605). 그리고 그 절차의 마지막에서 항상 명시적인 언어 규칙 설명의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순수하게 의사소통적 과제를 하는 경우보다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의 구조에 더 주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Larsen-Freeman, 김서형 외 역 2012:141). 문법적 성격을 갖는 조사의 교수에는 이러한 교수법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문법을 명시적으로 교수해야 한다는 논의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크라센(Krashen, 1985)에 따르면 문법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같은 입력이 'i+1'의 단계로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정서적 필터가 낮아져 제2언어가 저절로 습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Krashen 1985:4). 그러나 화이트(White)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정서적 장벽뿐만이 아니며, 또한 문법 형태 항목의 학습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저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White 1987:108).

본 연구 또한 조사연속구성의 경우 이와 같은 문법 설명이 필요한 항목으로 본다. 고급 수준에서는 개별 조사의 학습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사용하는 용법에서 오류를 많이 나타내었고,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자주 접한 항목들도 사용의 빈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오류율의 개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적절한 입력만으로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을 이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의식고양과제는 문법 항목에 대한 명시적인 해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학습자가 우선적으로 특정한 과업 활동 안에서 의미를 바탕으로 그 항목의 사용을 시도해 보도록 하므로, 무의미한 문법 규칙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 의사소통적 능력의 향상에 더 효과적이다. 즉, 과제 기반 교수는 그 속성이 목표 언어 안에서 학습자가 상호작용하거나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일을 포함하여 의미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므로(Nunan 1989:10) 문법 지식을 표현 가능한 지식으로 활용하는 데에 효

과적이다. 의식고양과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제'의 한 유형이며 따라서 다음의 '과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목표한 언어 항목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1) 우선적인 초점은 '의미'에 있어야 한다.
2) 어떤 종류의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3) 활동을 완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그 자신의 자원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
4) 언어 사용을 통해 달성할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Ellis 2012:198)

1)은 문법 항목 역시 유의미한 상황 맥락에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는 정보의 전달, 의견의 표현 혹은 의미의 추론과 같은 정보적 차이를 메우는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3)은 학습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 언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4)는 언어 자체를 결과물로서 획득하도록 한다면 활동의 맥락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명확한 결과물이 요구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127].

이 같은 과제 기반 교수는 실제적으로 듣기, 배열하고 분류하기, 비교하기, 문제-해결하기,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기, 창의적 과업 수행하기 등으로 많이 수행된다(Ellis & Shintani 2013:137). 의식고양과제는 이 중 주로 '비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인식→비교→통합'의 세부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

127) 과거의 문법 번역식 교수는 문법 형태의 규칙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설명의 명시성이 매우 높은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결점은 언어의 규칙에 관련된 맥락을 간과하고 암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 학습자의 언어 지식을 의사소통적 능력으로 전이시키지 못한 것이었다(Smith 1981:162). 따라서 의식고양과제는 적절한 수준의 명시적 설명에 앞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문법 항목이 사용되는 맥락을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인식’은 학습자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언어의 특징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고, ‘비교’는 그러한 언어적 특징이 학습자 내면의 문법 지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은 새롭게 알게 된 언어 항목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Ellis 2002:171). 따라서 조사연속구성체의 교육 내용은 ‘인식, 비교, 통합’의 절차 안에서 의사소통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과제’의 형태로 제시하여 이를 통해 그동안 학습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 특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조사연속구성체 교육의 실제

Ellis(2002)에서 의식고양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for, since’의 구별에 관련된 문제-해결 활동(Ellis 2002:173)>

1. 다음은 세 사람이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기 시작한 연도, 그리고 현재까지 몇 년의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인지에 관한 정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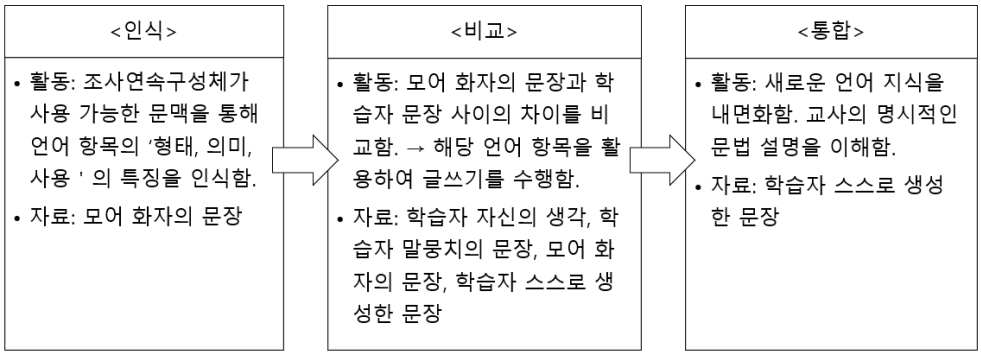
이름	들어온 연도	일한 기간
Ms Regan	1945	45년
Mr Bush	1970	20년
Ms Thatcher	1989	9달
Mr Baker	1990(2월)	10일

2. 이 사람들에 대한 다음의 문장을 읽고 언제 'for'을 사용하고 언제 'since'를 사용해야 하는지 찾아 보십시오.
3. 다음 문장 중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개의 보기 문장이 제시됨.)
4. 'for'과 'since'가 사용될 때 어떠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보충해 보십시오. (4개의 보기 문장이 제시됨.)
5. 당신이 영어를 얼마나 공부했고,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문장을 'for, since'를 사용해 써 보십시오.

위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학습자들은 기간을 나타내는 ‘for, since’에 대한 의미를 표를 통해 인식하고 유추한다. 그리고 2-4는 ‘비교’에 해당하

는 활동으로 ‘선택하기, 비문법적인 문장 찾기’의 활동 및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진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for, since’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5에서는 직접 ‘for, since’를 사용해 봄으로써 이 지식을 학습자 자신의 소통 도구로 사용해 보는 활동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전반적인 절차를 따르나 조사연속구성체의 경우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학습자가 비문을 판정하는 절차에서 다른 학습자의 문장을 사용한다. 이때 문장의 선택은 최대한 규칙적인 성격의 오류가 나타난 것을 선택하여 중간 언어를 언어 교수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같은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과의 비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비교 단계에서 과업을 수행한 후 교사는 목표 언어 항목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제시한다. 즉, 이 단계에서 조사연속구성체의 형식, 의미, 사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지난 절차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조사연속구성체에 관한 문법적 지식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7] 의식고양과제를 활용한 교수 절차

위 그림의 ‘인식’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전체 문장 안에서 목표 언어 항목의 사용을 인식한다. 그리고 ‘비교’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 지식과 목표 언어 항목의 쓰임 간의 차이 및 다른 학습자의 오류문에서 나타난 언어 사용상의 특성을 비교하여 오류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정

보를 바탕으로 조사연속구성체 언어 항목의 사용을 통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통합’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언어 항목에 대한 명시적인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언어 지식에 통합한다. 위 단계별 교수의 실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인식

‘인식’은 학습자가 조사연속구성체에 대한 의미 구조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목표는 언어 항목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받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글쓰기의 순서가 ‘의도 → 언어 항목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절차	내용
① 텍스트 제시	텍스트: 한과류는 일명 ‘조과(제조한 과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생과(생과일)와 비교하여 생긴 말이다. 이는 대체로 단맛이 강하며, 과거(　　) 특별식으로서 귀한 음식으로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 여러 종류의 후식류 및 과자류의 발달로 인하여 제조 및 이용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BTHO0396 수정)
② 형식, 의미, 사용 정보 인식	<질문> 1)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 표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까? 3) 위 글의 텍스트 유형은 ‘주장하기, 명령하기, 정보 전달하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4) 위 글은 격식적/비격식적 중 어떤 성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까? <대답> 1) 에는 2) 처소+대조 3) 설명문 4) 격식적

우선 ①에서는 ‘에는’의 ‘처소+대조’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는 맥락을 택했다. 그리고 ‘설명문, 격식체’의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짧은 단락 단위로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②에서는 ‘형식, 의미, 사용’의 측

면에서 학습자가 '에는'을 둘러싼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질문하여 스스로의 언어 지식을 인식해 보도록 하였다.

ㄴ. 비교

다음으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텍스트를 통해 모어 화자 사용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자주 나타내는 오류를 직접 수정하고 접해 봄으로써 '에는' 다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자신의 사용 양상과 비교한다. 다음으로 '에는'을 활용한 글쓰기가 포함된 과제를 수행한다.

절차	내용
① 앞에서 수행한 '인식'과 관련된 '비교' 활동	<질문> (1) 괄호 안에 어떤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방금 제시된 '에는'에 대한 설명 중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② 다른 학습자의 오류문을 활용한 '비교' 활동	<다른 학습자의 오류문> (1) 옛날**에는** 주택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급, 11774 수정-적절한 문장) (2) 한국**에는** 결혼식을 보통 웨딩홀에서 하는 반면에 싱가폴**에는** 보통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한다. (고급, 3093 수정-오류가 포함된 문장) <질문> 1) '(1)-(2)'의 밑줄 친 '에는' 중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 같습니까? 2)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 1) '(1)'의 '에는'은 적절히 사용되었습니다. '시간+대조'의 의미가 잘 반영되었습니다. 2) '(2)'는 '에서는'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소'에도 '에'가 결합할 수는 있지만 서술어가 '결혼하다'와 같은 동사일 때는 '에서'가 필요합니다. '에'는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특히 '있다'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② 과제 수행	(1) '에는'을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음식과 대조하거나 비교해 설명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2) 옆 친구에게 자신이 쓴 글을 주고 그 친구도 설명한 음식에 흥미가 생기는지, 이것을 요리하거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①은 앞서 인식한 모어 화자의 '에는'에 관한 '형식, 의미, 사용' 정보를 학습자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비교해 보는 대화를 나누는 절차이다.

②는 다른 학습자의 문장에서 규칙성을 보인 오류 항목을 제시하여 '에'와 '에서' 간의 구별 및 '은/는'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활동이다. 이는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뿐 아니라 다른 학습자의 중간 언어에 나타난 규칙성을 토대로 자신의 언어 지식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에는'을 사용하여 글쓰기를 수행한 후 이를 옆 친구와 교환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음식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공감했는지, 실제로 요리하거나 구매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포함시킨 이유는 글쓰기 자체로서 활동이 끝날 경우 그에 대한 실제적 동기가 약해질 수 있어 과제 기반 교수에서 제시하는 과제의 실제성 조건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활동 자체가 과제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언어 자료를 수단으로 실제적 결과물을 내게 하는 활동으로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ㄷ. 통합

통합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가 자신의 내적 지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에는'에 관한 '형태형식, 의미, 사용'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한다.

절차	내용
통합	1) '에는'의 '형식, 의미, 사용'에 관한 특징을 교사로부터 듣는다. 2) 지금까지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의 '에는'과 교사로부터 들은 문법적 특징을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깨닫는다.

위와 같이 교사의 명시적 설명으로 새로운 언어 지식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한 '에는'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에는'과 관련해 '형태'의 측면에서는 각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의 선택 및 배열의 원리를 설명하고 '의미'의 측면에서는 각 조사의 의미로부터 통합되는 의미 구조, 그리고 '사용'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접한 텍스트들이 설명문의 한 유형으로서 전형적 문어, 격식적 텍스트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다시 한번 글쓰기를 수행하며 언어 지식을 내면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연속구성체의 사용 양상을 모어 화자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분석한 후 교육 내용의 요소를 추출하고 그 구성을 위한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조사연속구성체는 오류율이 비교적 높은 언어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개별 조사 항목의 학습 내용만을 제공하고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원리나 의미 구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와 의미 및 다양한 사용상의 특성을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설명문 말뭉치이다. 이로써 모어 화자의 언어 자료와 학습자 자료의 맥락 특성을 일정 정도로 일치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설명문은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 논리성과 객관성이 높아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 유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순서는 주로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보조사2/구조격조사'로 이루어졌고, 이 중 보조사1에 속하는 '까지, 만'은 어휘적 속성을 가져 예외적으로 간혹 의미격조사에 선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의 연속 구성에 적용되는 주요 원리는 후치사적 어순에 바탕한 작용역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추출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들을 대상으로 가장 후행하는 조사가 더 다양한 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따라 '구조격조사 후행, 의미격조사 후행, 보조사1 후행, 보조사2 후행'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말뭉치 분석에서 나타난 다양한 여러 언어 사용상의 특징들은 조사연속구성체를 의사소통 능력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적 문법 교수를 위해 '형식, 의미, 사용'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형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조사의 선택 원리, 조사 배열의 순서 특징을 살펴보았고, '의미'에 관해서는 의미 구조와 관용적 사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용'과 관련해서는 문어성/격식성이 조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에서는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 후행의 조사연속구성체를 미사용한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보조사1과 보조사2 후행 유형에서는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종류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었지만 모어 화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항목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오류율도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조사연속구성체 사용 양상을 모어 화자가 사용한 조사연속구성체의 '형식, 의미, 사용'의 특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로 다음의 특징을 나타냈다. '형식'에 관해서는 조사의 형태 오류, 선택 오류, 유사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간의 대치 오류, 넓은 작용역과 관련된 조사의 생략/과잉 사용의 오류, 조사 배열 순서의 오류를 나타냈다. '의미'의 측면에서는 의미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및 모어 화자의 사용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관용적 표현의 미사용으로, 언어 표현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용'의 측면에서는 문어성/격식성에 따라 조사의 선택이 달라지는 항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구조격조사 후행 유형의 조사연속구성체 미사용으로 설명문의 객관성에 바탕한 강조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와 관련되는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조사연속구성체의 형태·의미·통사적 특성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셋째, 이 같은 내용은 조사연속구성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수 원리에 바탕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수법으로는 의식고양과제의 교수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에 적용되는 언어 규칙도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사연속구성체의 결합 원리 및 의미 구조와 맥락적 특성을 실제성 있는 말뭉치 자료로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조사연속구성체의 결

합 원리가 학습자의 언어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 내용 요소의 급별 위계화는 하지 못했고, 설명문으로 자료를 제한하여 이외 텍스트 유형에 사용되는 더 다양한 조사연속구성체 항목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한국어 교재>

경희한국어 문법 중급1(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경희한국어 문법 중급2(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경희한국어 문법 고급1(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경희한국어 문법 고급2(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경희한국어 읽고 쓰기 중급1(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경희한국어 읽고 쓰기 중급2(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경희한국어 읽고 쓰기 고급1(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경희한국어 읽고 쓰기 고급2(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3-1(2019),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3-2(2019),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2020),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2(2020),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5-1(202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5-2(202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6-1(202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6-2(202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 한국어 읽기 6(2010),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3A(2015), (주)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3B(2015), (주)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4A(2015), (주)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4B(2015), (주)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5A(2012), (주)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5B(2012), (주)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6A(2015), (주)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6B(2015), (주) 투판즈.

<참고 논문 및 저서>

강현화 외(2015), 201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기초 연구 및 구축 사업, 국립국어원.

고광모(2021), 존칭 주격조사 '-께서'의 형성: 의미적 혼태의 한 사례, 언어학 90,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55-177.

고석주(2000), 한국어 조사의 연구, '-가'와 '-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석주(2002),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 오류의 특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43-570.

고영근(1989), 『國語形態論 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근·구본관(2008, 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외 공저(2016), 『한국어문법총론Ⅱ』, 집문당.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297.

구본관·황화상(2018), 표준 국어 문법 형태론 분야의 특징과 활용, 언어와 정보 사회 3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97-425.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2』, 커뮤니케이션북스.

권재일(1987), 강조법과 그 실현 방법, 인문과학논총 19, 建國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57-73.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김광해(1981), {-의} 의 意味,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1987), {의} 의 意味 機能, 언어 12-2, 한국언어학회, 248-260.

김보현·양명희(2019),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구조 발달 연구-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설명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3-47.

김봉순(1995), '텍스트 구조 표지'의 독해에서의 기능, 國語敎育學硏究 5-1, 국어교육학회, 75-97.

김봉순(1999), 설명적 텍스트의 중심내용 분석 원리, 國語敎育學硏究 9-1, 국어교육학회, 141-170.

김상대(1992), 국어의 후치적 특성에 대하여, 인문논총 3-1,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30.
김상대(1993), 복합조사에 대하여, 인문논총 4-1,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28.
김수진(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설명' 개념과 양상 분석을 통한 설명 교육의 방향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73-693.
김승곤(2018), 『국어조사연구』, 글모아출판.
김영희(1999), 보족어와 격 표시, 한글 244, 한글, 75-109.
김재욱(2001), 한국어교육에서의 조사의 상호결합규칙, 우리어문연구 17, 우리어문학회, 77-92.
김중섭(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김진형(2000), 조사연속구성과 합성조사에 대하여, 형태론 2-1, 형태론, 59-72.
김진호(2000), 『국어 특수조사의 통사·의미 연구』, 도서출판 역락.
김호정(2006), 한국어 교육 문법의 시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호정(2012), 중국어권 한국 유학생의 조사 중첩 습득 양상 연구, 국어교육 137, 한국어교육학회, 381-416.
남승호(2006),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남기심(1990), 토씨 '와/과'의 쓰임에 대하여, 동방학지 6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1-239.
동양효(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정수(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437-47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박성현·조신·김성수(2004), 『한글 SPSS』, 한나래.
박양규(1971), 國語의 處格에 대한 硏究: 統合上의 特徵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양규(1975), 尊稱體言의 統辭論的 特徵, 진단학보 40, 진단학회, 80-10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편(2014), 『한국어교육학사전』, 도서출판 하우.
서정목(1984), 후치사 '-서'의 의미에 대하여 -'名詞句 構成의 경우', 언어 9-1, 한국언어학회, 155-186.
성광수(1978), 국어 격조사에 대한 자질 검토-격문법론적 관점에서, 關東語文學 1, 관동대학 관동어문학회, 43-66.
성광수(1999), 『격표현과 조사의 의미』, 월인.
성기철(1994), 격조사 '-를' 의 의미, 한국어 교육 5-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50.
성기철(1994), 주격조사 '-가'의 의미, 先淸語文 2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77-302.
안명철(1985), 보조조사(補助助詞) '-서'의 의미, 국어학 14, 국어학회, 478-506.
안주호(2011), {만큼}의 문법적 특성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78, Korean Language & Literature, 39-63.
양세희(2014), 국어의 조사 교육에 대한 연구-담화 문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태영(2010), 설명텍스트의 표지와 텍스트구조 분석, 한국어의미학 31, 한국어의미학회, 109-142.
유하라(2005), 현대국어 조사의 배열 양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경숙(2004), '만큼' 비교구문과 '처럼' 비교구문의 이질성,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197-221.
왕단단(202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연속구성 교육내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형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99-128.
유경화(2015), 『한국어 복합 조사 연구』, 역락.
유구상(1970), 주격 '께서' 고 (攷), 새국어교육 14, 한국국어교육학회, 95-114.
윤재원(1989), 『국어 보조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형설출판사.
이규호(2007), 『한국어 복합조사』, 한국학술정보.
李南淳(1996), 특수조사의 통사기능,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217-235.
李南淳(1983), 樣式의 '에'와 素材의 '에서', 관악어문연구 8-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21-355.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선희(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조사 {를}과 논항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승연(201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연속체 사용 연구: 초급 학습자의 구어 발화 분석을 바탕으로, 동악어문학 79, 동악어문학회, 271-305.
이승연(2021), 중급 한국어 학습자 발화의 조사 연속 구성 연구, 이중언어학 85, 이중언어학회, 187-215.
이익섭(2010),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 국어학, 397-424.
이정현(202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 연구-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학습자 문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國際言語文學 49, 국제언어문학회, 193-219.
이정훈(2005), 국어 조사의 인허조건과 통합관계, 언어 30-1, 한국언어학회, 173-193.
이정훈(2008),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구조』, 태학사.

이희자·이종희(2006),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119-154.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국어학회, 335-373.
임동훈(2017),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국어학 82, 국어학회, 101-125.
임성규(1989), 강조법의 문법적 위상과 변별 기준, 한글 206, 한글학회, 115-140.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은숙(2015),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언어권별 어순 오류, 語文學 127, 한국어문학회, 81-111.
채완(1976), 조사(助詞)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93-113.
최재웅(1996), 「-만」의 작용역 중의성, 언어 21-1, 한국언어학회, 673-692.
최현배(1935), 『우리말본』, 정음사.
한송화(2016),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사 '은/는'의 사용 양상과 오류 연구-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70, 한국문학언어학회, 111-151.
한용운(2004), 조사연속구성(助詞連續構成)과 복합조사(複合助詞), 어문연구(語文硏究)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5-169.
한용운(2005), 形態素 '서'의 獨立 助詞 設定 問題, 어문연구 3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28.
한윤정(201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결합 변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정한(2012), 조사 '의'와 특정성, 한민족문화연구 40, 한민족문화학회, 39-72.
한정한(2015), 국어의 목적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유형론의 관점, 서술어의 타동성에 의한 목적어의 정의-, 한국어학 68, 한국어학

회, 271-305.
허웅(1975), 『우리 옛 말본』, 샘문화사.
홍기선(2017), 한국어의 조사 '가'와 '를': 격과 의미, 언어 42-4, 한국언어학회, 961-988.
홍사만(2002),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황미향(2002), 조사 '-도'의 텍스트 형성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 21, 언어과학회, 223-236.
황종배·안희돈·한정임·임인재·홍진주·심창용(2007),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중첩 습득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외국어교육) 14-4, 한국외국어교육학회, 391-416.
황화상(2003),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국어학 42, 국어학회, 115-140.
황화상(2012), 『국어 조사의 문법』, 지식과교양.
Batstone, R. (1994),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김지홍 뒤침(2003), 『문법』, 범문사.
Biber, D., & Conrad, S. (2019), *Register, genre, and 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ake, B. (2001),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inker, K. (2005), *Linguistische textanalyse,* E. Schmidt, 이성만 역(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이홍수·박주경·이병민·이소영·최연희·차경환·이성희 공역(2007),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Brown, H. D. (2000),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earson Education Korea, 권오량·김영숙·한문섭 공역(2002),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Bybee, J.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 Benjamins, 이성하·구현정 옮김(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Campbell, R., & Wales, R. (1970), The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New horizons in linguistics,* 1, 242-260.

Carroll, S., & Swain, M. (1993), Explicit and implicit negative feedback: An empirical study of the learning of linguistic generalization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5(3), 357-386.

Corder, S. 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5(4), 161-170.

Corder, S. P.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 신승용·김지민·이순영 옮김(2011),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도서출판 박이정.

Dickerson, L. J. (1975), The learner's interlanguage as a system of variable rules, *TESOL quarterly*, 9(4), 401-407.

Dressler, W., & Beaugrande, R. D. (1972),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Max Niemeyer Verlag, 김태옥·이현호 공역(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Ellis, R. (1997),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박경자·장미경·오은진 역(2001), 『제 2언어 습득』, 박이정.

Ellis, R. (2002), Grammar teaching: Practice or consciousness-raising,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167-174.

Ellis, R. (2012), *Language teaching research & language pedagogy,* Wiley-Blackwell.

Ellis, R., & Shintani, N. (2013), *Exploring language pedagogy throug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Routledge.

Fotos, S., & Ellis, R. (1991), Communicating about grammar: A task 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25(4), 605-628.

Gass, S. M., & Selinker, L. (19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Lawrence Erlhaum Ass.

Halliday, M. A. K., Matthiessen, C. M., Halliday, M., & Matthiessen, C.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Herbert, W., Seliger, H. W., Shohamy, E. G., & Shohamy, E. (1989), *Second language research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김지영 옮김(2002), 『제2언어 연구방법론』, 민지사.

Hock, H. H. (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Housen, A., & Kuiken, F. (2009), 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30(4), 461-473.

Kennedy, C. (1997), *Projecting the Adjectiv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Gradability and Comparis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Knapp, P., & Watkins, M. (2005),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unsw Press, 주세형·김은성·남가영 옮김(2009), 『장르, 텍스트, 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Krashen, S. D.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Addison-Wesley Longman Limited.

Kübler, N. (2002), Linguistic concerns in teaching with language corpora, In *Teaching and Learning by Doing Corpus Analysis,* Brill, 193-202.

Larsen-Freeman, D. (2004),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Heinle & Heinle, 김서형·이혜숙·Miny Kim 역(2012), 『언어 교수: 문법에서 문법 사용하기로』, 도서출판 지

식과교양.

Lyons, J. (1977), *Semantics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yer, B. J., & Freedle, R. O. (1984), Effects of discourse type on recal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1), 121-143.

Mindt, D. (2002). A corpus-based grammar for ELT, In *Teaching and Learning by Doing Corpus Analysis,* Brill, 91-104.

Nemser, W. (1971),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RAL: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9(2), 115.

Nunan, 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C., & Rodgers, T. S. (2002),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전병만·윤만근·오준일·김영태 옮김(2003), 『외국어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Cambridge.

Schumann, J. H. (1974), The implications of interlanguage,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for the study of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8(2), 145-152.

Selinker, L. (1969), Language transfer, *General linguistics*, 9(2), 67-92.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0(3), 209-231.

Smith, M. S. (1981), Consciousness-raising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1, *Applied linguistics*, 2(2), 159-168.

Stern, H. H. (1984),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심영택·위호정·김봉순 옮김(1995), 『언어교수의 기본개념』, 도서출판 하우.

van Dijk, T. A.(1981), *Textwissenschaft: Eine interdisziplinäre Einführung,* Deutscher Taschenbuch-Verlag, 정시호 옮김(1995), 『텍스트학』, 민음사.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White, L. (1987), Against comprehensible input: The input hypothesis and the development of second-language Competence1, *Applied linguistics*, 8(2), 95-110.

Widdowson, H. G. (1978), The significance of simplifica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1), 11-20.

Williams, J., & Evans, J. (1998), What kind of focus and on which forms?, In (eds.) Doughty, C. & Williams, J. (1998),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고 누리집>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https://kcorpus.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부록]

1.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의 조사연속구성체 빈도, 정규 빈도

후행 조사	항목		모어 화자(설명문)		중급			고급		
			원빈도	정규 빈도	원빈도	정규 빈도	오류율	원빈도	정규 빈도	오류율
구조격: 이/가(주격)	1	만이	67	1.2	1	0.37	100	-	-	-
	2	으로만이	1	0.02	-	-	-	-	-	-
	3	에서만이	1	0.02	-	-	-	-	-	-
	4	까지가	1	0.02	-	-	-	-	-	-
	5	부터가	1	0.02	-	-	-	-	-	-
구조격: 을/를	6	만을	77	1.38	-	-	-	-	-	-
	7	까지를	1	0.02	-	-	-	-	-	-
구조격: 이/가(보격)	8	으로서가	2	0.04	-	-	-	-	-	-
	9	에서가	1	0.02	-	-	-	-	-	-
	10	으로가	1	0.02	-	-	-	-	-	-
	11	만이	12	0.22	-	-	-	1	0.28	100
	12	뿐만이	1	0.02	1	0.37	100	-	-	-
	13	에서만이	1	0.02	-	-	-	-	-	-
	14	뿐이	1	0.02	-	-	-	-	-	-
구조격: 의	15	에서의	142	2.55	2	0.73	100	2	0.57	100
	16	으로서의	109	1.96	-	-	-	-	-	-
	17	과의	89	1.6	2	0.73	50	4	1.13	50
	18	과의	1	0.02	-	-	-	-	-	-
	19	으로의	33	0.59	-	-	-	-	-	-
	20	에의	8	0.14	-	-	-	-	-	-
	21	으로부터의	6	0.11	-	-	-	-	-	-
	22	으로써의	2	0.04	-	-	-	-	-	-
	23	만큼의	1	0.02	-	-	-	-	-	-
	24	까지의	58	1.04	1	0.37	0	-	-	-
	25	만의	5	0.09	-	-	-	1	0.28	0
	26	부터의	2	0.04	-	-	-	1	0.28	100
	27	대로의	3	0.05	-	-	-	-	-	-
	28	마다의	2	0.04	1	0.37	0	-	-	-
의미격: 으로/로	29	에게로	3	0.05	-	-	-	-	-	-
	30	만으로	20	0.36	-	-	-	1	0.28	100
	31	까지로	3	0.05	-	-	-	-	-	-
의미격: 처럼	32	에서처럼	27	0.48	-	-	-	-	-	-
의미격: 과/와	33	에서와	18	0.32	-	-	-	-	-	-
	34	까지와	1	0.02	-	-	-	-	-	-

의미격: 보다	35	에서보다	3	0.05	-	-	-	-	-	-
의미격: 만큼	36	에서만큼	1	0.02	-	-	-	-	-	-
보조사1: 까지	37	에까지	25	0.45	-	-	-	-	-	-
	38	으로까지	8	0.14	-	-	-	-	-	-
	39	에게까지	1	0.02	-	-	-	-	-	-
	40	에서까지	1	0.02	-	-	-	-	-	-
보조사1: 만	41	에만	43	0.77	1	0.37	0	-	-	-
	42	으로만	31	0.56	-	-	-	2	0.57	50
	43	에서만	25	0.45	-	-	-	1	0.28	0
	44	에게만	7	0.13	-	-	-	-	-	-
	45	과만	1	0.02	-	-	-	1	0.28	0
	46	만큼만	1	0.02	-	-	-	-	-	-
	47	으로서만	1	0.02	-	-	-	-	-	-
	48	이라고만	1	0.02	-	-	-	-	-	-
	49	뿐만	92	1.65	6	2.2	16.67	28	7.92	21.43
	50	으로서뿐만	2	0.04	-	-	-	-	-	-
	51	으로뿐만	1	0.02	-	-	-	-	-	-
	52	까지만	7	0.13	-	-	-	-	-	-
	53	대로만	1	0.02	-	-	-	-	-	-
보조사1: 조차	54	에서조차	3	0.05	-	-	-	-	-	-
보조사1: 이나마/나마	55	으로나마	2	0.04	-	-	-	-	-	-
	56	에서나마	1	0.02	-	-	-	-	-	-
보조사1: 부터	57	에부터	1	0.02	1	0.37	100	-	-	-
보조사1: 요	58	가요	1	0.02	-	-	-	-	-	-
보조사2: 도	59	에도	301	5.4	15	5.5	66.67	21	5.94	52.38
	60	에서도	188	3.37	10	3.66	70	11	3.11	
	61	으로도	75	1.35	1	0.37	0	5	1.41	
	62	만으로도	3	0.05	-	-	-	-	-	-
	63	보다도	47	0.84	-	-	-	-	-	-
	64	과도	20	0.36	2	0.73	100	1	0.28	100
	65	이라고도	12	0.22	4	1.47	100	8	2.26	62.5
	66	에게도	10	0.18	-	-	-	5	1.41	40
	67	서도	3	0.05	-	-	-	-	-	-
	68	으로써도	2	0.04	-	-	-	-	-	-
	69	께도	1	0.02	-	-	-	-	-	-
	70	으로부터도	1	0.02	-	-	-	-	-	-
	71	으로서도	1	0.02	-	-	-	-	-	-
	72	한테도	1	0.02	-	-	-	1	0.28	100

	73	까지도	37	0.66	2	0.73	50	5	1.41	20
	74	에까지도	2	0.04	-	-	-	-	-	-
	75	에게까지도	1	0.02	-	-	-	-	-	-
	76	마저도	5	0.09	-	-	-	-	-	-
	77	밖에도	1	0.02	1	0.37	100	1	0.28	100
	78	조차도	2	0.04	-	-	-	-	-	-
	79	만도	1	0.02	-	-	-	-	-	-
보조사2: 은/는	80	에는	1918	34.41	198	72.55	69.19	138	39.04	71.01
	81	까지에는	3	0.05	-	-	-	-	-	-
	82	에서는	876	15.72	70	25.65	61.43	83	23.48	61.45
	83	으로는	362	6.49	12	4.4	41.67	20	5.66	85
	84	만으로는	17	0.31	-	-	-	-	-	-
	85	과는	120	2.15	2	0.73	50	-	-	-
	86	에서와는	2	0.04	-	-	-	-	-	-
	87	까지와는	1	0.02	-	-	-	-	-	-
	88	보다는	108	1.94	1	0.37	0	5	1.41	0
	89	에게는	37	0.66	1	0.37	0	2	0.57	100
	90	으로서는	28	0.5	-	-	-	-	-	-
	91	서는	11	0.2	-	-	-	-	-	-
	92	으로써는	6	0.11	-	-	-	-	-	-
	93	이라고는	2	0.04	-	-	-	-	-	-
	94	께서는	1	0.02	-	-	-	4	1.13	50
	95	서는	1	0.02						
	96	까지는	53	0.95	2	0.73	50	1	0.28	100
	97	부터는	12	0.22	-	-	-	1	0.28	100
	98	만큼은	2	0.04	-	-	-	1	0.28	100
	99	만은	24	0.43	-	-	-	-	-	-
	100	밖에는	1	0.02	-	-	-	-	-	-
보조사2: 이나/나	101	으로나	19	0.34	-	-	-	-	-	-
	102	에서나	13	0.23	-	-	-	-	-	-
	103	에나	7	0.13	-	-	-	-	-	-
	104	서나	6	0.11	-	-	-	1	0.28	0
	105	에게나	1	0.02	-	-	-	-	-	-
	106	만큼이나	1	0.02	1	0.37	0	-	-	-
	107	까지나	5	0.09	1	0.37	100	-	-	-
보조사2: 이야/야	108	에야	7	0.13	2	0.73	100	-	-	-
총합			5,319	95.55	341	124.98	65.4	356	100.66	60.39

2. 모어 화자와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비율

후행 조사	항목		모어 화자(설명문)			중·고급 학습자		
			빈도		중첩 비율	빈도		중첩 비율
			조사연속 구성체	후행 조사		조사연속 구성체	후행 조사	
구조격: 이/가(주격)	1	만이	67	12,332	0.54	1	2582	0.04
	2	으로만이	1	12,332	0.01	-	-	-
	3	에서만이	1	12,332	0.01	-	-	-
	4	까지가	1	12,332	0.01	-	-	-
	5	부터가	1	12,332	0.01	-	-	-
구조격: 을/를	6	만을	77	19,433	0.4	-	-	-
	7	까지를	1	19,433	0.01	-	-	-
구조격: 이/가(보격)	8	으로서가	2	1,173	0.17	-	-	-
	9	에서가	1	1,173	0.09	-	-	-
	10	으로가	1	1,173	0.09	-	-	-
	11	만이	12	1,173	1.02	1	90	1.11
	12	뿐만이	1	1,173	0.09	1	90	1.11
	13	에서만이	1	1,173	0.09	-	-	-
	14	뿐이	1	1,173	0.09	-	-	-
구조격: 의	15	에서의	142	17,039	0.83	4	1,029	0.39
	16	으로서의	109	17,039	0.64	-	-	-
	17	과의	89	17,039	0.52	6	1,029	0.58
	18	과의	1	17,039	0.01	-	-	-
	19	으로의	33	17,039	0.19	-	-	-
	20	에의	8	17,039	0.05	-	-	-
	21	으로부터의	6	17,039	0.04	-	-	-
	22	으로써의	2	17,039	0.01	-	-	-
	23	만큼의	1	17,039	0.01	-	-	-
	24	까지의	58	17,039	0.34	1	1,029	0.1
	25	만의	5	17,039	0.03	1	1,029	0.1
	26	부터의	2	17,039	0.01	1	1,029	0.1
	27	대로의	3	17,039	0.02	-	-	-
	28	마다의	2	17,039	0.01	1	1,029	0.1
의미격: 으로/로	29	에게로	3	10,149	0.03	-	-	-
	30	만으로	20	10,149	0.2	1	562	0.18
	31	까지로	3	10,149	0.03	-	-	-
의미격: 처럼	32	에서처럼	27	229	11.79	-	-	-
의미격: 과/와	33	에서와	18	2,137	0.84	-	-	-
	34	까지와	1	2,137	0.05	-	-	-
의미격: 보다	35	에서보다	3	447	0.67	-	-	-

의미격: 만큼	36	에서만큼	1	21	4.76	-	-	-
보조사1: 까지	37	에까지	25	613	4.08	-	-	-
	38	으로까지	8	613	1.31	-	-	-
	39	에게까지	1	613	0.16	-	-	-
	40	에서까지	1	613	0.16	-	-	-
보조사1: 만	41	에만	43	703	6.12	1	78	1.28
	42	으로만	31	703	4.41	2	78	2.56
	43	에서만	25	703	3.56	1	78	1.28
	44	에게만	7	703	1	-	-	-
	45	과만	1	703	0.14	1	78	1.28
	46	만큼만	1	703	0.14	-	-	-
	47	으로서만	1	703	0.14	-	-	-
	48	이라고만	1	703	0.14	-	-	-
	49	뿐만	92	703	13.09	34	78	43.59
	50	으로서뿐만	2	703	0.28	-	-	-
	51	으로뿐만	1	703	0.14	-	-	-
	52	까지만	7	703	1	-	-	-
	53	대로만	1	703	0.14	-	-	-
보조사1: 조차	54	에서조차	3	11	27.27	-	-	-
보조사1: 이나마/나마	55	으로나마	2	7	28.57	-	-	-
	56	에서나마	1	7	14.29	-	-	-
보조사1: 부터	57	에부터	1	379	0.26	1	73	1.37
보조사1: 요	58	가요	1	5	20	-	-	-
보조사2: 도	59	에도	301	2,433	12.37	36	93	38.71
	60	에서도	188	2,433	7.73	21	93	22.58
	61	으로도	75	2,433	3.08	6	93	6.45
	62	만으로도	3	2,433	0.12	-	-	-
	63	보다도	47	2,433	1.93	-	-	-
	64	과도	20	2,433	0.82	3	93	3.23
	65	이라고도	12	2,433	0.49	12	93	12.9
	66	에게도	10	2,433	0.41	5	93	5.38
	67	서도	3	2,433	0.12	-	-	-
	68	으로써도	2	2,433	0.08	-	-	-
	69	께도	1	2,433	0.04	-	-	-
	70	으로부터도	1	2,433	0.04	-	-	-
	71	으로서도	1	2,433	0.04	-	-	-
	72	한테도	1	2,433	0.04	1	93	1.08

	73	까지도	37	2,433	1.52	7	93	7.53
	74	에까지도	2	2,433	0.08	-	-	-
	75	에게까지도	1	2,433	0.04	-	-	-
	76	마저도	5	2,433	0.21	-	-	-
	77	밖에도	1	2,433	0.04	2	93	2.15
	78	조차도	2	2,433	0.08	-	-	-
	79	만도	1	2,433	0.04	-	-	-
보조사2: 은/는	80	에는	1918	16,326	11.75	336	541	62.11
	81	까지에는	3	16,326	0.02	-	-	-
	82	에서는	876	16,326	5.37	153	541	28.28
	83	으로는	362	16,326	2.22	32	541	5.91
	84	만으로는	17	16,326	0.1	-	-	-
	85	과는	120	16,326	0.74	2	541	0.37
	86	에서와는	2	16,326	0.01	-	-	-
	87	까지와는	1	16,326	0.01	-	-	-
	88	보다는	108	16,326	0.66	6	541	1.11
	89	에게는	37	16,326	0.23	3	541	0.55
	90	으로서는	28	16,326	0.17	-	-	-
	91	서는	11	16,326	0.07	-	-	-
	92	으로써는	6	16,326	0.04	-	-	-
	93	이라고는	2	16,326	0.01	-	-	-
	94	께서는	1	16,326	0.01	4	541	0.74
	95	서는	1	16,326	0.01	-	-	-
	96	까지는	53	16,326	0.32	3	541	0.55
	97	부터는	12	16,326	0.07	1	541	0.18
	98	만큼은	2	16,326	0.01	1	541	0.18
	99	만은	24	16,326	0.15	-	-	-
	100	밖에는	1	16,326	0.01	-	-	-
보조사2: 이나/나	101	으로나	19	192	9.9	-	-	-
	102	에서나	13	192	6.77	-	-	-
	103	에나	7	192	3.65	-	-	-
	104	서나	6	192	3.13	1	3	33.33
	105	에게나	1	192	0.52	-	-	-
	106	만큼이나	1	192	0.52	1	3	33.33
	107	까지나	5	192	2.6	1	3	33.33
보조사2: 이야/야	108	에야	7	18	38.89	2	2	100

3. 문어 통합 말뭉치와 설명문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

후행 조사	정규 빈도(1만)		합계	기대 빈도		검정 통계량	P-value	유의성여부
	설명문	문어 통합		설명문	문어 통합			
이/가[1]	1.27	1.28	2.55	0.01	0.01	0.01	0.9068	차이가 없음
을/를	1.4	1.2	2.6	127.88	93.62	221.5	0	차이가 있음
이/가[2]	0.32	0.49	0.81	6.2	15.04	21.24	0	차이가 있음
의	8.27	7.54	15.81	2,263.25	1,880.00	4,143.26	-	차이가 있음
으로/로	0.47	0.44	0.91	0.47	0.51	0.99	0.3208	차이가 없음
처럼	0.48	0.18	0.66	2.65	0.2	2.85	0.0912	차이가 없음
과/와[1]	0.63	0.09	0.72	10.12	0.09	10.2	0.0014	차이가 있음
보다	0.05	0.01	0.06	0.01	0.01	0.03	0.8703	차이가 없음
만큼	0.02	0.003	0.023	0	0.01	0.01	0.9155	차이가 없음
까지	0.63	0.76	1.39	10.12	15.02	25.13	0	차이가 있음
만	3.82	2.99	6.81	409.32	249.49	658.81	0	차이가 있음
조차	0.05	0.03	0.08	2.2	2.24	4.43	0.0353	차이가 있음
이나마/나마	0.05	0.09	0.14	1.45	1.37	2.82	0.0933	차이가 없음
부터	0.02	0.003	0.023	1.87	1.9	3.77	0.052	차이가 없음
요	0.02	0.02	0.04	0.01	0.01	0.02	0.8875	차이가 없음
도	12.81	15.42	28.23	775.05	1,129.25	1,904.30	-	차이가 있음
은/는	64.32	40.05	104.37	21,087.26	8,145.75	29,233.01	-	차이가 있음
이나/나	0.93	1.33	2.26	32.76	68.12	100.88	0	차이가 있음
이야/야	0.13	0.12	0.25	0.33	0.27	0.6	0.4373	차이가 없음

Abstract

Study on Teach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About Particle Combinations

Kim, Hyeji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se patterns of particle combinations based on the corpus of native Korean speakers and language learners and to propose key principles on how to incorporate particle combinations in language education. Particle combinations represent one of Korean's linguistic elements, in which many Korean language learners commonly make errors and use in a relatively limited way. However,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 rarely provides explicit explanation of the formation principles for particle combinations or their meanings and only exposes learners to sentences containing particle combinations. This suggests the need to provide more concrete content for particle combinations in education. In this study, analysis is confined to explanatory texts, while using the native Korean speakers' corpus from the 21st Sejong Morph-Sense Tagged Corpus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corpu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bout 108 particle combina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native speakers' corpus, and subsequently these were examined for structural type and particle sequence. The analysis confirmed patterns existing in the combinations with respect to the sequence of particles, which follow either "semantic case marker/conjunctive particle + auxiliary particle 1 + auxiliary particle 2" or "semantic case marker/ conjunctive particle + auxiliary particle 1 + structural case marker".

Among these particles, both semantic case marker and auxiliary particle 1 can appear in duplicate, one after another. As shown in the elaborated structures, three particles can appear together in each combination. Meanwhile, auxiliary particle 2 and structural case marker never appear together. This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phenomenon in which the case marker is omitted to avoid scope collision since both structural case marker and auxiliary particle 2 feature an extended scope.

As an additional step,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last particle in a combination often influences the "preceding noun + particle" as a whole or even beyond the sentence, the combination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type of last particles used－structural case marker, semantic case marker, auxiliary particle 1, and auxiliary particle 2. Subsequently, the semantic structures, idiomatic usage patterns,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of particle combinations are examined in terms of form, meaning, and use.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Korean language learners' use patterns only to discover many particle combinations they do not commonly use. In addition, learners make a wide range of errors in terms of form, meaning, and use, and there are certain patterns to their errors. First, in terms of form, they usually commit errors in the spelling of particles, choice of particles, substitution of particles with similar meanings, omission or overuse of particles related to a broad scope, and sequence of particles. Second, with regard to meaning, they are limited in using linguistic elements with a comparative meaning, while rarely employing idiomatic expressions. Third, with respect to use, the salient features of their errors involve written language use, formality, or omission of expressions of emphasis.

Therefore, in order to help Korean language learners reduce the incidence of such errors and improve the diversity of Korean language expressions they use, several principles are proposed on how to formulate education content. To share some highlights, first,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form, meaning, and use of particle combi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should be presented. Second, from the interlanguag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patterns of learner errors as elaborated in educational content. Third,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should be adopted in delivering such content. Specific teaching methods proposed include consciousness-raising in which learners are instructed to engage in activities to convert their knowledge of grammar items into communicative skills and provided with explicit explanations about grammar rules.

This study analyzes particle combinations based on the corpus of native Korean speakers and language learners, which are rarely addressed in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proposes principles on how to integrate appropriate related elements in education content. The findings and proposed principles are meaningful as they were derived from analyzing authentic corpus data. However, as this study does not cover an exhaustive list of particle combination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more particle combinations from other types of materials than explanatory texts and come up with sugges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 Korean language, particle combinations, corpus, frequency of use, scope, formation principles of particle combinations, consciousness-raising task

Student Number : 2013-31087